

2021

오픈 작품집
단막 하

유민정, 유수미, 이경완, 이이영
이찬영, 최보배, 최시은, 한연주



E

2021

오픈 작품집
단막 하

7	자전 소설	유민정
65	첫눈길	유수미
119	수상한 간병인	이경완
177	아파트는 아름다워	이이영
229	바벨 신드롬	이찬영
285	달콤한 나의 감옥	최보배
365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	최시은
409	목소리를 구분하는 방법	한연주

기획의도

과거 공포 영화를 즐겨 보던 시절 일본 영화 <링>을 본 기억이 있다. 많은 이들이 TV 화면 속 우물에서 기어 나오던 사다코 때문에 밤잠을 설쳤지만,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더 무섭게 느껴진 장면이 하나 있었다. 바로, 비디오 감상으로 전염되는 사다코의 저주를 피하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비디오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부모를 찾아가는 결말이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욕망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한다면 그 욕망 앞에서 가족도 결국엔 타인이 되지 않을까. 욕망과 희생의 관계. 가족과 타인의 관계. 그 속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등장인물

최성훈(34세, 남) 소설가

운 좋게 대학 졸업 전, 문예지에 당선돼 등단한 10년 차 소설가. 그러나 평생의 운을 등단에 쓴 건지 그 뒤로 내는 책마다 죽을 쑤는 중. 출판사에 취직한 대학 선배의 도움과 자소서 대필 등으로 연명하고 있다. 좋게 말하면 예술가고 현실적으론 현실감 없는 몽상가 성훈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소설가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혼자서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 하지만 3년 전 아버지 부영이 뇌출혈로 쓰러지며 소설가로서의 작업은 멈춘 지 오래다. 배운 거라곤 글쓰기밖에 없는데 다른 것을 할 자신도 없고, 호흠기를 끼고 누워 있는 아버지도, 결혼을 재촉하는 여자친구도 부담이 되는 상황. 결국 믿을 거라곤 본인의 재능뿐이라고 생각한 성훈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린 채 본인의 사연을 판다.

박강희(32세, 여) 프리랜서 기자

과거 한중일보 기자였으나 오보를 낸 뒤 한직으로의 좌천을 거부하고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 중. 정의로운 언론인이 되고 싶지만 음습한 성공을 꿈꾸는 하이에나. 화제의 책 〈자전 소설〉 작가 팬 사인회를 찾았다가 피해자 유족과 실랑이하는 성훈을 보고 냄새를 맡는다. 저 책을 파헤치면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을 밟고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으리라는 욕망의 냄새를. 미치도록 성공하고 싶어 하는 강희에게 드리워진 성훈이란 동아줄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다.

도혜운(34세, 여) 성훈의 여자친구, 한중일보 부고 담당 기자

성훈의 문창과 동기로 10년째 만나온 성훈의 여자친구. 현 한중일보 부고 담당 기자. 혜운은 성훈의 뮤즈다. 혜운을 만난 후 쓴 소설로 성훈이 등단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갖지 못한 천재성을 성훈에게서 발견했을 때부터 늘 성훈을 지지해왔다. 부모의 반대에도 곳곳이 성훈 옆을 지켰고, 드디어 10년 만에 성훈의 성공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믿었다. 그런데 성훈이 변해간다. 그간의 세월이 아깝고 불안하고 억울하다.

최부영(55세, 남) 성훈의 부

3년 전 뇌출혈로 식물인간 상태. 직업군인으로 지방을 전전했으나 2002년 아내의 실종, 2003년 성훈의 교통사고를 겪은 뒤 제대했다. 식물인간이 되기 전까진 재혼도 하지 않고 성훈을 홀로 키워냈다. 과거 아내의 실종과 관련된 묘연한 행적 탓에 구설수에 오른다.

여상철(53세, 남) 전직 형사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사라진 성훈 모의 실종이 미제 사건인 ‘월드컵 연쇄 실종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낸 형사. 그 사건으로 승진해 서울로 이동했다.

백수단(66세, 남) 노숙자

과거 사짜 냄새 풀풀 나는 사립 탐정. 아내의 실종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던 성훈 부 부영과 친하게 지내던 시기가 있었다.

그 외

김진구, 성훈 모 금숙, 진범 주장남, 피해자 모 희정, 마을 이장, 형사 도영, 편집장, 뉴스 앵커, 순자 할매, 용성각 사장 김 씨 등

줄거리

미치도록 성공하고 싶었다. 그래서 팔았다. 내 사연을

10년째 무명인 소설가 성훈은 식물인간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의 병원비와 10년째 사귀 여자친구 혜운의 결혼 압박을 받는다. 결국 작가로서의 자존심보다 세상에서 도태될 것이 두려워진 성훈은 자신이 갖고 있던 소재 중 가장 자극적인 이야기를 소설로 쓴다. 바로 19년 전, 성훈의 어머니가 피해자였던 미제 연쇄 실종 사건이다. 시신을 찾지 못해 실종일 뿐 누구나 연쇄 살인 사건으로 생각하는 그 사건을, 피해자 가족이 살인범의 시점에서 써낸 성훈의 소설은 화제가 된다. 한순간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성훈은 아버지를 VIP 병동으로 옮기고, 결혼을 반대하던 혜운 부모의 승낙을 얻어내지만 행복은 찰나였다. 소설 속 범인의 시체를 유기한 장소와 비슷한 장소에서 그간 찾지 못했던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신이 내린 천재인지 아니면 잡지 못했던 범인인지?

소설 속 디테일한 사건 및 피해자 묘사, 증거에 대한 언급 등으로 화제를 얻었던 성훈의 소설은 뜨거운 감자가 된다. 여론을 주도하며 성훈과 성훈 아버지의 과거 행적을 쫓기 시작하는 기자 강희. 성훈의 책은 미친 듯이 팔리지만 세간의 시선에는 의심이 섞인다. 성훈이 범인 혹은 범인과 관련된 인물이 아니냐는 것이다. 아무리 성훈 자신이 피해자 유족 중 한 명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해도 사람들은 보고픈 것만 보고 말하고픈 것만 말한다. 물론 억울하다고 하기엔 좀 의심쩍은 부분들이 있긴 했다. 실종 사건이 일어난 지역과 사건 시기가 직업군인이었던 성훈 아버지의 이동과 겹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성훈의 짓이 아니라면 성훈 부의 소행일 수도 있다며 화살을 돌린다.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 실종 후 일까지 그만두며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에게 대한 모독이었다.

아버지의 방에서 발견한 노트 한 권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성훈은 아버지에 대한 의혹을 풀어 아버지의 무죄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로 한다. 사건을 파고들던 성훈은 아버지가 과거 실종 사건들을 조사해 기록해놓은 노트 한 권을 발견한다. 노트를 열고서 놀라는 성훈. 자신의 창작이라 믿었던 소설 내용이 전부 그 노트 안에 적힌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린 시절 보았던 노트의 기억을 본인이 상상으로 만들어냈다고 착각했음을 깨닫는 성훈. 더 나아가 이 노트가 아버지의 범죄 수기인지 실종된 어머니를 찾기 위한 기록인지를 두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괴로워하는 성훈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혜운은 우연히 그 노트를 보게 되지만 자신에게 그 어떤 진실도 말하지 않는 성훈에게 실망하여 이별을 선언한다.

원하는 것 모두를 얻을 순 없고, 결국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이별의 아픔보다 아버지의 무죄 입증에 더 중요하다 생각한 성훈은 어머니 실종 당일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나선다. 갖은 노력 끝에 결국 아버지가 범인이 아니란 증거를 찾는 데 성공하는 성훈. 이제 세상에 공표할 일만 남았다 생각한 순간, 숨겨왔던 노트의 존재가 세상에 폭로되고 성훈의 도덕성과 소설가 생명에 적신호가 켜진다. 거기다 혜운의 임신 소식까지 듣게 되는 성훈. 아버지의 노트와 증거를 공개하면 아버지는 무죄가 되지만 성훈 자신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성훈은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자전 소설 유민정

#1. 대형 서점 내부(낮)

국내 소설 섹션을 훑는 성훈의 손.

책장 제일 아래 칸 구석에 꽂힌 책 <살아진다> 빼내 책 열면.

INSERT

작가 약력에 실려 있는 옛된 얼굴의 성훈 사진.

‘199X년 출생.

직업군인인 아버지를 따라 충북 보은, 영동을 가로질러 경기도 이천에 안착.
201X년 대학 재학 중 DD 문예지 소설 부문 당선으로 촉망받는 신예 작가.’

책 덮으면 사진보다 나이 든 현재의 성훈 얼굴 보인다.

다시 제자리에 책 꽂으려다 ‘화제의 책’ 간판 꽂힌 부스에 주변 눈치 보며 자신의 책 올리는 성훈. 다른 책을 읽는 척하며 사람들이 그 책 주변으로 다가올 때마다 의식한다. 한 젊은 남자, 무심하게 책 구경하다 성훈 책에 손 가져가지만 이내 옆으로 치우고 다른 책을 구경한다. 실망하는 성훈.

#2. 대형 서점/계산대 앞(낮)

계산대 위에 놓인 책 세 권. 그중 제일 위에 놓인 성훈의 책.

점원 정지된 카드라는데요.

성훈 잠시만요. (지갑 열면 만 원 지폐 2장뿐) 저기 죄송한데 책 좀 빨게요.

제일 위 자신의 책을 빼려다 잠시 망설이는데 옆에서 카드 내미는 손.
한중일보 기자 ID 카드 목에 건 혜운 보인다.

혜윤 (성훈 옆에 서서) 이걸로 계산할게요.

#3. 분식점(저녁)

단정한 투피스 차림의 혜윤이 라면 그릇에 거의 코를 박고 흡입 중이다.
반면 건너편 성훈의 라면 그릇은 좀처럼 줄지 않고.

성훈 (옆자리에 놓아둔 서점 쇼핑백 내려다보고) 값어치.

혜윤 당연하지. 이거 투자야. 최성훈이 국내 작가 1등 먹으면 그때 이자까지 받을 거거든. 자기야. 그거 안 먹을 거면 나 줘. 점심에 프렌치 먹었더니 느끼해 죽겠어.

성훈 (라면 그릇 밀어주며) 취재?

혜윤 (태연하게) 선봤어. 아빠가 하도 난리 쳐서.

성훈 (한동안 입 못 열다) 그랬구나... 아버님도 오래 참으셨지.
너도 그렇고. ...잘했어.

혜윤 (물끄러미 보다) 10년 사귀면 남자친구가 선 봤다고 칭찬해주네.

성훈 (아무 말 없이 혜윤 앞 그릇 응시한다)

혜윤 화도 안 나? 나쁜 년이라고 화도 내고, 우리 아빠 욕도 하고.
아니면 바랬어? 내가 먼저 나가떨어지는 거?

성훈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내 현실이 그렇잖아.

혜윤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네 자존심이 문제지. 한 번이라도
솔직할 순 없어? 힘들면 힘들다. 네 도움 필요하다! (한숨) 됐다.

화난 몸짓으로 짐 챙겨서 분식집 나가는 혜윤. 묵묵히 앉아 있는 성훈.

#4. 고깃집(밤)

자욱한 연기 사이로 원형 테이블 대여섯 개 보이고.
안쪽 테이블에 술 거나하게 취한 편집장, 친구, 성훈.

편집장 자존심이 밥 먹여줘? 서점에 꽂혀봤자 아무도 안 집어 가는 책 그거
환경 오염이고 펄프 낭비야. 읽힐 걸 써야지.

친구 (빈 잔에 술 채워주며) 예, 예. 그래도 편집장님. 우리가 서운대 문창
의리가 있지. 참을 인도 세 번이라는데 한 작품만 더.

편집장 (O.L.) 한 작품 더? 그래 좋아. 근데 팔릴 만한 걸 갖고 오라 이거지.
(묵묵히 이야기 듣고만 있는 성훈 흘기며) 굶기지 못하면 꺾이는
세상이야. 작품성이 밥 먹여줘? 최 작가. 김 대리한테 들으니까
아버지도 편찮으시다며. 효도 안 할 거야? 그러다 돌아가시면
후회한다?

성훈 (희미한 미소) 예... (테이블 밑에서 팍 쥐는 주먹)

#5. 고깃집 밖(밤)

떠나는 택시에 꾸벅 인사 중인 성훈과 친구.

친구 (성훈 툭 치며) 잘 참았다.

성훈 고마워 선배.

친구 저번에 내가 한 말은 생각해봤냐? (성훈, 무슨 말이냐는 듯 보면)
우라카이[†]. 누가 일부러 백까지 다 베끼래? 솔깃한 것만 따라 쓰고
다른 건 내가 채워 쓰면 되잖아.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딨다고.

성훈 (어두운 표정) 그만해요.

친구 내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냐? 아니, 서운대
문창의 자랑, 천재 소리 듣던 내 후배 어디 갔냐구요.
일단 아무거나 써보라니까? 기왕이면 사람들 낚을 수 있게
자극적이고 시선 뺏 가는 걸로?

성훈 내 스타일 아니야.

친구 스타일은 개뿔. 눈 깜빡하면 마흔인데 지금 남은 선택지가 몇 개
없어요. 나처럼 자기 한계 인정하고 깔끔하게 절필하거나 노랑진에

†) 신문이나 방송계에서 쓰는 은어로, 남의 것을 살짝 바꿔서 자기 것처럼 내는 것을 말함.

들어거든가.

성훈 (고개 돌리면)

진구 베끼는 거 싫어? 그럼 너 잘 아는 거. 네 얘기 양념 치면 되잖아.
너 교통사고 당해서 죽다 살아난 거나, 어머니 집 나가신 얘기가.

성훈사연 팔이 싫다니까.

진구 현실 좀 살자. 혜운이랑 결혼은 둘째 치고, 아버지는 어떡할래?
아픈 양반들이 요즘은 더 오래 살아. 너 아버지 수발 평생 들 수 있어?

성훈 먼저 가요.

돌아서는 성훈을 보는 진구 표정, 좋지 않다.

#6. 성훈 원룸(밤)

한눈에 들어오는 성훈의 작은 원룸.

낮은 책상과 반대편엔 책이 가득 꽂혀 있는 책장과 방구석에 놓인 매트리스.
책상 앞에서 노트북 켜 채 멍하니 앉아 있는 성훈의 뒷모습 보인다.

노트북 너머 벽에 붙여진 사진들.

어린 시절 부모님과 성훈의 가족사진, 문예지 신인상 시상식에서 아버지
부영과 함께 찍은 사진, 대학 졸업식 때 학사모를 쓴 부영 옆에서 웃고 있는
옛된 얼굴의 성훈과 혜운 사진들.

그 아래로 뇌출혈, 뇌사, 식물인간과 관련된 책 몇 권 쌓여 있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성훈. 핸드폰 화면에는 카드 미납, 연체 문자,
요양병원 병원비 미납 문자 아래로 새로운 메시지 보인다.

‘자소서 대리작성 글 보고 연락드립니다. 모레까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쓴 뒤 전송 버튼 누르는 걸 잠시 망설이던 성훈,

핸드폰 끄면 보이는 배경화면. 행복한 얼굴의 혜운과 성훈의 사진이다.

물끄러미 핸드폰 내려다보던 성훈, 벌떡 일어나 집을 나선다.

#7. 혜운의 빌라 앞(밤)

외딴 빌라 앞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성훈.

통명스러운 얼굴로 건물에서 나오는 혜운이 성훈 보고 한숨 쉰다.

혜운 스토커세요? 연락도 안 하고 집 앞에서 밤새 서 있기만 할 거야?

혜운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어깨에 기대는 성훈.

“미안” 작게 말한다.

혜운 오늘 지나기 전까지 연락 없으면 진짜 헤어지려고 했어.

성훈 어.

혜운 근데 정말 딱 이번까지만 용서해줄 거야.

성훈 ...어.

가로등 아래, 자신에게 기댄 성훈의 등을 토닥이는 혜운의 손.

#8. 주택가(밤)

혼자 터덜터덜 걷고 있는 성훈.

편집장(E) 최 작가. 굶히지 못하면 꺾이는 세상이야. 아버지도 편찮으시다매.

진구(E) 일단 뜰 만한 거 아무거나 잡아서 써보라니까?

베끼는 거 싫어? 그럼 네가 잘 아는 거. 네 얘기 양념 치면 되잖아.

(E) 자동차 클랙슨 소리 들리고

생각에 잠긴 채 걷고 있던 성훈.

뒤늦게 소리 듣고 고개 들면 눈앞에 보이는 자동차 불빛,

피하지 못하고 눈 질끈 감는데

FLASH CUT

2톤 트럭이 달려오는데 하얀색 스프링 노트 들고 뛰어오던 어린 성훈(13세),
어딘가 쫓기듯 뛰다가 마주 오는 트럭 보고 몸이 굳어버린다. 공포에 찬
성훈 얼굴에서 성훈 손에 든 노트 표지에 그려진 바퀴벌레 CLOSE UP.
급정거하는 자동차 타이어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울리는 클랙스.
번쩍 눈 뜨는 현재의 성훈이 무언가에 홀린 듯이 뛰기 시작한다.

#9. 성훈 원룸(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성훈의 뒷모습.

성훈 너머 보이는 노트북 모니터 화면 속 인터넷 브라우저에 떠 있는 창 하나.

INSERT

‘월드컵 연쇄 실종 사건’이라고 적힌 인터넷 백과사전 화면.

‘충북 보은, 영동, 경기도 이천 일대에서 발생한 미제 실종, 살인(추정) 사건’

‘1994 미국 월드컵(1994. 6. 30.), 1998 프랑스 월드컵(1998. 7. 10.), 2002
한일 월드컵(2002. 6. 18.) 개최 기간 중 젊은 부녀자가 납치, 실종된 사건이다.

살인 사건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피해자들의 마지막 목격장소에서 발견된
대량의 혈흔과 피해자 의류 등에 범인이 남긴 특이한 매듭 모양 때문이다.’

‘그러나 시신과 진범을 찾지 못한 채 1994, 1998년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났으며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2002년 범죄 시효만 유효한 상태이다.

충북에서 일어난 과거 실종과 달리 2002년의 피해자 실종은 경기도에서
발생하여 연관성이 없는 듯했으나, 혈흔이 묻은 피해자의 스카프 반쪽이
뒤늦게 발견되며 동일범 또는 모방범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3차 피해자의 경우 실종 전 남편과 다툼이 있었다는 마을 주민의 증언,
당시 알리바이를 입증 못 한 미심쩍은 행동 등으로 남편이 의심 선상에
올랐으나 확실한 물증을 찾지 못한 채 의혹 상태로 종결되었다.’

스크롤 내리면 ‘실종자를 찾습니다’라는 전단지 속 피해자들 몽타주와 설명.

‘— 1차 피해자(23세, 여) 박XX (실종 지역: 충북 보은)

가름한 얼굴에 파란 줄무늬 스카프 두른 인상착의.

실종 당시 상의는 갈색 후드티, 하의는 청바지.

평소 뒷목에 태그가 달는 것을 싫어해 제거하고 입었음. 하교 귀갓길에 실종.’

‘— 2차 피해자(29세, 여) 고OO (실종 지역: 충북 영동)

긴 머리에 팔자 눈썹, 안경 상시 착용, 커다란 링 귀걸이 한 인상착의.

야근 후 퇴근길 실종. 마지막 목격장소는 동네 인근 버스 정류장.’

‘— 3차 피해자(35세, 여) 문△△ (실종 지역: 경기도 이천)

짧은 파마머리, 입가에 점.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탈리아전이 있던 6월 18일
실종. 마지막 목격장소는 본인의 집. 마지막 목격 시간 19시 40분경.’

성훈, 책상에 꽂힌 일기장 한 권 꺼내 열면 사이에 끼어 있는 3차 피해자 실종
전단지. 벽에 붙은 어린 시절 성훈의 가족사진 속 엄마와 같은 얼굴이다.
망설이던 성훈, 입으로 “자극적”이란 말을 중얼거리다 키보드를 친다.

INSERT

노트북 화면 속 한글 문서 창에

‘살인은 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났다. 그게 누군지는...’ 까지 쓰였다가 글 다시
지워지고 성훈의 “자극적”이란 중얼거림과 함께 다시 쓰이는 글자.

‘나는 살인범이다.’

타이틀. <자전 소설>

#10. 출판사/편집부(낮)

편집장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A4 용지 묶음,

제일 윗면엔 <자전 소설>이란 제목.

편집장 (설렁설렁 종이 넘기며) 미제로 남겨진 연쇄 실종 사건이 사실은 살인 사건이고 이걸 범인이 고백한다? (맞은편 성훈 보며) 이거 실화지?

성훈 예. 월드컵 실종 사건이요.

편집장 재밌네. 디테일도 좋고, 범인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결말도 괜찮고.

성훈 (기대 어린 표정으로 옆에 있는 친구와 눈빛 교환한다)

편집장 (책상에 종이 내려놓으며) 근데 거기서 끝. 요즘 이런 소설 서점 가면 넘쳐나. 심지어 제목들도 비슷해요. (손가락으로 세며) 범인의 고백, 이제야 말할 수 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 나는 범인이로소이다.

친구 (옆에서 눈치 보다) 그래도 재밌던데요.

편집장 매력은 별개지. 서점에 널린 책 중에서 이 책을 집을 셀링포인트는?

성훈

편집장 그리고 실화 바탕이면 피해자 쪽에서 가만있겠어? 살해된 걸로 추정돼도 시체도 못 찾았는데. (기지가 켜며) 고생했는데 고생만 했네.

친구 편집장님...

성훈 제가... 그 피해자 가족이면요?

친구 (성훈 보며) 뭐 소리야. 그 사건 피해자 말하는 거야? 월드컵?

성훈 (고개 끄덕인다)

편집장 그러니까 최 작가가 월드컵 사건 피해자 가족인데 그걸 범인 시선에서 써본 거다? (다시 종이 들추며)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지금 말할까.

성훈 그거면 될까요? 독자가 이 책을 집을 이유.

편집장 (성훈 보며) 아까보단?

#11. 출판사/회의실(낮)

친구 (앉아 있는 성훈에게 커피 건네며) 미안하다.

성훈 (무슨 말인가 싶어 친구 보면)

친구 난 너희 어머니 그냥 단순 가출하신 줄 알았지. 미안하게...

성훈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선배가 어떻게 알았겠어.

(애써 밝게) 선배. 나 이거 잘 돼야 혜운이랑 결혼할 수 있다. 알지?

친구 당연한 얘길 하고 있냐. 짜식. 할 수 있으면서 빼기는.

성훈 선배. 근데 책 표지 있잖아. 생각해둔 게 있는데...

#12. 대형 서점 내부(낮)

자막 - '3개월 뒤'

찌부러진 벌레 한 마리가 그려진 성훈의 책 <자전 소설> 단독 부스.
 '올해 최고의 화제작'이란 피켓과 함께 성훈의 다른 책들도 보인다.
 '최성훈 작가 <자전 소설> 50만 부 판매 기념 팬 사인회'라고 쓰인 플래카드.
 사인회 줄에 서 있는 독자들 옆에서 사인회 현장을 영상으로 찍는 강희.
 긴장한 얼굴의 성훈이 정성스레 책에 사인하고 악수 청하는 독자와 악수한다.

친구 (성훈 뒤에서 마지막 독자 사인 끝난 것 확인하고) 오늘 최성훈 작가님 사인회 종료합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어색하게 일어서는 성훈.

#13. 대형 서점/엘리베이터 안(낮)

지친 듯 벽에 기대는 성훈. 성훈이 받은 선물과 꽃 등을 품에 안은 친구가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겨우 누르고 서서히 닫히는 문.
 그때 "잠깐만요"라며 닫히는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강희.
 살짝 인사하고 성훈 옆에 선다.

친구 (성훈 보며) 최 작가님. 한잔할까?

성훈 혜운이랑 약속 있어.

강희 그분이 최성훈 작가님 뮤즈 맞죠?

강희 쪽을 돌아보는 성훈과 친구.

강희 (〈자전 소설〉 책 들어 보이며) 앞에 ‘나의 뮤즈 HY에게’라고 적혀 있던데. (악수 청한다) 책 잘 읽었습니다. 동신문학상, 올해의 작가상 수상도 축하드려요.

성훈 아... 감사합니다.

강희 출간하자마자 3개월째 베스트셀러 랭크 인인데 기분은 어떠세요?

친구 실례지만 누구...

강희 (명함 꺼내 성훈에게 건네며) 박강희 기잡니다.

영겁결에 명함 받는 성훈.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라고 적혀 있는 강희의 명함.

강희 공간에는 범행 당시 내용이나 피해자 인상착의 등이 너무 디테일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나요?

성훈 그게 무슨.

강희 이 소설이 진짜 범인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의혹?

친구 (성훈 손에서 명함 가져가며) 인터뷰는 정식으로 출판사에 요청하시면 답장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 그럼 수고하세요.

성훈을 데리고 나가는 친구. 사라지는 성훈 쪽 바라보는 강희.

#14. 대형 서점/지하 주차장(밤)

급한 걸음으로 친구의 소형차 향해 걸어가서 성훈과 친구.
그때 성훈 앞을 가로막고 책 들이미는 초췌한 얼굴의 희정(58세, 여).

친구 아이고, 어머님. 사인회는 끝났는데.

성훈 (친구 저지하며) 괜찮아, 선배. (펜 꺼내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희정 박준서. (사진 한 장 내민다)

파란색 줄무늬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는 안경 낀 20대 초반 여성의 사진.

희정 나 박준서 엄만데.

성훈 네?

희정 월드컵 실종 사건 첫 번째 피해자, 박준서 엄마라구요. 내가 출판사에 계속 연락하고 그랬는데 답장도 없고. (성훈 향해) 그쪽 말대로라면 우리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건데. 그럼 그 장소가 어딜까요?

성훈 예?

희정 너무 똑같잖아... (책 펼쳐서 보여주는데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이 잔뜩이다) 여기! 우리 딸 없어진 날 뱃던 가방 얘기도 그렇고.

친구 아, 저기 어머님? 저희가 좀 바빠서요.

희정 (다른 페이지 펼치며) 그리고 이건? 후드티가 양면인 건?

성훈 실종 당시 후드티 입고 있었다고 신문이나 뉴스에. 그냥 소설이예요. 실화 바탕 소설. 제 창작이요.

희정 (책 들이밀며) 여기 쓰여 있잖아요. 파란색 줄무늬 스카프를 한 여자는 차갑게 식어간다. 여자가 메고 있던 검은 배낭을 뒤집어본다. 태그가 잘린 가방 안에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허탕이었다!

성훈 본인이 인터뷰하셨잖아요. 따님분이 택 닿는 느낌을 싫어해서 항상 택을 잘랐다고.

희정 얘기 안 했다니까! 나는 가방 안에 택도 잘랐다는 말 한 적이 없다고!

성훈 !

희정 택 자르는 버릇 있다고 말했지만! 가방 속 택까지 잘랐다는 건 경찰한테만 말한 건데 그건 어떻게 알았는데요? 후드티 입었다고 했지 그게 양면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고? (성훈 붙잡고) 나 우리 애 못 본 지 27년째예요. 개 없어지고 전국에 안 찾아본 데가 없다가요. 내 딸 묻은 데 알면 제발 알려주세요. 네?

성훈 (희정 손 떼어내며) 그냥 제가 상상하고 추리해서 쓴 겁니다.

희정 마을 뒷산 맞아요? 책 보면 뒷산에 묻은 거 같은데 나 거기 다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 마을 사람들 묘나 몇 개 있는 게 다라구요.

성훈 진짜 모른다니까요.

희정 공소시효도 지났잖아요. 범인이어도 모른 척할 테니까 제발!

성훈 범인 아니고 몰라요. 모른다구요! 정 그러면 무덤도 다 파보시든가요!

성훈, 희정의 팔을 세게 뿌리치면 바닥에 쓰러지는 희정.
급한 걸음으로 차에 타는 성훈. 당황한 친구가 희정을 잠시 보다가 결국 차에 오른다. 타이어 소리 내며 빠른 속도로 주차장 벗어나는 자동차.
바닥에 떨어진 성훈의 책을 주우려 급히 손 뺀 희정보다 먼저 책 잡는 손.

강희 (희정 향해 손 내밀며) 괜찮으세요?

#15. 도로/차 안(밤)

운전 중인 친구 옆에서 바깥 풍경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 성훈.

친구 (성훈 눈치 보며) 근데... 아까 그 아줌마가 말한 거 진짜야?
성훈 (뭔 말인가 싶어 친구 쪽 보면)
친구 아니. 그... 디테일 말이야. 안경이랑.
성훈 자료 조사, 나머지는 상상. 만약 겹치면 우연의 일치겠지.
친구 그...그렇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맞다! 편집장님이 다음 작품 빨리 준비하자고 하시던데. 생각한 거 있어?
성훈 (심드렁한 얼굴) 나중에 내가 따로 연락드릴게. (눈 감는다)

#16. 레스토랑(밤)

멋진 야경이 보이는 창가 쪽 테이블.
테이블 아래서 반지 케이스 만지작거리던 성훈, 혜운의 헛기침 소리 들리자 정신 차린다. 턱 괴고 성훈 보고 있는 혜운의 표정, 웬지 기대에 차 있다.

성훈 (딱딱한 말투로) 혜운아. 나랑 만난 10년 동안 고생 많았어. 딱딱한. 내 인생이 너를 만나고 달라졌어. 나랑. 그러니까 나랑. 겨... 겨...

웨이터(E) 주문하신 와인 나왔습니다.

분위기 깨지고, 당황한 성훈이 어색한 손짓으로 부산스럽게 행동한다.
웨이터 떠난 후에도 똑딱대는 성훈 보다가 와인 원 샷 때리는 혜운.
한숨과 함께 의자 옆에 놓아둔 캐리어를 성훈 쪽으로 민다.
성훈, 아무 생각 없이 캐리어 열면 가방 안 가득 들어 있는 (자전 소설).

혜운 (A4 종이, 성훈에게 건네며) 여기 이름들 다 적어서 사인해.
성훈 (종이 받아 확인하며) 자기 지인들이야? 신문사 사람들?
혜운 (살짝 쪽팔린) 아빠 지인들. 사위 자랑한다고 사인받아 오래.
성훈 아... 아버님이. (놀란 얼굴) 나 통과했어?
혜운 그래. 이 글만 잘 쓰는 고구마야. (성훈 향해 손 뺀다) 내놔.
(뒀 소리나는 얼굴의 성훈에게) 네 주머니에 있는 내 거.
성훈 아. (다시 주머니에 넣어둔 반지 케이스 꺼내 혜운에게 준다)
혜운 (성훈, 살짝 흘려보며) 프리포즈를 기대한 내가 바보지. 다음 주에 아빠 볼 땐 정신 챙겨! (케이스 열어보며 픽 웃는다)
성훈 (혜운 따라 웃지만 아직 믿기지 않는 얼굴)

#17. 성훈의 침실(밤)

이전 성훈의 원룸 크기의 침실. 한 침대에 곤히 잠들어 있는 성훈과 혜운.
계속되는 핸드폰 울림에 자고 있던 성훈이 더듬거리며 핸드폰 찾는다.

성훈 (눈 감은 채 핸드폰 귀에 대며) 네.
친구(F) (급하게) 야! 성훈아! 지금 큰일 났어!
성훈 왜, 선배. 나 지금 자니까 좀 있다가.
친구(F) 시신! 시신 발견됐대! 첫 번째 피해자! 빨리 TV 틀어봐!

부스스한 모습의 성훈, 침대 옆 협탁에서 리모컨 찾아 TV 켜면
'뉴스 속보 - 월드컵 실종 사건 첫 번째 피해자 시신 발견' 자막 보이고

#18. 교차. 뉴스 앵커 스튜디오+피해자 시신 발견 현장(낮)

뉴스 화면.

자막. ‘속보. 1차 피해자 시신 발견에 이어 2차 피해자 시신 발견’

앵커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월드컵 연쇄 실종 사건 1차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지 3일 만에 2차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장원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장원 기자.

화면 분할되며 야산에 둘러진 폴리스라인과 그 앞에 선 기자(여).

기자 저는 지금 23년 만에 발견된 월드컵 실종 사건의 2차 피해자 시신 발견 현장에 와 있습니다.

앵커 거기가 정확히 어딘가요?

기자 이곳은 두 번째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와 인접한 야산입니다. 그곳에 위치한 봉분을 수색한 결과 안에 묻힌 피해자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긴 시간 동안 찾지 못하다가 이제야 찾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기자 시작은 3차 피해자 가족인 최 모 씨의 소설 ‘자전 소설’ 때문이었습니다. (책 들어 보이며) 주인공을 진범으로 설정한 작품 속 범죄 내용과 시신 유기 장소 묘사가 굉장히 자세했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은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소설 속 유기 장소를 추정 및 수색한 결과, 시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픽션으로 쓴 작품 내용이 실제와 일치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향후 조사를 위해 소설을 쓴 최 모 씨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 몽타주

1)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화면

— 최성훈 관련 검색어에 자전 소설, 월드컵 실종 사건, 최성훈 진범 등이 연달아 보이고, 그 밑에 인터넷 기사들.

‘올해 화제의 작가 최성훈에게 닥친 의혹, 그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공표되지 않은 범행 디테일을 아는 천재 작가 책엔 문제가 있다?’

‘동신문학상,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최성훈 작가 수상 보류 뜻 밝혀’

2) 기사 댓글 화면

압도적인 ‘화나요’, ‘싫어요’ 수치.

‘OO: 책 안 봤지만 작가가 범인임. 지가 죽여놓고 뜯려고 썰푼거 100퍼~’

‘천지분간: 이 작가 1994년에 미취학 아동인데 그럼 살인 신동???’

‘SUS펜스: 요즘 애들 얼마나 무서운데. 미자라고 사람 못 죽인단 법 있나..’

‘kkkkk: 책 재밌었는데 갖다 버림 — 작가 절필해라’

‘셜록: 헐 잠깐마. 작가 데뷔 소설에 직업군인인 아버지를 따라 총복 보는, 영동을 가로질러 경기도 이천에 안착이라고 적혀 있음!!!!’

3) 온라인 서점 순위 화면

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랭크된 ‘자전 소설’ 옆에 ‘2주째!’라는 마크 붙어 있다.

성훈(E) 아니라고요. 아니라니까요!

#20. 경찰서/형사과 사무실(낮)

답답해하는 성훈과 대조적으로 심드렁한 얼굴의 형사 도영(35세, 남).

성훈 책 속에서 장소가 특정된 것도 아니고 디테일이야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라구요. 그리고 저도 피해자예요!

도영 예, 예. 근데 의심스런 정황들은 있죠. 외부에 나가지 않은 정보까지 너무 세세하게 담겨 있으니까.

책상 위에 올려지는 피해자의 증거품 사진1.
가방 안쪽 태그가 잘려져 있는 검은 가방에 흠이 묻어 있다.

도영 첫 번째 피해자 박준서 씨의 경우, 실종 당시 들고 있던 가방 안 태그를 제거한 건 비공개 증건데 선생님 책에서도 그게 언급됐지요?

억올해 미칠 것 같은 성훈은 신경 쓰지 않고 두 번째 사진 내려놓는 도영.
증거품 사진2. 깨진 안경 사진.

도영 두 번째 피해자 고수림 씨도 그렇죠? 시력이 짹짹이란 소린 안 했는데 선생님 책에선 (책 보여주며) 78페이지에 범인이 안경 써보곤 짹짹이라고 욕하는 거 있고? 또 박준서 씨 어머니한테 그랬다면서요. 무덤이라도 파보라고. 근데 실제로 거기서 발견했고.

성훈 (지친 표정) 그 사건 마지막 피해자가 저희 엄만 건 알고 계시죠?

도영 (무심하게) 예. 근데 최성훈 씨 아버님이 과거에 직업군인이셨죠?

성훈 (갑자기 바뀐 화제가 미심쩍은 표정) 예.

도영 아버님 92년도 근무지가 충북 보은. 5년 뒤에 영동 쪽으로 전근했고. 2002년 6월 18일엔 휴가를 내서 가족이 살던 이천 쪽에 잠깐 왔고.

성훈 지금... 무슨 말을...

도영 (성훈 똑바로 보며) 아버님일 가능성은요?

굳어버린 성훈의 얼굴.

#21. 경찰서/형사과 앞 복도(낮)

형사과 사무실을 나서는 성훈이 걸음 옮기려는데 강희가 앞에 서 있다.

강희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번에 서점에서 봤는데.

성훈 (무시하고 지나치며) 취재 안 합니다.

강희 저 목격자 증언하러 온 건데요? 첫 번째 피해자 시신 첫 발견자.

그 말에 강희 돌아보는 성훈. 무표정하게 다시 걸어가기 시작한다.

강희 어제 국민 청원 뒀던데 보셨어요?

인간성을 저버린 작가의 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 청원.

성훈 상관없는 우연입니다.

강희 아~ 그러시구나. 미공개 증거품들이 소설 속에서 똑같이 언급되고, 시신 발견 장소도 똑같은데 우연의 일치구나. 로또 사셔야겠는데요?

#22. 경찰서 앞 계단(낮)

무시하고 걸어가는 성훈 뒤를 계속 따라오는 강희

강희 직업군인이던 아버지 따라 살았던 곳이 공교롭게도 실종 사건이 일어난 곳 근처에, 작가님 어머니 돌아가신 후엔 아버지가 군인을 그만두고 이천 정착. 그 후로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것도 다 우연이겠죠? 주택 복권도 사셔야겠다.

성훈 (걸음 멈추고) 용건이 뭘니까.

강희 일단은 소소하게 제 유튜브에서 단독 인터뷰?

성훈 사절입니다. (자리 뜨려는데)

강희 이러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너무 똑같잖아요. 꼭 그 상황을 목격한 것처럼.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합리적 의심.

성훈 (강희 향해 성큼 다가서며) 이봐요.

그때 급하게 들어오는 경찰차 한 대.

두 사람 동시에 고개 돌리면, 기자단이 차를 둘러싸고 있다.

차 문 열리면 걸음을 머리까지 덮어쓴 남자와 형사를 내린다.

터지는 플래시.

강희 (옆에서 뛰어가던 기자 붙잡고) 뭐예요?
기자 월드컵 진범이 자수했다는데?

입 다물지 못하는 강희를 뒤로한 채 싸늘한 눈빛으로 자리 뜨는 성훈.

#23. 요양병원 VIP 병실(황혼)

병실 내부.

식물인간 상태의 부영과 물수건으로 부영 손 닦아주고 있는 성훈.

성훈 아버지. 엄마 그렇게 만든 진범이 잡혔대요. 잘됐죠?
조만간 엄마도 찾으면 좋겠다.
그땐 우리 아버지도 깨어나면 좋을 텐데.

#24. 고급 아파트 외경(밤)

#25. 아파트 지하 주차장(밤)

신형 외제 차에서 내리는 성훈의 앞을 막는 강희.

성훈 (지겨운 표정) 취재 안 합니다.
강희 업데이트가 느리시네. 진범 아닌 거 같대요, 아까 그 사람.
성훈 (강희 보면)
강희 1, 2차 때 지역 겹치는 건 맞는데 딱히 증거도 없고. 아무래도 3차 시신 위치 가지고 다른 형 집행을 늦추려고 하나 봐요. 작가님도 신경 쓰이시죠? 다른 유족들처럼 시신이라도 찾으면 좋을 텐데.

성훈
강희 그런데 작가님. 제가 밖에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작가님 어머니 실종 당일 작가님 아버지 알리바이가 없었다든지? 1, 2차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야산에 삼을 들고 올라가던 작가님 아버지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든지?
성훈 !!!
강희 (자기 명함 성훈 차 앞창에 꽂으며) 인터뷰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26. 호텔 중식당 룸(저녁)

손목시계 7시 5분 전 가리키고, 4명분의 세팅이 되어 있는 테이블.
혼자 기다리고 있는 성훈 앞 테이블 위, 꽃다발과 양주 포장한 쇼핑백.
문 열리면 벌떡 일어나는 성훈. 들어오는 건 혜운 혼자다.

혜운 미안. 아빠가 갑자기 급체하셔서... 오늘은 그냥 우리끼리 데이트하자.
그게, 자기야. 내가 아빠 이해시킬게. 조금만 시간을.
(자신을 지나쳐 나가버리는 성훈 향해) 최성훈! 야!

#27. 성훈 집/거실(밤)

쉬지 않고 술 마시는 성훈. 만류하는 친구를 뿌리치고 빈 잔에 술 따른다.

친구 아예 스톱이 아니라, 조금만 지켜보고 다음 거 준비하잔 거지.
지금 상황이 가처분 신청도 그렇고 빼도 박도 못하잖아.
책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다 보니까.
성훈 (실소) 언젠 디테일해서 좋다매? 자극적이고 피해자가 범인 시선에서 글 쓴 게 새롭다며! 그런 거 원한 거 아니야?
친구 (일부러 가볍게) 에이, 이럴 거면 꿈에서 로또 번호나 보라 그럴걸.
성훈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선배는 꿈에서 로또 번호나 찾겠지만 이건

내가 만든 거고 내가 창조한 거야! 선배랑 달라, 나는!
(순간 말실수 깨닫고) 실언했어.
진구 (굳은 얼굴로 일어선다) 그만 마시고 자라.
성훈 (진구 잡지 못한 채 결국 머리 부여잡는다)

#28. 성훈의 꿈. 야산(밤)

컴컴한 야산에서 누군가 헉헉대며 땅을 파고 있다.
이미 한참 쌓인 흙 옆에 보이는 여자의 하얀 팔.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죽어 있는 여자 얼굴. 입가에 점. 성훈의 어머니다.
잠시 뒤, 땅 파던 남자 고개 돌리는데 젊은 부영(37) 얼굴이다.

#29. 성훈 집/침실(새벽)

번쩍 눈 뜨는 성훈. 얼굴엔 식은땀이 잔뜩이다.
숨 고르며 불 켜면 #6 원룸 벽에 붙여놨던 부자 사진이 끼워져 있는 액자.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CLOSE UP.
사진 보던 성훈, 침대를 박차고 일어선다.

CUT TO

성훈의 침실에 들어온 혜윤이 둘러보지만 주인 없는 방.
전화 걸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안내 멘트.

#30. 경기도 이천 성훈 집 앞(낮)

‘이천 동영리 광석마을’이라는 표지판과 그 뒤로 보이는 야산.
전봇대에 걸린 ‘동영리의 자랑! 베스트셀러 작가 최성훈의 고향!’ 플래카드.
차에서 내린 성훈,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자기 집 바라본다.

집으로 들어가려던 성훈, 대문 옆 우편함 흠집 보면 잔뜩 쌓여 있는 우편물.

#31. 이천 성훈 집/거실(낮)

양옆으로 방 두 개, 그 사이 거실과 부엌이 보이는 일자 형태의 집 내부.
사람이 오래 쓰지 않은 탓인지 군데군데 먼지가 쌓여 있다.
좁은 거실에 서 있는 성훈이 미달이문으로 된 방 쪽을 바라본다.

#32. 이천 성훈 집/서재(낮)

미달이문을 열고 어둑한 서재로 들어온 성훈.
창문 아래 책상과 그 옆 벽 한쪽을 차지한 책장. 그 위엔 커다란 사과박스들.
손에 들고 있던 우편물들, 책상 위에 대충 놓고 책장 앞에 다가서는 성훈.
제일 위 칸부터 잔뜩 꽂혀 있는 성훈의 책,
오래된 서류 파일 등이 전부인 책장.
실망한 성훈이 책상에 올려둔 고지서와 우편물 챙겨 나가려는데
미처 잡지 못한 하얀 편지 봉투가 바닥에 떨어진다. 떨어진 봉투를 주워
확인하면 최부영이란 이름과 주소만 적힌 봉투 걸면.
편지 봉투를 찢어 내용물 확인하는 성훈의 표정이 묘해진다.

INSERT

잔뜩 구겨진 종이에 적혀 있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Mr. Back’

#33. 이장 집 앞(낮)

초인종과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대문을 여는 마을 이장.

이장 (성훈을 보고) 이게 누구여? 우리 동영리의 자랑 작가 양반 아니여!
 성훈 (한 손에 편지 봉투 쥐고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제가 급해서 그런데 혹시 미스터 백이 누군지 아세요?
 이장 미스터 백? 일단 들어와. 아이고 이게 얼마 만이여. 오늘 손님 복이 터졌네. 자네 여자친구도 와 있네. (집 안 향해) 남자친구 왔어!
 성훈 (의아한 얼굴) 제 여자친구요?

#34. 이장 집 안방(낮)

굳은 얼굴의 성훈과 그 옆에서 너스레 좋게 막걸리 마시고 있는 강희.

성훈 이젠 여자친구 사칭까지 해요?
 강희 우리가 앞으로 친구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가정법도 몰라요?

성훈, 강희에게 뭐라 하려는데 술 들고 들어오는 이장.

이장 아버지는 좀 어떠? 에이. 아니다. 자네는? 이젠 어디 아픈 데 없고?
 강희 (성훈 눈치 보며) 어디 아팠어요?
 이장 거 중학생 때 트럭에 심하게 받혔잖여. 한 석 달 만에 깨나갓고는 지 이름도 기억 못 하고. 그때도 최 씨가 맘고생 심했제. 와이프 없어진 지 1년도 안 됐네디 아들놈 사고 나서. 여자친구가 그런 것도 몰라?
 강희 (머쓱한 표정) 그렇게까지 깊은 사이는 아니라서...
 이장 (성훈에게 술 따라주며) 며칠 전에도 큰 카메라 든 양반들 떼로 와서는 자네 아버지랑 친했냐, 어떤 사람이나 온갖 걸 다 물어보드만?
 강희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장 아는 대로 말했지. 내가 아는 최 씨는 와이프를 죽살나게 사랑해부러서 절대로 범인일 리가 없다.
 강희 문금숙 씨 실종된 날 두 분이 싸웠다고 하던데요?
 이장 순자 할매가 본 거? 것도 뭐 부부끼리 다툰 거지, 하여튼 과장들은.
 강희 (살짝 찡찡 표정) 몸싸움이나 그런 게 아닌 거죠?

이장 그 양반은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여. 그래서 그 양반 발에 약 칠 때도 내가 대신 쳐주고 그랬는디? (성훈 손 잡으며) 아들이 이리 잘 뺏는디 박복한 양반 같으니... 사람이 너무 착해서 그려.
 그니까 주변에 나쁜 놈들만 꼬이지.
 강희 (슬쩍 성훈 반응 살피다) 나쁜 놈이요?
 이장 최 씨 맥 사라졌을 때도 자기만 믿으면 찾을 수 있다고 최 씨 꼬드긴 놈도 있고... 그리고 본께 그놈 성이 백가였던 거 같은디.
 성훈 백가요? 혹시 이름이 뭔지 기억나세요?
 강희 (갑자기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성훈을 눈여겨본다)
 이장 (기억해내려 애쓰며) 그...그니까 그...백. 백. 백두산 머시기 그런 거였는디. 암튼 고놈이 참말로 못돼 처먹어가지고는 자네 아버지 꼬드겨서 이상한 짓 많이 했어. 남의 묘까지 파려다 유치장 신세도 지고.
 성훈 혹시 그 사람 연락처나 주소는.
 이장 나는 모르지. 자네 사고 난 뒤부터 못 본 거 같은디. (술 마신다)

흔들리는 성훈의 눈. 그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는 강희.

#35. 논길(저녁)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성훈과 뒤따라오는 강희.

강희 같이 가요~ (무시하고 걸어가는 성훈 보다 뛰어서 성훈 옆에 붙는다)
 너무 신기한 우연 아닌가? 세 개의 사건에서 겹치는 건 작가님 아버지뿐인 거. 당시 작가님 아버지가 근무했던 부대가 피해자들 마을이랑 굉장히 가깝던데.
 성훈 (무시한 채 계속 걸으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강희 말이 짧네. 제 생각엔 두 가지예요. 살인범 아니면 모방범.
 성훈 (걸음 멈춘다)
 강희 원래 세 번째 사건은 월드컵 사건하고 관련 못 지었던 거 아세요?

근데 작가님 아버지가 월드컵 사건이라고 여기저기 엄청 우겼다던데.

성훈 입조심 하시죠.

강희 결국엔 다른 현장하고 동일한 증거가 발견돼서 같은 사건으로 묶였지만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작가님 아버지는 어머니의 실종을 왜 월드컵 사건이라고 확신했을까요?

성훈 …누가 뭐래도 저는 저희 아버지 믿고, 끝까지 지킬 겁니다.

강희 그럼 내기할까요? (씩 웃으며) 누가 먼저 확실한 증거를 찾나?

성훈 (한참 강희 내려보다) …좋아요?

강희 (무슨 소리냐는 표정)

성훈 근거 없는 억측으로 관심 끌면 본인한테 도움이 되나?
하긴 오보 내도 지금은 자영업자시라 회사 잘릴 일도 없고.

강희 변명하자면 오보는 아니었고, 조금 편향된 기사였죠.

성훈 사람이 죽었잖아요. 어떤 기자의 편향된 기사 때문에 왕따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 돼서. 저희 어머니 사건은 그쪽 출세 도구가 아닙니다. 그만 따라다녀요.

강희 (자신을 두고 걸어가는 성훈 향해) 오히려 출세 도구로 삼은 건 작가님 아닌가요? 본인 가족을 팔았잖아요.

사라지는 성훈 보다가 주머니에서 녹음기 꺼내는 강희.
“누가 뭐래도 저는 저희 아버지 믿고 끝까지 지킬 겁니다”
반복 재생되는 성훈 목소리. 강희, 어딘가로 전화 건다.

강희 3차 피해자 사건 판돈 좀 키우죠. 찾을 사람이 생겼네요.

#36. 이천 성훈 집/서재(밤)

물건들 전부 꺼내져 있는 어지러운 집 안. 곳곳에 켜진 양초 몇 개. 핸드폰 조명을 비춰가며 서재 뒤지는 성훈의 화난 몸짓. 책장 속 책을 다 끄집어내다 흔들린 책장 위 박스가 성훈 발 위로 떨어진다. 아파하던 성훈, 지쳤는지 바닥에 옆으로 눕는다. 바닥에 떨어진 박스 보면 ‘성훈 中’이라 쓰여 있다.

박스 끌어다 열어보면 성훈의 중학생 시절 썼던 교과서와 노트 등이 있다. 힘없이 웃으며 상자 살피던 성훈, 박스 제일 아래에 있던 노트를 꺼낸다. 성훈 손에 잡힌 B4 사이즈의 세월의 흔적에 변색된 누런 색깔 노트. 노트로 벌레를 잡았는지 누런 앞표지엔 선명한 벌레 자국과 거무스름한 핏자국. 핸드폰 조명을 비춰 노트 펼쳐보는 성훈, 이내 경악한다.

INSERT

노트 첫 장 첫 줄에 적힌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문장.
뒤이어 ‘나 범인은 누구인가. 밤의 야산을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며 여성들을 쉽게 납치할 수 있는 근력, 순발력, 피해자의 소지품을 남기는 대담함 겸비.’ 실종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정보, 주변 인물에 대한 기록, 실종자 전단지, 시신유기 장소에 대한 언급 (‘실종자들의 마지막 목격장소 근방엔 항상 산이 존재. 짧은 시간에 납치를 하고 어딘가로 숨으려면 근접한 산이 가장 쉽다’) 등 노트에 기록된 다양한 정보들.

강희(E)

너무 신기한 우연 아닌가? 세 개의 사건에서 겹치는 건 작가님 아버지뿐인 거. 당시 작가님 아버지가 근무했던 부대가 피해자들 마을이랑 굉장히 가깝던데.

INSERT

다시 노트 페이지를 넘기면 성훈이 <자전 소설> 책에 써놓았던 ‘검은 가방(안에는 태그 잘려 있음), 깨진 안경(시력이 짝짝이였음), 매듭 묶는 방식, 시체를 죽인 뒤 안 들킬 방법은?’ 등의 글자가 그림과 함께 적혀 있다. 마지막 장 넘기면, ‘사건 1, 2와 엮을 방법은? 관련성 찾기!’라고 쓰여 있고.

성훈, 노트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그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 화들짝 놀란 성훈이 당황한 손짓으로 노트 숨길 곳 찾다가 바닥에 떨어진 책들 제일 밑에 숨겨놓고 일어선다.

#37. 이천 성훈 집/거실(밤)

깜짝 놀란 표정의 혜운,
“도둑 들었어?”라며 난장판이 된 거실을 둘러본다.

성훈 (안절부절못하며)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일은 어찌고.
 혜운 유명 인사가 매일매일 죽는 줄 알아? 적당히 부고란 채우고 왔으니까 걱정 마셔. 아버님 병원에도 없길래 혹시나 해서 와본 건데 (다시 집안 둘러보며) 자기가 이랬어? (허리 굽혀 물건들 정리하려 하는데)
 성훈 냅뒀 그냥! 나 지금 올라가려고 했어! 가자. (혜운 잡아끈다)
 혜운 (성훈 막으며) 뭔 소리야. 집은 치워놓고 가야지.
 성훈 나중에 내가 치울게. 그냥 빨리 올라가자. 내 차 타고 가.
 혜운 그럼 내 차는. 나 오늘 더 이상 운전 힘들어.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랬단 말이야. 그냥 하루 자고 내일 가자. 이불은 있지?
 성훈 (급하게 혜운 잡으며) 여기 있어! 내가 할게. 아무것도 하지 마.

#38. 이천 성훈 집/안방+거실(밤)

대충 깔아놓은 이불 위에 나란히 누워 있는 성훈과 혜운.
이미 잠든 혜운과 달리 잠 못 드는 성훈. 생각이 많은 얼굴로 혜운 보다가 점점 눈이 감긴다. 잠시 뒤, 성훈 숨소리 들리면 혜운 눈 뜬다.
조심스레 성훈 머리 넘겨준 뒤, 조용히 몸 일으키는 혜운.

CUT TO

곤히 자던 성훈이 눈을 뜨면 혜운 자리 비어 있다.
멍하니 빈 자리 손으로 건드려보다 눈 번쩍 뜨이는 성훈.
급하게 안방을 나와 혜운을 찾는 성훈.
깔끔해진 거실 보고는 놀란 성훈의 시선 끝, 살짝 문 열려 있는 서재 보인다.

#39. 이천 성훈 집/서재(새벽)

급하게 서재 뛰어 들어가면 핸드폰 불빛으로 아까의 노트 보고 있는 혜운.
재빨리 혜운 손에서 노트 빼앗는 성훈.

성훈 (노트 뒤로 숨기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상관 없는 거야.
 혜운 (성훈 올려다보며) 그거 뭐야? 뭐냐구.
 성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초고로 쓴 거야.
 혜운 내가 바보야? 그거 네 글씨 아니잖아. 뭐냐고!
 성훈 (혜운 팔 잡으며) 너 피곤한 거 같은데 그냥 우리 지금 올라가자.
 혜운 (성훈 손 뿌리치며) 얘기해. 그거 누가 쓴 거야? 소설이 아니라 진짜였어? 그거 쓴 사람... 아버님이야? 아버님이 범인이야?
 성훈 말 함부로 하지 마! 네가 뭘 안다고!
 혜운 (잠시 말문 막혔다가) 그래. 네가 말을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얘기해봐 그럼! 저 노트 뭐야?
 성훈 ...지금은... 지금 말고... 다 해결되면... 그때.
 혜운 (눈 질끈 감으며) 그때가 대체 언젠데? ...정말 최악이다 너.

혜운 나가면 잠시 뒤 대문 달히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차 출발하는 소리.
우두커니 서 있는 성훈. 어둠이 눈에 익숙해지고 점차 눈에 들어오는 방 안.
달빛으로 찬 서재 전체를 둘러보면 성훈 돌 사진부터 부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벽에 걸린 성훈의 상장과 성훈이 그린 그림, 두꺼운 사진 앨범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닫는다.
문예지 시상식장에서 찍은 부자의 행복한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성훈.

#40. 이장 집 대문 앞(새벽)

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 연이어 들리고 눈 비비며 문 여는 이장.

성훈 (급하게) 어제 말씀하셨던 순자 할머니요! 어디 계세요?

이장 (하품하며) 그 할매 그때 아흔이었어. 진즉에 돌아가셨지.
(실망한 성훈이 돌아서는데) 그날 일 물어볼 거면 할매 손자가
있긴 한다. 자네 어머니 스카프 찾은 양반. 그 양반 한번 만나 볼터?

#41. 성훈 차 안(아침)

심각한 표정의 성훈, 운전하다 휘청한다. 그제야 정신 차리는 성훈.

이장(E) 그 할매 손자가 경찰이었는데 최 씨랑 친해서 사정 많이 봐줬어.
스카프 찾아서 월드컵 사건인 것도 밝히고 그 덕에 서울도 가고.

조수석엔 서재에서 발견한 노트와 ‘서울 XX구 337-1 여상철’이라 적힌 쪽지.

#42. 상철 집 앞(낮)

낮은 단독주택 앞. 주소와 ‘여상철’이라 적힌 주택 명패 확인하는 성훈.
초인종 누르는 성훈. 그러나 인기척 없고.

성훈 (초인종 계속 누르며) 안 계십니까!
상철(F) 누구세요.
성훈 2002년에 이천 경찰서 근무하셨던 여상철 형사님 맞으신가요? 저는
월드컵 실종 사건 세 번째 피해자 아들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상철(F) 그런 사람 없어요.

인터폰 뚝 끊긴다. 다시 급하게 초인종 누르는 성훈.

성훈 (큰 목소리) 형사님! 당시에 저희 아버지랑 친하셨단 얘기 듣고
왔습니다! 별로 오래 안 걸립니다! 그냥 확인만 몇 가지 해주세요!
형사님!

CUT TO

어느덧 밤이 되어 하늘에 달 떠 있는데, 여전히 대문 앞에 앉아 있는 성훈.
상철 집 확인하면 계속 불 꺼져 있다. 무릎에 고개 파묻은 성훈.

#43. 성훈의 꿈. 이천 성훈 집/거실+서재(밤)

이천 성훈 집 거실에 서 있는 교복 차림의 성훈(13세). 달력 보면 2003년 5월.
전반적으로 지저분한 집구석. 거실 한편 잔뜩 쌓여 있는 빨랫감.
열려 있는 서재 문 보다가 “아빠?”를 부르며 들어가는 성훈.

서재 안은 엄마의 실종과 월드컵 실종 사건에 관련된 자료들로 가득하다.
익숙한 듯 방 안 둘러보던 성훈, 바닥에서 바퀴벌레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책상 위 노트를 집어 바닥에 내리친다.
잠시 뒤, 노트 들어보면 하얀 노트 앞표지에 선명하게 찍힌 벌레와 핏자국.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바퀴벌레를 털려고 노트를 흔들다 노트를 떨구고 만다.
다시 노트를 잡던 성훈, 무심코 열린 페이지를 읽다가 눈이 커진다.

성훈 (노트를 보며) 나는 살인범이다?

노트 페이지 넘기는 손 점차 빨라지는데 그때 서재 미닫이문 열리는 소리.
서재에 들어오던 아버지 부영과 눈 마주치는 성훈. 굳어지는 부영의 얼굴.

상철(E) 이봐. 이봐. 이봐!

#44. 상철 집 앞(아침)

성훈의 어깨를 흔드는 상철. 잠에서 덜 깬 얼굴로 상철 올려다보는 성훈.

상철 누가 최부영 아들 아니랄까 봐. 고집만 세서는. (혀 차고) 들어와.

#45. 상철 집/거실(아침)

오래된 TV와 소파가 전부인 거실. 현관 옆에 보이는 커다란 캐리어 여러 개.

성훈 (캐리어 보며) 어디 가시나 봐요.

상철 기러기 생활 청산하고 같이 살기로 했거든. 내일 출국이야. 저녁에.

성훈 네... 근데 저희 아버지랑은.

상철 형사랑 피해자 가족 사이가 친해 봤자지. 2002년 여름에 갑자기 찾아와선 자기 부인이 월드컵 사건 피해자 같다 그랬어. 단순 가출이라고 해도 매일 찾아와선 조사해달라고 성화였지.

성훈 ...그래서요.

상철 그 사건 피해자라는 증거가 있으면 수사해주겠다고 했더니. 미친 듯이 영동하고 보은을 뒤지고 다니더라고.

성훈

상철 직장도 관두고 아들도 내팽개치고. 측은해서 개인적으로 수색 몇 번 나갔다가 자네 어머니 스카프 발견한 거야. 근데 발견하고 나서가 문제였어. 오히려 자네 아버지가 범인으로 몰렸으니까.

성훈 실종 당일 알리바이가 없어서요?

상철 (고개 끄덕이며) 그날 축구 본다고 마을 사람들 다 이장 댁에 모였는데 자네 아버지만 없었거든. 건너 동네에 있었다는데 증거는 없고.

성훈증거가 정말 없는 건가요?

상철 (고개 저으며) 못 찾았어.

성훈 혹시 미스터 백이란 사람 아십니까? 당시 저희 아버지랑 친했다던데.

상철 (인상 찌푸리며) 백수단? 사기꾼 새끼?

#46. 상철 집 앞(낮)

어느덧 밝아진 하늘. 쉰한 얼굴로 대문 앞에 서 있는 성훈.
핸드폰 시간 확인하면 오전 10시 반. 통화 아이콘에 떠 있는 부재중전화.
통화 기록 들어가면 이를 전 7:00 혜운 연락 보이고, 그 위로는 친구의

부재중전화 기록뿐이다. 혜운에게 전화 걸려다 친구 연락처 누르는 성훈.

친구(F) 야! 최성훈! 너 어디야! 걱정했잖아!

성훈 선배. 혹시 백수단이란 사람 좀 찾을 수 있을까? 나이는 지금 한 60대 초중반. 2000년대 초반에 부산에서 주로 활동했다. 2003년에 월드컵 사건 관련 책도 냈고. 미스터 백이나 백 탐정으로 불렸다네.

친구(F) 내가 흥신소냐? 것보다 혜운이 바꿔줄게. 지금 같이 있거든?

성훈 ...아니야. 선배. 혜운이한테 이 말만 꼭 전해줘요. 이번엔 반드시 얘기할 테니까 제발 딱 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해요.

친구(F) 야! 야! 최성...

전화 끊는 성훈.

#47. 카페(낮)

친구 (뚝 끊긴 전화에 당황하며) 뭐야, 이 새끼...

혜운 (친구 맞은편에서 고개 숙인 채) 개가 뭐래?

친구 백수단인가 백 탐정인가 좀 알아봐 달래는데. 사람을 흥신소로 아냐.

혜운 백수단?

친구 야, 니들 이번에 분위기 이상하다? 성훈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할 얘기가 뭔데?

혜운 ...선배. (망설이다) 나...

#48. 지하철역 통로(저녁)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지하철 통로.
취침 준비 중인 노숙자들 사이로 허름한 좌판 깔아놓고 옆으로 누워 있는 수단.
좌판 위에는 <셜록 홈즈의 스승 백수단의 추리 백과사전>이란 제목의 낡은 책 몇 권과 빈 강통. 좌판 앞에 멈춰 선 누군가, 책 집는다.

수단 (눈 감은 채) 눈이 높네. 특별세일 오천 냥.

빈 강통에 넣어지는 오만 원권 한 장. 슬쩍 눈 떠본 수단,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킨다. 강통 안 지폐를 재빨리 품에 집어넣은 수단에게 건네지는 한중일보 신문. '월드컵 실종 사건. 진범은 3차 피해자 남편?'이란 제목의 기사. 신문지 뺏어 읽던 수단, 신문을 건넨 사람을 본다.

#49. 요양병원 VIP 병동(밤)

산소 호흡기 달고 있는 부영 옆에 앉은 성훈.
'여성철'로 저장된 핸드폰 녹음 음성을 듣다.

성훈(E) 그럼 마지막으로 형사님 할머니께서 증언하신 내용 좀 말씀해주세요.

#50. 이천 성훈 집 앞(밤)

자막 - '2002. 6. 18.'
순자, 빨간 조끼를 입고 논길 걷고 있다.

순자 아니, 공은 단 놈이 차는데 뭘 빨간 옷까지 입고 오래. 더워 죽겠네.

그때 큰소리 나는 파란 슬레이트의 성훈 집.

금숙(E)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오니까 애가 없지. 친구 집 가서 축구 보겠다는 걸 어떻게 막아? 뭐만 하면 다 내 탓이래. 이럴 거면 오지 마!

부영(E) 니 바가지는 구멍 안 나냐? 허구한 날 굶어대네! 그래, 간다 가!

대문 광 열며 나오던 부영(당시 36세), 순자와 마주치자 어색하게 인사한다.

부영 (창피한 듯 머리 긁으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풀리겠죠, 뭐.

순자 (고개 절레) 뭐라도 손에 들고 들어가! 그냥 넘죽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누가 좋아해? 하여간 남자들은 저게 문제야. 눈치 좀 챙겨!

부영 뭐를 사가면.

순자 자기 짝꿍 좋아하는 건 자기가 알지, 내가 아냐?

부영 (손목시계 보고는) 거기가... (꾸벅) 가보겠습니다.
(순자 지나쳐 산 쪽으로 걸어간다)

#51. 몽타주. 이천 동영리 곳곳(아침+낮)

- 동영리 옆 마을 지구대에서 오래된 가게나 토박이에 대해 묻는 성훈.
- 복덕방에 들어가 지도 보며 설명 듣는 성훈.
- 성훈, 오래된 가게 들어가 아버지 사진 보여주지만 고개 젓는 상인.
- 지친 모습의 성훈, 결국 포기해야 하나 멍하니 벤치에 앉아 있다가

성훈(F) 엄마가 좋아하던 게 뭐지? 그 시간에 옆 동네로 가서 살 만한 게.

FLASH BACK #39
아버지 서재에 붙어 있던 어린 시절 성훈의 그림 떠오른다.
세 가족이 다 함께 검은 그릇을 둘러싸고 앉아 있는 그림.

고개 들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성훈의 시선 멈추는 곳.

#52. 중화반점 용성각(낮)

'SINCE 1998'이라는 스티커 붙어 있는 낡은 유리문의 중국집.
벽 한 면 전체를 장식한 축구 관련 유니폼들과 기념사진들을 둘러보는 성훈.
중국집 사장 김 씨(52세, 여)가 성훈이 보여준 부영 사진 보며 가우뚱한다.

김 씨 잘 모르겠네. 월드컵 때 영업하긴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한들이었어야지. 이탈리아전이면 축제잖아.
 성훈 그래도 저녁 8시쯤에 짜장면 사러 온 사람 없었을까요?
 김 씨 그걸 어떻게 기억해. 새벽 동틀 때까지 영업했다니까? 우리 아저씨가 16강 올라가니까 미쳐서 공짜로 요리 퍼주고 난리 쳤거든.

주방 안쪽, 철 지난 붉은 악마 티 입은 주방장(60세, 남) 보인다.

성훈 CCTV 같은 건.
 김 씨 그 시절에 무슨 CCTV가 있어.
 성훈 ...감사합니다.

중국집 나가려던 성훈, 벽 쪽에 붙은 기념사진들이 모두 월드컵 경기 후 사장 내외가 손님들과 찍은 사진이란 것을 발견한다.
 2002년 예선을 지나 8강, 4강 사진들 쪽 보는데 16강전 사진만 보이지 않고.

성훈 이탈리아전 사진만 없네요.
 김 씨 아. 그때 뭐 확인한다고 머리 벗겨진 형사가 갖고 갔는데. 못 받았네.

#53. 이장 집 안방(낮)

침울한 표정의 성훈과 그 앞에 앉아 있는 이장.

이장 가는 걸 본 사람은 있는데 거기 있던 걸 본 사람이 없다. 산에서 귀신이란 숨바꼭질한 것도 아니고. 자네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성훈 사고 전 기억은 하나도...
 이장 흠... 서울 가서 상철이는 만났는감?
 성훈 예. 아버지랑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셨나 봐요. 그나마도 어머니 실종 후에 알게 된 사이라고. 그래도 아는 선에선 잘 알려주셨습니다.
 이장 (고개 갸웃하며) 그럴 리가 없는데. 둘이 원래 친했는디?
 성훈 예?

이장 자네 아버지 여기 이사 오기 전부터 아는 사이였다. 고등학교 동문인데 졸업하고 다시 만났다고 둘이 좋아 죽었지. 가가 진짜 그래?
 성훈 (혼란스러운 표정)

FLASH BACK #45 상철의 캐리어 기억나고

상철(E) 내일 출국이야. 저녁에.
 성훈 시계 확인하면 저녁 6시 5분 전.

#54. 삼겹살집(저녁)

비 추적추적 내리는 식당 안 사람들 시선, 거의 생고기 상태의 고기를 입에 넣는 수단에게 향해 있다. 맞은편에서 질린 눈으로 보는 강희.

수단 (다른 손으로 <자전 소설>을 넘기고 있다) 똑같네. 똑같아.
 강희 그러니까 최부영이 이 책하고 똑같은 내용을 수집하고 있었던 거죠?
 수단 그렇다니까? 나의 노하우를 골수까지 빼먹은 놈이야. 맘을 못되게 먹으니까 천벌 받지. (혼잣말로) 우포 값 아까워 죽겠네.
 강희 네?
 수단 나 2인분 더 시켜도 돼? (강희 허락 받으면 짹짹 주문한다)
 강희 근데 그 노하우가 뭐예요?
 수단 내가 바로 범인이다! 내가 범인이라면 이 사건들을 어떻게 저질렀을까. 범인의 시점에서 생각하는 거야. 이게 플라시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 몰입도가 달라. 이 때때 삼겹을 갖고도 계속 상상을 해주는 거지. 이걸 흑돼지다. 탄력이 아주 죽여주는 제주 흑돼지. 꿀꿀. 나 냉면도 시켜도 돼? 후식 냉면 말고.
 강희 그러세요. 근데 좀 아깝다. 실물이 있으면 사례금도 대폭 상승인데.
 수단 얼마나?
 강희 일단. (손가락 세 개 편다)

수단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 흔들고는 씨익 웃으며 열 손가락 다 편다)

#55. 상철 집/대문 앞+거실(저녁)

불 켜진 상철 집. 소나기를 피하지도 않고 거세게 문 두드리는 성훈.
상철 집 거실에 서 있는 성훈, 잔뜩 젖어 있다.

상철 뭐 또 물어볼 게 남았나? (손목시계 확인하며) 곧 떠나야 돼서.
성훈 정말 죄송합니다. 저기.

잔뜩 젖은 성훈의 몸에서 물이 똑똑 흐르자, 인상 찌푸리는 상철.

상철 일단 (화장실 쪽 가리키며) 좀 닦고 나와.

#56. 상철 집/화장실(밤)

거울에 비친 자신을 잠깐 보던 성훈. 몸을 닦으려는데 수건이 보이지 않는다.

성훈 형사님! 죄송한데 수건이 없는데요!

상철(E) 서랍장 안에 있을 거야!

서랍장에서 수건 꺼낸 성훈, 서랍 아래 칸에서 가발 거치대 발견한다.

FLASH BACK #52

김 씨(E) 뭐 확인해야 된대서 머리 벗겨진 형사한테 줬던 거 같은데?

#57. 상철 집/거실(밤)

성훈이 흘린 물 자국을 휴지로 대충 닦고 있는 상철.

화장실 나온 성훈이 소파 아래로 상철 몰래 자신의 지갑 밀어 넣는다.

성훈 제가 여기서 지갑을 흘린 거 같아서요. 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상철 어쩔 수 없지. 지갑이면 소파에 끼었나? (소파 바닥 향해 몸 굽힌다)

성훈 죄송합니다. 아, 박경수 이장님이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던데요.

상철 그 양반 아직도 이장이야? 정도도 하다.

성훈 예. 건강하시더라고요. 동영리는 할머니 때문에 자주 들르신 거죠?

상철 어. 이천 있을 동안은 그랬지. 근데 여기 있는 거 맞아?

성훈 제가 오늘 들른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무릎 꿇고 소파 아래 보는 척하며 계속 말 건다)

오늘 처음 뵈는데도 너무 친숙하게 느껴지네요. 예전부터 자주 봤던

것같이. 저희 아버지처럼 따뜻해 보이시고. 어! 가운데 저거 같은데.

(팔 뻗어보지만 안 닿자) 죄송하지만 소파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상철 그럼 반대쪽 잡아봐.

성훈 이장님은 저보고 아버지 총각 시절 얼굴하고 똑같다고 하더라구요.

전 암만 봐도 다른 거 같은데. 근데 이장님은 노안이 오셔서 그다지

신뢰가 안 가네요. 형사님이 봐도 제가 닮았나요?

상철 (픽 웃으며) 부영이 형님은 학생 때 인기 많았는데. 자네도 그랬나?

소파 잡고 있던 손에서 힘 빼는 성훈. 순간적으로 소파 밑에 발 깔리는 상철.

상철 아!!!! 갑자기 놓으면 어떡해! 빨리 들어봐!

성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실종 이후로 알게 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멍칫하는 상철. 상철에게 다가가 머리채 잡는 성훈. 벗겨지는 상철의 가발.

성훈 사진 갖고 간 거 당신 맞지?

상철 뭐? 무슨 소리야. 뭘 사진!

성훈 2002년 6월 18일. 용성각에서 우리 아빠가 찍혀 있던 그 사진. 당신이 갖고 간 거잖아. 솔직히 말해. 다 알고 왔으니까.

상철 (혼자서 겨우 발을 빼고선 바닥에 주저앉아) 성훈이 너 많이 컸다?

성훈 우리 엄마, 당신이 죽었어?

상철 (말하기 싫은 얼굴로) 난 계약한 거야. 정정당당히.

성훈 누구랑.

상철 너희 아빠.

#58. 회상. 이천 경찰서(낮)

쏟아지는 폭우 속 경찰서 마당에 서서 '단순실종 처리 말고 제대로 된 수사 해라'라고 적힌 피켓 들고 시위 중인 과거 부영.

경찰서 안에서 그 모습 지켜보는 속상한 표정의 과거 상철(34세).

#59. 회상. 대폿집(밤)

머리 벗겨진 상철과 부영밖에 없는 대폿집. 쉬지 않고 술 마시는 부영.

상철 형님. 연관성이 없잖아요. 내가 형님이 사정해서 미공개 증거들도 다 알려줬잖아. 지역, 피해자 연령 모두 다르고, 겹치는 게 없어요.

부영 아니야. 확실해. 느낌이 와. 그놈이야.

상철 수사가 어디 느낌으로만 해요? 중요한 건 물증이야! 그런 것도 없으면서. 기다려봐요. 형수도 시간 지나고 돈 떨어지면 다시 오겠지.

부영 물증... 있다.

상철 (주정으로 여기며) 형님은 성훈이 불쌍하지도 않아? 애가 뭐 죄야.

부영 그날... 산속에서 어떤 놈이랑 부딪혔어. 그때 내가 뭔갈 주웠다.

부영,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 상철에게 건넨다.

상철, 받아보면 피 묻은 하얀색 물방울무늬 스카프가 담겨 있는 크린백이다.

과거 월드컵 사건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매듭 모양으로 묶여 있는 스카프.

#60. 회상. 산길(새벽)

자막 — '2002. 06. 19. AM 5:00'

동트는 새벽. 잔뜩 취한 부영이 어둠한 산길을 비틀비틀 걷고 있다. 신나게 걷다가 누군갈 업고 가던 모자 폭 눌러 쓴 남자와 어깨 부딪히고,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 떨어뜨리는 부영.

부영 죄송합니다. (꾸벅 인사하지만 상대가 그냥 가버리고)

부딪힌 어깨 털고 나서 보면 빨갛게 물든 부영 손바닥. 술에 취해 이상함 느끼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봉지 집는 부영. 그 옆에 떨어져 있는 찢어진 스카프 조각을 발견한다.

부영 우리 마누라 스타일이네. 생색 좀 내야지.

붉게 물든 스카프 조각도 검은 봉지에 넣고는 다시 걸어가는 부영.

#61. 회상. 대폿집(밤)

상철, 크린백에 담겨 있는 피 묻은 스카프를 눈이 빠지게 보고 있다.

상철 형님! 이건 증거가 안 돼! 이미 오염됐잖아. 이러면 형님이 의심받아!

부영 (잔뜩 취해) 그 스카프. 내가 결혼했을 때 사준 거야. 원래는 하얀색인데. 근데 그걸 내가 산에서 주웠다. 내 마누라 죽인 놈인 줄도 모르고 그냥 스쳤다고. (무릎 꿇으며) 상철아.

상철 (기겁하며) 아, 이 형님이 미쳤나!

부영 단순 가출이라고 해버리면 시작도 못 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상철 (부영 팔 잡아끌며) 얼른 일어나요! 진짜 미쳤어?
 부영 네가 발견한 걸로 하자. 너 이 촌구석 뜨고 싶어 했지.
 이런 증거 찾으려면 서울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상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주변 살핀 뒤 소리 죽여) 형님이 범인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상황이 다 안 좋은데 뭐 소리야!
 부영 내가 기필코 그놈이 했다는 증거 찾을게! 아니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부탁하자, 어? (계속해서 바닥에 머리 박으며
 부탁한다)
 상철 (흔들리는 눈으로 자신의 바짓가랑이 부여잡은 부영의 손 내려다본다)

#62. 회상. 야산(낮)

나무 사이에 걸려 있는 ‘담배꽁초 주워 산불 예방하자’ 현수막.
 다른 경찰들 사이 상철도 담배꽁초와 쓰레기 등을 주우며 주변을 둘러본다.
 조심히 바지 아래로 부영이 준 붉은 스카프 떨어뜨리곤 낙엽으로 덮어버린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본인이 덮었던 나뭇잎을 터는 시늉하고,
 호들갑을 떨며 호루라기 꺼내 부는 상철.

#63. 상철 집/거실(밤)

INSERT
 2002년 엄마 실종 당일 용성각에서 찍힌 부영의 사진 여러 장.
 사진 하단 오른쪽에 6월 18일 19시부터 19일 4시 사이의 시간 표시 보이고.

사진을 보던 성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상철을 노려본다.

성훈 사진은. 왜 갖고 갔어. 그 사진만 있으면 애초에 누명 따워!
 상철 형님과 내 사이의 담보.
 성훈 (실소)

상철 비웃어도 상관없어. 네 아빠도 동의한 거니까.
 성훈 진짜 그놈이 범인인지 알 수도 없는데 그랬다고? 왜?
 상철 사람은 입마. 다 자기 쪼대로 사는 거야. 누구나 제일 절실한 걸
 바라지, 이상한 걸 바라겠니? 어차피 상관없잖아? 너희 아빠
 식물인간 돼서 깨어날 확률도 희박하고. 다 죽어가는 마당에 범인
 취급 좀 하면 어때?
 성훈 (말 나오지 않고 그냥 상철 바라만 본다)
 상철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너도 똑같으니까. 네 책. 그 노트 보고 베낀 거지?
 백수단 그 사기꾼 새끼가 가르쳐준 거. (비죽 웃으며) 부영이 형도
 좋을걸? 자기 추리가 맞은 거잖아! 이제 너희 엄마만 찾으면 되겠네.
 쌤쌤 처.

혼란스러운 얼굴로 사진을 보던 성훈. 사진을 닦아채 그 집을 빠져나온다.

#64. 상철 집 앞(밤)

넋이 나간 듯 비를 막을 생각도 하지 않고 걸어 나오는 성훈.
 핸드폰을 켜서 전화를 걸려는데 제일 새로운 메시지 ‘알 수 없음’이라
 표시된 번호에서 전송된 인터넷 링크.
 링크 누른 성훈, 순식간에 굳어버린다.
 함께 전송된 메시지 ‘지금은 20초 프리뷰. 다음엔 풀 버전?’

#65. 인터넷 화면

1)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천재 작가의 정체는 사기꾼’
 ‘본인을 천재 작가로 포장한 최성훈. 실은 아버지 노트 보고 베낀 것임’
 아버지의 노트가 찍힌 사진들이 함께 업로드되어 있다.

2) 댓글

‘갈때까지갔음: 그렇게 자세하게 썼을 때부터 알아봄. 사기왕’

‘너무패륜적: 아버지는 살인범. 아들은 사기꾼. 인간 포기 부자~~’

‘지팔지곤shit: 지 아빠가 콩콩 숨겨놨던 비밀을 파네 ㅋㅋ’

‘어버이은혜못갖아지송: 공소시효 아직 안 지났으니 구속 가나요!!!!!!!!’

‘Killdaddy: 고소각 재면서 글 써라 그지들아’

#66. 경찰서 취조실(밤)

말없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성훈. 그 앞에 앉은 도영의 날카로운 눈빛.

도영 최성훈 씨.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사건하고 어디까지 관련 있습니까? (대답 없는 성훈 향해) 최성훈 씨! 침묵이 답이 아니에요!

책상 아래 놓인 성훈의 손에 쥐여 있는 2002년 사건 당일 부영 사진. 도영에게 사진 보여주려 하는데 책상 위 노트북 화면을 성훈 쪽으로 돌려 무언가를 보여주는 도영.

INSERT

한중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월드컵 연쇄 실종 사건 3차 피해자 문 씨 남편의 의심 정황 고백한 지인 백 씨’란 제목과 백수단의 사진,

2003년경 부영과 수단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실려 있다.

놀란 성훈. 한중일보란 글자에서 시선 떼지 못한다.

#67. 성훈 집/거실(밤)

초조하게 성훈을 기다리고 있는 혜운과 친구.

잠시 뒤, 힘겹게 들어온 성훈, 혜운 앞으로 다가간다.

무너지듯 혜운 양쪽 팔을 붙잡는 성훈.

혜운 (걱정의 눈빛) 괜찮아?

성훈 (허탈하게 옷다가) 왜 그랬어.

혜운 뭐?

성훈 혜운아. 혜운아. 왜 그랬어... 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해결하고 다 말해준다고, 근데 왜 그랬어? 내 글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내 얘기 팔면 문화부로 옮겨준대?

진구 야 최성훈!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미쳤어?

혜운 (O.L.) 그게 네 진심이구나. 그게 네 진심이었어. (성훈을 지나쳐 밖으로 나간다)

진구 미쳤나?

성훈 미친 건 내가 아니라 재야. 십 년을 사귀어놓고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그 누구도 내 글 안 찾겠지. (자조하며) 난 망했어, 형.

진구 네 인생 망친 건 너야! 글이 밥 먹여줘? 사람이 살아야 글도 읽혀! 글이 밥 먹여줘! 글 써야 인정받고 남한테 손 안 벌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사는 이유가 글 쓰는 거에 다 있다고! 형은 평생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 나는 선택받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였다고! 형도 기사 봤잖아. 재가 내 인생 소각장에 곱게 처박아줬다고!

진구 그거 혜운이 아니야, 이 새끼야. 박강희가 그 미친 여자라고! 기사 누가 쓴 건지 안 봤어?

성훈 !!!

진구 (실망한 눈빛) 진짜 최악이다. (돌아서 나가려다) 혜운이 임신했다. 니 애. 3개월이라더라. 근데 넌 그게 할 말이나!

성훈의 흔들리는 눈. 친구가 문 닫고 나가는 소리가 크게 울린다.

#68. 인적 드문 카페(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노트 프리뷰 사진.

- 성훈 (허무한 말투) 그쪽이었습니까.
- 강희 예전 직장이 한중일보였거든요. 가끔 프리로 기사 쓰는데 모르셨구나. 여론이란 게 그렇더라구요. 짜라시만으로도 안 되고 어느 정도 공신력도 확보해야 더 진짜처럼 보여요. 기사, 생각보다 반응이 뜨겁네요.
- 성훈 (말없이 테이블 위 사진 내려다본다)
- 강희 저랑 딜 해요. 향후 모든 인터뷰 및 작품 출간 독점권.
- 성훈 대체 왜.
- 강희 저는 작가님 맘에 들거든요.
- 성훈 어디가.
- 강희 속물이면서 명예롭고 싶어 하는 이중성?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작가님은 나를 정의로운 언론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난 작가님을 한국 문학계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고.
- 성훈 사진은.
- 강희 그거야 합성이라고 우기면 되고, 백수단은 제가 해결할 수 있구요. 원본 노트는 작가님만 갖고 있는 건데... 그냥 없애버리죠. 발판 역할 충분히 했으니까.
- 성훈 사건은?
- 강희 생각보다 일이 커져서 누가 나서긴 해야 될 것 같네요.
(눈치 보며) 작가님 아버...
- 성훈 (O.L.) 저희 아버지 결백합니다.
- 강희 병원에 알아보니까 자가 호흡도 어려운 상태라던데. 생각해 보세요. 작가님 인생은 앞으로 길지만, 아버님 인생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 성훈 우리 아버지가 안 했어. 안 했다고요.
- 강희 (코웃음) 최성훈 씨. 솔직히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예요. 본인이 죽게 생겼는데. 계속 작가로 살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계산 잘해야 될

거예요. 누가 소설가 최성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될지. 그게 최부영 씨일까요? 난 나 같은데. 월요일 저녁 8시까지 답 기다릴게요.

CUT TO

혼자 남아 상철에게서 가져온 부영의 알리바이 사진을 한참 보던 성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간다.

#69. 도심 사거리 교차로+차 안(밤)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는 교차로.

급하게 운전 중인 성훈. 내비게이션 목적지 '강남 경찰서'로 찍혀 있고. 조수석엔 부영의 기록 노트와 알리바이 증명사진. 신호 빨간 불로 바뀌고 좌회전 차선에 선 성훈의 차. 초조하게 신호 대기 기다리던 성훈, 무심코 밖을 보다가 시선 멈춘다.

INSERT

커다란 빌딩 위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피해자의 아픔 이용한 가해 작가의 구속 청원 시위 벌어져'
A 출판사 앞에서 성훈의 책 찢으며 시위 중인 대중들 모습.

파란 불로 신호 바뀌고, 도로 위 차들 움직이는데 홀로 멈춰 있던 성훈의 차. 이내 유턴을 해 돌아간다.

#70. 성훈 집/서재+도로(밤)

어두운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성훈의 뒷모습.

기자(E) 월드컵 연쇄 실종 사건의 세 번째 피해자 유족으로 알려진 소설가 최성훈 씨의 행적이 묘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전 인터넷에

작가의 소설이 실제 범인인 부친의 수기를 표절했다는 의혹과 함께 증거 사진이 올라오면서부터였습니다.

노트북 화면 불빛이 성훈 얼굴에 반사된다.

INSERT

성훈의 노트북 화면. SNS에 업로드된 성훈의 책 찢거나 불태운 인증사진들.

초점 없이 화면 보고 있는 성훈.

기자(E) 한편 최 씨의 <자전 소설>을 출간한 A 출판사가 엄정히 상황을 파악 중이라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폭로된 수기가 진실일 경우 작가로서의 윤리와 도덕성에 큰 금이 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두운 도로를 달리는 성훈의 차.

원가에 홀린 듯 앞만 보고 운전 중인 성훈.

#71. 이천 성훈 집/서재(밤)

성훈, 말없이 서재 안의 종이와 책들을 모두 빈 박스에 집어넣는다.

#72. 이천 성훈 집/마당(밤)

드럼통 안에 잔뜩 쌓이는 성훈의 책들과 잡다한 서류들.

기름이 드럼통 안에 끼얹어지고 조용히 성냥에 불붙이는 성훈.

활활 불길을 일으키며 타기 시작하는 책들. 성훈의 얼굴이 불빛에 반사된다.

쉬지 않고 박스 안 내용물을 끄집어내 태우는 성훈.

박스를 들어 얼마 안 남은 내용물마저 드럼통 안에 탈탈 털다가

드럼통 밖으로 빠져나온 작은 초록색 앨범 발견한다.

표지에 그려진 노란 스마일 마크.

앨범을 집어 무심코 넘겨대던 성훈의 손 점차 느려지고.

퍼진 페이지 위로 떨어지는 성훈의 눈물.

울음 참으며 초록색 앨범도 다시 드럼통 안에 집어넣는 성훈.

서서히 그을리는 앨범. 스마일 마크가 일그러지듯 타들어간다.

타닥타닥 앨범 타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성훈의 작은 울음소리.

#73. 이천 성훈 집/서재(밤)

남은 물건이 없어 휑한 서재에 홀로 앉아 있는 성훈,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성훈 최성훈입니다.

#74. 강희의 사무실(저녁)

모두 퇴근하고 홀로 남아 있는 강희. 사무실 시계 X월 X일 월요일 19:58을 가리킨다. 초조한지 툭툭 책상을 두드리는데 핸드폰 메시지 알림 울리고. 재빨리 확인하면 '최성훈 작가'로부터 보내진 알 수 없는 링크. 주소 누르면.

#75. 생방송 뉴스 스튜디오+강희의 사무실(저녁)

뉴스 오프닝 음악 들려오며, 인이어 낀 뉴스 앵커가 인사를 한다.

앵커 오늘의 초대석은 최근 한국 문학계에서 가장 화제의 중심에 있는 작가 최성훈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얼마 전부터 세간의 화제였죠. 바로 최성훈 작가의 <자전 소설>이 작가의 창작이 아니라 실제 살인 수기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폭로였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그 노트는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까?

성훈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작가님이 그 수기를 베낀 것도 맞나요?

성훈 네.

앵커 그 수기의 필자는 최성훈 작가의 부친인 최부영 씨가 맞고요?

성훈 네.

앵커 밝히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고 끝났을 일을 어째서 책으로 내신 거죠?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성훈 ...아니요. (화면 정면으로 응시하며) 들리기 위해 썼습니다. 아버지의 속죄를 위해서요.

화면 속 성훈을 바라보며 헛웃음 나오는 강희.

#76. 몽타주(아침+밤)

— 신문 가판대에 깔린 신문들

1면에 노트를 들고 있는 성훈 사진과 함께 커다랗게 실린 헤드라인.

‘소설가 최성훈, 살인 수기 존재를 알고서 양심을 속일 수 없었다’

너나 할 것 없이 성훈의 사진이 1면에 실린 신문 잡는 사람들.

— 도심 속 커다란 전광판에 비치는 뉴스

‘아버지의 죄, 대신 속죄한 작가 최성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글로 속죄하는 길이라 생각’

‘자전 소설’의 수익금 전액, 피해자 유족들에게 기부’

‘진범 누명 썼던 오 모 씨,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

— 서점

높이 쌓여 있는 성훈의 책들을 실 새 없이 집어가는 사람들

#77. 요양병원 VIP 병실+병실 앞 복도(밤)

산소 호흡기 쓴 채 누워 있는 부영의 얼굴과 몸을 수건으로 닦아주는 성훈.

성훈 이상하죠. 그 노트를 보기 전엔 아버지가 꼭 깨어나길 바랐는데. 하다못해 숨만 쉬어줘도 고마웠는데.

모니터에 뜨는 안정적인 부영의 호흡.

부영의 산소 호흡기에 가까워지는 성훈의 손.

덜덜 떨리던 성훈의 손, 끝내 호흡기에 닿지 못하고 황급히 멀어진다.

부영을 바라보다 결국 일어서서 도망치듯 병실을 나서는 성훈.

누워 있는 부영의 얼굴 CLOSE UP.

‘VIP 2호실’ 병실에서 나온 성훈이 모자를 눌러쓰고 복도를 걷다가 건너편에서 황급히 뛰어오는 의료진과 스친다.

무심히 걷던 성훈, 이상한 느낌에 돌아보면

자신이 나왔던 아버지 부영의 병실로 들어가는 의료진 모습.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선 성훈.

#78. 서울 외곽 도로+차 안(밤)

안개가 자욱한 도로 갓길에 세워진 성훈의 차.

운전석에 앉은 성훈, 상철에게서 얻은 부영의 알리바이 사진 꺼낸다.

이웃과 라이터로 사진에 불붙이면 환히 웃고 있는 부영의 얼굴이

점점 불길에 사라진다.

CUT TO

성훈 뭔가 결심한 듯 브레이크를 잡는다. 자동차 엔진 소리 크게 들리고,

정면만 보고 있는 성훈. 액셀 있는 힘껏 밟으면 점차 빨라지는 바깥 풍경.

건너편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헤드라이트 불빛. 눈 감고 핸들에서 손 떼는 성훈.

어느덧 액셀에서도 발을 떼고 있다.
끼익하는 소리 들려오고.
BLACK OUT

#79. 병원 개인실(아침)

눈뜨면 병실의 백열등 눈부시고, 머리엔 붕대와 얼굴 상처투성이의 성훈.
아무도 없이 고요한 병실. 작가님의 쾌유를 기원한다는 꽃바구니만 보인다.

#80. 대형 서점/사인회장+신작 코너(낮)

자막 — ‘5년 뒤’
‘최성훈 5년 만의 신작 <그래도 살아진다> 출간 기념 팬 사인회’ 플래카드.
사인을 기다리는 독자들로 꽉 차 있는 사인회장.
이젠 능숙하게 사인하는 성훈.

CUT TO
신작 코너 앞에 혼자 서 있는 성훈.
성훈의 책 옆에 놓여 있는 강희 얼굴 크게 박힌 책 <연애 보살 상담소>.
‘점집 가지 말고 이 책을 읽어라! 10년 차 연애 전문 칼럼니스트
박강희의 신통한 연애 상담’이라고 문구 적힌 책 띠지.

영아(E) 아빠!

를 부르는 여자아이의 소리에 성훈이 시선 돌리면
성훈과 혜윤, 그리고 영아(5세, 여)가 걸어간다.
둘째를 임신한 혜윤이 허리를 짚으면
한 손에는 영아를 안고 나머지 손으론 혜윤 허리 받치며 걸어가는 성훈.
성훈, 다시 눈 감았다 뜨면 혜윤과 성훈 모습 아닌 다른 가족의 모습.

영아가 들고 있던 풍선에 스마일 마크 그려져 있다.

#81. 에필로그. 빠른 몽타주

#72 이전 성훈 집에서 스마일 마크 그려진 초록색 앨범 보던 순간으로
돌아가서 앨범 첫 장에 성훈 출생 직후 부영, 문숙과 찍은 첫 가족사진.
뒤이어 성장하는 성훈의 모습 담긴 사진들.

— “성훈아! 엄마 찾을 수 있을 거 같아”라고 외치며 서재로 들어오는
부영. 자신의 기록 노트 읽던 성훈과 마주한다. 부영이 “그게 아니야”라고
소리치지만 뛰쳐나가는 성훈. 잠시 뒤 자동차 클랙스 소리와 타이어 끼익 소리.
— 병원 수술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서성이는 부영.
성훈이만 살려주면 뭐든 하겠다며 간절히 기도한다.
— 머리에 붕대 감은 성훈, 눈 뜨자마자 부영에게 “엄마는?”이라고 묻는다.
잠시 아무 말 못 하다 “여행”이라고 대답하는 부영.
— 서재에 있던 금속 실종 관련 자료들 떼어지고 부자의 추억들로 채워진다.
— 커다란 박스 맨 아래 놓여지는 부영의 기록 노트. 이내 닫히는 박스.
— 초록색 앨범 맨 뒷장에 끼어 있는 성훈의 어버이날 카드.
빠뚱 글씨로 적힌 ‘아빠 엄마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 밑에 적혀 있는 부영의 답장.
‘성훈아.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사랑한다.’

끝.

작가 후기

〈자전 소설〉은 제시카 랭 주연의 〈뮤직 박스〉라는 영화 한 편과 ‘성공 앞에선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의 욕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많은 이의 합평을 통해 완성도라는 욕심까지 더해져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갔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그중 반지 끼워주고픈 손가락은 있다고, 저에겐 〈자전 소설〉이 반지 끼워주고픈 그런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불링블링 빛나는 반지를 끼워주진 못한 것 같아 살짝 미안한 맘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졌다면 달라졌을까? 더 나은 수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확실한 건 지금의 〈자전 소설〉은 나의 최선입니다. 이 수정고가 최고의 버전은 아니겠으나 앞으로 드라마를 쓰는 내내 끝없는 반면교사 역할을 해줄 것은 틀림없겠지요.

치열하게 드라마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오픈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죽이고 싶은 여자와 죽고 싶은 여자,
서로의 속내를 감춘 채 살얼음 언 눈길을 위태롭게 내달린다.
차 트렁크엔 유골함이 든 판도라의 상자를 싣고서.”

미끄러지는 건 순식간이다.
살얼음 언 도로를 달리다 미끄러질 땐 핸들을 놓고 브레이크도 밟지 말아야 한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알아서 멈출 때까지.
운 좋게 멈출 수도, 어딘가에 부딪혀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무언가 하려 할수록 더 큰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이미 벌어진 일이란 그렇게 건잡을 수 없다.
누군가의 인생이 도랑에 빠질 때까지. 어찌면 여러 명의 인생이 전복될 때까지.
누군가의 죽음이 그렇게 남은 사람들을 영원히 옥죄 때까지.

여기, 같은 사고로 전복되어버린 두 인생이 있다.
애인을 살해한 어린 여자애를 죽이고 싶은 여자,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망가져 죽고 싶어진 여자.
되돌릴 수도, 잊히지도 않는, 이미 벌어진 상실감은
누군가에겐 분노와 복수심으로, 다른 누군가에겐 후회와 죄책감으로 드러난다.

그 뜨거운 마음들이 어떻게 단번에 식겠냐마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흘러가는 대로, 미끄러지는 대로 가다 보면
그 끝에선 눈이 흘날리듯, 떠난 이들의 잔해를 놓아줄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다.
뜨겁게들 사랑했으니 그거면 되었다.
당신, 살아 있어도 좋다.

서진아(33세, 여)

가장 평균의 여자였다. 잘나가는 재수학원 강사였고 3개월 뒤 남자친구 창섭과의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다. 순탄하게 잘 굴러가던 인생은 그날 전복됐다.

창섭은 그 밤, 어떤 여자애의 차에 두 번이나 치여 죽었다. 진아가 보는 앞에서. 일도 생활도 단절된 지 1년. 시간은 모든 걸 잊게 해준다더니, 잊히기는커녕 사고 난 집 앞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숨쉬기가 버겁다. 그래도 어떻게든 잊고 살려고 했다. 그런데 1년 만에 눈길이 닿은 그곳엔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할 윤재가 서 있었다. 그것도 웃으면서. 그래서 따라나선다. 이 길이 어디까지 미끄러질지 모르겠지만.

임윤재(22세, 여)

자유분방하고 녀살 좋게 뻘뻘한, 그저 재밌는 게 좋았던 철부지였다. 거침없이 말하고 욕하기도 잘했지만, 그래도 상식선은 지켰다. 그땐 당연하게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라고 생각했다. 안일했다. 현재는 귀휴 나온 수용자 처지. 막 할머니의 장례를 치렀고, 봉안당 가던 길에 유골함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특유의 뻘뻘함으로 히치하이킹을 했다. 모르는 사람의 차를 얻어타는 건 무섭다지만, 이 여자는 모르는 사람은 아닐 것 같다. 줄곧 날 따라왔으니까.

지창섭(32세, 남)

진아의 남자친구. 언제나 유쾌했고 여유로웠지만, 경솔했다. 녀살 좋게 웃으며 진아의 모든 추궁을 능글맞게 피하곤 했다. 딱 그 정도의 거짓말에 능했다.

정준환(33세, 남) 창섭의 친구**이혜인(21세, 여) 진아의 학생****김수민(21세, 여) 진아의 학생****‘알아야 할 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애가 멀쩡히 내 세상으로 걸어 나와, 웃었다.’**

1년 전 사고로 남자친구를 잃은 진아. 그를 죽인 여자애가 있다는 건 알지만 애써 잊고 살려 했다. 그런데 과거 제자들을 만나 속이 한껏 들쭉서진 그날, 사고 현장인 진아의 집 앞에 윤재가 제 발로 걸어들어온다. 감옥에 있어야 할 애가 웃으면서. 울컥. 주체 안 되는 화를 감당할 수 없어 윤재를 따라가는 진아.

“가방에 그것도 들었구나. 유골함”

윤재가 탄 버스를 따라 휴게소에 멈춰 선 진아, 우발적으로 윤재의 가방을 훑친다. 그냥 어떤 앤지만 보려 했다. 그런데 돌려놓기도 전에 윤재가 먼저 다가온다. 가방을 도둑맞았다며 차를 태워달라는 윤재. 그러더니 진아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해맑고 뻘뻘하게 진아의 차를 타버린다. 그렇게 진아는 죽이고 싶은 여자애를 태우고 얼어붙은 눈길을 달린다.

대화하면 할수록 윤재는 더 이상하고, 날이 선 듯 사납다. 게다가 잃어버린 가방엔 할머니의 유골함까지 들었다며 이죽거린다. 무언가를 아는 듯한 윤재와 아슬아슬한 동행을 하는 진아. 목적지로 갈수록 속내를 감춘 두 사람의 차는 미끄러질 듯 위태로운데...

#1. 도로변 야외 주차장(낮)

인적 드문 동네. 낙엽 하나 없는 가로수와 눈 온 뒤 지저분한 보도까지 텅 비어 있는 풍경 사이로, 큰 외투에 파묻히듯 몸을 숨긴 진아(33세, 여). 한 손엔 파스텔 톤으로 꾸민 미니꽃다발을 들고 슬픈 표정으로 차로 다가오는데. 멀리 걸어오던 수민과 헤인(21세, 여)이 진아를 본다. 헤인이 “어?” 하고 알은체하자 수민이 하지 말라는 듯 팔을 잡아끈다. 뿌리치고 진아에게 달려가는 헤인.

헤인 (눈 반짝이며) 쌤? 맞죠! 진아 쌤! 저예요. 선일 재수학원 A반 헤인이!
수민 (쭈뼛쭈뼛 다가와) ...안녕하세요. 쌤. 저 수민이에요.
헤인 쌤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볼 뻔했잖아요.
진아(NAR) (헤인을 보는) 반가움을 가장한 호기심.
헤인 진짜 오랜만이다! 쌤 거의 1년 만 아니에요? 작년 이맘때가? 아니다, 수능 직전이니까 더 전이구나! 말없이 그만두셔서 얼마나 놀랐는데요.
진아 그래... 잘 지냈니?
헤인 (빙글 웃으며) 잘은 지냈죠. 덕분에 저 대학 갔잖아요! 석명대요! 조금 더 잘 갔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요.
진아(NAR) 고마움을 빙자한 원망.
헤인 그리고 보니 결혼은 이미 하셨겠구나. 학원은 결혼 때문에 그만두신 거 맞죠?
수민 (화들짝 놀라) 야! (하고 눈치 보는)
진아(NAR) 해맑음 뒤에 감춘.
헤인 그때 쌤 애기도 가졌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아니었나?
진아(NAR) 악의적인 즐거움.

헤인이 궁금하다는 듯 눈을 반짝인다. 수민만 안절부절인데. 잘 참고 있던 진아, 그런 헤인의 모습에 무언가 건드려진 듯 울컥한다.

진아 (일부러 더 담담하게) 못했어, 결혼. 남편 될 사람이 살해당해서.

놀라는 수민과 헤인. 서늘한 진아의 표정 위로,
(E) 광, 차로 무언가 치이는 듯한 굉음이 들린다.

#2. 회상. 진아의 집/거실+아파트 정문 입구(밤)

집 거실에 앉은 진아, 귀에 대고 있던 수화기를 놀라 살짝 떨어뜨린다.

진아(E) 사람이 차에 치이는 소리, 생각보다 되게 커. 순간 소리가 들린 게 창밖인지, 전화 너머인지 모를 만큼. 근데 그때.

불안한 진아. 덜덜 떨며 일어서서 베란다로 가 커튼을 꼭 부여잡는데. 수화기 너머로 봉, 차가 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에 커튼을 확 찢히는 진아. 경악하는 진아의 얼굴 위로.

진아(E) 쓰러진 그 사람 위로 차가 다시 지나가는 거야. 덜컹.

쿵 소리에, 주저앉은 진아. 억 소리도 한번 못 내고 숨도 못 쉴 듯 괴로운데. 그 위로 괴물이 울부짖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린다. 진아의 시선을 따라 보면, 아파트 앞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있는 차. 열린 운전석 앞으로 검은 옷차림의 여자가 마치 돌처럼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다. 고개를 들면 울고 있는 윤재(21세, 여)다.

진아(E) 나는 숨도 못 쉬는데 사람 죽인 애는 잘만 울더라.

그 울음소리가 웃는 듯 우는 듯 기괴한데.

#3. 도로변 야외 주차장(낮)

얼어 있는 수민과 잔뜩 놀란 헤인. 여전히 무표정하게 보고 있는 진아.

진아 아닌가? 운 게 아니고 웃은 걸까? 딱 너만 한 여자애였는데.
수민 (할 말을 잃은)
진아 그러니 내가 학원에서 니네를 어떻게 봐. 다 그 애처럼 보이는데.
헤인 아 대박. 왜 그랬대요?
진아 ...몰라.
헤인 왜요? 감옥이라도 찾아가서 따져야지. 왜 죽였는지, 무슨 관계였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진아 (빤히 보다가) 신나 보인다.
헤인 네?
진아 상상할 여지 많아서 재밌나 봐. 예전부터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서
 떠드는 거 좋아했잖아. 애 가져서 결혼을 서두른다니, 뭐 그런 거.
헤인 (빙정거리듯) 썸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뭐 없는 얘기는
 아닌 거 같았는데... 나 썸 진짜 좋아했어요.
수민 (작은 소리로 헤인을 말리는) 그만해. 진짜.
진아 니네 나 좋아하는 적 없잖아. 돈 벌어먹는 강사 주제에 선생질한다고.
헤인 !
진아 다 알아. 너 나이 댄 표정도 말도 못 숨기니까. 투명하게 못됐지.
헤인 (당황하지만 되레) 아니, 뭐 좀 만나보겠다고 별소릴 다... (하는데)
진아 만나? 왜? 괜히 만나서 내가 걔 죽이고 싶어지면 어떡하니. 딱 너 같은
 그냥 어린앤데. 어리고 멍랑하고 뽀뽀한.
헤인 !
진아 대학 간 건 축하해. 모조록 행복하게 지내고. (한숨) 근데 듣고 싶은
 가십 다 채웠으면 가도 될까?

서슬 퍼런 진아의 모습에 헤인이 하얗게 질린다.
물끄러미 보다가 차에 타는 진아.
차 문을 쿵 닫고 앉아 한숨 쉬는데, 사이드미러로 씩씩거리며 화내는 헤인과
달래듯 끌고 가는 수민이 보인다. 수민이 안타깝게 돌아보면,
그 눈길을 피하는 진아. 알고 있다. 괜한 화풀이다. 핸들에 머리를 묻는.

진아 못났다. 진짜.

#4. 아파트 정문 입구+차 안(낮)

운전해서 오는 진아. 정문이 보이자 숨이 가빠온다.
애써 가로수 근처를 보지 않으려던 진아, 대시보드 위에 올려둔 미니꽃다발에
눈길에 닿자 울컥한다. 정문 입구 옆에 차를 잠시 세우는 진아.
창설의 사고가 났던 가로수에는 아직도 부서진 흔적이 남아 있다.
용기 내 쳐다보는 진아, 이내 고개를 숙인다. 역시 아직은 힘이 든다.

진아(NAR) 이젠 더 알고 싶지 않다고 믿었다. 그런데.

심호흡하고 다시 핸들을 잡는 진아. 시선을 피하며 차를 확 돌리는데,
차 옆으로 지나가는 한 여자. 진아가 잘못 봤나 싶어 놀라 돌아본다.
걸어가는 여자, 분명 윤재다. 차를 세우고 얼어붙는 진아.

#5. 회상. 법원/복도(낮)

파리한 얼굴의 진아가 법정 문을 열려는데 막아서는 창설 모.
밀치고 문을 여는 진아. 윤재가 피고석에 앉아 있다.
순간 의식이 흐려지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데.
달려가는 문틈으로 보이는, 뽀뽀하고 당당한 윤재의 옆모습.

진아(NAR) 알아야 할 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애가.

#6. 아파트 정문 입구+차 안(낮)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윤재가 담담하게 가로수 앞에 선다.

진아(NAR) 멀쩡히 내 세상으로 걸어 나와,

윤재가 무심히 가로수를 보다가, 상처 난 가로수를 쓰다듬는다.
그러더니 별안간 미소를 보이는 윤재.

진아(NAR) 웃었다.

이내 큰 가방을 옆으로 메고선 돌아서는 윤재.
즐거워 보이는 가벼운 발걸음이다.
핸들을 잡은 진아의 손이 떨린다. 이내 정신을 다잡듯 핸들을 꼭 잡는 진아.

진아(NAR)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진아의 차가 윤재를 따라간다. 그 위로,
타이틀. <첫눈길>

#7. 시외버스 정류장 앞+차 안(낮)

컨테이너에서 표를 사고 나오는 윤재.
멀찍이 차를 세운 진아가 윤재를 지켜본다.
윤재, 정류장에 선다. 기분이 좋다. 연단을 괜히 한번 발로 차보고, 하늘도 본다.
곧 눈이라도 쏟아질 듯 흐리다.
그래도 얼마 만의 자유인가 싶어 웃음이 또 난다.

그러다 뭔가 이상한 기분에 고개를 핵 돌리면,
정차된 차 안에서 보고 있는 진아.
윤재, 이내 시선을 거두고 진천행 버스에 오른다.
그리고 버스를 뒤따르는 진아의 차.

#8. 고속도로 전경(낮)

눈 온 뒤 설산의 풍경과 흐린 하늘이 을씨년스럽다.
그 사이 고속도로로 버스가 지나가면 그 옆에 붙어서 따라가는 진아의 차.

#9. 고속도로+차 안(낮)

윤재가 탄 고속버스를 뒤따라가는 진아. 내비게이션엔 진천을 찍어냈다.
“전방에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내비게이션 안내 멘트가 재차 들리는데, 고속버스에 우측 깜빡이가 들어온다.
보면, 허름한 휴게소 방향이다. 진아가 의아한데.
휴게소로 들어가는 고속버스. 일단 따라가는 진아의 차.

#10. 휴게소/주차장+차 안(낮)

평일 낮, 허름한 휴게소엔 사람도, 차도 적다. 진아가 차 안에서 밖을 지켜보면.
휴게소 옆 테이블에서 가방을 안고 있는 윤재.
윤재 옆으로 어떤 남자가 앉으면, 별안간 말을 건다. 이내 활짝 웃더니 담배를
건네받는 윤재. 남자에게 빌린 라이터로 불을 붙이곤 자리를 비우는데.
남자가 가고 나면 윤재의 가방만 덜렁하니 남아 있다.
그저 지켜보고 있는 진아, 그런데 윤재가 타고 온 버스가 휴게소를 떠난다.
의아해하며 차에서 내리는 진아.

#11. 휴게소/휴게 장소(낮)

진아, 윤재가 사라진 휴게소 방향을 둘러본다. 보이지 않는 윤재.

고민하다 돌아서는데,

여자(E) 저기요?

진아 (돌아보면)

여자 여기 가방 두고 가셨어요.

여자가 윤재의 가방을 들고 진아를 본다.

진아 아... (하다가 별안간) 감사합니다.

진아, 윤재의 가방을 받아 들고 걸음을 서두른다.

#12. 휴게소/주차장(낮)

차 뒤편으로 온 진아, 윤재의 가방을 트렁크에 올리려는데,

턱하고 열려버리는 트렁크. 그 위로.

창섭(E) 또또또 급발진했지?

보면, 창섭이다. 트렁크를 살피며 찌그러 앉는 창섭.

그런 창섭을 가만 보는 진아.

창섭 (잔소리하는) 후진 좀 급하게 하지 말라니까. 성격 진짜. 트렁크 고장 났잖아. 술만 안 먹어도 내가 운전하는 건데. 어쩔 거야 이거. (트렁크를 가리키는 듯, 가방을 가리키는데)

진아 ...그냥 보고 돌려줄 거야.

진아가 트렁크 안에 가방을 올리고 열어본다. 스카프로 잘 싸인 상자가 보인다.

무시하고 상자 옆으로 뒤져보는 진아. 상자 밑에 깔린 귀휴 허가증.

진아가 귀휴 허가증을 당겨서 꺼내려는데 잘 안 꺼내진다. 살살 당기는 진아.

허가증 하단 내용이 보인다. '귀휴지: 경기도 광주시 내, 귀휴기간: 2021년 12월 6일 07:00시부터 2021년 12월 10일 16:00시까지, 조건: 보호자와 동행'

진아 귀휴? 거봐. 사람 죽여도 휴가는 잘만 나오잖아.

더 당겨서 꺼내보려는데, 그때 윤재가 테이블 쪽으로 돌아온다.

멈칫, 윤재를 지켜보는 진아.

당황하고 겁먹은 윤재. 옆자리에서 명함을 주워들고

어쩔 줄 몰라 두리번거린다.

그런 윤재를 보는 진아, 이상하게 통쾌하다. 핫김에 트렁크 문을 닫는다.

창섭이 다시 진아를 올려다보면.

진아 재도 뭐라도 잃어봐야지. 나만 너무 큰 걸 다 잃었잖아.

그 말에 답하듯, 창섭이 사라지고 없다.

운전석으로 가는 진아. 그런데 별안간 윤재가 진아를 보더니 달려온다.

뭐지, 당황스럽지만 애써 티 내지 않는데,

하필 운전석 문도 바로 열리지 않는다.

스마트키를 재차 누르는 진아. 어느새 다가와 앞에 서는 윤재.

윤재 저기요. 혹시 저기 있던 가방 못 보셨어요?

진아 ...네?

윤재 (뻘뻘 보다가) 못 봤구나. 그럼 저 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진아 (어이없는) 뭐라구요?

윤재 지금 출발하려는 차가 그쪽밖에 없어서요.

진아 싫은데요.

윤재 그래도 태워주시면 안 돼요? (엄지를 들며 씩 웃는) 히치하이킹.

진아 ...

윤재 방금 가방 도둑맞아서 폰도 지갑도 없거든요. 탄짓하다 버스도 놓쳤고. 그래도 모르는 남자 차를 얻어탈 순 없잖아요. 세상이 흥흥한데, 모르는 여자가 낫지.

진아의 눈치를 보다가 말리기도 전에 보조석에 확 타버리는 윤재.
놀라 운전석으로 들어서서 보는 진아.

진아 지금 뭐 하는. (하는데)

윤재 (진아의 핸드폰에 찍힌 내비 주소 보며) 다행이다! 같은 방향이네.

진아 저기 이봐요.

윤재 (명함을 보이며) 아까 옆에 있던 아저씨가 내 가방 가져간 거 같은데 이걸 떨어뜨렸더라고요. 여기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그니까 갈 길 가다 중간에 좀 내려주세요? 가방 꼭 찾아야 해서 그래요.

말리기도 전에 안전벨트를 매는 윤재. 뻔뻔하게 진아를 올려다본다.
내가 가방을 가져간 걸 아는 걸까, 윤재의 기색을 살피는 진아.
그러나 윤재 그저 해맑다. 그래서 더 궁금해진다.

#13. 고속도로+차 안(낮)

출발한 차 안. 윤재는 태평해 보인다.

대시보드 위의 미니꽃다발을 건드리는 윤재.

진아가 울컥, 윤재의 손에서 꽃다발을 뺏어 뒷자리에 둔다.

머쓱해지는 윤재, 이내 차 내부를 둘러보는데.

그 태연한 모습에 더욱 심기가 불편해지는 진아.

진아 이런 식으로 남의 차를 자주 얻어타요?

윤재 처음인데 할 만하네요? 히치하이킹이 되네. 영화에서만 봤는데.

진아 (어이없는) 안 무서워요?

윤재 별로? 무서울 게 없어서. 뭐 잘못돼봐야 죽기밖에 더하겠어?

진아 뭐라고요?

윤재 (환하게 웃으며) 농담이에요.

진아 그런 걸 어떻게 농담으로 해요.

윤재 모르는 거죠.

진아 네?

윤재 아 농담이라구요. 되게 예민하네. (하다가) 어? 근데 블랙박스 되는 거예요? 여기 안 찍혔나? 내 가방 도둑?

진아 ! 건들지 마요.

윤재 왜요.

진아 ...안 되는 거예요. 고장 났어요.

윤재 (피식, 묘하게 비꼬듯) 아. 그냥 불만 들어오는 가짜? 이런 거 진짜 쓰는 사람이 또 있네. 신기하다.

마치 제 차처럼 이것저것 구경하던 윤재가 라디오 노래를 확 틀어버린다.
시끄러운 댄스 음악이 나온다. 진아가 돌리려는데.

윤재 그냥 들어요. 좋아하는 노랜데.

윤재가 즐거워한다.

좋아하는 노래라고? 그 모습에 진아가 욱하고 또 화가 난다.

그 노래를 따라.

진아(E) 시끄러.

#14. 회상. 진아의 집/거실(낮)

같은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실.

진아가 TV 볼륨을 낮추려는데 리모컨을 뺏어 드는 창섭.

진아 이러다 옆집에서 항의 들어와.

창섭 에이 티브이 샀는데 소리는 제대로 들어봐야지.
 진아 지금 걸그룹이나 볼 때야? 우리 아직 신혼여행 비행기고 숙소고 예약 하나도 못 했는데? 이런 노래가 뭐가 좋다고.
 창섭 와. 어떻게 이 노래에 신이 안 나? 진짜로?

창섭, 진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우스꽝스럽게 노래에 맞춰 춤을 춘다.
 철없다는 듯 보던 진아, 결국 졌다. 창섭의 모습에 웃음이 터진다.
 그 모습에 활짝 웃는 창섭. 뭐라 말하려는 듯 입을 열면,
 윤재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재(E) 신나는 노래 들으면 그래도 잠깐은 다른 게 다 잊혀지잖아.

#15. 국도+차 안(낮)

특, 진아가 노래를 꺼버린다. 윤재, 어이없다는 듯 진아를 보는데.

진아 그냥 조용히 가죠.

윤재가 삐죽거리다가 손을 뺀 진아의 핸드폰을 거치대에서 빼 온다.
 진아의 핸드폰을 이리저리 만지며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윤재.
 운전대를 잡은 진아가 저지하지도 못하고 놀란다.

진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윤재 경로 추가했어요. 됐다.

다시 핸드폰을 거치대에 올리는 윤재.
 내비게이션 표시를 따라 좌회전하는 진아.

#16. 국도 전경(낮)

진아의 차가 횡한 국도로 들어선다. 양옆으로 논밭만이 즐비한 길이다.

#17. 국도+차 안(낮)

윤재가 창밖을 보다가 안전벨트를 풀더니 창문을 열고 머리를 내민다.
 흠뻑, 그런 윤재를 관찰하듯 보던 진아. 입을 뚫는다.

진아 뭐 하는 사람이예요?
 윤재 누구요? 나요? 음... 막사는 사람?
 진아 그렇게 말고요.
 윤재 말고 뭐 있지? 직업 없고. 가족 없고. 그럼 막사는 거 맞는데?

진아, 심드렁한 윤재의 말투에 할 말을 잃는다. 공연히 액셀을 밟는다.
 윤재, 왜 저러나 싶어 진아를 보는데. 진아가 별안간 브레이크를 확 밟는다.
 휘청, 앞으로 쏠리는 윤재. 대시보드에 부딪힐 뻔하고.

윤재 아이 씨, 뭐해요! 운전 진짜 못하네.
 진아 미끄러지는 거 같아서 속도를 줄인다는 게 서버렸네요.
 윤재 어제 눈 왔잖아요. 살얼음 길은 티도 안 나는 거 몰라요?
 진아 그래서 섰잖아요.
 윤재 이 상황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위험하게? 미끄러지면 답 없어요.
 그냥 브레이크도 핸들도 가만두고 미끄러지는 게 최선이겠어.
 진아 알아요. 나도.
 윤재 알면 천천히 가요. 급하게 가다간 급하게 죽어. (하더니 문을 여는)
 진아 왜 내려요?
 윤재 이미 섰는데 뭐. 천천히 가자니까요?

하더니, 별안간 풀썩 차에서 내리는 윤재.

#18. 시골길 국도변(낮)

그냥 텅 빈 눈밭뿐인 시골길. 너른 벌판이 펼쳐져 있다.

진아는 그대로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윤재를 관찰하는데.

윤재가 차 뒤편으로 다가가더니 뒷바퀴를 본다.

그러다 트렁크 쪽으로 다가가는.

진아, 화들짝 놀라 차에서 내려 다가가면.

윤재가 트렁크에 손을 올린다. 덜컥 열리는 트렁크.

그러나 열리기 전에 진아가 트렁크 문을 닫는다.

윤재 갑작아. 왜 열려? 이것도 고장 났어요? 블랙박스처럼?

진아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속이 안 좋다는 듯 가슴을 세게 치는 윤재. 불안한 눈으로 달려 내려가
얼어붙은 눈에서 광광 튀어본다. 신나 보이는 윤재에 짜증이 울컥 나는 진아,
다가가는.

진아 뭐하냐고 묻잖아요.

윤재 멀미 나서요. 콧 서니까 좀 놀라서? 뛰면 낫거든요. 바람도 쐬고.

진아 하...

윤재 아이 씨, 더럽게 추워. 눈바닥 되게 단단하네. 얼어서 그런가?

구르면 진짜 아프겠다. 좀만 폭신하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하다. 획, 돌아서 그냥 혼자 차로 돌아가는 진아.

그 모습을 보더니 얼른 달려오는 윤재. 차를 타서는 진아를 보고 웃는다.

윤재 같이 가요.

진아 보란 듯이 과장스레 가슴을 치는 윤재.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그 모습을 짜증 난다는 듯 보는 진아.

#19. 도로+차 안(낮)

진아의 차가 적막한 시골 도로를 달린다.

윤재가 창문을 열고 다시 고개를 내민다.

진아가 그런 윤재를 본다. 정말 이상한 애다.

지나치게 여유롭고 태평하다.

진아 가방 찾아야 한다면데요, 이렇게 천천히 가도 돼요?

윤재 거기 지갑이랑 폰이 들었으니까. 아!

진아 ?

윤재 그것도 들었구나. 유골함.

진아 (놀라 운전대가 꺾여 차가 잠깐 휘청한다) 뭐요?

윤재 유골함이에요. 뭘 그렇게 놀라요?

진아 아니 말이 안 되니까. 유골함이 왜 가방 안에 있어요?

윤재 할머니 장례가 오늘 끝났거든. 할머니가 자기 죽으면 화장터에 뿌려
달랬는데, 내가 그냥 들고 왔어요.

진아 왜요?

윤재 할머니 별로 안 좋아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더라고.

진아 (표정 관리가 안 된다, 경멸스럽게 보면)

윤재 뭘 그렇게까지 봐요? 누구나 애뜻한 할머니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아 ...

윤재 할머니가 아빠한테 좋은 사람이었지만 엄마한테 나쁜 사람이고
나한테 더 나쁜 사람이었거든. 그래도 잃어버리는 건 아빠한테 좀
미안해서 찾는 거예요. 그니까 급하겐 안 가도 돼요.

진아 (어이없다)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하게 두고 다녀요?

윤재 사실 놀라긴 훔친 사람이 더 놀랐겠지.

진아 !

윤재 가방에 돈이라도 들었나 했더니 유골함이 들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

진아 ...가져간 사람도 보면 다시 돌려주지 않겠어요? 전화하거나.

윤재 그렇긴 한데 나한테 시간이 오늘밖에 없어서요. 나 막사는
애라니까요? 돌려받을 주소도, 가족도 없어.

INSERT #12

윤재 가방 속에서 귀휴 허가증을 보는 진아.

조건이 생각난다. 윤재에게 보호자가 있다.

진아 어떻게 돌려받을 주소지가 없어요. 누구라도, 어디라도 있겠죠.
 윤재 이모가 있긴 한데 이모한테 자기 언니의 시어머니 뺏가루를 보내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그 유골함엔 이름도 없어. 누가 뿌려질 유골함에 각인을 새겨?
 진아 (태연한 윤재에 말문이 막히는데)
 윤재 그냥 신고할까도 했는데, 좀 궁금하기도 해서. 잘못 가져간 걸 수도 있으니까 사정은 들어보려고요.

그 말이 의미심장하다. 진아, 윤재가 뭔가를 알고 있나 불안하다.
 차를 돌리는 진아.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소리가 나온다.
 그 소리에 윤재가 진아의 핸드폰을 들여다본다. 그때 오는 메시지.

윤재 어? 메시지 오는데? (소리 내 읽는) A반 김수민. ‘ 쌤 관찮으세요?’
 진아 수민이? (하고 보려는데)
 윤재 (핸드폰을 돌려 계속 보며) ‘아깐 진짜 죄송했어요. 쌤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인 줄 몰랐어요.’
 진아 ! 왜 읽어요? 그냥 줘요.
 윤재 내비 가려서요. 계속 오는데?
 윤재가 아랑곳하지 않고 보려 하자, 진아가 거치대에서 핸드폰을 확 빼 든다.
 이어서 계속 오는 메시지. 핸드폰을 잡고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는 진아.
 순간 차가 다시 휘청한다. 다시 앞으로 확 꺾이는 윤재의 몸.
 급하게 차를 세우는 진아.

#20. 시내 인근 도로변+차 안(낮)

진아가 뒷바퀴를 본다. 타이어에 핑크가 나 있다.
 보조석에서 내려서 진아 뒤로 오는 윤재.

윤재 핑크네? 스페어 갈아봤어요? (트렁크로 손이 가는데)
 진아 (윤재의 손을 ‘탁’ 쳐내며) 스페어 없어요.
 윤재, 손을 보며 어이없다는 듯 진아를 보면.
 진아 (외면하며) 카센터에 전화 좀 할게요.

진아의 핸드폰 알림창에 쌓여 있는 수민에게서 온 메시지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올려버리고 카센터 번호를 찾는 진아.
 진아를 잠시 보다가 다시 차에 오르는 윤재, 혼자 진아의 차 안을 살핀다.
 별생각 없는 듯 무심하게. 그러다 블랙박스에 눈이 간다.
 백미러로 보이는 진아를 돌아보는 윤재. 차 뒤편에서 통화 중인 모습이다.

진아 그래서 언제 오실 수 있는데이?
 카센터(F) 어제 첫눈 온 데다 그쪽 지방은 제설작업도 덜돼서 한 시간 더 잡으셔야 해요.

난감하다. 차 안에 탄 윤재를 보는 진아.
 그 사이 윤재, 진아의 차 수납함을 열어본다.
 손가락으로 무심히 건드려보는 물건들. 핸드크림, 카드.
 그 사이 영화관 포토 티켓이 보인다. 뒷면을 돌려 보려는데,
 차로 돌아오는 진아를 보고 열린 수납함을 닫는 윤재.

진아 한 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어떡할래요? 급하면 먼저 가고요.
 윤재 어딜 가요? 히치하이킹을 또 해요? 그건 좀 무서운데?
 진아 겁 없다면서요.

윤재 무서울 게 없는 거지, 겁은 있어요. 만약에 모르는 남자 차 탔다가 해코지당하면 어떡해? 죽는 것보단 그게 좀 더 무서운데.

진아 그럼... 기다려도 되고요.

윤재 배고픈데 뭐 좀 먹을래요? 저 앞이 시내거든요?

진아 난 됐으니까 다녀와요.

윤재 같이 가요. 나 두고 가면 어떡해?

진아 (슬슬 짜증 난다) 혼자 안 갈 테니까 (하는데)

윤재 에이, 처음 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돈 없어요. 같이 가요? 네?

차에서 내려 진아의 팔을 고는 윤재. 윤재에게 이끌려 차에서 내린 진아가 멀리 보이는 시내를 쳐다본다. 문득 낮이 익다. 아는 동네다. 윤재를 한번 보고는 차 문을 닫는 진아.

#21. 시내 거리(낮)

가게도 많지 않은, 시장이 인접한 허름한 시골 변화가다.
굳은 표정의 진아, 윤재를 신경도 쓰지 않고 변화가를 둘러보는데.

#22. 회상. 시내 거리/국밥집 앞(밤)

늦은 오후, 신나 보이는 창섭과 대조되게 뿔난 진아.

진아 무슨 데이트를 이런 데서 해?

창섭 왜? 여기 진짜 맛집 많아. 여기가 김 사장 거래처 근처인데, 나름 저기 캠퍼스도 있어서 들어가는 데마다 다 맛있단니까.

진아 그니까. 우린 밥 먹으려고 데이트하냐고.

창섭 (못 들은 척) 저기 치즈 돈가스 예술인데. 그래도 오늘은 저기 국밥을 꼭 먹어야 해.

진아 국밥 먹자고 여기까지 왔다고? 진짜... (하다가) 아! 여기서 맨날 술 먹는구나?

창섭 (놀라)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준환이랑.

진아 메뉴가 딱 그러네. 국물 있는 건 소주랑 먹고 치즈 들어간 건 맥주 없음 안 먹잖아 너.

창섭 (닉살 좋게) 그래도 나 적당히 취하면 좀 귀엽지 않냐? 요즘은 많이 안 먹잖아. 가자. 응?

진아 나 대리시키려고?

창섭 아니지. 내가 진짜 맛있게 먹은 음식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주고 싶은 거지. 그 김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한잔하면 더 좋고.

진아 말이나 못 하면.

진아에게 애교 부리는 창섭. 뼈죽이면서도 싫지 않은 듯 화가 풀린 진아. 둘이 허름한 국밥집으로 들어가는데.

#23. 국밥집 안(낮)

국밥을 앞에 두고 그저 보는 진아.
맞은편에 앉은 윤재가 물색없이 국밥을 맛있게 먹다가 말고.

윤재 왜 안 먹어요? 여기 국밥 진짜 유명한데. 보는 거랑 달라요.

진아 와본 동네예요?

윤재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길을 잘 알죠.

진아 (표정 더 굳어지는데)

윤재 근처에서 자취했어요. 그러지 말고 먹어봐요.

진아 입맛 없어요.

윤재 후회할 텐데. 언제 다시 먹어볼 줄 알고?

진아 다시 오면 되죠. 언젠가.

윤재 언젠가라는 건 없어요.

진아 ?

윤재 항시 잘 먹어야죠.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먹고 죽은 귀신이 원래 때깔도 곱했어.

 진아, 태연한 윤재가 소름 끼치게 밉다.
 아무렇지도 않게 밥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윤재.

윤재 선생님이예요?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진아 재수학원이요. 지금은 그만뒀고요.
윤재 왜 그만뒀는데요?
진아 ...애가 죽어서요.
윤재 (멈칫, 진아를 보면)
진아 그리고 보니 정말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좋은
 밥 잘 챙겨 먹을 걸 그랬어요. 곱게라도 보내주게.

 진아가 시선을 피하고 국밥을 먹기 시작한다. 억지로 먹는 듯, 꾸역꾸역.
 윤재, 그런 진아를 뺨히 보다가.

윤재 진짜네.
진아 뭐가요?
윤재 옛날에 우리 엄마가요. 사람이 울고 싶으면 여기 (목을 잡으며) 울대가
 목직해지는데, 그럴 때 넘기기엔 국밥만 한 게 없었거든. 그니까 울고
 싶으면 차라리 밥이나 먹으라더라고.

진아 왜 그런 말을 해요?
윤재 표정이 울고 싶은 거 같아서요. 그냥 생각나서.

 말끝을 얼버무리는 윤재, 다시 밥을 먹는다.
 그런 윤재를 보는 진아. 전화가 걸려온다. 카센터다.

#24. 시내 인근 도로변+차 안(낮)

 타이어를 갈고 있는 카센터 남. 그 모습을 진아가 지켜보고 있다.

카센터남 근데 차가 오래돼서 스페어가 원래 있을 텐데 안 알아보셨나 봐요?
진아 ...
카센터남 다 됐습니다.

 교체한 타이어를 보는 진아. 크게 구멍이 나 있다.

진아 이렇게도 터져요?
카센터남 가끔 도로에 뭐 있었거나 뽕족한 걸로 찢리면 이렇게 터지기도 해요.

 진아가 돌아보면, 멀찍이 떨어진 길가에서 시든 풀들을 발로 차는 윤재.

 INSERT #18
 차에서 내린 윤재가 차 뒤편으로 다가가 뒷바퀴를 보던 장면.

 윤재를 의심스럽게 보는 진아.
 이내 돌아서는데, 그 모습을 보고 빙긋 웃는 윤재.

#25. 고속화도로+차 안(낮)

 다시 출발한 차 안. 진아, 머릿속이 복잡하다. 윤재를 파악할 수가 없다.
 운전하며 자꾸 윤재를 살펴보는데.
 어디선가 벨 소리가 들린다. 진아의 핸드폰이 아니다.
 윤재, 태연하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든다.
 한숨 쉬더니 전화를 받는 윤재.
 놀랐지만 차를 세울 수도 없다. 어찌지 못하고 윤재를 보는 진아.

윤재 소속, 서울서부교도소. 임윤재. 이동 중입니다. 관내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고하겠습니다. (끊는)

진아 지금 뭐예요?

윤재 ...

진아 묻잖아요!

윤재 교도관 전화예요. 내일 다시 돌아가야 해서 보고해야 되거든요.
시간 깜빡했다고 바로 전화하네.

진아 아니... 핸드폰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는데)

윤재 보고용 전화만 할 수 있어서 그 외엔 쓰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관내 벗어난 건 비밀. 사실 경기도에 있어야 해서요.

보면 윤재가 진아를 뵈고 보고 있다.
윤재가 다 알면서 따라왔다는 게 느껴진다. 말문이 막힌다. 마음이 복잡한
진아.
엑셀을 세계 밟는다. 과속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데.

윤재 왜 더 안 물어봐요? 뭘 했길래 교도소를 갔는지?

진아 ...

윤재 뭐 모르는 게 좋긴 하지.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트렁크에 있어요?

진아 (보면)

윤재 (당당한) 근데 사실 나 사람 죽였다? 내 가방 훔칠 땐 그건 몰랐죠?

빠르게 달리는 진아의 차, 방향을 틀어 고속화도로를 빠져나간다.

#26. 대교 밑 우회로(낮)

큰 대교 밑, 주정차 된 차들이 있는 우회로다.
그 옆에 차를 세운 진아. 윤재가 뭐하냐는 듯 진아를 보면.
차에서 내리는 진아,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 내려놓고선 보조석 문을 열며.

진아 내려요.

윤재 와. 여기가 어딘데 내려줘요?

진아 태워줄 만큼 태워줬잖아요.

윤재 (웃으며) 누구 맘대로 가래? 뽀뽀한 거 봐.

진아 지금 재밌어요?

윤재 네. 재밌네. 근데 나 이해해요. 감옥에서 만난 언니들 보니까 다들
제정신 아닐 때 실수하고 그러던데. 그쪽도 애가 죽었다며?
진아 (울컥 화가 나는데)

윤재 그럼 없던 도박도 생기고, 가끔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런 거지.
그 정돈 실수로 봐줄게요. 근데 날 왜 따라왔어요?

진아 네?

윤재 버스 탈 때부터 따라왔잖아.

#27. 회상. 시외버스 정류장 앞(낮)

#7의 정류장 앞. 윤재가 진아의 차를 본다. 대수롭지 않게 고개 돌리는.

#28. 회상. 고속도로+버스 안(낮)

#9의 고속도로. 버스 안에서 가방을 끌어안은 윤재가 무심히 창밖을 보는데,
진아의 차가 보인다. 뵈고 보는 윤재.
갑자기 운전석으로 다가가더니 기사에게 말을 거는.

윤재 죄송한데 휴게소에서 내려주시면 안 돼요? 화장실 가야 할 거 같은데,
딱 5분만요.

기사 네? 여기서 안 되는데.

윤재 그럼 어떡해요? 여기서 그냥 해요?

난감하다는 듯 차를 돌리는 기사. 윤재가 창밖을 주시하는데,

버스를 따라 휴게소로 들어오는 진아의 차를 본다. 불편한 듯 보는 윤재.

윤재가 기가 차 보면,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서는 진아.

#29. 대교 밑 우회로(낮)

빤히 보는 윤재. 진아도 그런 윤재의 시선을 굳이 피하지 않는다.

윤재 그렇게 허름한 휴게소까지 따라오는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진아 알고 있었으면 바로 물어보지. 왜 태워달랬어요?
 윤재 심심했거든. 재밌잖아요? 대체 누구예요? 혹시 내가 죽인 그 남자 가족이에요?
 진아 (덤덤히 보는데)
 윤재 (그런 진아를 보다가 모르겠다는 듯) 아닌가.
 그럼 성필이가 시켰어요? 아님 경주네 언닌가?
 진아 (어이없는) 적이 많나 봐요.
 윤재 감옥 가면 종일 할 게 그런 생각밖에 없거든요. 내가 뭘 잘못하고 살았나, 내 인생은 어디까지 나락에 떨어졌나, 그런 거.
 진아 ...
 윤재 말해줄 생각 없나 보네. 나도 별로 안 궁금하니까 끝까지 말하지 마요. 대신 태워는 줘요.

진아, 잠시 윤재를 빤히 보다가 조소한다.

진아 살인자를 어떻게 태우고 가요. 나한테 뭘 짓을 할 줄 알고요.
 윤재 나쁜 짓 다 똑같지. 나도 이렇게까진 안 할했는데. (주머니에서 메모리칩 꺼내며) 차 블랙박스 잘 돌아가던데? 돌려 보니까 여기 찍혔더라고요? 내 가방 가져간 거.
 진아 !
 윤재 혹시나 해서 빼놓길 잘했네. 나 가는 데까지 태워주면 신고 안 할게.
 진아 맘대로 해요. 기왕이면 신고도 하고. 방금 경기도 지나왔는데, 관내 벗어나면 안 된다고 않았어요?

#30. 대교 옆 도로+차 안(낮)

차에 타는 진아. 다시 출발하려고 기어를 넣는다.
사이드미러로 멀리 멀뚱히 서 있는 윤재가 보인다.

진아 나쁜 년. 뭘 잘했다고 뻔뻔해.
 차를 출발하는 진아. 그리고 그런 윤재 옆으로 환영처럼 창섭이 서 있다.

진아 나쁜 놈. 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서는.
 울컥 눈물이 나는 진아, 흐려지는 시야에 눈가를 훔치는데, 순간 눈앞에 갑자기 뭔가 튀어든다. 놀라 브레이크를 확 밟는다. 방금 뭐였지. 내릴 생각도 나지 않는다. 핸들에 고개를 묻고 얼어버리는데. 도로변에서 그 모습을 본 윤재, 경악하며 달려온다. 숨차게 달려온 윤재가 차 앞으로 선다. 힘없이 누워 있는 강아지를 보는 윤재. 대뜸 안아 들더니 운전석 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윤재 문 열어요! 빨리!
 진아, 고개 들어 윤재와 강아지를 본다. 온몸이 덜덜 떨리는데.

윤재 뭐해요! 정신 안 차려? (하다가 진아 상태 보고) 내려요. 운전 내가 할 테니까.
 운전석 문을 벌컥 열고, 진아에게 강아지를 안기더니 진아를 끌어내리는 윤재. 등 떠밀듯 보조석으로 밀어낸다. 진아가 보조석으로 올라타면, 운전석에 탄 윤재가 망설임 없이 출발한다. 멍하니 그 모습을 보는 진아.

윤재 동물병원 제일 가까운 데로 찾아요. 얼른!

진아가 떨며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데, 품 안의 강아지가 짹 소리를 낸다.
진아의 품에 안긴 강아지가 작고 따뜻하다. 온몸이 떨리면서도 꼭 감싸 안는데.

#31. 동물병원 진료실(낮)

수의사가 강아지 상태를 보고 있다. 긴장해 보고 있는 진아.
강아지가 힘없이 절룩거리다 풀썩 앉는다. 윤재가 강아지를 얼른 받친다.

수의사 차에 치인 흔적은 없는데 그냥 좀 놀랐네.
윤재 근데 왜 못 걸어요?
수의사 이건 그냥 자귀 난 강아지라 그래요.
윤재 자귀요? 그게 뭔데요?
수의사 보통 새끼 때 옥심껏 밥을 많이 먹으면 강아지들이 다리가 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종종 있어요.
윤재 그럼 못 고쳐요?
수의사 평생 다리를 절죠. 상태를 보니까 주인 있는 개는 아니네요. 노견인데 못 먹어서 애가 힘이 없는 거네.
윤재 그래도 천만다행이네. 다친 건 아니라서.

윤재, 진아를 원망하듯 본다. 진아, 여전히 떨림이 가시질 않는다.

#32. 동물병원 앞(낮)

밥 먹는 강아지를 뺨히 보고 있는 윤재.

윤재 이제 어째요? 다시 버릴 거예요?
진아 ?

윤재 데려가서 좀 키워줘요. 그쪽은 능력도 좋아 보이니까.
내가 교도소로 데려갈 순 없잖아.
진아 ...못해요.
윤재 동물병원에 맡겨봐야 주인 못 찾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나이도 많다는데.
진아 (묵묵부답이다)
윤재 (개를 보며) 니 처지가 꼭 나 같네. 맘대로 살다가 한번 빼앗하면 이렇게 조겨지는 게 인생이지.

말문 턱 막히는 진아.

윤재 맞다. 아까 운전한 건 그쪽으로 해요. 나 면허 없어. (조용한 진아를 보고) 무면허는 아니고 차로 사고 내서.
진아 (뺨히 보다가) 왜 죽였어요?
윤재 (의외의 질문이다) 왜? (잠시 생각하다) 이유 있으면 죄가 없어요?
진아 어떻게 사람을... 차로 강아지만 칠 뻔해도 이렇게 온몸이 떨리는데.
윤재 잠깐 미쳤었나 보죠.
진아 후회해요?
윤재 뭘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되돌아간다고 다시 안 할까?
진아 ...
윤재 되돌리고 싶다고 생각해서 다 바뀌면 세상 범죄자들 하나도 없겠네. 돌아가도 어차피 1년 전의 나예요. 결과는 똑같은걸?
진아 (어이없는) 정말 아무것도 후회 안 해요?
윤재 후회하는 건 있죠. 자취하지 말걸, 너무 놀지 말걸. 그리고 또 괜히 모든 걸 궁금해하지 말걸.
진아 !
윤재 그냥 모르고 사는 게 편하더라고. 알려고 들면 힘들어져. 그쪽도 도둑질한 게 유골함인 줄 몰랐으면 더 좋았을걸?
진아 (화가 나 오히려 헛웃음이 난다)
윤재 그니까 굳이 후회하지 마요. 이미 훔쳤잖아. 돌이킬 수도 없잖아.
진아 그렇네. 돌이킬 수가 없네요, 이제.

윤재 나 태워줄 거죠?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인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잘못 실수하면 이렇게 조져진다니까?

윤재가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보인다.
그런 윤재를 서늘하게 보다 웃는 진아.

#33. 시내+차 안(낮)

시내를 살짝 벗어나는 진아의 차. 보도는 있지만 사람 하나 없는 시골길이다.
말없이 운전만 하는 진아에 윤재가 슬쩍 눈치 보곤.

윤재 너무 조용하니까 답답하네. 노래라도 듣든가.

라디오에 손이 가는데 말없이 속력을 올리는 진아.
덜컹. 방지턱을 세게 지난다.
별안간 숨을 헉 들이쉬는 윤재. 그 소리에 진아가 보면 윤재가 잔뜩 얼어 있다.
다시 방지턱을 지나는 차에 또다시 숨을 몰아쉬는 윤재, 사색이 된다.

윤재 ...세워요.

진아, 그런 윤재를 이상하게 보는데, 문득 떠오르는 기억.

NSERT #2
창섭의 사고를 보던 진아.
수화기 너머 들리던 덜컹 소리와 경악하던 진아의 표정.
짐작이 간다. 표정이 굳어지는 진아.

윤재 (숨이 막힌다) 차 좀 세워줘요.

진아 ...

윤재 세워달라고요. 제발.

진아 이런 기분이었나 봐요. 사람 쳤을 때.

윤재 네?

진아 얼마나 끔찍할까. 그 기분이 영원히 생각나면.

윤재 차 세우라고!

손을 뺀어, 핸들을 확 꺾어버리는 윤재. 그 바람에 보도를 올라타는 진아의 차.
펜스에 부딪히기 전에 가까스로 멈춘다. 차에서 튕기듯 내리는 윤재. 바닥에
쓰러지듯 넘어져 몸을 웅크린다. 바들바들 떠는데.

#34. 회상. 아파트 정문 입구+차 안(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운전대를 잡은 윤재, 앞을 매섭게 노려본다.
택시에서 내리는 정장 차림의 창섭, 취한 듯 비틀거리는데.
누군가와 통화하는 창섭, 별안간 씩 웃는다.

FLASH CUT

순간, 한낮의 건물 앞에서 웃으며 통화하는 창섭의 모습이 스친다.

결심한 듯 운전대를 꼭 쥐는 윤재. 눈을 질끈 감고 액셀을 밟는다.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꽉 잡은 윤재. 숨이 가빠진다.
지금 뭘 한 거지, 정신이 번쩍 든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윤재.
그때 놀라 발작적으로 액셀을 밟는 윤재. 눈을 질끈 감는데, 덜컹.
그대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윤재의 차. 광 소리가 들린다.

#35. 시내+차 안(낮)

눈을 번쩍 뜨는 윤재,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어느새 차에서 내려 서늘하게 윤재를 내려다보고 있는 진아.

윤재 역시 진아를 노려본다.

진아 살인자도 괴로워하긴 하네요.
 윤재 당신 뭐야.
 진아 자기 괴로운 건 바로 반응하네. 그때도 좀 그러지.
 윤재 뭐 하는 거냐고!
 진아 그 사람 죽었을 때 웃었어요, 울었어요?
 윤재 (어이없다는 듯 웃는) 하...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데)
 진아 울음소리치곤 너무 컸어. 통쾌해 보일 정도로.
 윤재 !
 진아 억장이 다 무너져서 나도 눈물이 안 나는데 니가 울면 안 됐지.
 윤재 ...날 봤어요?
 진아 널 봤냐고? 첫마디가 그거야? (헛웃음 나는) 다행이다.
 니가 진짜 나쁜 년이라서. 설마설마 좋은 애면 어쩌나 했네.

무표정하게 운전석으로 돌아가는 진아. 후진해서 차를 돌리려 한다.
 그런 차 앞을 윤재가 막아선다. 잠시 팽팽하게 마주 보는 두 사람.
 진아, 순간 핸들 잡은 손에 힘이 팍 들어간다.
 결심한 듯 차가 확 움직인다. 눈을 질끈 감는 윤재.
 그때 들리는 사이렌 소리. 맞은편에서 순찰차가 다가온다.
 돌아보고 당황하는 윤재. 멈춰서 윤재만 보고 있는 진아.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이 다가오면 진아가 차에서 내리는.

경찰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윤재, 난감하다. 경찰 시선을 못 마주치고 바닥만 본다. 걱정되고 떨리는데.

진아 (태연히) 실수로 좀 멀리 나와버렸네요.

윤재 (놀라 진아를 보면)

경찰 (보도에 남은 흔적을 보며) 사고인가요?

진아 (태연한) 사고까진 아닌데 실수로 보도를 올라탔어요. 빙판길이라 미끄럽더라고요.

경찰 방금 여기서 계셨던 건.

진아 차 빼는 거 봐주던 중이었는데. 제가 운전이 좀 서툴러서요.
 윤재 !
 진아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게) 뭐해요. 안 타고?

윤재, 고개 숙인 채 경찰 옆을 지나쳐서 보조석으로 올라탄다.
 진아, 경찰에게 미소를 보이며.

진아 가도 되나요?

#36. 도로+차 안(낮)

조용한 차 안. 윤재가 정적을 깬다.

윤재 왜 경찰한테 안 보냈어요?

귀휴지 이탈은 곧 탈옥이라 크게 처벌받을 수 있었는데.

진아 ...

윤재 직접 복수하려고? 처음부터 복수하려고 따라온 거예요?

진아 복수? 뭘 알아야 하든 말든 하지.

#37. 회상. 창섭의 장례식장(낮)

1년 전, 창섭의 장례식장.

창섭의 영정사진이 있는 빈소엔 창섭의 부모가 서 있다.

2020년 11월 4일, 빈소 앞 안내판에 적힌 사망 일자.

진아, 접객실 구석에서 그 안내판만 낫 나간 듯 보며 앉아 있는데,
 조문 오는 준환. 진아가 달려 나와 준환을 붙잡는다.

진아 준환 씨. 준환 씨는 다 알죠? 창섭이 왜 그랬는지.

준환 어떡해요. 진아 씨...

진아 죽기 전에 통화했다면서요. 뭐라도 들었거나, 알 거 아니에요.
 준환 ...
 진아 뭐라도 말 좀 해봐요. 어제까지도 멀쩡하게 다니던 애가 왜요. 네?
 준환 죄송해요.
 진아 집 앞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누가 일부러. 근데 아무도 왜 그랬는지 말을 안 해줘요? 네?
 준환 술 한잔하자고 했는데, 제가 바빠서 안 된다니까 집에 간댔어요. 그게 다예요.
 진아 그러지 말고. 좀.

난감해하는 준환을 붙잡고 늘어지는 진아.
 창섭 모가 나와 진아를 저지한다.

창섭 모 애. 보는 눈도 많은데, 들어가서... (하는데)
 진아 (매섭게) 어머니도 말 좀 해보세요.
 창섭 모 ...
 진아 왜 그렇게 쉽게 합의를 해줘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요. 어떻게...
 진아를 못 쳐다보는 창섭 모.
 진아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는다.

#38. 도로+차 안(낮)

덤덤하게 운전하는 진아.
 그러나 슬퍼 보인다.

진아 아무도 애길 안 해줘. 꼭 뭐라도 켜기는 사람들처럼.
 윤재 (물끄러미 보면)
 진아 니가 죽인 그 사람.

#39. 회상. 진아의 집/안방(낮)

진아, 부스럭 소리에 눈을 뜨면,
 출근 준비를 끝낸 창섭이 암막 커튼을 치다가 화들짝 놀라 진아를 본다.

진아 벌써 가?
 창섭 더 자. 이따 시간 맞춰서 깨워줄게. 폰 옆에 두고.

창섭이 진아의 이마에 입을 맞춘다. 배시시 웃는 진아, 다시 눈을 감는다.

진아(E) 성실했고. 다정했고.

#40. 회상. 재수학원 앞(낮)

퇴근하는 진아, 하품하며 어깨를 두드리는데 어디선가 경적이 울린다.
 보면, 차에서 고개를 내밀고 손을 흔드는 창섭. 작은 미니꽃다발을 들었다.
 피곤한 와중에도 웃음이 난다.

진아(E) 힘들 때 웃게 해주는 사람이었어.

#41. 도로+차 안(낮)

진아가 뭐라도 기대하는 듯 보면. 인상을 잔뜩 찌푸린 윤재, 잠자코 있다가.

윤재 그렇구나. 좋은 사람이었구나. (잠깐 보다가) 그래서요?
 진아 어?
 윤재 내가 미안해할 줄 알았나 봐? 그래요. 미안한데, 어찌라고요?
 진아 어떻게 그렇게 말해? 사람을 죽여놓고?
 윤재 이런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 아니잖아.

진아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잔인했어?
 윤재 그냥.
 진아 뭐?
 윤재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꼭 필요한가?
 진아 (어이없어서 말문이 막힌)
 윤재 그냥. 진짜 그냥 그랬어. 아침부터 화가 너무 나서 누구든지 한 놈만 걸려라. 그러다 급발진한 거고.

도로변에 차를 확 세우는 진아. 윤재의 뺨을 세게 내리친다.
 윤재가 조소한다. 진아를 노려보는 윤재.

윤재 이제 복수할 맘이 좀 생기나 봐?
 이야 복수해줄 사람도 있고, 인생 잘 사셨네, 그분.
 진아 비꼬지 마.
 윤재 (불을 만져보다) 근데요. 진짜 궁금한 거 맞아요? 내가 왜 죽었는지?
 진아 뭐?
 윤재 왜 난 별로 안 궁금해하는 거 같지?
 진아 ! 그게 무슨...
 윤재 (비웃는) 사실 모르고 싶죠? 뭐가 진짜 있을 거 같거든. 이상한 상상이고 짐작이고 많은데 그게 다 진짜 거 같고, 그래도 안 믿고 싶고.

뻘뻘하게 이죽거리는 윤재. 진아가 그런 윤재의 모습에 말문이 막힌다.
 어쩌면 윤재의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혼란스러운데.

윤재 이렇게 해요. 나 봉안당까지 데려다줘요. 그럼 (메모리칩 꺼내)
 이런 걸로 인질 안 잡고 돌려줄 테니까 그땐 쿨하게 안녕 하자고.
 진아 (윤재를 노려보면)
 윤재 그쪽한텐 나쁠 건 없는 제안인데? 가는 동안 내 맘이 바뀌면 뭐라도 말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쪽 맘이 바뀌면 갑자기 나한테 복수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진아, 내비게이션을 보면 찍혀 있는 경유지까지의 소요 시간, 30분 남았다.

진아 (냉랭한) 그래. 가자. 어차피 길도 짧은 거.

#42. 시골길+차 안(낮)

해가 넘어간다. 붉어지는 하늘. 서로 쳐다보지 않는 두 사람.
 창밖만 보던 윤재가 진아를 한번 본다. 뒷자리에 있는 작은 꽃다발도.
 이내 심드렁하게 다시 창밖을 보는 윤재. 하늘이 곧 눈이라도 쏟아질 듯하다.

#43. 봉안당 주차장+차 안(밤)

봉안당 앞 주차장에 선 차. 막상 도착했지만 차 안엔 정적이 흐른다.
 정적을 깨고 대시보드 위에 블랙박스 칩을 두는 윤재.

윤재 약속은 약속이니까.
 진아 ...
 윤재 나 가요? 이대로?
 진아 다 말해달라면 할 거야?
 윤재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손가락을 접으며) 그날 내 차가 고장 났다. 못 멈추고 쪽 내달렸다. 그 결과 내 인생이 도랑에 처박혔다.
 진아 ...어떻게 아는 사이였어?
 윤재 아는 사인 아니었는데?
 진아 !
 윤재 그날 처음 봤어요.

진아, 울컥 화가 나 주먹을 꽉 쥐 손에 힘이 들어간다.
 그런 진아의 손을 무심히 보는 윤재. 이내 외면하며.

윤재 주먹만 쥐지 말고 뭐라도 해봐요. 아까처럼.
차로 나 밀어버리려고 했잖아? 못할 거 같으면 그냥 가고.

진아, 윤재를 한참 노려보다가 주먹을 편다.

진아 너랑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 사람은 아무나 죽여?
윤재 ...시시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윤재. 피식 웃더니 차에서 내린다.
아무것도 못 하고 허망하게 윤재를 보는 진아.
봉안당으로 향하는 윤재의 뒷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다.
그 위로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멍하니 보다가 차를 돌리는 진아.

#44. 봉안당 인근 도로+차 안(밤)

차를 돌려 나오는 길, 도로엔 눈이 금방 쌓인다.
울 듯, 화난 듯, 일그러진 표정의 진아, 얼른 벗어나고 싶다는 듯 속도를 내는데.
경보음이 울린다. 보면 대설주의보 재난 문자다. 알림창을 확인하는데,
아까 미뤄뒀던 수민의 문자가 보이는.
'쌤 괜찮으세요? 아간 진짜 죄송했어요. 쌤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인 줄 몰랐어요.'
이어지는 내용이 보인다.
'헤인이는...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더 죄송해요.
몰라서. 제가 대신 사과드려요.'
무심히 창을 올려버리고 계속 운전엔 집중하는 진아.
그러나 집중되지 않는다.

진아 그걸 왜 니가 미안해해.
한숨을 크게 쉬는 진아.

INSERT #1
헤인의 옆에 선 수민의 표정들. 헤인과 상반되게 안절부절인데.

진아(NAR) 알고 있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했을 뿐. 반가움. 난처함.
그리고 미안함. 투명하게 보이던 것들.

그리고 이어 떠오르는 윤재의 표정들.

INSERT #25
차 안에서 "사실 나 사람 죽였다?" 말하던 당당한 윤재의 표정.

INSERT #33
차에서 텅기듯 내려 몸을 웅크리고 바들바들 떨던 윤재.

INSERT #41
진아에게 창섭 얘기를 듣고 인상을 찌푸린 윤재. 꼭 올 것 같은 표정으로 보이는.

INSERT #43
고개를 푹 숙인 채 차에서 내리던 윤재. 잔뜩 상처받은 표정이다.

진아(NAR) 애써 부풀려 포장해보려던 두려움. 죄책감. 절망감.
보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진아. 잊고 싶다는 듯 더 속력을 내는데.
순간, 획 하고 헛도는 핸들. 놀라는 진아.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핸들과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진아. 당황해 지켜본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쪽 미끄러지는 진아의 차.
진아, 눈을 질끈 감는데.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차가 멈춘다. 진아가 앞으로 휘청, 충격을 받는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진아. 머리 아픈 듯 찡그린다.

#45. 봉안당 인근 도로(밤)

내려서 차 상태를 보는 진아.

범퍼와 사이드를 크게 박은 상태. 그러나 차엔 큰 문제 없는 정도다.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물끄러미 보던 진아.

진아(NAR) 방향도, 속도도, 멈추는 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눈길 위에 섰다.
끝을 보기 전까진 멈출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겠다.

이내 결심이 선다.

차로 다시 돌아가는.

#46. 봉안당 주차장(밤)

운전해서 돌아온 진아. 차를 아무렇게나 세워놓고 내리는데,

봉안당 앞으로 나오는 윤재가 보인다.

큰 가방을 양팔로 소중하게 감싸 안고 뒷산으로 향하는 윤재.

진아가 윤재를 보고 따라간다.

#47. 뒷산/절벽(밤)

눈 쌓이기 시작한 산길을 가방 들고 오르기에 버겁다. 윤재가 힘겹게 오르는데.

한참 떨어진 뒤에서 윤재를 뒤따르는 진아.

뭘 하는 건지 의아하지만 그저 지켜보는데.

한참 오르던 윤재가 멈춰 선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보는 윤재.

이윽고 절벽 앞에 선 윤재. 별안간 고개를 꼭 숙이더니 울컥 울음이 터진다.

그런 윤재를 보는 진아, 어떤 상황인지 알겠다.

달려와서 윤재를 확 낚아채는 진아.

윤재가 뒤로 크게 넘어진다. 놀라 올려다보면, 윤재를 노려보는 진아.

윤재 뭐야 당신?

진아 하려던 게 이거였어?

윤재 ! 상관하지 말고 가요.

윤재가 다시 절벽으로 향하는데, 진아가 밀어 넘어뜨린다.

욕하는 윤재가 진아를 밀치면 휘청하는 진아.

윤재가 다시 절벽으로 돌아서는데,

진아가 윤재를 잡아 세워 뺨을 세게 친다. 그 바람에 넘어지는 윤재.

윤재가 일어서면 다시 확 밀쳐 넘어뜨리는 진아.

힘 빠진 듯 털고 일어서는 윤재, 진아를 노려보는.

윤재 왜 따라와서 지랄이야. 기회 줄 땀 아무 짓도 못 해놓고.

진아 (서늘하게 다가가는) 그래서 더 못되게 굴었어? 나보고 복수하라고?

윤재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친다)

진아 (다시 다가가고) 내가 널 대신 죽여줬으면 해서?

윤재 (한 발 더 물러서는데, 절벽 방향이다) !

진아 (또 다가서는) 이상하네. 내내 겁나는 거 티 안 내려 악쓰던 애는 어디 가고, 죽자니 무서워서 벌벌 떠는 어린애만 남았어?

윤재 (멈춰 서서 진아를 노려보는) 그래서 죽여주게?

진아 아니. 원하는 대로 해주긴 싫은데.

윤재 !

진아 종일 니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는데 결국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
그리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어. 아무리 화가 나고 미웠대도, 사람을 차로 두 번이나 칠 만큼 증오할 수 있을까.

윤재, 불안한 듯 저도 모르게 진아 뒤편의 자기 가방 쪽으로 눈길이 간다.

진아가 윤재의 눈길 닿는 곳을 본다. 다가가 가방을 잡는다.

진아 이거 찾아? 왜? (들어 올리는데 묵직하다) 이거 왜...

윤재 내려놔 건들지 마!

윤재가 악을 쓰며 달려온다. 가방을 빼앗아 안고 진아를 확 밀치는데
가방을 놓치기 전에 확 열어버리는 진아.
그런데 흰 자기로 된 유골함이 2개 보인다. 떨어지지 않게 꼭 잡는 윤재.

진아 (놀란) 뭐야. 왜...

살기등등하게 보는 윤재.
진아가 윤재를 확 밀쳐버리고는 가방의 유골함을 살핀다.
유골함에 새겨져 있는 각인. 임석문(1965. 03. 04.~2020. 11. 01.)
놀라 다른 것도 돌려 보는 진아. 고미선(1968. 07. 10.~2020. 11. 01.)
같은 사망 일자에 눈이 간다.

INSERT #37

창섭의 장례식장에서 진아가 보던 안내판의 입실 일자. 2020. 11. 04.

진아, 너무 놀라 뒷걸음치는데,
다시 눈물이 터진 윤재가 진아를 밀쳐내고 유골함을 끌어안는다.
영영 우는 윤재를 보는 진아, 멍해진다. 그때였다.

#48. 회상. 진아의 집/안방(밤)

잠이 덜 깬 진아가 핸드폰을 들어 시계를 보면 2020년 11월 2일 새벽 3시.
실눈 뜬 진아가 보면 두꺼운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서성이고 있는 창섭.

진아 뭐야? 지금 들어온 거야?
창섭 어?
진아 또 술 먹었어? 어우. 너 소파 가서 자.
창섭 어... 어어. 그렇게. 얼른 자. 미안.

당황한 창섭 머리만 굽다 나가면, 별 의심 없이 몸을 돌리는 진아.

#49. 회상. 재수학원 앞(밤)

학원 앞으로 나오는 진아. 수민과 아이들이 진아에게 인사하고 간다.
진아, 창섭의 차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는데, 택시에서 내리는 창섭.

진아 뭐야? 차는 어찌고?
창섭 오다가 수리 맡겼어.
진아 왜? 사고 났어?
창섭 ... 사고...는 아니고 그냥.
진아 (창섭 등을 치며) 거짓말. 내가 못 살아.
블랙박스 좀 제대로 된 거 달라고 했지?
괜히 돈 아낀다고 가짜 쓰더니 수리비로 뺨돈 쓰겠네.

어색하게 웃는 창섭.

#50. 회상. 진아의 집/거실(밤)

어깨와 귀 사이에 핸드폰을 끼고,
바닥에 앉아 청첩장을 접고 있는 진아.

진아 (화난) 아직도 밖이야?
창섭(F) 아. 미안해. 미안해. 진짜로.
진아 어디서 누구랑 마셨는데?
창섭(F) (화들짝 놀라) 아냐. 안 취했어. 진짜. 오늘은 진짜 장례식장 갔다가...
진아 또 거짓말? 취했으면 니 집으로 가. 여기 오지 말고.
(한숨) 내가 너랑 평생 이려고 어떻게 살아?
너랑 결혼하는 게 맞나 모르겠다.
창섭(F) 아냐. 아냐. 미안해. 오늘 꼭 할 말이 있는데. 끊지 마.

확 전화 끊어버리는 진아.

#51. 회상. 아파트 정문 입구(밤)

택시에서 다급히 내리는 창섭, 휘청이다 넘어진다. 그대로 도로변에 앉는데.
헛도는 손. 핸드폰에서 진아를 찾아 다시 전화를 거는 창섭.
창섭,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데 문득 밝은 불빛이 자신을 비춘다.
돌아보는 창섭.

진아(F) 아 왜!

하는데 대꾸하지 못하는 창섭. “어어...” 하는데 그 불빛, 자동차 헤드라이트다.
그리고, 차 안에서 그런 창섭을 보고 있는 윤재.

#52. 뒷산/절벽(밤)

충격받은 진아가 윤재를 다시 본다.
오열하고 있는 윤재. 그 모습 위로 종일 했던 말들이 스친다.

INSERT #13

차 안에서 블랙박스를 보던 윤재.

윤재 (피식, 묘하게 비꼬듯) 아. 그냥 불만 들어오는 가짜?
이런 거 진짜 쓰는 사람이 또 있네. 신기하다.

INSERT #23

식당에서 국밥을 먹는 윤재.

윤재 언젠가라는 건 없어요. 항시 잘 먹어야죠.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INSERT #18

광광 언 눈에서 튀던 윤재.

윤재 눈바닥 되게 단단하네. 얼어서 그런가? 구르면 진짜 아프겠다.
좀만 폭신하지.

INSERT #18

차에 타서는 진아 보란 듯이 가슴을 치던 윤재.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울 것 같은 눈빛이 살짝 스친다.

진아, 멍하니 울고 있는 윤재를 보는데. 윤재, 악에 받쳐서 진아를 보는.

윤재 보니까 속이 시원해?

진아 어떻게...

윤재 표정 보니 알겠나 봐. 근데 생각하던 시나리오는 아니었나 봐요?
어때? 더 최악인데?

진아 (울컥, 윤재를 보는데)

윤재 사람 아무나 못 죽인댔죠?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고 생각했어. 안일하게.

진아 (안쓰럽게 보면)

윤재 그래서 그 새끼가 우리 부모님을 차로 쳐놓고 가만히 있었다고...
(말하기 힘든) 구하지도 않았다는데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다고요.

#53. 회상. 윤재 부모 장례식장(밤)

나란히 빈소가 차려져 있다. 멍하니 상주로 서 있는 윤재와 할머니.
할머니가 별안간 화를 내며 뛰쳐나간다. 보면, 취한 창섭이 와 있다.
창섭을 마구 치는 할머니.

윤재(E) 아니라고 생각했겠지. 사고가 크게 난 줄 몰랐거나, 겁이라도 덜컹 났겠지. 아님 무슨 이유라도 있었겠지. 너무 취해 제정신 아니었겠지.

취해서 온 창섭이 고개를 숙이고 운다. 그 모습을 멍하니 보는 윤재.

윤재(E) 그 와중에 또 취했네. 아냐. 제정신으로 오긴 힘들었겠지. 사람이면.

할머니가 창섭에게 무슨 말을 듣더니, 잠자코 창섭을 본다.

윤재(E) 그 와중에 우리 할머니 합의를금부터 생각했고.

윤재, 그 모습을 환멸 난다는 듯 보다가 밖으로 나가버린다.

#54. 회상. 장례식장 앞(밤)

윤재, 구석의 흡연 구역 벤치에서 불붙인 담배를 들고 앉아 있다.

멍하니 눈물이 주룩 흐른다. 뉘를 생각도 없이 가만히 장례식장 현판만 보는데.

창섭이 나오는 것이 보인다. 창섭을 보는 윤재.

그런데 창섭이 활짝 웃는다(#34의 FLASH CUT에서 떠올리던 웃는 모습이다). 울컥 화가 치밀어오른다.

윤재(E) 그때 알려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일어서는 윤재가 창섭 쪽으로 다가간다. 말소리가 들리는.

창섭 (전화하는) 잘 해결됐어. 야 돈이면 다 돼.

윤재 !

창섭 사고? 움직이는데 못 다가가겠더라. 내렸지. 내렸었는데 그냥... 아이 씨 취했는데 뭐가 보여야지.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겠냐.

윤재 (분노해서 보는데)

창섭 (피식 웃으며) 근데 사람이 논두렁에 메다꽃하면 진짜 만화에서처럼 다리만 보인다? 신기하더라.

윤재 (덜덜 떨리는)

창섭 뭐? 술 먹고 운전덜 왜 잡냐고? 등신아. 그건 중독이야. 술만 들어가면 잡고 싶은데 어떡하냐. 그 쾌감이 비교가 안 되거든... 아 사고쳐놓고 이런 얘긴 똥다. 술이나 더 마시자. 안 된다고?

윤재, 너무 화가 나 표정도 지을 수가 없다.

택시를 잡는 창섭을 보는 윤재, 주머니를 뒤적이다 차 키를 든다.

#55. 회상. 도로+차 안(밤)

창섭의 택시를 뒤따르는 윤재.

윤재(E) 그냥 그 순간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화만 났어. 아빠 엄마가 느꼈을 고통을 똑같이 느꼈으면 했고.

#56. 뒷산/절벽(밤)

윤재가 울며 진아를 올려다보고 있다. 진아 역시 울고 있다.

윤재 근데 그 사람이 느낀 감정까지 똑같이 느껴졌어요. 사람이 치였고, 모를 수가 없는 느낌이었다고. 그러니 죽여 마땅했잖아.

진아 ...

윤재 그랬는데... 왜 괴로움은 오롯이 나한테만 남을까요.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 온종일, 1년이 지나도록, 그 잔상이 매일같이 남아.

진아 (울컥한다, 그 느낌을 너무 알겠다)

윤재 그래서 죽겠다는데. 나 좀 편해진다는데 당신이 뭔데 막아. 왜.

진아 그게 어떻게 잊혀져. 나도 못 잊고 살 텐데 너 혼자만 왜 편해진대.

윤재 (우는)
 진아 그러니까 살아. 그냥 가지고 가. 정 못 견디겠으면... 그래도 살아. 그렇게 해서라도 평생 내가 원망할 대상으로 남아. 꼴사납게 죽지 말고.
 윤재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진아 그냥.
 윤재 !
 진아 살아 있는데 이유가 꼭 필요할까?

윤재, 다시 울컥 눈물이 터진다.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애처럼 엉엉 우는 윤재. 그런 윤재를 가만히 내려다보던 진아. 어깨를 토닥이려다 차마 하지 못한다. 거세게 바람이 분다. 날리는 눈들. 진아가 살짝 비켜서서 바람을 막는다. 하늘을 보는 진아. 평평 쏟아지는 눈들.

#57. 뒷산/정상(밤)

평평 내리는 눈 사이로, 뿌러지는 뺨가루들.
 뒷산 정상에서 윤재가 부모의 유골함을 들고 산골 중이다.
 뒤에서 지켜보는 진아.

진아 봉안당에서 들고 온 거라며. 왜 다시 안 갖다 놓고?
 윤재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구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자유롭게 해주려고.
 진아 할머니 유골함은?
 윤재 대신 봉안당에 넣어놨어요. 나 나올 때까지 같이 있게.
 혼자 갇혀 있는 건 외로우니까.
 진아 (여전하다 싶다) 근데 유골 아무 데나 뿌리는 건 불법 아니야?
 윤재 어차피 내일 감옥 가요.

그 말에 진아가 피식 웃음이 난다.

그리고 방금 웃은 자신이 어색해진다.

#58. 봉안당 주차장(밤)

영망인 꼴로 산에서 내려오는 진아와 윤재. 서로 어색한 기운이 감도는데. 윤재가 차를 보고 놀라는.

윤재 차 상태가 왜 이래요?
 진아 눈길에 미끄러져서.
 윤재 (진아를 흘끔 보고) 안 다쳐서 다행이네.
 진아 지금 설마 내 걱정해?
 윤재 (말 돌리는) ...여기서부터 그냥 갈게요.
 진아 그냥 타고 가. 모르는 사람 차 타지 말고.
 윤재 버스 타면 돼요. 그럼...

윤재, 꾸벅 인사하고 돌아서려다가 다시 돌아본다.
 진아가 의아하게 보면.

윤재 근데 혹시... 애가 죽었다는 것도 나 때문이에요?
 진아 ...아니. 그건 거짓말한 거야. 그냥.
 윤재 정말요?
 진아 ...애는 아니고 애 같은, 남편 말한 거야. 정말. 니가 혼자 오해하길래 그냥 두고 봤어. 너 죄책감 가지라고.
 윤재 (눈에 띄게 안심하는) 정말이죠? 나는 진짜 그럴까 봐. 내가 또 누군가 죽인 게 될까 봐...
 진아 진짜 다른 생각 안 하고 복귀할 거지? 그러면 너 어디 있는지는 알려줘. 한번은 찾아가보게.
 윤재 나를 왜 찾아와요?
 진아 혹시라도 죽었을까 봐. 너 살아서 제대로 짓값 치르는 거 다 보려고.
 윤재 (뼈죽이며 괜히 부서진 차를 건드려보는) 뭘 굳이 또 봐요.

진아 ...있잖아.
 윤재 (보면)
 진아 나락까지 떨어진 건 아니고, 그냥 답 없이 미끄러진 거야. 아무것도 하려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그러다 보면 어딘가에선 멈추겠지. 그때까지 다치지 말고 살아.

윤재, 울컥 또 울 것 같다.
 보이고 싶지 않아 얼른 인사를 하고 발걸음을 재촉하면.
 윤재가 멀어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진아.

#59. 국도변+차 안(밤)

눈 오는 시골길. 진아가 길옆에 차를 가만 세운다.
 차 뒤에 있던 미니꽃다발을 든다.
 그리고 지갑에서 꺼내 보는 태아 초음파 사진.
 사진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보조석에 내려놓고 미니꽃다발을 든다.
 추모 꽃이다.

진아(NAR) 이 죄책감까지 줄 필요는 없다. 그건 그 애 탓이 아니니까. 모르고 살아도 되니까. 딱 이 정도가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위로다.

물끄러미 보조석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차를 돌리는 진아.

#60. 동물병원 앞(밤)

차에서 내리는 진아, 막 문을 달으려는 동물병원 문을 두드린다.
 나오는 수의사, “어?” 한다.
 부서진 차, 험클어진 진아의 물골 다 이상해 보이는데.

진아 아까 그 유기견이요. 아직 여기 있어요?
 수의사 네? 왜요? 데려가시려고요?
 진아 눈에 밝혀서요.
 수의사 아, 근데 노견이라 얼마 못 살 텐데 다른 강아지로 분양받으시는 게.
 진아 얼마 못 살아도 지금 살아 있잖아요.

진아를 이상하다는 듯 보던 수의사, 들어가서 개를 안고 나온다.
 개를 받아 안는 진아. 여전히 작고 따뜻하다. 꼭 안아본다.

#61. 차 안+도로 전경(밤)

운전하는 진아. 보조석에 킁킁거리는 강아지가 앉아 있다.
 한번 보고 쓰다듬어주는 진아의 손. 강아지가 안정을 찾는 듯 조용해진다.
 흐린 날, 얼어붙은 도로, 커진 가로등뿐인 빈 도로를 천천히 지나는 진아의 차.
 그 위로 쏟아지는 눈들. 함박눈이다.
 되레 따뜻해 보인다.

끝.

작가 후기

‘보는 사람을 위한 글을 써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만.

부끄럽게도 지난 몇 해간 가장 자주 하던 생각은

속되고 솔직하게는 ‘공모전이 어떤 글을 좋아할까’였습니다.

그러니 <첫눈길>은 시청자를 위해 재밌게 쓴 작가의 글이라기보단,

공모전을 위해 힘주고 멋 부린 지망생의 부끄러운 치기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보시는 대본은 여전히 오탈자와 비문만 고친 당선 초고입니다.

당선집의 초고가 가장 궁금했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안일하게 올려봅니다.

이 대본이 제 글 중 가장 나은 당선작으로 남기보단 가장 별로인 첫 대본이 되길,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쓰는 작가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이 후기를 볼, 모든 내 사람들.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멋대로 무심하게, 가끔 한심하게도 살던 저를 믿고 아껴준 가족들, 내 편, 친구들.

내 글을 나보다도 애정 있게 보고 당근과 채찍 아끼지 않은 스토디, 명진, 윤정, 혜수.

고마워 미안해는 잘만 말해도, 사랑한다는 말은 참 부끄러워 글로라도 전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지쳤던 시기, 다시 엔진 달아주신 오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작가가 되어 글로 갓졌습니다.

보는 분들을 위한 글을 쓰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훨씬 더 재미있게요.

기획의도

누군가는 사고로, 또 누군가는 실수로. 누구나 그렇게 한 번쯤 바닥을 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처음부터 바닥이었던 것처럼, 다시는 올라갈 수 없을 것처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에 빠진 재벌 3세 여자. 동생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타인을 속이며 살아가는 남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치유해가는 이야기를 통해 말해주고 싶었다.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나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랑도, 상해도 모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라고. <수상한 간병인>은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간병인이자 지금도 어딘가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이에게 전해주는 드라마이다.

등장인물

이서원(32세, 남)

미친 친화력을 가진 남자. 잘생긴 얼굴 덕에 어려서부터 주위엔 사람이 넘쳐흐르고, 대학에 들어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상담사의 꿈을 꾸며 얻은 말발은 그의 불타는 친화력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제외한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 엄마, 아빠는 죽고 여동생은 하반신이 마비된다. 한순간에 가장이 된 서원은 동생의 병원비와 약값을 벌기 위해 학교도 때려치우고 직업 일선에 뛰어든다. 일찍 사회의 맛을 보며 서원은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이 돈이 된다는 것도. 그래서 서원은 타인의 호의를 이용해 살아간다. 그것이 나쁜 일임을 알지만, 일단 내가 사는 것이 먼저이기에.

한정우(29세, 여)

연희 그룹의 손녀, 소위 재벌 3세다. 부족함 없이 자라 밝고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이다. 어려서부터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했지만 단 하나, 아버지의 말씀만은 거역할 수 없었다. 그녀가 가진 단 하나의 고민은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개 직원으로 일하던 민현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늘 밝을 것만 같았던 그녀의 삶이 한 교통사고로 인해 변했다. 하반신 마비. 한순간에 그녀는 삶의 절반을 잃어버렸다. 좋아하던 일도 더는 할 수 없다. 아니 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그 어떤 일을 해도 장애인이라는 딱지가 따라붙기 때문이다. 너무도 달라진 시선과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라진 그녀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자신감은 없어지고 따라서 웃음도, 말수도 줄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남은 것은 민현 하나뿐이라고 생각할 때, 서원이 휴대폰을 주웠다면 찾아온다.

최민현(34세, 남)

정우의 약혼자이자 타고난 야망가다. 공부도 운동도 늘 1등이었다. 서울대를 졸업해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능력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자신이 아등바등 살 동안, 주변 사람들은 여유롭게 살면서도, 자신의 월급을 몇 년을 모아도 살 수 없는 집과 차를 사곤 했다. 민현은 깨달았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곳을 벗어날 수 없구나. 결국 그저 그런 사람들 틈에서 잘난 체하다가 죽어가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정우를 만났다. 햇살처럼 밝은 여자. 동경과 질투를 느꼈다. 그래서 오래된 연인도 버리고 우연을 가장해 정우를 꼬셨다. 이제 결혼만 하면 자신의 삶은 한 단계 아니,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를 극구 반대한다는 것. 그런데 어느 날, 정우가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다. 그제야 그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한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결혼을 무를 순 없다. 그것만이 자신을 끌어올려줄 유일한 동아줄이기에.

이서희(26세, 여)

서원의 여동생. 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된다. 늘 멋지던 오빠가 자신 때문에 망가지며 고생하는 모습에 죄책감을 느끼고, 결국 자살을 시도해 식물인간이 된다.

민혜수(40대 후반, 여)

서원이 일하는 바의 단골손님. 서원이 가진 친화력에 끌려 친해진다.

박철남(40대 초반, 남)

삼류 조폭. 비록 혜수의 기동서방이라고 불리지만, 진심으로 혜수를 사랑한다.

그 외

김 실장, 수희, 아이들, 간호사 등

줄거리

“수상한 간병인이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정우 앞에 한 남자, 서원이 나타난다. 정우의 약혼자 민현의 휴대폰을 주웠다면 가져다 달라고 했을 뿐인데 이 남자, 사례금보다 정우에게 관심이 더 많다. 녀살도 좋은 서원은 어느새 정우의 간병인으로 취직하는데... 그런데 이 간병인, 뭔가 좀 수상하다? 정우의 병원 밥을 뺏어 먹질 않나 아픈 사람을 안고 발레를 하질 않나! 시도 때도 없는 장난에 기분이 나빠야 하는데... 어라? 정우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인다.

“나부터 좀 삼시다.”

미친 친화력을 가진 남자, 서원. 그는 그 능력을 이용해 술집에서 일하며 손님들과 사적으로 친해지고, 그를 이용해 용돈을 받아 살아가는 남자다. 단골손님 혜수의 기동서방에게 쫓겨 도망치던 어느 날, 서원은 벤치에 떨어진 민현의 휴대폰을 줍고 전화기의 주인을 찾아주다 재벌 3세 정우와 엮인다. 돈 냄새를 맡은 서원은 간병인이 되어 정우 호감을 사 돈을 뜯어낼 궁리를 한다. 미안하지만 일단 나부터 좀 살아야 하니까!

“씩트는 사랑 그리고 죄책감”

점점 더 가까워지는 서원과 정우. 서원은 계획대로 정우와 가까워지지만 동시에 하반신 마비를 겪고 자살 시도를 한 여동생과 비슷한 처지의 정우에게 죄책감을 느낀다. 한편 하반신이 마비되며 발레리나라는 꿈도, 삶에 대한 희망도 잃어버렸던 정우는 서원과 함께하며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꾸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워나가는 서원과 정우. 사실 민현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른 척 결혼하려고 했던 정우는 서원과의 시간을 통해 자존감을 되찾고 민현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볼 것을 통보한다.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면 위험할 텐데?”

정우의 변심이 서원 때문이라고 생각한 민현은 서원의 뒷조사를 한다. 그리고 그가 술집에서 제비 짓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조폭을 동원해 서원과 정우를 떼어놓고, 정우에게 그 사실을 알려 다시 결혼을 진행하려 한다. 정우는 서원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동시에 서원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미 삶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은 정우는 서원과 관계없이 오롯이 자신의 선택으로 민현에게 이별을 고한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아웃이었어요!”

오빠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자살을 시도해 식물인간이 된 서원의 친동생 서희. 서원은 서희에 대한 큰 죄책감에 시달려 나쁜 짓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호의를 이용해 병원비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정우를 만나 사랑하게 되면서 잘못을 뉘우친 서원, 그동안 죄책감 때문에 단 한 번도 만나러 가지 못했던 서희를 방문해 잘못을 되돌리기에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용기를 얻는다. 정우가 있는 병실로 달려가 용서를 구하는 서원. 정우는 그런 서원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비로소 두 사람은 과거의 절망에서 벗어나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수상한 간병인 이경완

#1. 서원의 동네/골목길(낮)

빈곤함이 느껴지는 낡은 길에 과일상 김 씨(50대 후반, 여)가 과일을 팔고 있다.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자두를 사는 서원.

김 씨 (검은 봉투에 자두를 몽땅 담은) 동생, 자두 5천 원어치 달랬지? (누가 봐도 5천 원어치 이상을 담으며) 여, 여 가져가.

서원 (받은 봉투를 들여다보며) 하... 누님 나 이러려고 누님으로 모신다고 한 거 아냐. 진짜 내 누님 같아서... (슬쩍 자두 하나 더 담으며)

김 씨 (끄덕이며) 그럼~ 알지. 우리 동생 마음.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서원 (어쩔 수 없다는 듯) 아이, 참... 진짜 내가 누님한테 졌다 졌어. 내가 돈만 좀 벌면 어? 저 수박도 잔뜩 사러 오고 그럴게. 알았지?

김 씨 (반색하는) 우리 동생 수박 좋아해? (그러고는 수박을 봉투에 담는다) 그럼 내가 서비스 좀 줘야지.

서원 (질색하며 손사래를 치는) 에헤이! 그러지 말라니까 진짜 누님. 나 자꾸 이러면 이제 염치없어서 누님 못 본다? (그러더니 수박을 포장하는 김 씨를 슬쩍 보고는) 그거 말고 그 옆에 거가 좀 더 잘 익은 것 같은데?

잠시 후, 양손 가득 자두와 수박을 들고 떠나는 서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채소 노점상 박 씨(50대 후반), 경악한 얼굴로 아직도 서원을 향해 손을 흔드는 과일상 김 씨에게 다가와 팔을 치며 말한다.

박 씨 김 씨 미쳤어? 자두 5천 원어치 팔고 수박을 서비스로 주는 사람이 어딴어? 오늘 처음 온 손님 같더만!

김 씨 (박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여전히 흘린 듯 서원을 향해 손을 흔들며) 그런 소리 말어. 오늘부터 내 동생이여. 동생...!

#2. 서원의 집 앞(낮)

자두와 수박을 들고 집을 향해 걷는 서원.

일하는 바의 사장이자 친구, 은택(32세, 남)에게 전화가 온다.

서원 여보쇼.
은택(F) (다급한) 야, 너 어디야?
서원 나 오늘 바 안 나가는 날이잖아. 잠깐 장 좀 보고 이제 집 다 와간다.
은택(F) 야, 너 일단 집에 가지 말아봐.
서원 (이상함을 느낀) 왜, 무슨 일 있어?
은택(F) 여기 난리 났어! 매번 너 있을 때만 오시던 역삼동 혜수 누님! 그 누님
 기동서방이 조폭이래!
서원 (시큰둥) 근데, 그게 뭐.
은택(F) 뭐긴 뭐야! 지금 너랑 있는 거 아냐? 혜수 누님 사라져서 방금
 조폭들이 너 죽이겠다고 가게 뒤집어엎고 난리 났었어!
서원 (당황해서 버럭하는) 뭐? 뭔 개소리야! 누님이 사라졌는데 왜 날 찾아?
 누님과 나는 순수한 사이라고!
은택(F) 지랄하네! 순수한 사이의 누님이 돈을 그렇게 퍼주냐?
서원 그건~ 누나가 동생한테 주는 용돈이지, 용돈!
은택(F) 아무튼, 그 순수한 사이인 니 누님의 애인이 단단히 화가 나서 너
 잡으러 간 거 같으니까 조심해라. 당분간 가게도 나오지 말고!

은택과 통화를 하던 서원, 자신의 집 앞에 대기하고 있는 혜수의 기동서방,

철남과 그의 부하 조폭1·2를 발견한다.

철남은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있다.

서원 (조폭들을 발견하고 조심스레 전화기에 말한다) 당분간이 아니라 영영
 못 나갈 수도 있겠다... (전화를 얼른 끊고, 뒤돌아 가려는데)
조폭1 (서원을 발견) 형님! 저 자식 아십니까? (서원을 향해) 어이!
서원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는 무서운 얼굴로) 나? 내 불렀습니까?
철남 (혜수와 서원이 찍힌 사진의 서원을 보며) 흠...

조폭1 (살짝 쫓) 형님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구역 놈인 것 같습니다.
철남 (눈치를 채) 저 새끼 잡아.
조폭1 (여전히 눈치 없이) 예? 같은 형제끼리 왜...
철남 (조폭1의 뒤통수를 치며) 저 새끼가 혜수랑 바람난 새끼야! 잡아!
조폭1·2 (그제야 서원을 향해 뛰어가는) 예!

서원 다급히 뒤돌아 도망치고, 조폭1·2가 뒤따라 붙는다.

철남은 다리를 다쳐 목발로 뒤늦게 쫓아간다.

#3. 서원의 동네/골목길(낮)

골목 골목을 누비며 도망치는 서원.

막다른 골목에 도착해 당황하는데, 뒤이어 도착한 조폭 1·2.

서원, 들고 있는 수박을 금방이라도 던질 듯이 겁을 주면,

움찔움찔 쫓는 조폭1·2.

서원이 수박을 힘껏 던지면, 수박을 받아들고 신나서 웃는 조폭1.

서원, 그 틈을 타 조폭 1·2 사이를 비집고 탈출한다.

정신을 차리고 뒤쫓는 조폭2, 그리고 수박을 소중히 들고 뒤쫓는 조폭1.

#4. 서원의 동네/오르막길(낮)

서원, 도망치다 오르막길을 만나 헉헉대며 오르는데, 근처까지 쫓아온 조폭1·2.

서원 이번엔 검은 봉투에서 자두를 꺼내 하나둘 조폭들의 발밑으로 던진다.

조폭1·2 자두를 피하다가 결국 계속 굴러오는 자두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진다.

조폭2는 세계 넘어져 허리를 붙잡고 공공대고, 조폭1은 넘어지는 와중에도

수박을 소중하게 끌어안아 수박이 깨지지 않게 지킨다.

그 틈에 달아나는 서원과 뒤늦게 쫓아온 철남, 허리를 붙잡고 공공대는

조폭2와 수박을 꺼안고 공공대는 조폭1을 발견한다.

철남 (주위를 둘러보며) 그 새끼는?
 조폭2 노... 놓쳤습니다.
 철남 (목발을 내팽개치며) 아오 씨! 야, 이 새끼 주변 좀 조사해봐.
 조폭2 네!
 조폭1 (눈치 없이 수박을 들고 오는) 형님, 그래도 수박은 빼앗았습니다.
 철남 (어이없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조폭2를 쳐다보고는) 야, 이...! 됐다.
 후임 교육 똑바로 해라. 진짜 죽는다?
 조폭2 냐!
 조폭1 (웃으며 수박을 쓰다듬는) 게다가 요놈, 아주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조폭2 (조폭1의 귀를 붙잡고 끌고 가며) 따라와 새끼!

#5. 서원의 동네/버스정류장(낮)

도망친 서원, 자두가 조금 남은 봉지를 들고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에 무작정 올라탄다.
 유리를 통해 바깥을 살피더니 조폭들이 없는 것을 보고 안심한다.
 지친 표정으로 자두 몇 알이 남은 봉지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서원. 씩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유리에 머리를 기대다.
 유리창 위로 뒀다가 사라지는 타이틀.
 <수상한 간병인>

#6. 연희병원/정우의 병실(낮)

연희병원 20층에 있는 정우의 1인 VVIP병실, 넓은 방에 고급스러운 탁자와
 의자가 있고 넓은 크기의 침대 옆에는 큰 유리창이 나 있다.
 큰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침대 머리맡에 기대 간신히 앉아 있는
 왜소한 정우를 비춘다.
 정우, 창밖을 무심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고, 그 옆에는 정우 아버지의
 비서실장인 김 실장(50대 중반, 남)이 서 있다.

김 실장 (안타까운 표정)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정우 (창밖을 보며 대답 않는) ...
 김 실장 (시계를 흘끔 보고는) 간병인 아주머니가 오늘따라 늦네요.
 (갑자기 울리는 전화를 받는다) 네 전화 받았습시다. 네.
 아... 지금 말입니까? (정우를 흘끔 보는) 지금은 좀...
 정우 (건조한 말투) 가보세요.
 김 실장 (잠시 망설이더니 전화기에) 네 지금 가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그럼 제가 가면서 아주머니께 연락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인터폰으로 간호사...
 정우 (O.L.) 네. 그럴게요.
 김 실장 그럼... (그래도 불안한 듯 정우를 보더니 겨우 발걸음을 돌린다)

급한 일이었던 듯 다급하게 나가는 김 실장.

(E) 그 모습 위로 들리는 휴대폰 벨소리.

#7. 길거리/벤치(낮)

시끄러운 휴대폰 소리에
 신문지를 얼굴에 덮고 벤치에 누워 있던 서원이 눈을 뜬다.
 계속해서 들리는 휴대폰 소리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둘러보다
 벤치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발견하는 서원.
 휴대폰을 주워 주인을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다 다시 휴대폰을 보니
 발신인이 '정우'라고 떠 있다. 결국 전화를 받는 서원.

서원 (귀찮다, 하품하며) 하~얌. 여보세요.
 정우(F) ...?
 서원 여~보세요.
 정우(F) 저기... 이거 민현 오빠 휴대폰 아닌가요?
 서원 예 뭐, 아마 맞을걸요?

정우(F) (어이없는) 아마... 요?
 서원 (성의 없는 말투) 제가 길바닥에서 주웠거든요. 이 휴대폰을.
 정우(F) 아... 오빠가 휴대폰을 떨어뜨렸나 보네요. 거기가 어디죠?
 서원 (주위를 둘러보며) 여기가 그 강남... 어디더라. 일원동이었던가?
 정우(F) (반색하는) 아, 잘됐네요. 제가 지금 거기 근처 연희병원에 있는데 (망설이는) 그런데 제가 지금 휴대폰을 가지러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혹시 좀 가져다주실 수 있을까요?
 서원 (살짝 짜증) 이보세요! 그쪽 오빠가 흘린 걸 제가 왜 가져다줍니까?
 정우(F) 아... 제가 사정이 좀...
 서원 (결렁한 말투) 그건 그쪽 사정이고~
 정우(F) 사례하겠습니다.
 서원 (귀를 후비며, 건들건들) 거~참. 누굴 지금 그지로 아시나
 정우(F) (O.L.) 50만 원이면 될까요?
 서원 (갑자기 정중한 말투로) 아시나요? 누구나 말 못 할 사정이 하나씩은 있는 법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어디시라고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병원을 향해 걸어가는 서원, 그리고 그런 서원 옆에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자두를 몇 알 놓고 앉은 노숙자(남)가 떠나는 서원을 향해 소리친다.

노숙자 동생~ 벌써 가? 신문지 필요하면 또 와!

#8. 연희병원/로비(낮)

자두가 몇 알 담긴 검은 봉지를 들고 병원에 간 서원. 왁자지껄하다. 잠시 살펴보다 입구 쪽 안내데스크에 있는 간호사 수희(20대, 여)에게 다가가 말을 건다.

서원 저기요.

수희 (친절한 미소를 띠며) 네?
 서원 이 병원 20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수희 20층이요? 아, 아까 전달받았는데 혹시 한정우 님 찾아오셨나요?
 서원 아, 맞아요.
 수희 20층은 VVIP 병실이라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안내해드릴게요.
 서원 (간호사를 따라가며) VVIP? 그렇게 부자였어? (눈이 반짝인다)

#9. 연희병원/20층 로비(낮)

수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올라온 서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진 20층, 복잡했던 로비와는 다르게 한산하다.

수희 (정우의 병실을 가리키며) 저기로 가시면 한정우 님 병실이에요.
 서원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 와... 근데 여긴 원래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수희 (이상한 듯 주위를 둘러보는) 원래 담당하시는 간호사분들이 따로 계신데... 어디 가셨지? (그때 전화가 울리고, 전화를 받는다) 네. 네? 응급실 지원이요? 썩 다요? 데스크는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급히 말한다) 지금 근처에서 대형 사고가 나서 비상이라고 하네요. 가실 때도 이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면 돼요. (말하고 가려는데)
 서원 (갑자기 나가려는 간호사의 손목을 붙잡고) 잠깐만요! (느끼한 눈빛으로 검은 봉투에서 자두 하나를 꺼내 간호사의 손에 쥐여준다) 이거 받아요.
 수희 (?) 이게 뭐예요?
 서원 (아련한) 제 동생 같아서요. 자두를 참 좋아했는데...
 수희 (?!) 아...
 서원 일도 좋고, 남 살리는 것도 좋지만. (수희 손가락에 붙은 반창고를 슬쩍 만지며) 자기 건강부터 꼭 챙겨요.
 수희 (손가락에 붙은 반창고를 만지작거리다 살짝 홍조를 띠는) 고맙습니다. (그때, 다시 울리는 핸드폰을 받고)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원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 저기...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서원 (씩익 웃는) 글썽요... 근데 웬지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수희 네?

서원 얼른 가보셔야 하지 않나요?

수희 아... 네. (아쉽다는 듯 망설이다 발걸음을 돌려 떠난다)

서원 (주변 인테리어 둘러보며 입맛 다시는) 카~ 이게 다 얼마짜리야?

감탄하다가 뭔가 다짐한 듯 비장하게 정우의 병실로 향하는 서원.

#10. 연희병원/정우의 병실(낮)

병실에 홀로 앉아 있는 정우. 침대 테이블엔 손대지 않은 식사가 놓여 있다. '똑똑' 들리는 서원의 노크 소리.

정우 네.

서원 (문을 열고 들어온다)

정우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면)

서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여준다) 휴대폰 주운 사람입니다.

정우 아! 금방 오셨네요. (하곤 그대로 침대에 앉아 손을 뻗는다)

서원 (의아한 표정으로 서 있으면)

정우 아, 제가 못 움직여서요.

서원 (갑자기 정우에게 다가가 침대에 걸터앉는 서원, 휴대폰은 건네지 않고 손을 잡는다) 안녕하세요. 전 이서원이라고 합니다.

정우 (뭘지?) 아... 네. 한정우라고 합니다. (손을 빼려고 하는데)

서원 (손을 꼭 잡으며) 손이 왜 이렇게 차요?

정우 (차갑게) 수족냉증이에요.

서원 아. 네...

정우 (손을 슬쩍 빼내며) 휴대폰이나 주시겠어요?

서원 (말을 돌리는) 건지도 못하고, 불편하시겠어요. 얼른 나아야 할 텐데...

정우 안 나아요.

서원 (얼 타는) 네?

정우 안 낫는다고요. 앞으로도 평생. 하반신 마비예요.

서원 (뭔가 떠올리며 놀란 얼굴, 과하게 당황한다) 어... 음...

정우 (무표정한 얼굴로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건네며) 여기요.

서원 (계획대로 되지 않아 뚝 씹은 얼굴로 마지못해 봉투를 받아들고) 아... 네. (머리를 굽적이다 뒤돌아 나가려고 하면)

정우 아! 혹시 가면서 간호사 있으면 좀 불러주시겠어요?

서원 간호사요? 지금 병원 비상이라고 다 응급실로 가던데?

정우 그럼, 여기에 아무도 없던가요?

서원 네, 뭐 우락부락하고 불친절하게 생긴 형님들 몇 명 빼곤.

정우 (내내 무표정이던 얼굴에 당혹감이 서리며 입술을 깨문다)

서원 무슨 일 있으세요?

정우 그... 그제 (한 손으로 배를 잡고는 망설인다) 아니에요.

서원 (잠시 그 모습을 보더니 뭔가 눈치를 챈다,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며)

이야~ 여기, 들어와서부터 느낀 건데 병실 맞아요? 무슨 호텔 같아!

나 좀 둘러봐도 되죠?

정우 (당황하는) 갑자기요?

서원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며) 이야~ 이게 다 얼마짜리야? (병실 안 화장실 문을 열고 감탄) 이게 화장실이야? 우리 집보다 좋네!

정우 (살짝 화가 난) 뭐 하는 짓이에요?

서원 (다시 병실로 와서 정우의 침대에 다가와) 이 침대도 명품이죠? 나 이런 데 한번 누워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한 번만 누워보면 안 돼요?

정우 사람 부를까요? 당장 나가세요! (하는데)

정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정우를 안아 들어 올리는 서원.

정우, 할 말을 잃고 서원의 얼굴을 쳐다본다.

정우 이... 이게 무슨!

서원 같이 누울 순 없잖아요. 잠깐 어디... 흠 (화장실을 바라보며)

저기 앉아 있어요. (하고는 정우를 화장실 번기에 앉힌다)

정우 (서원의 의도를 알아차린) 아...
 서원 (화장실 문을 닫고 정우의 침대에 누워 소리친다) 아~ 폭신하다.
 음악이나 들어볼까? (하고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스피커를 튼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씨익 웃는 서원.

#11. 연희병원/정우의 병실 안 화장실(낮)

번기에 앉은 정우, 잠깐 망설이다 들려오는 클래식 음악 소리에 힘겹게 바지를
 벗고 불일을 본다. 문 너머의 서원을 의식하며 고마운 눈빛을 보내는 정우.

#12. 연희병원/정우의 병실(낮)

시간 경과.
 서원, 콧노래를 부르며 음악을 따라 부르는데
 화장실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온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향해 걸어가는 서원.

서원 (화장실 문을 열고) 아~ 좀 더 누워 있고 싶었는데. 성격도 급하시네.
 정우 (부끄러움에 잠시 망설이다) 고맙... 습니다.
 서원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정우를 안아 들고) 다시 말해줄래요?
 정우 (가까워진 거리에 얼굴이 붉어지고) 고맙다구요.
 서원 (침대에 정우를 눕히는) 뭐가요? 내가 댁 침대에 누운 게?
 정우 (같이 피식 웃는) 재밌는 분이네요.
 서원 뭐가 웃겨요? 같이 좀 웃읍시다.
 정우 (웃다가 깜짝 놀라 입을 막는) 내가 웃었어요? (갑자기 차가운
 표정으로 침대 옆 서랍을 뒤져 돈을 꺼내는) 이거 받아요.
 서원 뭘니까?
 정우 모르는 척할 필요 없어요. 고마워서 드리는 거예요. 받고 이제

가주세요.
 서원 (정색하고) 이왕 줄 거면 그거 말고 더 좋은 걸로 주시면 안 될까요?
 정우 (?) 뭘요?
 서원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거요.
 정우 (놀라 자신의 몸을 감싸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CUT TO

연희의 침대 옆에 간이 의자를 놓고 연희의 병식을 뺏어 먹고 있는 서원.
 정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원을 쳐다본다.

서원 (정신없이 먹다가 슬쩍 정우를 보고 아깝다는 듯) ...좀 쥐요?
 정우 됐어요. 다 먹었으면 가시죠?
 서원 (알뜰게 밥을 먹으며) 으음~ 아직이요. 음식 남기면 벌 받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다급히 간호사 한 명과 병실로 들어온다.

김 실장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정우 네. 근데 왜 그러세요?
 김 실장 연락해보니 간병인 아주머니께서 사고가 나서서 못 오셨다고 해서요.
 병원에 전화를 해도 아무도 안 받고
 간호사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분명 다음 근무자가
 금방 온다고 해서 응급실로 지원 간 건데...!
 정우 괜찮아요.
 김 실장 (정우의 밥을 먹는 서원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며) 그런데 이분은...?
 정우 아, 민현 오빠 휴대폰을 주우셨다고 해서요.
 김 실장 근데 왜 아가씨 밥을?
 정우 아. 그게
 서원 (O.L.) 제가 고마울 일을 좀 해서요. 그 보상으로 좀 얻어먹었습니다!
 김 실장 고마운 일...?
 정우 (다급히 서원의 입을 막으며 어색하게 웃는) 아... 하하. 그,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금방 가실 거예요.

서원 근데 간병인 아주머니가 사고가 나셨다고요?

김 실장 (밝아진 정우의 모습에 살짝 놀란 듯하다가 서원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아 참. 간병인 아주머니께서 오다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나서서 오늘 못 오셨다고 합니다. 한 2주 정도는 출근을 못 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잠시 대타를 해줄 간병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우 그래요? 좋으신 분이었는데 아쉽네요.

서원 (번쩍 손을 드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정우 필요?

서원 간병인이요!

정우 무슨 소리에요!

김 실장 말도 안 되는 소리!

서원 아니 다들 차분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런 데 입원하시는 분을 간병하시는 간병인이시면 분명 되~게 고급 인력이겠죠?

김 실장 (고개를 끄덕이는) 그건 그렇지...

서원 어이쿠! 그럼 새로 뽑을 간병인도 굉장히 수준 높으신 분으로 뽑아야겠네요? 근데 그런 분이 장기 계약도 아니고, 애개? 딸랑 2주를 대타하려고 하겠어요?

정우 그럼 그냥 새로운 분이랑 장기로

서원 (O.L.) 와... 정우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냉정하구나? 좋은 분이었다면서 조금 다쳤다고 그렇게 내쳐도 되는 거예요?

정우 아...! (자신의 처지가 떠올라 다리를 감싼 이불을 꼭 말아주면)

김 실장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버럭 소리치는) 이봐!

서원 네?

김 실장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따라 나오게

정우 (걱정되는) 김 실장님, 괜찮아요. 제가 잘 말할게요

김 실장 (단호한) 아뇨, 아가씨. 제가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김 실장 먼저 병실을 빠져나가면, 서원이 어깨를 으쓱하고는 따라 나간다.
그들을 걱정스레 바라보는 정우.

#13. 연희병원 외경(밤)

대화가 길어지는지 어느새 어두워진 병원의 외경.

#14. 연희병원/정우의 병실(밤)

문을 열고 당당히 들어오는 김 실장. 그리고 뒤따라 풀이 죽어 들어오는 서원.
정우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다 반색을 하며 반긴다.

정우 무슨 얘기를 그렇게...

김 실장 (O.L.) 아가씨! 우리 서원이 2주 동안만 써봅시다.

정우 (경악) 네? 그게 무슨 소리에요? (하고 서원을 쳐다보면)

서원 (김 실장 뒤에서 슬쩍 브이 자를 하고 웃는다)

김 실장 이야기해보니 참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생 말처럼 간병인 아주머니 출근하실 때까지만 맡겨봅시다.

정우 (기가 찬) 동새앵?

서원 (양탈을 부리듯) 아이참, 형~ 우리끼리 있을 때만 그렇게 부르라니까.

정우 (기가 차서 바라보다가) 김 실장님! 그래도 어떻게 남자들...!

김 실장 앞으론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전문적인 일은 간호사들이 하고 아가씨의 일상생활 부분만 서원이가 도울 겁니다.

정우 그래도 좀...

김 실장 (진지한 눈으로) 아가씨. 저 한번 믿어주십시오.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우 (말문이 막혀 있다가 문득 알뜰게 웃는 서원을 노려보면)

서원 (내가 뭐? 하는 표정으로 받아친다)

#15. 서원의 고시원/데스크(밤)

강패들을 피해 잠시 고시원에 묵기로 한 서원, 데스크에서 키를 받아 계단을

올라간다. 그리고 그런 서원의 뒤에 소리치는 고시원 주인(60대 초반, 여).

주인 동생~ 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아침 차려놓을 테니까 거르지 말고 챙겨 먹고!

서원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고마워요. 누님~

그 모습이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다
고시원 주인에게 다가가는 고시원생(30대 초반, 남).

고시원생 아주머니, 이제 여기 아침밥도 차려줘요?

주인 (뚱 씩은 얼굴로) 염병허네. 여기가 하숙집이야?!
(하고 유리창을 쿵 달아버린다)

고시원생 (어이없다는 얼굴로) 뭐야?

#16. 서원의 고시원/방 안(밤)

서원 고시원 방 안의 좁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알람을 맞추며 중얼거린다.

서원 쉽다 쉬워~ (하다가 잠깐 생각에 빠지는)

#17. 회상. 연희병원/정우의 병실 복도(밤)

#12와 연결.
김 실장에게 불러 나가 병실 문 앞에 선 두 사람.

김 실장 (무서운 얼굴로) 당신, 서원이라고 했나? 목적이 뭐야?

서원 (싱긋 웃는) 돈이요.

김 실장 (무서운 눈빛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가씨 옆에 붙어서 돈이라도

좀 뜯어내보겠다는 건가?

서원 에이~ 너무 가셨다. 간병인 하면 월급 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부자시니까 많이.

김 실장 그걸 믿으라고? 단순히 월급 받으려고 간병인을 하겠다?

서원 (진지하게 중얼) 뭐,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기도 하고...
(김 실장을 쳐다보며 눈을 반짝이는)

그리고 김 실장님이 더 챙겨주실 거잖아요?

김 실장 내가? 왜?

서원 정우 씨가 엄청 오랜만에 웃었으니까?

김 실장 (!) 그걸... 어떻게...

서원 새삼스레 뭘... 누가 봐도 알겠더라. 자기가 웃고도 깜짝 놀라고,
아저씨는 정우 씨 보고 나 감동했소~ 하고 있고.

김 실장 (!) 크흠!

서원 보니까 사고로 저렇게 되고 마음도 많이 다친 것 같던데
그거 내가 고쳐볼게요.

김 실장 자네가 무슨 의사라도 돼?

서원 의사는 고치던가요?

김 실장 (!)

서원 의사는 아니어도 아주 약간 비슷한 걸 배우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맡겨봐요. 고작 2주잖아요?

김 실장 내가 뭘 믿고?

서원 김 실장님이 줄 돈을 믿으셔야죠. 아주 많이 주실 거잖아요? 그죠?
제가 판생각하지 않을 만큼?

김 실장 (이글거리는 눈으로 쳐다보는) 아주 유심히 지켜보겠네.

서원 그럼요! 이제 제 직장인데. 거래 성사? (하고 손을 내밀면)

김 실장 (망설이다 손을 잡는다)

서원 그럼 거래 성사된 김에 동생 좀 도와주시죠. 형님.

김 실장 형님?? 아니 그것보다 뭘 도와달란 건가.

서원 정우 씨 설득하는 거요. (하고 씨익 웃으면)

김 실장 (기가 찬다는 얼굴)

#18. 서원의 고시원/방 안(밤)

다시 현재. 침대에 누워 알람을 맞춘 서원.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다가 연락처로 들어가 ‘서희 병원’이라고 적힌 번호를

한참 쳐다본다. 슬픈 표정으로 “하반신 마비...”라고 중얼거리는 서원.

전화를 걸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는데... 그때, 갑자기 울리는 휴대폰.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주운 서원.

은택에게서 온 전화라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받는다.

서원 여보쇼.

은택(F) 새끼야 너 그러고 전화를 끊으면 어떡해? 진짜 뒤진 줄 알았잖아!

서원 아직은 살아 있다. 월급도 아직 못 받았는데 뒤질 순 없지.

은택(F) 입 터는 거 보니까 멀쩡하네. 근데 진짜 혜수 누님은 언제 꼬신 거냐?
그 까탈스런 사람을?

서원 꼬시기는! 그냥 누나 동생 사이라니까!

은택(F) 허이고! 꺾이나!

서원 그리고 혜수 누님이 얼마나 나이스한데? 원래 상처가 많은 사람이
그걸 숨기려고 더 차가워 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 숨겨둔 상처를
발견하고 보듬어주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가는 거고.

은택(F) 지랄하네.

서원 넌 아직 멀었다 짜식아.

은택(F)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호빠를 가 새끼야! 왜 건전한 내 방에서 자꾸
손님을 꼬시는 거야?

서원 꼬시다니?! 나 섭섭하다? 난 외롭고 힘든 형님 누님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눴을 뿐이야?

은택(F) 됐고! 일단 너 일한 만큼 월급이랑 좀 더 보태서 입금했다. 확인해봐.

서원 그럴 필요 없다니까.

은택(F) 됐어 새끼야! 집도 못 들어가는 새끼가 허세는...

서원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그거 이자까지 쳐서 꼭 크게 갚는다. 내가 지금
한방 크게 터뜨릴 것 같으니까.

은택(F) 빛이 산더미인 새끼가 말은... (진지한 목소리로) ...서원아.

서원 ...어.

은택(F) 너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사람 마음 가지고 놀지 마라.
다 돌려받는다.

서원 ...그래, 고맙다.

은택(F) 새끼...

통화가 끝나고 씩씩한 표정으로 누운 서원.

마른세수를 연거푸 하다가 침대에 쓰러지듯 눕는다.

서원 (힘없이 중얼거리는) 그래도... 그래도. 나부터 좀 삼시다.

#19. 연희병원/정우의 병실(낮)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정우. 그때, 들리는 노크 소리.

정우,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들어오세요”라고 답한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남자. 정우의 남자친구 최민현이다.

정우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 (하다 민현임을 발견하고 말끝을 흐리면)

민현 (그런 정우를 보고는) 아, 누구 오기로 한 사람 있었나?

정우 (눈을 피하는) 아... 아니, 그냥 간병인.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민현 출근하는 길에 들렸어. 할 말도 있고.

정우 그렇구나... 아 참.

(침대 옆 서랍을 뒤적이며) 오빠 휴대폰 내가 가지고 있어.

민현 (당황하는) 그걸 네가 어떻게?

정우 (차가운 표정) 어떤 분이 주워주셨어. (꺼낸 휴대폰을 건네는) 자.

민현 (떨떠름하게 휴대폰을 받아들고 추궁하듯) 그래? 누가?

정우 그냥 지나가다 주우셨대.

민현 그게 끝이야?

정우 (조금 날카로운) 그럼 뭐가 있어야 해?

민현 (살짝 당황한) 아니... 고마운 분이네.

정우 (복잡한 표정으로 잠깐 침묵하다가) ...오빠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어?
 민현 나 어제 아버지 만났어.
 정우 아빠를? 아빠가 또 뭐라고 하셔?
 민현 결혼하래. 너랑 나. 참 아이러니하다.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던 분이,
 너 사고 나고 나서야 허락해주시네. (피식 웃곤) 네가 이 정도쯤은
 되고 나서야 내가 수준에 맞나 보다.
 정우 ...그래서 결혼할 거야?
 민현 해야지 결혼. 이제 회사 짤릴 걱정도 안 해도 되고. 허락도 받았는데.
 정우 아빠 말고, 오빠는? 오빠는 이 결혼 하고 싶어? 정말... 이런 나라도
 괜찮아?
 민현 (자신도 모르게 잠깐 망설이다) ...당연하지.
 정우 (고개를 푹 숙이더니 다시 번쩍 고개를 든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다.
 그러나 억지로 웃는) 그래... 하자 결혼. 고마워.

민현이 병실을 떠나고, 민현이 떠난 곳을 멍하니 바라보는 정우.
 침대 밑에 떨어진 민현의 단추를 발견하고 주우려다 바닥으로 떨어진다.
 바닥에 떨어져 서럽게 울며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가는 팔로 연신 내려치는 정우.

#20. 연희병원/로비(낮)

로비의 VVIP 전용 엘리베이터 앞,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통화를 하며 병원을 빠져나가는 민현.
 그리고 그런 민현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서원.
 서원, 민현의 휴대폰을 보고 잠깐 뒤돌아봤다가 다시 엘리베이터에 탄다.

#21. 연희병원/정우의 병실(낮)

멍하니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긴 정우.

앞에는 뚜껑도 열지 않은 식사가 놓여 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병실로 들어오는 서원.
 호들갑을 떨며 정우에게 인사한다.

서원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정우 ...
 서원 (얼굴을 들이밀며) 무슨 일 있어요? (정우가 밥을 먹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어? 밥도 안 먹었네? 왜 안 먹었어요?
 정우 (귀찮다는 듯) 그냥 먹기 싫어서요.
 서원 그렇다고 밥을 안 먹어요? 애예요?
 정우 그냥 내버려둬요.
 서원 어떻게 내버려둬요!
 정우 (폭발) 그냥 내버려두라고요! 난 내 맘대로 밥 좀 안 먹으면 안 돼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혼자서는 견지도, 화장실도 못
 가는 병신이 됐는데, 그깟 밥 하나 안 먹으면 안 되냐구요!
 서원 ...그러니까
 정우 (마음을 추스르고) 후...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서원 그러니까... 지금 이 밥 안 먹는다는 거죠?
 정우 (이건 뭐지?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면) 지금 내 걱정할 게 아니라...
 서원 (옆에 앉아 밥뚜껑을 열며) 이렇게 비싼 밥을 어떻게 내버려둬요?
 아깝게.
 정우 (창피함에 얼굴이 달아오르는) ...!
 서원 (밥을 입에 욱여넣으며) 이 맛있는 걸...
 정우 (그 모습을 쳐다보다) 내가 안 어려워요?
 서원 왜요, 돈 많아서요?
 정우 그게 아니라... 장애인이지 않아요.
 서원 (힐끔 정우를 보더니 다시 밥을 먹는) 장애인이 뭐요? 나도 장애
 있어요. 그 뭐냐, 분노조절 장애. 뭐 그런 거. (과장되게 화를 내듯)
 으으 개 맛있어!
 정우 그거랑은 다르죠!
 서원 그거랑은 달라요? 비슷한 거 아닌가?

정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애인들도 우리랑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친절한테, 선을 그어. 넌 장애인이고, 우린 정상이라고. (하고 창밖을 쳐다보면)

서원 (진지하게 듣다가 벌떡 일어나는) 우리 산책 갈까요?

정우 (피식 웃는) 거 봐요. 또 내 눈치 보고 있죠? 나 괜찮아요.

서원 무슨 소리예요? 배불러서 소화 시키려고 그런 건데. 간병인이 환자를 두고 산책 갈 순 없잖아요.

정우 (어이없어 서원을 쳐다본다)

#22. 연희병원 근처 공원(낮)

휠체어를 탄 정우를 끌고 병원 근처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는 서원.
주변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몇몇 지나가고,
작은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피구를 하고 있다.

정우 (주변을 둘러보며) 병원 근처에 이런 곳도 있었네요.

서원 바로 앞인데. 처음 와봐요?

정우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원 아... (잠시 정적)

정우와 서원 옆으로 팔짱을 끼고 행복한 표정으로 걸어가는 커플.
정우, 커플 여자의 다리를 바라보다 시선을 올려 행복한 얼굴을 잠시 바라본다.

정우 ...더운데 들어가죠?

서원 우리 나온 지 십 분밖에 안 됐는데요?

정우 진짜로 자기가 산책하고 싶어서 나온 거였어요?

서원 (탄청을 피우는)

정우 (잠시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아닌 거 알아요.

서원 그럼 좀 더...

정우 (O.L.) 됐어요. 그냥 들어가요. 힘들어서 그래요. (주변의 산책하는

사람,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 돛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을 쓱 둘러보고는) 여기엔 이제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얼굴로 잠시 바라보는데)

서원

그때, 서원과 정우의 발밑으로 피구 공 하나가 굴러온다.
피구 공을 주워들고 주변을 둘러보는 서원.
모여서 피구를 하던 초등학생 1~2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 4명(남자아이1·2·3과 여자아이)이 달려온다.

남자아이1 (꾸벅) 앗! 죄송합니다.

서원 이거 너네 공이니?

여자아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서원을 올려다보는) 와! 잘생긴 아저씨다.

남자아이2 (질투하는 듯한 표정으로 여자아이를 쳐다보고는 서원을 향해 손을 내민다) 공 주세요. 아저씨!

서원 (공을 뒤로 빼며) 방금 뭐라고?

남자아이2 공 달라주세요!

서원 아니, 너 말고. (여자아이를 따뜻한 눈으로 보며) 방금 뭐라고?

여자아이 잘생긴 아저씨?

서원 (호탕하게 웃으며 여자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핫핫핫! 우리 귀여운 꼬마가 보는 눈이 있구나.

남자아이2 (분한 눈으로 쳐다보는)

남자아이3 (정우에게 다가와) 누나! 누나는 왜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정우 (당황하는) 어... 그게...

남자아이2 (남자아이3을 툭 치며) 바보야, 이 누나는 장애인이니까 그렇지!

정우 (비참한) ...

서원 (그 모습 보고는 조금 화난 목소리로) 꼬맹아, 방금 뭐라고 그랬어?

남자아이2 (살짝 쫓) ...네?

서원 방금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냐고.

남자아이2 (서원이 무섭고) 장애인이라고...

정우 (당황한) 그만 해요. 애한테 왜 그래요.

서원 아니, 그거 말고.

남자아이2 (의아한) 누... 나?
 서원 그래, 그거! 너! 왜 난 아저씨고 이 사람은 누나야? 사람 차별해?
 정우와 남자아이2, 어이없다는 눈으로 서원을 쳐다본다.
 서원 (아이들의 공을 주기 싫다는 듯 감싸 안으며) 안 되겠어. 이렇게 되면 이 공, 그냥 줄 수 없어.
 남자아이1 그럼요?
 서원 형이랑 피구하자. 이기면 줄게.
 남자아이2 그런 게 어딴어요! 원래 우리 거잖아요!
 서원 대신, 너네가 이기면! 형이 아이스크림 쓴다!
 남자아이2 (망설이는데)
 서원 (브이 자를 하며) 그럼 두 개씩! (남자아이2 내려다보며) 설마 자신 없어?
 남자아이2 (비장한 눈으로 주먹을 내밀며) 콜!
 서원 (웃으며 남자아이2와 주먹을 마주치는) 꼬맹이, 남자네! 콜!
 정우,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이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는 얼굴에서.

#23. 연희병원 근처 공원/피구장(낮)

경악한 정우의 얼굴로.
 화면이 넓어지자 정우와 서원이 피구장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정우는 아이들 4명과 한 팀이고, 서원은 혼자서 반대편에서 있다.
 정우 (경악) 나는 대체 왜 여기에 둔 거예요?
 서원 (진지한 표정으로 공을 들고) 이래야 밸런스가 좀 맞죠. 다 큰 남자가 꼬맹이들 4명이랑 싸울 순 없잖아요?
 정우 애초에 다 큰 남자가 애들이랑 여기서 이려고 있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나 피구 해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서원 아잇, 몰라몰라. 시작! (하더니 공을 정우에게 던진다)
 정우 (뉘 놓고 있다 날아오는 공을 본능적으로 피하는) 아!
 서원 (아쉬운) 아... 까비!
 정우 (어이없다는 표정)
 남자아이2 (떨어진 공을 주워 서원에게 힘껏 던지면)
 서원 (손쉽게 공을 잡아버리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는 공을 던지면)
 여자아이 (공을 맞고 살짝 넘어지는) 아앗!
 서원 오케이! 한 명 아웃!
 남자아이2 (여자아이가 맞는 것을 보고 불타는 눈빛으로 공을 던지는)
 정우 (고개를 절레절레 젓다 갑자기 날아오는 공을 피하는) 어어?
 서원 방심하면 안 될 텐데?
 정우 (이내 진지해진 눈빛)

#24. 몽타주. 피구를 하는 정우와 서원

얇미운 얼굴로 공을 이리저리 피하는 서원과
 열이 오른 얼굴로 공을 던지는 남자아이2.
 진지한 얼굴로 피구 공을 던지는 서원, 서원의 공을 맞고 아웃 되는 남자아이3.
 아이들과 함께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휠체어를 끌고 도망치는 정우.
 공을 맞고 아웃되는 남자아이1과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지만 밝은 얼굴인 정우.
 결국 남은 남자아이2마저 서원의 공을 맞고 아웃된다.

#25. 연희병원 근처 공원/피구장(낮)

정우와 서원만 남은 피구장.
 정우, 피구 공을 들고 서원을 노려본다.
 서원 (놀리듯) 그렇게 피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정우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서원 제가 원래 좀 성실한 편이라.
 정우 그래서 이렇게 전력을 다하시는구나? 애랑 여자를 상대로?
 서원 뭐 그렇... (하는데)
 정우 (힘껏 공을 서원을 향해 던지는)
 서원 (공을 피하고는) 와~ 이제 말 걸다가 공을... (하고 정우를 쳐다보면)
 정우 (공을 던지다 무리를 한 건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서원 (당황하며 정우 쪽으로 다가가는) 정우 씨! 괜찮아요?

그때, 아웃된 남자아이2가 피구 공을 서원의 뒤통수에 던지고,
 서원은 공에 맞는다.

정우 (숙였던 고개를 확 들며) 아싸! 아웃! 아웃!
 아이들, 다 같이 와~ 함성을 지르며 정우를 둘러싼다.

여자아이 언니 짱!
 남자아이3 이겼다!
 정우 (활짝 웃으며 아이들과 깎지를 끼고) 누나가 이겼다!
 서원 (배신감 가득한 얼굴로 다가와 아이들에게 공을 건네고, 정우를
 쳐다보며)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정우 (아이들과 놀다 서원을 슬쩍 쳐다보고는 시선을 피하는) 애들아!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주신대!
 아이들 (다 같이) 와~
 서원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보다 이내 피식 웃는)

#26. 연희병원 근처 공원(낮)

아이들, 피구장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
 휠체어에서 내려 벤치에 앉은 정우와 그 옆에 앉은 서원.
 아이들이 보이는 조금 떨어진 벤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정우 (놀리듯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 맛있네요. 공짜라 그런가.
 서원 (훑겨보며) 돈도 많으신 분이 가난한 간병인 돈을...
 정우 (아랑곳하지 않고 기지개를 켜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아~ 좋다.
 서원 (빼죽이며) 아까까지 빨리 들어가자시던 분이...
 정우 (말을 돌리는)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서 하늘을 보는 게.
 서원 (알미운 듯 쳐다보다 따라 하늘을 보며) 그러고 보니 저도 그러네요...
 정우 다리도 멀쩡한 분이 왜요? 아무 때나 나오면 되지.
 서원 돈 버느라요. 돈이 없으면 고개 들 일이 별로 없거든요.
 숙일 일은 많아도.
 정우 그러네요. 다 똑같네요. 나는 병원에 간혀서. 서원 씨는 돈에 간혀서...
 (잠시 있다가 서원을 쳐다보며) 나 피구 잘했죠?
 서원 (피식) 피구보단 거짓말을 잘했죠.
 정우 (곰곰이 생각하다가) ...맞아요. 나 거짓말 잘해요.
 서원 네?
 정우 사고 나고,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계속 거짓말했거든요.
 사실 죽고 싶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서원 (그런 정우를 안타깝게 보면)
 정우 근데, 사니까 좋네요. 사고 나기 전에도 못 해본 피구를 해보고. 공짜
 아이스크림도 먹고. (하고 서원을 푹바로 바라보며) 고마워요.
 서원 (정우를 바라보며) 뭐가요?
 정우 이렇게 말 들어줘서요. (민망한 듯 고개를 돌리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서원 씨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서원 (정우를 보며 복잡한 표정으로) 원래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발견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법이죠.
 정우 그런가? 전부터 느꼈는데 심리학 같은 거 배웠어요? 눈치도 빠르고.
 서원 네 배웠죠. 상담가 같은 거 할까 생각도 했어요. (벌떡 일어나며)
 이젠 아니지만.
 정우 네? 왜요?
 서원 (못 들은 척 싱긋 웃는) 이제 들어가죠.

#27. 연희병원/정우의 병실 복도(낮)

정우의 VVIP 병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에 내린 정우와 서원.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며 병실로 향한다.

정우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서원 음... 여동생 같아서?
정우 (으, 하는 얼굴) 방금 멘트 진짜 구린 거 알죠?
서원 진짜인데?

그때, 간호사 수희가 나타나 말을 건다.

수희 저기...!
서원 (놀란) 엇!
수희 맞죠? 오빠?
정우 (어리둥절한 눈으로 둘을 쳐다보는)
서원 오빠요? 아... 그때 그 간호사님이시구나. 근데 데스크 담당이시지 않았어요?
수희 이번에 VVIP병실 담당 인원이 늘어나서요. 그것보다 오빠가 왜 여기에? (하고는 정우를 슬쩍 보는) 아! 한정우 환자님? 안녕하세요.
서원 아... 제가 당분간 한정우 씨 간병인으로 일하게 돼서요.
수희 (반가운) 진짜요? 잘됐다! 지금 시간 되시면 저랑 점심...
정우 (O.L.) 하~암 피곤하다.
서원 아! 잠깐만요. 정우 씨 좀 병실에 눕혀놓고요.
수희 (떨떠름) 아... 네.

서원, 정우를 끌고 병실로 간다.

#28. 연희병원/정우의 병실(낮)

병실로 들어온 서원. 정우의 휠체어를 침대까지 끌고 가 정우를 눕히려는데.

정우 (눅는 걸 거부하며) 됐어요. 잠깐 앉아 있을래요.
서원 네? 방금 피곤하다고...?
정우 (당황) 아까는 아까고! 밥, 밥 먹죠 우리!
서원 아 네, 제가 점심 지금 달라고 할게요. (하고는 나가려고 하면)
정우 서원 씨는 같이 안 먹어요?
서원 아, 저는 아까 그 간호사분이랑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정우 친한 사이인가 봐요?
서원 아뇨, 여기 와서 한번 만났는데요?
정우 (?) 근데 뭐 저렇게 반가워해요? 오... 오빠라고 하면서?
서원 아! 내 여동생 같다고 해서 그런가 봐요.
정우 허! 대체 여동생이 몇 명이에요?
서원 아무튼 저도 밥 좀 먹고 올게요.
정우 (차갑게) 네. 그러세요.

서원 뒤돌아 씨익 웃으며 병실을 나가면, 정우 재빨리 휠체어를 끌고 문으로
다가가 귀를 대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다.

#29. 연희병원/직원 식당(낮)

식당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서원과 수희.
수희는 신이 나서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 서원은 정우에게만 관심이 가 있다.

수희 오빠, 그때 또 만날 수 있을 거라더니. 여기서 일해서 그런 거였어?
서원 뭐, 그렇지.
수희 뭐야~ 그럼 바로 찾아오지!
서원 좀 한가해지면 그러려고 했지.

수희 진짜? (웃는) 그럼 오빠 오늘 끝나고...

서원 (O.L.) 근데 수희야.

수희 응?

서원 정우 씨에 대해 뭐 아는 거 있어? 아무거나도.

수희 (떨떠름) 아... 한정우 환자? 이 병원 지은 연희 그룹 손녀라던데.

서원 (눈이 반짝이며 놀라는) 연희 그룹? 그렇게 부자였어?

수희 (더 떨떠름) 음, 두 달 전쯤에 교통사고 당하고 하반신 마비 와서 아직 요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서원 어? 아니, 내가 간병인이니까. 좀 알아두려고.

수희 (눈치를 보며) 좀 소문이 안 좋던데... 배려심 없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서원 그런 것 같진 않던데...

수희 응?

서원 아냐. 혹시 정우 씨에 대해 더 아는 거 있어? 뭐 좋아하는 거라든지?

수희 아... 뭐 원래 발레를 좀 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서원 (흔들리는 눈빛) 발레...?

수희 (슬쩍 서원을 쳐다보다가) 아! 맞아, 그리고 약혼자가 있다고 들었어.

서원 (!) 약혼자!?

수희 맞아 맞아. 그 본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원이란 사귀더니 결혼할 거라고 해서 그 남자가 땡잡았네, 신데렐라네 하며 소문이 파다했어.

서원 그래?

수희 (신나서) 응! 근데 아버지가 극구 반대해서 결혼은 못 하고 있던 것 같은데. 뭐, 근데 이제는 반대 못 하겠지. 딸이 장애인이 됐으니. 재벌이면 뭐해, 이제 걷지도 못하는데.

서원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그렇구나...

수희 오빠, 근데 왜 난 안 물어봐?

서원 뭘?

수희 (살짝 빠진) 내가 뭐 좋아하는지는 왜 안 물어보냐구.

서원 그건, (휴지를 뽑아 수희의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며) 지금부터 내가 알아봐야지. 다 먹었으면 일어날까?

수희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인다)

#30. 연희병원/정우의 병실 복도(낮)

무거운 표정으로 정우의 병실로 향하는 서원.
곰곰이 생각에 빠진다.

INSERT

과거 회상. 서원의 집 거실.
TV 앞에 앉아 발레 공연을 보는 서희.
#10에서의 클래식 음악이 크게 들려오고.
방 안에서 공부하던 서원, 거실로 나와 짜증을 낸다.

서원 야! 티브이 소리 좀 줄여! 시끄러워 죽겠네!
나 시험 떨어지면 다 너 때문이다?

서희, 아랑곳하지 않고 약 올리듯 메롱 하더니, 거실에서 어설픈 발레를 춘다.
서원, 서희의 어설픈 모습이 짜증 나다가도 피식, 웃음이 나고.

다시 현재.
슬픈 듯, 웃긴 듯 애매한 표정의 서원.
고개를 저어 정신을 차리고,
병실 문밖 유리창으로 밥상을 앞에 둔 정우를 본다.
뭔가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밥을 먹는 정우.
한 큰술 크게 떠서 입에 넣더니,
맛있다는 듯 눈이 동그래져 게걸스레 밥을 먹는다.
안심한 듯 웃음이 나는 서원, 크게 인기척 내며 병실 안으로 들어간다.

#31. 연희병원/정우의 병실(낮)

밥을 게걸스레 먹던 정우, 들어오는 서원에 깜짝 놀라 헛기침을 한다.
서원, 조용히 다가가 물을 따라 건네면 괜히 변명을 하는 정우.

정우 (가슴을 두드리며) 밥이 좀 딱딱하네.
 서원 딱딱한 거치곤 많이 먹었네요?
 정우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면서요?
 서원 벌은, 나쁜 사람이 받는 거고. 나처럼.
 정우 ?
 서원 (슬픈 표정으로) 그러니까 정우 씨는 죽지 마요. 절대로.

정우, 아까 자신이 한 말 때문인 것을 깨닫고
 안심시키듯 웃더니 탄정을 피운다.

정우 내일도 날씨가 좋대요.
 서원 네?
 정우 하늘도 엄청 맑을 거래요. 산책 나가기 좋겠다. 그죠?

서원, 정우의 속내를 깨닫고.
 서로를 마주 보며 슬쩍 웃는 두 사람.

서원 네. 하늘도 보고요.

#32. 몽타주. 정우와 서원의 평온한 나날

— 병원 로비(낮)
 병원의 인사가 된 서원.
 지나다니는 의사, 간호사, 환자 모두에게 인사하며
 자두 하나씩을 쥐여주는 서원.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젓는 정우.

— 정우의 병실(밤)
 함께 밥을 먹는 두 사람.
 정우의 반찬을 뺏는 서원. 그런 서원의 반찬을 정우가 다시 뺏으며

아웅다웅하고.

— 공원(낮)
 함께 아이스크림을 물고 산책을 하는 두 사람.
 하늘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는다.
 피구를 함께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주변을 시끄럽게 돌아다닌다.

#33. 연희병원/정우의 병실(낮)

병실 앞에서 수박과 자두가 든 봉투를 들고 문을 두드리는 서원.
 들어오라는 정우의 말에 들어간 서원은 어색하게 서 있는 민현을 발견한다.

서원 오늘도 왔습니다! (민현 발견, 엉거주춤한 자세로) 어엿.
 손님이 와 계셨네.
 정우 들어와도 돼요.
 민현 (경계하는, 정우를 보며) 누구...?
 정우 간병인 아주머니가 다치셔서 잠깐 간병해주시기로 한 분이예요.
 민현 남자분이...?
 서원 (과일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며) 반갑습니다. 이서원이라고 합니다.
 민현 (손을 잡으며) 최민현입니다.
 서원 (번득) 민현 씨요?
 민현 절 아십니까?
 정우 아, 그분이 오빠 휴대폰 주워주신 분이야.
 민현 (경계하는 눈빛) 아... 이분이?
 서원 (웃으며) 그럼 이분이 그 휴대폰 주인이시구나! 친오빠신가?
 아, 아니지. 성이 다르구나. 친척 오빠?
 민현 아뇨. 정우와는 결혼할 사이입니다.
 서원 (민현을 새삼 다시 쳐다보며) 아... 가족이 아니라 남자친구셨구나?
 민현 네?
 서원 아닙니다.

민현 괜찮으시면 잠깐 저랑 이야기 좀 하시죠.
 정우 오빠가 서원 씨랑 왜?
 서원 (뭔지 안다는 듯) 그러시죠.

#34. 연희병원/외곽(낮)

인적이 드문 건물 밖 외곽.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서원과 민현.

민현 (조심스럽게) 휴대폰은 어디서 주우신 거죠?
 서원 길거리 벤치에서요. (씨익 웃는) 급한 일 있으셨나 봐요. 휴대폰을 다 놓고 가시고?
 민현 (흔들리는 눈빛) 아... 뭐.
 서원 제가 눈치가 좋은 편인데. 전 친오빠나 친척 오빠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민현 왜죠?
 서원 (아무렇지 않게 담담히) 애인이 전화를 하길래요. 연희 그룹 손녀를 두고 바람피울 줄은 몰랐죠.
 민현 (! 충격으로 굳은)

그런 민현을 보며 씨익 웃는 서원의 얼굴에서

#35. 회상. 길거리/벤치(낮)

#7과 동일한 장소.
 신이 나서 서원의 휴대폰을 들고 정우의 병원으로 향하는 서원의 얼굴로.
 그때, 서원의 손에 들린 민현의 휴대폰에서 전화가 울린다.
 이름 없이 번호로 뜨는 화면. 민현이 정우와 만나기 전부터 만나던 연인 미영이다. 서원 일단 전화를 받는다.

서원 여보세요...
 미영 (O.L.) 오빠, 미안해. 그냥 안 와도 돼. 나 안 죽어. 아무것도 안 할거야.
 서원 저기...
 미영 (O.L.) 난 내가 오빠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엔 내가 너무 부족한가 봐.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다신 연락 안 할게. 그 여자랑 잘 살아.
 서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하는데 이미 끊긴 전화) 뭐야... 괜히 나 때문에 헤어지는 거 아니야? 아, 몰라~ (하곤 발걸음을 옮긴다)

#36. 연희병원/외곽(낮)

다시 현재. 긴장된 분위기에 마주 보고 선 서원과 민현.

민현 (피식) 역시 알고 있었네요.
 서원 안 놀라네요?
 민현 미영이가 그러더라고. 전화했었는데 누가 받았다고. 난 아니니까 당신이겠거니 했지.
 서원 똑똑하시네.
 민현 ...얼마나 드릴까요?
 서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민현 드라마를 많이 보셨네.
 서원 좀 구렸나? (민현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크흠, 뭐, 좀 고민이 되네요. 소문을 들어보니 당신이 정우 씨보다 돈이 많을 것 같진 않고. 그럼 어디에 붙어야 하나...?
 민현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면 위험할 텐데.
 서원 (웃는) 폼.
 민현 왜 웃지?
 서원 아... 죄송. 들어보니까 남자 신데렐라 뭐 그러던데. 그쪽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좀 웃겨서요.
 민현 ...정우한테 진실을 말한다고 당신한테 돈이 생기진 않을 텐데?

서원 흠... 그것도 그러네요.
 민현 1억이면 되겠어요?
 서원 (흔들리는 눈빛으로 고민하더니) ...나쁘지 않네요.
 민현 구해지면 연락드리죠. (명함을 건네는)
 서원 (잠시 명함을 바라보며 망설이다 명함을 받는) 그러죠.

서원은 다시 병원으로 떠나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민현이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민현 (서원을 노려보며) 사람 한 명만 조사해주시죠.

#37. 연희병원/정우의 병실(밤)

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 정우, 그리고 그 옆에 의자를 놓고 앉은 서원.

정우 (서원 눈치를 보며 괜히 헛기침하고는)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서원 (시선을 피하며) 그냥 정우 씨 잘 부탁드린다고 하던데요?
 정우 (고개를 가웃하는) 그래요?

서원이 정우의 옆에 앉아 자신이 사 온 수박과 자두를 꺼내놓고, 그중 수박을 썬다. 어딘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은 듯 통명스러운 서원.

정우 와, (자두를 먹으며) 수박 크다. 그런 건 얼마나 해요? 안 사봐서.
 서원 자두 샀더니 서비스로 줬어요.
 정우 네? 자두를 샀더니 수박을 줘요?
 서원 (수박을 썰어 접시에 놓으며 통명스레) 저기 바구니에 비싼 망고랑 파인애플이 있는데...
 정우 (자두를 집어 먹으며) 이거면 됐어요. 이게 더 좋아요.
 서원 아니, 내가 먹고 싶어서.
 정우 (머쓱한) 아... (자두를 들어 건네며) 서원 씨도 먹어요.

서원 (자두를 쳐다보다 고개를 돌리며) 난 자두 안 좋아해요.
 정우 (어이없는) 여기서 서원 씨 자두 안 받아본 여자가 없었던데? 안 좋아하면서 왜 맨날 자두를 사 와요?
 서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좋아했거든요.
 정우 (살짝 빈정 상한) 여자? 뭐 또 동생 같은 여잔가?
 서원 (잠시 말이 없다가) 결혼해요?
 정우 (힐끔 서원을 쳐다보고) ...네.
 서원 왜요?
 정우 왜라뇨?
 서원 결혼까지 결심한 거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우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았어요. 아빠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 부족한 건 내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고.
 서원 과거형이네요?
 정우 이젠 채워줄 수 없잖아요. (나를 보라는 듯 팔을 벌리고) 내가 더 부족했었으니까. 근데 이런 나라도 결혼해준다니까. 뭐. 감사히 해야죠, 결혼.
 서원 그러지 마요.
 정우 뭘요?
 서원 포기하지 말라고요.
 정우 그니까 뭘요?
 서원 (흔들리는 눈으로 정우 보며) 사는 것도, 행복해지는 것도, 아무것도...
 정우 (흔들리는 눈으로 마주 보는)
 서원 (그러다 갑자기 밝은 어조로) 발레했었다면서요?
 정우 (깜짝 놀란) 그건 어디서 들었어요?
 서원 그냥 귀가 뚫려 있으니 어디서 들리더라고요.
 정우 (쓱쓸한) 다 옛날 얘기죠.
 서원 아니던데?

서원, 벌떡 일어나 침대 옆 탁자에 있는 스피커를 틀면 <백조의 호수> 음악이 들린다.

서원 이거, <백조의 호수> 음악 아니에요?
 정우 서원 씨가 그런 것도 알아요?
 서원 동생이 발레를 좋아해서.
 정우 (의심하는) 동생이 실존 인물은 맞아요? 뭐만 하면 동생이래.
 서원 크흠. 어쨌든 한번 보여줘요.
 정우 (피식 웃는) 이 몸으로 어떻게요.

서원, 갑자기 정우에게 뚝뚝 다가와 첫 만남 때처럼 정우를 안아 든다.
 가까워진 얼굴에 놀란 눈으로 서원을 바라보는 정우.
 서원, 아랑곳하지 않고 정우를 안은 채로 몸을 흔든다.

서원 이렇게 하면 되나?
 정우 (말을 더듬는) 내... 내려놔요.
 서원 (정우를 들고 음악에 맞춰 병실을 휘저으며) 그러지 말고 한번 보여줘요. 발레 공연은 비싸서 한 번도 못 봤는데. 공짜로 한번 봅시다.
 정우 (정색하는) 장난치지 마요.
 서원 (아랑곳하지 않고 형광등 스위치 쪽으로 향하며) 아, 공연장은 좀 어둡지 않나? 불 끌까요?
 하고 서원이 불을 끄자, 깜깜해지는 방 안, 큰 창문으로 달빛이 환하게 비친다.
 정우, 불이 꺼지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다.

#38. 회상. 정우의 집 안(낮)

정우의 집, 엄해 보이는 아버지 앞에 선 어린 정우.
 무서운 듯 땅을 보고 서 있다.

아버지 발레...? 그래, 여자애가 그런 거 하나 배워두면 나쁘지 않지.
 너무 열심히 하진 말거라.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는 정우.

#39. 회상. 정우의 발레 연습실(밤)

발레 연습실에서 토슈즈를 신고 다리를 찢고 있는 정우.
 그런 정우의 뒤에서 뒷말을 하는 동료1·2(여).

동료1 쟈 좋겠다. 백 든든해서. 이번에도 주인공 맡았다며?
 동료2 나도 저렇게 취미로 발레할 수 있음 좋겠다.

동료의 뒷담을 듣고서도 모른 척하는 정우.

CUT TO

늦은 밤에도 혼자서 연습장에 남아 연습을 계속하는 정우.

CUT TO

사고 후 휠체어에 앉아 발레 단장과 이야기 나누는 정우.

단장 소식은 들었다. 안타깝지만...

정우 (O.L.) 괜찮아요. 뭐, 어차피 취미로 하던 건데요.
 (하고는 휠체어 손잡이를 핏줄이 보이도록 꼭 잡는다)

#40. 회상. 연희병원/정우의 병실(낮)

정우의 병실에서 스피커로 음악을 트는 김 실장.

김 실장 (익숙한 클래식이 나오자) 아... 이 음악은...

정우 (다급히 스피커를 잡아 끄고는) 그, 그냥! 좋잖아요, 음악.

말을 얼버무리고 불안한 듯 꿈지락대는 정우의 손에서.

#41. 연희병원/정우의 병실(밤)

다시 현재.

달빛을 향해 뺨은 정우의 손으로.

뭔가 결심한 듯 단호해진 눈빛의 정우.

정우 턴!

서원 네?

정우 턴! 돌라구요!

서원 (얼떨결에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정우 틀렸어요! (팔을 위로 뺨어 원을 만들고는) 앙 드당!

서원 뭐라구요?

정우 잘못 돌았어요! 반대로 돌라구요! 앙 드당! (환하게 웃으며 서원을 보는) 반시계방향으로 돌라는 뜻이에요!

서원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그래요. 까짓거!

잘못 돌았으면 반대로 두 번 더 돌면 되죠!

점점 커지는 배경음악,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환하게 웃으며 춤을 추는 정우.

한참을 클래식 음악에 맞춰,

뛰고 돌고, 팔을 휘두르며 춤을 추는 정우와 서원.

그 모습을 달빛이 환하게 비춘다.

#42. 연희병원 외경(밤)

환한 달이 뜬 풍경.

#43. 연희병원/정우의 병실(밤)

달빛이 비치는 병실.

정우는 침대에, 서원은 침대 옆 바닥에 대자로 뺨어 있다.

창가에 보이는 달을 멍하니 바라보는 정우.

정우 달빛이 참 밝네요. 해가 저도, 달이 뜨니까... 밝네.

서원 (힘들어 헉헉대며) 안 한다더니...

정우 그러게요. 그렇다고 믿고 싶었나 봐요. (바닥의 서원 쪽으로 돌아누우며) 다들 부잣집 딸이 취미로 하나 보다 그래서,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고 발레 못 해도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서원 (정우 쪽으로 돌아누우면)

정우 나, 발레를 진짜 좋아했나 봐. 그걸 이렇게 되고 나서야 알았나 봐요. (하는데 한줄기 눈물이 흐르면) 왜 이렇게 항상 늦는 걸까요 나는? 바보 같아.

서원 이제 안 늦으면 되죠. (앉은 자세로 바뀌 정우의 침대에 턱을 대고 정우의 눈물을 닦아준다) 아, 보니까 휠체어 발레 같은 것도 있던데.

정우 (당황해 고개를 정면으로 돌리고 자신의 손으로 눈물을 닦는데) 아... 아... 그래요? (서원의 시선을 피해 로봇처럼 어색하게 중얼거리는) 아. 하. 하. 휠. 체. 어. 발. 레. 라... 정. 말. 흥. 미. 룩. 네. 요.

서원 (그런 정우를 복잡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44. 서원의 고시원/방 안(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은 서원.

한참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동생이 입원한 병원에 전화를 건다.

간호사(F) 하~암. 네 보람병원입니다.

서원 저 서희 오빠데요.

간호사(F) 아...! 네. 서원 씨. 병원비는 입금됐던데 무슨 일로?
 서원 서희 잘 있죠?
 간호사(F) ...
 서원 무슨 일 있나요?
 간호사(F) 아, 아뇨. 잘 있습니다. 그런 건 처음 물으시는 것 같아서...
 서원 ...
 간호사(F) 한번 보러 오시죠.
 서원 너무... 너무 늦진 않았을까요?
 간호사(F) 그런...
 서원 (O.L.)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황급히 전화를 끊는 서원.
 좁은 고시원에 앉아 연거푸 마른세수를 한다.

#45. 연희병원/정우의 병실(낮)

이전과 달리 생글생글 웃고 있는 정우.
 서원, 당황한 표정으로 정우를 본다.

서원 왜... 왜 그렇게 쳐다봐요?
 정우 (침대 옆 서랍에서 티켓 두 장을 꺼낸다) 우리 이거 보러 가요!
 서원 그게 뭔데요?
 정우 상트페테르부르크 <백조의 호수> 내한공연!
 서원 (내키지 않는) 오늘 엄청 덥던데, 그냥 여기 있는 게...
 정우 (갑자기 풀이 죽은 모습으로) 처음... 이예요. 사고 난 후로 처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졌는데... (슬픈 눈으로)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서원 (깜짝 놀라며) 가요, 가!
 정우 (다시 환하게 웃는) 오케이!
 서원 (그런 정우를 질렸다는 듯 쳐다보다 이내 씨익 웃는다)

#46. 몽타주. 정우와 서원의 즐거운 나날

— 발레 공연장(낮)
 공연장에서 발레를 함께 보는 정우와 서원.
 반짝이는 눈으로 공연을 보는 정우.
 그리고 그런 정우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서원.
 정우가 유난히 예쁘다.

— 병실 안(밤)
 휠체어에 앉아 발레 손동작을 취해보는 정우.
 병실 문을 열고 서원이 들어오자, 갑자기 책 들고 읽는 척을 한다.
 그 모습을 보고 웃는 서원.

— 공원(낮)
 공원에서 산책하는 정우와 서원.
 이전에 같이 피구를 했던 아이들을 만나는데. 남자아이2와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더니 곧 서로를 마주 보고 웃는 정우와 서원.

— 병실(밤)
 정우와 함께 병실에 있다 자신에게 걸려온 민현의 전화를 보고 잠시 굳은 표정을 짓다가 정우의 모습을 보고 일부러 받지 않는 서원.

#47. 연희병원/정우의 병실(밤)

달빛이 비치는 침대에 앉아 “피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를 조용히 읊조리다가 민현에게 전화를 하는 정우.

정우 오빠,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잠시) 아니, 그냥... 그냥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48. 민현의 집(밤)

정우와 통화를 한 민현, 달빛 한 점 안 드는 깜깜한 방에 스탠드 옆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쉰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민현,
결심한 듯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49. 서원의 고시원 근처 골목길(낮)

병실로 출근하는 서원, 콧노래를 부르며 가다가
#2에서 만났던 철남과 조폭1·2, 그리고 그들의 큰형님을 마주친다.
무서운 표정의 조폭들, 그러나 철남은 웬일인지 꺼림칙한 표정이다.

서원 어?
조폭1 저 자식입니다. 형님.
큰형님 아, 네가 이서원 씨십니까?
서원 (눈치를 보며 뒤로 슬금슬금 가려는데)
조폭2 (뒤를 가로막으며) 어허.

#50. 연희병원/정우의 병실(낮)

정우, 들리는 인기척에 서원인 줄 알고 반갑게 맞이하는데.
병실 문 쪽을 보니 민현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다.
정우 또한 덩달아 표정이 굳는데.

#51. 서원의 고시원 근처 골목길(낮)

조폭1·2가 서원의 양팔을 붙잡고 서 있다. 여기저기 얼어맞아 부은 서원의
얼굴. 큰형님이 그런 서원의 얼굴을 툭툭 치며 말한다.

큰형님 이서원? 니가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서원 (피가 섞인 침을 뱉, 뺏고는) 혜수 누님한테 받은 돈,
그거 다 돌려주면 되잖아!
큰형님 (고개를 저으며 안타깝다는 듯) 으으음~ 아니지. 그거 말고도 있잖아.
분수에 넘치는 욕심 부리면 위험하다고 말했다는데?

FLASH CUT #36 연희병원/외곽
민현이 서원에게 욕심부리지 말라고 충고하는 장면

서원 (! 민현의 사주임을 깨닫는) 최민현... 이 개새끼!
큰형님 오늘부터 출근할 필요 없다. 고객님이 당사자한테는 잘
말해놓는다니까.

하고는 조폭1·2와 함께 떠나는 큰형님. 그러나 철남은 떠나지 않고 남아 있다.

큰형님 철남이는 할 말 남았지? 하고 와라, 너무 길게는 하지 말고
서원 (일어나려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정우 씨한테 가야 되는데...
철남 (복잡한 눈빛으로 서원을 부축하는) 가자.
서원 (철남에게 애원하는) 나중에, 조금만 나중에 맞으면 안 될까요? 분
풀리실 때까지 맞을게요. 받은 돈 다 돌려드릴게요. 지금 빨리 가야...
철남 (O.L.) (서원을 부축해 걸으며) 거기 가자고, 태워다 줄게.
서원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52. 철남의 차 안(낮)

조수석에 앉은 서원, 운전석에 앉은 철남을 의문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본다.

철남 (그런 서원을 잠깐 쳐다보고는) 난 한 대도 안 때렸다.
서원 ...왜 도와주는 거예요?
철남 혜수, 암이라며. (핸들을 짹 쥐며) 너도 아는 걸 나만 몰랐다.

서원 결국 만났어요?
 철남 그래 새끼야! 니가 말 안 해줘서 그냥 바람나서 도망친 줄 알았잖아!
 서원 누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철남 알아, 그래서 혜수가 고맙다더라.
 서원 (착잡한 표정) 순수한 호의는 아니었어요. 돈 받으려고...
 철남 (O.L.) 그것도 알아. 그래도 고맙다더라.
 서원 (잠깐 놀라더니 착잡한 표정)

#53. 연희병원 앞(낮)

철남의 차에서 내린 서원, 빨리 병원으로 들어가려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온다.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
 이어서 정우의 문자가 도착한다. ‘넉넉히 보냈어요. 의도가 어쨌든 즐거웠어요.
 하지만, 다시는 보지 말아요.’ 문자를 보고 주저앉는 서원.

#54. 연희병원/정우의 병실(낮)

떨리는 손으로 서원에게 문자를 보내고 한숨을 쉬는 정우.
 그런 정우를 보며 계획이 성공해 기분 좋은 듯 말하는 민현.

민현 (피식 웃는)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쳐서 돈이나 뜯는 양아치 새끼...
 정우 (O.L.) (차가운 말투) 오빠.
 민현 (신나서) 술집에서 일한다든가, 피해자가 많더라? 너도 큰일 날 뻔...
 정우 (O.L.) (서늘한 눈빛으로) 우리 이제 그만하자.
 민현 (!) 뭐?
 정우 이렇게 되고 나서, 다 끝난 줄 알았어. 가진 것들을 다 잃고 나니까,
 더는 뭔가를 잃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오빠를 놓지 못했어.
 민현 그게 무슨 소리야?
 정우 (울먹이는) 근데, 이젠 놓을래. 그동안 나 너무 불행했어. 내가 이렇게

됐다고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민현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고!
 정우 (O.L.) (차갑게) 미영 씨. 오빠 전 여자친구. 계속 만나고 있었잖아.
 민현 (당황하는) 어떻게! 저... 정우야.
 정우 (O.L.) 나는! 여전히 나야! 이렇게 됐어도, 나는 나야. 이렇게 됐어도!
 오빠가 날 기만할 수는 없어. (눈물 맺힌 눈으로 노려보는)
 민현 (당황해 황설수설하듯) 이서원... 그 새끼가 말한 거지? 그거 거짓말이야!
 정우 (깜짝) 서원 씨가... 알아? (소리치는) 진짜야? 서원 씨가 아냐고?!
 민현 아니야?
 정우 (충격에 고개를 젓는) 다 알아서, 그래서. 불쌍해서 나한테 그런 거였어? 그냥 동정심에? (입술을 깨무는)
 민현 그 새끼한테 들은 거 아니었어?
 정우 오빠 휴대폰 잃어버린 날, 그러면 안 되지만 오빠 휴대폰을 봤어.
 저장도 안 한 번호랑 거의 매일 통화했더라? 보니까 그게 미영 씨 번호여서. 그래서 알았어.
 민현 (당황) 아...! 정우야, 그... 실수야! 미영이는 잘 정리했어. 그러니까...
 정우 (차갑고 단호하게) 민현 오빠. 이미 늦었어. 그만 나가줘.
 민현 (고개를 떨구고 잠시 침묵) 그 눈빛, 회장님이랑 똑같다. 돌아왔네,
 한정우. 그 눈빛을 꼭 이겨보고 싶었는데... (돌아서 나가며) 미안했다.
 정우 (민현이 나가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입술을 깨물며) 나쁜 놈.

#55. 보람병원/서희의 병실(밤)

병실에 각종 연명장치를 단 채로 누워 있는 서희, 식물인간 상태이다.
 침대 옆 책상 위에는 서원이 사 온 자두가 놓여 있다.
 그런 서희의 옆에 엉망이 된 얼굴로 앉아 서희의 얼굴을 바라보는 서원.
 그 뒤에는 서원과 통화를 했던 간호사가 안타까운 얼굴로 서 있다.

간호사 병원 옮기고 처음이시네요.

서원 (서희를 바라보며) 차마 올 엄치가 없었어요. 교통사고로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서희까지 하반신 마비가 왔을 때. 내가 대출금에, 서희 병원비에... 돈 번답시고 엄청 힘든 척했거든요.

(잠시 후 더듬거리며) 서희는 괜찮아 보여서, 괜찮다고 늘 말해서...

간호사 서원 씨...

서원 동생이 휠체어를 끌고, 옥상으로 올라갈 때까지도... 난 그냥 나 힘들다고... (왈칵 눈물이 흐르는)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제야 겁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서희밖에 없는데 서희마저 없으면 어쩌나... 저 한심하죠?

간호사 (따라 울컥하는) 한심하긴요, 벌써 몇 년째 그 큰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는데...

INSERT

과거 회상. 서원의 방 안.

어지럽게 어질러진 서원의 책상, 그 위에 자퇴서가 놓여 있다.

휠체어를 끌고 자퇴서를 지켜보던 서희.

‘오빠 미안해’라고 적힌 포스트잇을 자퇴서 위에 붙이고.

휠체어를 끌고 화면에서 사라진다.

잠시 카메라가 책상의 서원과 서희의 가족사진을 비추고 돌아오면.

열린 유리창에 달린 커튼이 바람에 세게 휘날리고.

빈 휠체어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서원(E) (서희의 손을 잡으며) 서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오빠 미안해였어요... 얼마나 눈치를 봤으면... 얼마나 미안했으면... (잠시) 그래서 못 왔어요. 너무 늦게 알아서... 볼 엄치가 없어서, 미안해서...

다시 현재, 무너지듯 울고 있는 서원.

간호사 와보니까 어때요?

서원 (잡은 손을 보며) 좋네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일찍 와볼걸...

간호사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요. 그 어떤 병보다 더 무서운 게

그거더라고요. 포기하는 거. 포기하면 회복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서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서원 씨도 그거 하나만 명심해요. 그게 뭐든지, 아직 아무것도 안 끝났다는 거.

서원 ...정말 그럴까요? (잠시 생각하더니 뭔가 결심한 듯 벌떡 일어나며) 저, 가볼게요.

간호사 이 시간에요?

서원 (홀린 듯 중얼거리며) 더 늦기 전에 가봐야 할 곳이 있어요! (하고는 뛰쳐나간다)

#56. 연희병원/정우의 병실 복도(밤)

정우의 병실 앞에서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서원.

그때, 병실 안에서 들리는 정우의 비명에 깜짝 놀란 서원이 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간다.

#57. 연희병원/정우의 병실(밤)

문을 열고 들어간 서원, “정우 씨!” 외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침대는 어질러져 있고, 빈 휠체어가 열린 유리창 앞에 놓여 있다.

바람은 세차게 불어 커튼이 휘날리고,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정우.

서원, 정우가 혹시 동생처럼 뛰어내린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소리친다.

서원 (패닉 상태) 아... 안 돼. 여... 여기요! 여기! 정우 씨가! 사람이 뛰어내렸...!

정우(E) (O.L.) (화면에선 보이지 않지만 어디선가 들리는 정우의 목소리) 쫓!

서원 (갑자기 들리는 소리에 놀라 바보처럼) ...에?

정우(E) 쪽팔리니까 조용히 하고 여기로 좀 와요!

정우,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보면, 정우가 침대와 유리창 사이의 바닥에

넘어져 있다. 병실 문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서원 (얼빠진) 거기서 뭐 합니까?
 정우 (얼굴이 빨개져서) 답답해서 창문을 열다가 넘어져서... 보고만 있지 말고 일으켜줘요!
 서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는다) 하!
 정우 일으켜달라니까 왜 앉아요!

#58. 연희병원 외경(밤)

늦은 밤, 달이 환하게 떠 있다.

#59. 연희병원/정우의 병실(밤)

달빛이 비치는 창가 앞, 정우는 휠체어에, 서원은 의자에 앉아 있다.

정우 ...왜 왔어요?
 서원 (달을 바라보며) 할 말이 있어서요.
 정우 뭐데요.
 서원 ...결혼하지 마요. 그 민현이라는 남자랑.
 정우 ...왜요?
 서원 정우 씨가 그렇게 됐다고 그만 놔서랑 결혼할 필요 없어요. 정우 씨는 그냥 그대로도... (고개 돌려 정우를 쳐다보며) 충분히 좋은 사람이예요.
 정우 또요.
 서원 또...? 아, 그리고 (말할까 말까 머리를 세게 긁적이며 이내 다짐한 듯) 충격받지 말고 들어요. 그 새끼한테 애인이...
 정우 (O.L.) (지그시 서원을 바라보며) 미영이라는 애인이 있는 거 말고, 또.
 서원 (놀라는) 에? 알고 있었어요?

정우 (차분히) 그건 됐고, 또요.
 서원 또라뇨! 바람을 피웠으면 당연히 헤어져야지!
 정우 내가 헤어져야 할 이유 말고, 서원 씨가 나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이렇게 화내는 이유. (서원의 눈을 응시하며) 없어요?
 서원 (잠깐 고개를 숙이고 망설이더니 웅얼대는) ...해서요.
 정우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
 서원 (볼이 빨개져서 소리치는) 내가 정우 씨를 좋아해서요!
 정우 (뻘뻘 서원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쳐다보는) 그걸 믿으라고요?
 서원 (얼빠진 얼굴) 에?
 정우 나한테 돈 때문에 접근한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는데 그걸 믿으라고?
 서원 (당황하는) 아, 물론 믿기 힘들겠지만, 진심... 이에요. (이내 풀이 죽은) 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죠?
 정우 진심이라고요?
 서원 ...네.
 정우 뭐, 그럼 믿어야지.
 서원 (멍청하게) ...에?
 정우 (서원에게 얼굴 들이대며) 그렇게 안 봤는데 좀 귀여운 면이 있네요?
 서원 뭘 믿고...?
 정우 서원 씨 말 믿는 거 아니예요. 나를 믿는 거지.
 서원 그게 무슨...?
 정우 이제 남의 말에 휘둘리는 거 지긋지긋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더 늦기 전에...! (하고는)

서원에게 입맞춤하는 정우.
 짧은 입맞춤 후에 다시 서로를 바라보는 서원과 정우.

정우 (씨익 웃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아웃이었어요!
 앞으로 조심... (하는데)

갑자기 달려들어 입 맞추는 서원. 그리고 놀란 듯 동그래지는 정우의 눈.
 이내 번지는 웃음으로 눈이 반달처럼 휘고, 손을 들어 서원의 얼굴을

쓰다듬는다. 그런 그들을 비추는 달빛.

#60. 연희병원/주차장(낮)

몇 주의 시간이 흐르고.

검은 세단의 운전석에 탄 서원. 그리고 조수석에 탄 정우.

서원 (안절부절못하는) 진짜 서희 보러 가는 거야? 그건 좀 나중에...

정우 어허!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토 달지 말랬지!

서원 (깨갱) 응...

정우 (차 안을 둘러보며) 근데, 이 차 김 실장님 차 아니야?

서원 (환하게 웃는) 아! 형님한테 빌렸지! (그때, 김 실장에게 오는 전화)

정우 아까부터 김 실장님한테 계속 전화 오는데?

서원 (급하게 전화를 거부하며) 신경 쓰지 마~

정우 (계속 울리는 벨소리에) 거봐! 계속 오잖아! (하는데 보니 자신의 휴대폰이다. 아버지라고 뜨는 발신인, 굳은 표정으로 전화를 받는데) 네. 아버지.

정우 부(F) 그놈이랑 같이 있나.

정우 ...네.

정우 부(F) (깊은 한숨을 쉬고) ...그놈한테 전해라.

정우 (O.L.) 아빠, 이번엔 아빠가 반대해도 나 절대 안 헤어져요.

서원 (굳은 얼굴로) 회장님이세요?

정우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인다) 아빠. 이번엔 달라. 생각해보겠다, 시간을 달라, 그런 양보도 못 해. 양보가 안 되는 사람이야. 나한테

서원 (끼어들며) 아버지이~ 정우가 또 맘에도 없는 미운 말 한다. 그죠?

정우 (황당한 얼굴로) 무... 무슨!

정우 부(F) (반색하는 목소리로) 아들? (다시 정신을 차리고) 크흠, 옆에 서원이 좀 바뀌봐라.

정우 (어이없는) 아들? 아~드을? 언제 그렇게 친해진 거야?

서원 (웃으며) 저번에 한번 만났어.

정우 부(F) 그리고 정우야,

정우 네?

정우 부(F) 네가 민현이 만났을 때도 그렇게 확고한 마음이었다면 난 반대 안 했다.

정우 (살짝 감동한) 아버지...

정우 부(F) 그러니까 아들, 아니 서원이 좀 바뀌봐라.

정우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서원 뭐야, 왜 끊어?

정우 자~ 출발하자!

서원 왜 끊냐구!

#61. 연희병원 외경(낮)

연희병원을 빠져나가는 검은 세단 위로
정우와 서원의 투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정우(E) 아 그냥 좀 가!

서원(E) 지금 아버지랑 내 사이 질투하는 거야?

정우(E) (살짝 화가 난 억양) 그냥 가자고 했다

서원(E) (살짝 쫂) 넵!

검은 세단, 환하게 비치는 햇빛을 받으며 거리를 가로지른다.

끝.

작가 후기

힘이 되는 드라마를 쓰고 싶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보고 웃을 수 있는,
 그렇게 웃다 보면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드라마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까짓거! 잘못 돌았으면 반대로 두 번 더 돌면 되죠!”
 극 중 주인공의 입을 빌려 말했지만,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는 그 말이,
 어쩌면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대본이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아주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힘써주신 김지일 센터장님, 임고은 과장님, 오픈 관계자님들
 그리고 늘 큰 가르침 주시는 이향희 작가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모든 분께 꼭 좋은 드라마로 보답하겠습니다.

기획의도

지금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벌레들의 시대.
까짓것 웃어넘기지 않고 진지하면 진지충, 여기에 설명까지 보태면 설명충.
학교 다니면 급식충, 아이를 키우면 맘충, 나이 들면 노인충.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비난하다가도,
내 이익과 관련된 일 앞에선 망설임 없이 혐오를 떠올리고 말 때가 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버러지 같은 건 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다.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 성급한 판단을 해버리진 않았는지,
그러면서도 내 판단엔 다 사정이 있다고 편리한 생각을 한 적은 없는지,
그 생각에 기대 실은 뗏뗏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고 있던 않은지 고민하면서
〈아파트는 아름다워〉를 썼다.

등장인물

서희재(30대 후반, 여) 미술 작가, 메종 더 프리미어 203동 701호

20대엔 미술상을 휩쓸었다. 예술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은 시기였다. 30대엔 미대 출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를 휩쓸고 있다. 예술은 이 짓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로구나 알게 된 시기다. 미술 하던 친구들 모두 강의 남쪽에, 미술계에, 고급식당에 있는데 나는 그 건너에, 들쭉날쭉한 일을 하며, 최저가 마트에 있다. 가끔 나 서희재의 인생이 이렇게 저물고 마는 것인지 불이 치솟을 때도 있지만 포 내지 않고, 지금에 충분히 만족한다는 듯 가장하는 것이 마지막 자존심이다. 그런데 억지로 뽀뽀 뽀뽀 마음을 자꾸 풀어헤치는 상대를 만난다. 나의 다정한 이웃, 문세연.

문세연(30대 후반, 여) 사회학 교수, 메종 더 프리미어 203동 902호

교수 반, 방송 반인 연반인. 방송에서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것이란 말로 히트를 쳤다. 삼십여 년 인생에서 무주택자였던

적이 절반 정도인 세연이야 집 장만 고민을 딱히 할 필요가 없어 한 말이란 걸 사람들은 모르니까. 수업에선 투자와 투기, 과시와 차별의 주거문화를 비판하지만, 현실에선 이 모든 걸 행한다. 왜 '노오력'을 안 해서 가난하게 사는 걸까 궁금할 따름. 본인을 돌아보진 않고 가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연구대상이다. 절레절레.

최은주(30대 후반, 여) N잡러, 메종 더 프리미어 101동 505호

「나는 주식투자로 남편에게 G클래스를 선물했다」의 저자이자, 한때 초등생 공부방 운영자였고, 지금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초보 부동산 유투버다. 수완이 좋아 끊임없이 일을 벌이고, 몇 번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통장에게 구멍 낼 일만 찾아서 만드나 싶은 남편, 길고 짧은 빨대를 꽂은 일가친척 뒤치다꺼리를 하고 나면 살림살이는 언제나 그 자리다. 그럼에도 무너져내리는 법 없이 씩씩하던 은주지만 이 아파트 생활은 쉽지 않다.

강영석(30대 초반, 남) 기자

희재의 남편. 웬만한 사람은 잘 모르는 대학교를 다녔고, 능력만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증명하겠다고 사법고시 막차에 타보고자 7년을 공부했지만 결국 그 증명을 해내진 못했다. 부조리한 세상을 까발리겠다고 도전한 끝에 신생 매체 기자가 됐다. 본인이 꿈 찾아 도전만 하느라 자기 꿈은 셔터를 내려버린 아내에게 늘 미안하다.

강하영(8세, 여) 초등학생

희재의 딸. 아직도 산타를 믿어 눈물을 흘릴 때마다 12월 25일을 걱정하는 아이. 희재가 교통카드 잔고가 떨어진 때도 딸에게는 내색 안 하며 동화 속 아이처럼 키운 덕분이다. 엄마가 돈 벌러 나간 사이 고시 공부 몇 년, 기자 준비 몇 년을 한 아빠 옆에서 놀며 자란 덕에 어려운 단어로 말하기를 즐기는 별난 똑순이.

김아정(8세, 여) 초등학생

세연의 딸. 세연처럼 많은 걸 쥐고 태어났고, 세연처럼 똑똑하며, 말투도 세연과 흡사하다. 아직 엄마처럼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스킬은 장착하지 못했다.

그 외

박준희(은주의 아들), 은정현(희재의 동창인 큐레이터), 모델 여자, 골프 남녀, 교장, 교사, 메종 더 프리미어 주민들, 기자 등

줄거리

축 당선, 아니 당첨! 메종 더 프리미어!

희재는 강남의 재건축아파트인 메종 더 프리미어의 임대 거주자로 당첨된다. 희재는 딸 하영이 혹 상처받는 일을 겪을까 걱정하지만, 남편은 요즘은 임대 가구와 분양 가구가 섞여 있기에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없다며 희재를 안심시킨다. 며칠 후, 희재는 근처의 초등학교에 방과후 미술교사로 면접을 보러 갔다가 딸 문제로 학교를 찾은 세연과 마주친다. 둘은 아파트에서 다시 만나 같은 대학교 출신인 것을 계기로 가까워진다.

다정한(줄로만 알았던) 이웃을 만나다.

희재는 차마, 그리고 굳이 자신이 임대 거주자라는 것을 세연에게 밝히지 못했으나 함께 간 아파트 수영장 입장을 거부당하면서 그 사실이 탄로 난다. 희재의 예상과 달리 세연은 희재를 더 따뜻하게 대하고, 희재의 오랜 염원인 갤러리 전시까지 도움을 준다. 희재는 고마운 마음에 세연이 쓰고 있는 임대 아파트 관련 논문의 인터뷰를 돕고 둘은 더 친밀해진다. 그러던 중 메종 더 프리미어의 임대 거주자 차별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세연이 희재와 희재의 남편을 제보자로 의심하면서 둘 사이는 멀어진다. 아파트 주민들마저 희재의 가족을 매섭게 대한다.

딸아, 이건 게임이야. 사람들 눈을 피해서 게임을 이기면 수영장은 우리 차지야!

설상가상으로 딸 하영마저 세연의 딸 아정에게 임대충이라는 놀림을 받게 되자 희재는 분노해 세연의 집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소동을 일으켰다간 자신도 하영도 더 노골적인 괴롭힘을 당할까, 그리고 메종 더 프리미어라는 빛나는 자랑거리를 잃을까 두려워 벨을 누르지 못한다. 고민 끝에 희재는 하영에게 슬픈 놀이를 제안하는데...

#1. 메종 더 프리미어/산책로(아침)

지저귀는 새소리, 조르르 냇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잘 가꾸어진 산책로 사이를 가볍게 조깅하는 여자의 뒷모습.
뒷모습을 계속 따라가면 한 세련된 건물의 초입에 다다른 여자.
남녀 한 쌍이 건물에서 나오다 여자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 흔든다.
둘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프웨어를 갖추고 골프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다.

골프 녀 (경쾌하게) 좋은 아침!

화답하며 손 인사하는 여자의 뒷모습.

#2. 메종 더 프리미어/실내 수영장(아침)

선베드 옆 테이블 위에 마시던 음료잔을 내려놓는 여자의 손이 보인다.
테이블 앞으로 걸어 나가는 원피스 수영복 차림을 한 여자의 뒷모습.
여자는 주저함 없이 물속으로 다이빙해 능숙하게 수영을 한다.
물살을 가르고 레인 끝에 도착한 여자가 수영장 가장자리에 두 팔 걸친다.

여자 (활력 있는 미소와 우아한 말투) 여행 중이냐고요? 일상이예요.

여자가 다시 반대편으로 수영해가는 모습 멀어지면
자막 — ‘선택받은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일상, 메종 더 프리미어’

자막 화면 위로 검지 하나가 나타나더니 영상이 일시정지 된다.

희재(E) (얼떨떨해 말 더듬으며) 당, 당선, 아니 당첨이 됐다고?

#3. 희재 빌라의 거실 겸 주방(밤)

20평대 방 두 개짜리 빌라. 벽도 바닥도 무언가로 딱딱 들어차 있다.
희재와 하영이 그린 그림, 노끈으로 묶인 영석의 고시 서적들.
주방 불만 켜 채로 희재와 영석이 식탁에 마주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다.
하영도 한쪽 자리 차지하고 앉아 색칠놀이를 하고 있다.

영석 (뽀내듯이) 당선이 맞을지도 몰라. 당첨은 잠수부터 타야 하는 건데, 당선은 자랑해야 하는 거잖아.

희재 (황당) 자랑을 해? (하영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임대 아파트 들어가게 됐다고 자랑을 해?

영석 (하나하나 강조하며) 서울, 강남, 메종 더 프리미어에 들어가는 거야.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희재 뉴스도 못 봤어? 임대 아파트 애들하곤 놀지 말라고 담쌓아 올리는 게 이 나라 사람들이야. 애 생각은 안 해?

영석 (답답해서) 요즘 어떤 아파트가 임대라고 사는 데를 분리해. 아무도 모르게 다 섞는다고. 소셜믹스 모르세요?

희재 뱀새 가랑이 찢어가면서 꼭 믹스가 되고 싶으세요?

영석 (차분해서) 뱀새가 황새 못 따라가는 게 가랑이 때문이 아니더라.

희재 뜬금없이 웬 새타령이야.

영석 (비장해져) 뱀새는 덩불에, 황새는 호수에 살아. 뱀새는 사실 황새 보지도 못한다고. 하영이는 구경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지.

희재 (착잡해서) 우리 나이 사십 줄에 황새는 못 되더라도 호수 구경은 한번 해보자... 그런 거야?

영석 (고개를 떨구는데) ...

희재 (놀라서 영석의 고개를 들어보려 애쓰며) 울어?

영석 (고개를 들면 웃음 터져서) 난 사십 줄 되려면 아직 8년이나 남았어. 자기만 끝이지!

희재 (기막혀하다 자기도 웃음을 못 참고 영석의 등짝을 짹 때리면서) 야!

영석이 아파죽겠다든 시늉을 하고, 희재와 깔깔깔 웃는다.

다시 같이 부부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하영이 같이 보겠다고 파고든다.

신난 가족 모습 너머 식탁 위에 놓인 희재가 그린 작품 보인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한 장면.

귀도가 죽음을 맞기 전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익살맞게 걷는 모습.

타이틀. <아파트는 아름다워>

#4. ○○초등학교/운동장(낮)

교실 앞쪽 교사 책상에 교사와 희재가 마주 보고 앉아 있다.

교사가 영화 명장면을 테마로 한 희재의 포트폴리오와 이력서 넘겨본다.

교사 (이력서 넘기며) 세상에나 공인대 미대 출신에 웬만한 깔러리
개인전은 다 하셨네요. 저희가 방과후 교사로 모시기엔 과분한데요?

희재 (쑥스러워) 과분하기는요.

교사 하긴 그동안 방과후 선생님들 대부분 유학까지 한 분이기는 했어요.

희재 (무안해서) 네...

교사 (이력서에만 눈을 두고) 대학교 졸업 이후에 따로 작업 경력이 있거나
티칭 자격증은 없네요. 맞죠?

희재 방과후 수업이나 미술학원 강사 경력이 꽤 됩니다.

교사 학부모님들은 더 높은 수준을 원하시는 편이라.

희재 학교나 학부모님 원하시는 수준이야 충분히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교사 (듣는 둥 마는 둥) 지난 학기는 성장초등학교에서 일하셨던데 왜
옮기시는... (이력서 넘기다 화색이 되는) 어머니 메종 사시는구나?

희재 (쓸쓸한) 하하, 네.

그때! 잔뜩 흥분한 은주가 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들 그림 노려보듯 본다.

그림판에서 그림 하나를 찢듯이 떼어 복도로 다시 나간다.

희재는 교실에서 얼음처럼 굳은 채로 복도만 바라보고 있다.

#5. ○○초등학교/미술실 복도창 풍경(낮)

복도 쪽 교실 창문으로 교장과 은주의 모습이 보인다.

은주 (분노) 이따 그림을 미술실에 걸어두는 게 정상입니까?

교장 (사정하듯) 어머니, 진정하십시오. 그림 그린 아이의 표현의 자유도...

은주 (더 악을 쓰며) 자유요? 제가 지금 자유롭게 원 없이 표현 한번
해볼까요?

교장 내일 새로 그림을 그리면 바로 교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은주 그깟 하루는 참아라?

교장 그쪽 어머님도 도착하셨답니다. 진정하시고 저랑 같이 내려가시죠.

은주 제가 지금 애 엄마 만나자고 했어요? 그 엄마가 오면 해결돼요?

교장 (찢찢) 그러지 마시고요, 어머니.

복도 창에서 둘의 모습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더니 이내 사라진다.

#6. ○○초등학교/미술실(낮)

교사 (한숨) 저렇게 감싸고만 도는 게 자식 위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희재, 영문을 모르겠지만 대중 고덕여준다.

#7. ○○초등학교/운동장(낮)

희재, 면접을 마치고 학교 건물에서 나오는 길인데 어딘지 쓸쓸한 표정.

교사(E) 메종 사시면 여기 학부모님들 수준이나 취향 딱 아시겠네요.
교장 선생님과 말씀 나누고 연락드릴게요. 잘될 거예요.

희재 앞에서 세연과 아정이 걸어가고 있다.

세연 (나긋나긋) 엄마 다시 학교에 가야 해요. 빨리 건지고 말했죠?
아정 (짜증스러워) 또 왜 가? 화요일은 일찍 끝나고 나랑 노는 날이잖아!
세연 언니 오빠들이 엄마랑 또 공부하고 싶다고 한 특별한 날이라고
설명해줬죠? 벌써 여러 번.
아정 나도 엄마가 또 나가는 거 싫다고 설명했지! 벌써 여러 번!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내던지는데)

종이가 작은 바람을 타고 희재 앞에 떨어진다.
희재, 종이 주우면서 보면 아파트 숲에 벌레 더듬이를 한 사람 그려져 있고
'임대총 박준희'라고 쓰여 있는 그림이다.
희재가 내려다보던 그림에 그림자가 생겨 올려다보니 세연 얼굴이 보인다.

세연 (환한 웃음) 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8. 공인대학교/대강의실 앞 복도(낮)

강의실 앞이 학생들로 북적인다. 강의실 앞 배너 세워져 있다.
'학생들이 선정한 올해의 강의! 문세연 교수의 <도시사회학> 특강'

#9. 공인대학교/대강의실(낮)

계단식 대형 강의실을 꽉 채워 앉은 학생들이 세연의 강의를 듣고 있다.
세연, 프레젠테이션이 투사된 대형 슬라이드 앞에서 강의하고 있다.

세연 (학생 하나를 가리키며) 월급이 뺏히는데 명품가방이나 시계, 수입차를
덜컥 사는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학생 (망설이다) 허세 켜다? (학생들 일동 웃음)
세연 (웃으며) 그럼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보면요?
학생 (또 망설이다) 나도 빨리 시작해야겠다!
세연 우리 월급만큼의 가방은 허영이라고 하면서, 평생 연봉으로도 못 사는
아파트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한국 국민의 절반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70퍼센트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합니다. 아파트는 중산층은
된다는 신분증이고, 학군이나 한강뷰는 조금 더 다르단 표식이죠.

세연이 프레젠테이션 넘기면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진들.
'임대니 감안해라? 위치도 외관도 차별받는 임대 거주자들'
'함께 살자더니... 같은 건물에서도 엘리베이터 따로 쓰라니'
'저층 임대-고층 분양 계단 분리, 임대 거주자는 옥상 대피도 불가능해'

세연 모두 천신만고 끝에 얻은 상징이니 아파트는 사회병리의 축소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 발표한 논문을 소개할까 합니다. 한
아파트에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을 함께 조성해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게끔 하는 소셜믹스 정책에 대한 것이죠.

#10. 공인대학교/대강의실 앞 복도(밤)

강의를 마친 세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강의실을 빠져나온다.
학과장이 강의실에서 뒤따라 나오며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건다.

학과장 올해의 강의를 3년 연속으로 가져가면 어떡하나.
세연 (학과장의 너스레에 익숙한 듯) 운이 좋았습니다.
학과장 (약 올리듯) 운이 고루 좋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세연 무슨 말씀이신지.
학과장 사회학회 말이예요, 문 교수. 논문이 훌륭하던데 정작 우수논문상은

최 교수가 받을 거라네요.

세연 (학과장이 눈치 못 챌 정도로만 빠직) 우리 과 경사네요.

학과장 석박사생들에 학부생들까지 다 동원해서 아파트 한 동 사람들을 다 인터뷰했다. 사회학 논문이 사람들 후벼파야 하는 게 있잖아. (세연 눈치 보며) 아무리 책상머리에서 이론 가져오고 통계 돌려봐야 케이스가 부족하면...

세연 (한술 더) 맞아요. 최 교수님 연구엔 항상 감동이 있어요. 그렇죠?

세연의 선하고 환한 웃는 얼굴.

#11. 메종 더 프리미어/공동현관 엘리베이터 앞(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공동현관이 열리면 잔뜩 약 오른 세연 얼굴.

세연이 우편함으로 걸어가 자기 집 우편물을 꺼낸다.

우편함 몇 집 걸러 하나씩은 똑같은 초록색 대봉투가 꽂혀 있다.

집마다 꽂혀 있던 초록색 대봉투의 발신처는 '공인대학교 총동문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에 타는 세연의 뒷모습.

희재(E) (다급한 목소리) 잠시만요!

#12. 메종 더 프리미어/엘리베이터 안(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면 헐레벌떡 숨이 턱 끝까지 찬 희재가 보인다.

세연이 금세 희재를 알아보고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아래로 내리면,

희재의 손에도 자신의 것과 같은 봉투가 들려 있는 것이 보인다.

'보낸 사람 공인대학교 총동문화', '받는 사람 701호'

희재도 세연 알아보지만 인사를 하기도 애매해 눈 피한다.

세연이 15층 눌러줬고, 희재는 7층 버튼 누른다.

세연 (엘리베이터 문을 보며 뜬눈 졸음이다) ...몇 학번이세요?

희재 (영문을 몰라서) 네?

세연 (희재 손의 초록색 봉투를 가리키며) 남편분 앞으로 온 건가...

희재 (이제 알겠는) 아아아, 이거요. 때마다 오네요. 저는 동창회비 낼 사람도 아닌데 하하.

세연 오늘만 두 번이나 마주치는 건데 저희 집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희재, 어리둥절하지만 특별히 거절의 사유를 찾지 못한 표정이다.

#13. 세연의 아파트/주방(밤)

30평대의 집. 널따란 식탁에 희재가 앉아 있다.

세연이 작은방 문을 조심스럽게 닫으며 나와 테이블에 앉는다.

세연 아이가 오늘은 금방 잠드네요. 희재 씨 딸은 아빠랑 있어요?

희재 남편이 애 목욕시키고 조금 전에 재웠다네요. 남편분은 늦으세요?

세연 올해 안식년이라 교토에 가 있어요. 부럽다 희재 씨네.

희재 저희 남편도 올해 처음인걸요. 일이 바빠서 사실상 주말부부랄까.

세연 (관심) 어떤 일 하시는데요?

희재 기자예요.

세연 어머니, 어디 기자?

희재 (머뭇)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온라인 매체라...

(역성들듯) 내리 고시 공부만 파다가 어느 날 웹 사명감에 불이 타올랐는지...

세연 (관심 사그라들여) 그러시구나. 중요한 일 하시네요.

희재 이제 신입 기자라 중한 일보단 험한 일이 많죠.

세연 신입이요? 대단하시네요. 늦은 나이에.

희재 남편이 연하라... 여덟 살...

세연 (휘둥그레) 진~짜 대단하신데요?

#14. 세연의 아파트/거실(밤)

세연과 희재가 소파에 기대 놓듯이 나란히 앉아 있다.

맥주캔 예닐곱 개가 두 사람 근처에서 굴러다닌다.

희재 (초록색 봉투 흔들며, 취기 있는) 올해는 총동문회에 계좌이체

해야겠네~ 덕분에 우연히 학교 선배님을 만나 수다를 다 떨고!

세연 마음 무거운 일 많았는데 저야말로 희재 씨 덕에 많이 덜어냈어요.

희재 (고쳐 앉으며) 제가 선배님이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세연 (땀을 흘리다) 봤잖아요. 낮에.

FLASH BACK #7 아정이 그린 그림 '임대총 박준희'

세연 제 연구 주제가 소득 수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일어나는 반목에 대한 거예요. 애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만 배워선.

희재 예고 그랬구나. 전 또 뉴스에서 보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세연 그런 거요?

희재 (조심스럽게) 가난한 애들하고는 놀지 말라는... 뭐 그런 부모들...

세연 바깥사람들이나 하는 일차적인 오해죠.

희재 바깥이요?

세연 있잖아요. 우리랑 조금 다른 사람들.

희재 ...

세연 우리끼리니 하는 말이지만... 이런저런 사람 섞여 사는 게 뭐 그리 대수겠어요. 오히려 동정이나 배려를 가르칠 수도 있죠. 안 그래요?

희재 (마지못해) 네...

세연 그리고 워낙 그쪽 엄마가 유별나서 아이까지 힘들어진 거예요.

(이르듯) 101동 살거든요.

희재 (몰라서) 101동이 왜요?

세연 몰랐구나? 길가 쪽 6층짜리 건물. 거긴 임대동이잖아요.

희재 (뜨끔하다 숨기고) 그래요?

세연 운이 닿아서 여기까지 왔으면 좋은 것만 경험하고 조용히 지내면 좋은데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특히 그 여자. 그러니까 어른이고 애고 그 집 애까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희재 (억지웃음 지으며) 각자 사는 건데 요구하고 말고 할 게 있어요?

세연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와야 한다는 등 길가 쪽 소음창을 공통비용으로 해야 한다는 등 끝도 없어요. 돈은 엔분의 일로 안 냈으면서 대우는 엔분의 일로 해달라는 게 그게 맞아요?

희재 그러게요... (속 타는 듯 맥주캔 들어 털어 마시는)

세연 근데 희재 씨... 흑시...

희재 (덜컹하는) 네?

세연 흑시라도 오늘 일 말할 건 아니죠? 그럼... 내가 명색이 사회학자에 텔레비전 나가서 맞는 말 하면서 사는 게 업인데.

희재 (손사래) 제가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럼요.

세연 (희재 표정을 몰래 살피며) 아파트에 친구 생기니까 참 좋네요.

희재 (다소 당황스러워) 친구...요?

세연 (약속을 받아내듯) 당연히 친구죠.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지만 친구라는 말이 싫지 않은 희재.

#15. 갤러리 앞(낮)

갤러리에 들어서서 희재.

입구에 ○○갤러리 기획전 작가 선정 인터뷰 시간과 장소 안내 붙어 있다.

정현(E) 다음, 서희재 작가님 들어오세요.

#16. 갤러리 회의실(낮)

희재, 문을 열고 들어와 인사를 하려다 평가자 자리 보고 놀라 흠칫한다.

대표, 세연, 정현 외 2인이 평가자 자리에 앉아 있다.
세연은 희재를 보고도 중요하지 않고, 정현은 왠지 조금 신나 보인다.

대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재 (맞은편 인터뷰석에 앉으며) 초대해주셔서 감사하죠. 제가 더.
대표 (또 끊고) XX년 졸업이면 우리 정현 큐레이터랑 동문 아닌가요?
희재 (정현의 눈치 살피며) 네...
정현 (어색한) 서 작가야 한때 저희 미대 최고의 아웃풋이었죠. 상도 워낙 많이 받았고. 초청도 줄을 잇고. 저랑은 비교도 안 되는 유망주.
대표 그런데 작업을 왜 이렇게 오래 쉬셨어요?
희재 (말문이 막히는) 그계...
정현 (듣는 척) 서 작가가 결혼, 출산을 워낙 이른 나이에 했고 남편 지원할 일도 많았어요. 본인이라고 붓 놓고 싶었겠어요?
대표 (포트폴리오 넘기며) 영화 스틸을 변주하는 작업이 대부분이네요.
희재 네.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낭만적인 장면을 재현함으로써,
대표 (말 끊고) 심미적일 순 있어도 동시대 작가로서 현실 도피적인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희재 (당황스러워서) ...
세연 (침착하게) 현실개입만이 답은 아니죠. 오늘 만난 작가들 대부분 논설문인지 작품인지 구분 안 될 정도로 발화 중심적인데 이 작품들은 관조적이라 오히려 사회를 투영하는 면이 보여요. (짱긋)
희재 (한숨 돌리는)

#17. 달리는 차 안(밤)

세연이 운전하고 있고, 옆자리에 희재가 앉아 있다.

세연 인연은 진짜 인연이다.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요?
희재 갤러리 일도 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세연 운영위원회 일한 지 몇 년 됐어요. 대표님이 우리 학교 출강하시기도

하고, 사회학이 워낙 토론이며 자문에 부르기 좋잖아요. (머쓱한)
희재 (작아지는) 대단해요, 정말.
세연 (희재 표정 힐끗 보고) 진짜 대단한 건 희재 씨 아니야? 요새 강사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작업 아직도 안 놓고 있어서 놀랐어요.
희재 예전에 해줬던 거 우려먹는 거예요.
세연 우리는 건 아무나 해? 우려봤자 맹탕인 작품이 널렸어. 포트폴리오 봤더니 콘셉트나 메시지가 확실해서 참 좋던데요.
희재 (짱한) ...
세연 (눈치 살피는) 혹시 기분 나빴어요? 전문가도 아닌데 떠들어서?
희재 아뇨. 이런 이야기 오랜만에 들어서요. 몇 년 전부터 여기저기 지원하는데 새 작업이 없다, 요즘 시대에 안 맞는다 지적만 당했거든요.
세연 그랬구나. 내가 혼자 정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번엔 기회 얻을 수 있게 내가 한번 나서볼게.
희재 (몸 둘 바 모르고) 괜히 저 때문에 그러실 필요는...

세연, 아파트 주 출입구에 이르러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려 핸들을 꺾는데 아파트 산책로 벤치에 영석과 은주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본다.

세연 (미간 찌푸리며) 저 여자 또 뭘 짓을 하는 거야?
희재 (세연이 보는 쪽 따라서 보다가 놀라서) 어? 저기서 뭐 하고 있어?
세연 희재 씨도 저 여자 알아요?
희재 아뇨. 저 남자요. 저희 남편이에요.

희재, 세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굵지 않아진 것 느껴져 따갑다.

#18. 메종 더 프리미어/산책로(밤)

나란히 놓인 벤치 두 개에 하나씩 앉은 영석과 은주.
영석은 대화를 녹음 중이고, 은주는 서류 봉치와 사진을 흔들며 흥분상태.

희재가 다가오고 있는 것도 모르고 둘은 대화에 열중해 있다.

은주 악질도 이런 악질들이 없다니까요?
영석 제보를 뒷받침할 다른 자료들이 더 있나요?
은주 (가방을 뒤적이는데)
희재 (앞에 다가가) 여보! 여기서 뭐 해?
영석 어! 이제 오는 거야? 취재가 있어서.
은주 (올려다보며 고개 끄덕여 인사하면)
희재 (어색하게 끄덕하고, 고개 돌려) 취재원을 왜 이런 데서 만나. 가자, 일단.

영석 여기 아파트 문제에 대한 건데, 우리도 임대(사는 처지지만),
희재 (황급히 목소리 높여 말 끊는) 여보!!! 하영인! (주변 눈치 살피는)
영석 깜짝이야!
희재 일단 가자. (영석 소매 당기며, 무겁게 뒤쪽으로 고개 돌려보면)

#17 자리에 정차한 채 이쪽 바라보고 있던 세연,
유쾌하지 않은 표정 지으며 보조석 창문 올리고 차 출발시킨다.

#19. 희재의 아파트/거실(밤)

세연의 집과 구조와 크기가 같은데
정리되지 않은 집이 많고 살림살이에 통일감이 없어 훨씬 좁아 보이는 집.
영석이 은주에게 받은 자료들을 펼쳐 보고 있고, 옆에 희재 앉아 있다.

영석 (사진 보여주며) 아파트가 아니라 설국열차라니까? 길가에 낮은
건물, 상가가 아니었던 거 알아? 높이도 자재도 도색도 다르게 제일
가장자리에 만들어서 임대만 몰아둔 거야. 거기가 꼬리 칸.
희재 사람 사는 곳에 꼬리 칸이 뭐야.
영석 이렇게 말하는 내가 심해, 아니면 그 취급을 해놓은 사람들이 심해?
희재 ...

영석 우리처럼 분양, 임대 섞인 데는 가운데 칸이고 분양 세대만 몰려 있는
동은 머리 칸인 거야.
희재 (타박하는) 아무도 모르게 다 섞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고 할
땐 언제고 왜 갑자기 이렇게 흥분상태야?
영석 같은 처지라 원통해서 그런다. 중계기도 임대동에만 달고, 청소업체가
복도 청소하는 횡수도 차이가 나더라고.
희재 (외워 말하듯, 반 체념한 듯) 돈을 엔분의 일로 안 냈으니까 대우는
엔분의 일로 받을 수가 없는 건가 보지.
영석 (위아래 훑으며) 왜 이래 갑자기? (한숨) 애들이 놀이터에서 공 찰
때도 101동 팀, 101동 아닌 팀 나눈단다. 그것도 엔분의 일 값이야?
희재 (착잡한) ...
영석 참, 당신도 요새 티브이 자주 나오는 문세연 교수란 사람 여기 사는 거
알고 있었어?
희재 응? 몇 번 오다가다 봤어.
영석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말은 잘하길래 꽤 개념 있는
사람인가 했거든? 오늘 들어보니까 그 사람 여기 웬만한 돈으론
사지도 못하게 만든 실세던데?
희재 그래?
영석 우리 같은 입주자 제일 싫어할 거 같으니까 괜히 텔레비전에서 본
사람이라고 가서 인사하고 그러지 말라고.
희재 내가 언제 그러는 거 봤어? (괜히 더 투덜대는)

#20. ○○초등학교/미술실(낮)

희재와 하영, 교실 앞에 서 있다.
아정, 준희를 비롯한 초1 아이들 모둠으로 앉아 있는 방과후 교실 풍경.

하영 나는 1학년 5반 21번 강하영이고 오늘부터 같이 미술 배우러 왔어.
아이1 어디서 전학 왔어?
하영 성장초등학교.

아이1 그거 강남이야?
 하영 강남이 뭔데?
 아이2 너네 집 메종이야?
 하영 (뭔지 몰라서 회재 올려다보면)
 회재 (당황스러운, 가볍게 끄덕여주면)
 하영 응!
 아이2 몇 동이야?
 아정 201동 701호.
 아이2 101동 아니네. 굿!
 준희 (고개 푹 숙이는)
 회재 (더 당황해, 하영 등 떠밀어 들어가게 하면서) 다 사이 좋게 지내도록 하고~ (지구마을 관련 책 들어 보이며) 오늘은 세계 민속의상 그리기를 할 건데요.
 아정 (손 번쩍 들고) 선생님!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안 가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재 걱정할 필요 없어~ 책을 보면서 그럴 거니까,
 아정 아니야. 저는 미국 올랜도 테마파크, 독일 옛날 성, 일본 사슴 다 보고 왔거든요? 저 아니라 101동 재요! (준희 가리키는)
 준희 (일제히 쏠린 아이들의 시선과 웃음소리에 오줌을 싸고 마는) ...

회재, 아이들에게 한마디 하려는 그 순간! 문자 메시지가 온다.

대표(E) 서회재 작가님을 저희 갤러리 기획전 작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추후에 메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와 준희 울음소리로 난리통이 된 교실.

회재가 교실 한가운데 진이 다 빠진 표정으로 서 있다.

#21. 갤러리 전시실(낮)

회재와 정현, 텅 빈 전시실에 선 채로 대화를 하고 있다.

정현 기획전 초대 작가가 총 다섯 명인데 퍼포먼스, 영상, 설치가 많고 회화는 너 혼자라 네가 월 활용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회재 (감개무량한) 공간 구성이야 네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정현 (알뜰게) 너 한창 전시할 때랑 요즘 트렌드가 완전히 달라서 내 식으로 했다간 네 마음에 안 들지도 몰라. 전시 한 10년 만인가?
 회재 (한번 참고) 기획자한테 그래도 맡겨야지.
 정현 문 교수님하고는 원래 알던 사이야? 왜 저러나 싶게 널 밀던데?
 회재 이웃이라 오며 가며 알게 됐어.
 정현 어딘데?
 회재 메종 더 프리미어라고.
 정현 (목소리 커져서) 뭐? 네가? 메종? (눈 커지는)

#22. 갤러리 앞(낮)

갤러리를 빠져나오는 회재,

싸운 것도 아닌데 승리한 기분 감출 수 없다.

상기된 표정으로 전화를 거는 회재.

회재 저예요. 지금 갤러리 다녀가는 길이에요.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단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세연(F) 나 혼자 결정하는 것 아니라니까. 회재 씨가 그동안 계속 노력한 덕이지.
 회재 제가 저녁이라도 한번 사고 싶어요.
 세연(F) 됐어~ 애들 데리고 수영장이나 가고 집에서 밥 먹자.
 회재 수영장이요? 어디 수영장으로요?

#23. 공인대학교/세연의 교수실(낮)

학교 연구실 책상에 앉아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는 세연.

세연 어디긴, 집이지. (공공이가 있는 표정)

#24. 메종 더 프리미어/산책로(낮)

세연-아정 모녀를 따라 걷는 희재-하영 모녀의 뒷모습.

희재와 하영은 깡총깡총 신이 났다.

아정은 엄마 손을 붙잡고도 몇 번씩 희재-하영을 의문스럽게 돌아본다.

아정 (걸다가 세연의 손을 잡아당기며) 재 갈 수 있어?

세연 (손가락 입에 대며) 췌!

세연, 뒤돌아 웃으며 희재와 하영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25. 메종 더 프리미어/수영장 입구(낮)

입장 데스크 앞에 다다른 네 사람.

세연이 카드 한 장을 데스크의 직원에게 건네면,

직원이 카드의 바코드를 찍어보고 사물함 열쇠를 내어준다.

몇 걸음 뒤에 있던 희재가 데스크에 다가가 직원에게 카드를 한 장 내민다.

직원, 바코드를 찍어보더니 고개를 가우뚱하는데...

직원 (카드 돌려주며) 수영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희재 (이유 몰라서) 네? 카드가 고장이 났나요?

직원 (난처해서) 고장은 아닙니다만...

세연 (껴들면서) 희재 씨, 뭐가 잘 안 돼?

희재 (직원에게)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직원 그게...

하영 (천진난만하게) 엄마, 나 수영 못해?

아정 (게임하는 채로 무심하게) 임대 사나 보네. 임대는 여기 못 들어가.

세연 (큰소리) 아정아!

하영 (희재에게) 그게 뭐야?

희재 (황급히 하영의 손 잡고서 돌아서며) 하영아, 우리는 놀이터 가자.

세연 (희재의 등에 대고) 희재 씨!

하영 (안 가겠다고 늑듯이 떼를 쓰며) 수영장은? 하영이 수영장 갈 건데!

희재, 앞만 보며 힘으로 하영이를 끌고 나간다.

하영이의 울음소리는 더 원통해져만 간다.

#26. 메종 더 프리미어/놀이터(낮)

우는 하영을 끌다시피 데려다 놀이터 벤치에 앉혀서 달래는 희재.

이미 놀이터에 와 놓고 있던 은주와 준희가 그 모습을 본다.

아이들 삼삼오오 놓고 있는데 준희만 혼자 놓고 있다.

희재 (눈물 닦아주며) 엄마가 준비물을 못 챙겨서 그래. 다른 날 가자.

하영 (긁긁거리며) 준비물 뭐? 하영이가 집에 가서 가지고 올게.

희재 (난감한) 그게, 어른들만 가져올 수 있는 거라서...

은주 (다정하게 다가와서) 네가 하영이구나? 준희랑 방과후 미술 하지?

희재 (은주 얼굴 보고 놀라서 뒤로 조금 물러서는)

하영 (멀쩡이 준희 보고, 눈물 그치며) 네!

은주 전학 온 하영이란 친구가 방과후 교실에서 엄청 다정하게 대해준다고

준희가 자랑을 많이 하더라? (사탕 하나 주는)

하영 (받고 웃는) 정말요?

은주 (준희 가리키며) 준희 저기 있거든? 가서 같이 놀래?

하영 (엄마 보며 허락 구하는)

희재 (끄덕이고, 기분 풀려서 뛰어가는 하영의 뒷모습 보는)
 은주 수영장... 퇴짜 맞았어요?
 희재 (말 못하는)
 은주 (위로하고 싶어 횡설수설하는) 거기 수영장 대단하지도 않아요.
 저는 물도 무서워하기도 하고...
 희재 (동정받는 것 같아 불편한) 먼저 가볼게요.
 은주 (조심스럽게) 101동 살아요?
 희재 (단번에) 아니요!
 은주 그럼 혹시...

그때, 놀이터 입구에 아정의 손을 잡은 세연이 나타난다.

세연 (날카롭게) 희재 씨!
 희재 (세연을 보고, 왠지 나쁜 행동을 들킨 기분인) 네!
 세연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찾았어요. (추궁하듯) 거기에서 뭐 해?
 희재 (눈치 보는) 그게...
 세연 우리 할 이야기 있지 않아요?
 희재 (은주에게) 먼저 가볼게요. (하영에게) 하영아! 이만 가자!
 은주 (나지막하게)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희재 (못 들은 척) 하영아!!!

아쉬워하며 달려온 하영의 손을 잡고 희재가 세연 쪽으로 걸어간다.
 은주도 세연도 희재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
 희재, 앞도 뒤도 따가운 느낌.

#27. 메종 더 프리미어/커뮤니티 가든(밤)

인공 폭포 앞에 카페 테라스처럼 꾸며진 테이블과 의자들.
 그중 하나에 희재와 세연이 마주 보고 앉았다.

세연 (카드 한 장 내밀며) 받아요. 우리 남편 카드는 남편이 일본 가서 쓸
 일도 없잖아. 진작 말해주면 오늘 이렇게 놀라게 안 했을 텐데.
 희재 (고개를 떨구는데) 전에... 이야기 못해서 죄송해요.
 세연 죄송하기는? 자기가 꼭 말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희재 부끄럽네요.
 세연 오히려 내가 부끄럽지.
 희재 (놀라 고개 드는) ...?
 세연 입주자대표회의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재건축 설계 정할
 때부터 임대는 분리하자고 성화였어요. 일부라도 같은 동에 섞이게
 배치하느라 정말 많이 싸웠지. 우리 동에 있을 수 있던 생각을 못 하고
 희재 씨 마음 상할 이야기를 내가 많이 했던 것 같아.
 희재 아네요. 그게 교수님 탓인가요.
 세연 거기까지밖엔 내가 못했어. 수영장이나 카페, 도서관 같은 곳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게 했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워낙 반대해서.
 희재 혼자 노력한다고 될 일인가요. 제가 문제제기를 해볼까 봐요.
 세연 괜히 나섰다가 눈총받으면 아파트에서 하영이만 유명해져.
 (걱정해주는 듯) 무슨 뜻인지... 알지?
 희재 ...
 세연 이 아파트 세운다고 몇억씩 몇 번을 밀어 넣은 사람들이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네요.
 희재 그래도... 저희라고 공짜로 사는 것도 아닌데...
 세연 (카드를 손에 쥐여주며) 그럼 알지.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돕고
 싶은 거예요. 일단 하영이가 여기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사는 게 첫
 번째 아니야?
 희재 (손에 들린 카드 보면서) ...
 세연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우리 같이 바뀌어나가요.
 희재 (카드 받으며) ...
 세연 나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려고. 요즘 임대 거주자에 대해서 논문
 쓰고 있어요. 케이스가 정말 중요해. 희재 씨가 도와주면 어떨까?
 희재 논문이요?
 세연 이런 식으로 아파트 관리되는 것 고쳐보자고 말하고 싶어. 내가 쓸 수

희재 있는 대자보가 논문이니까.
(어리둥절) 제가 뭘 하면 되는 건지...
세연 나랑 지금처럼 시간 될 때 만나서 수다 떨고, 애들끼리 놀게 하면 돼요.

희재, 난감하지만 받아들이는 표정.

#28. 몽타주. 메종 더 프리미어/도서관+옥상텃밭+놀이터+카페

— 도서관(낮). 세연이 희재를 인터뷰하고 있고 하영과 아정은 책장 사이를 뛰어다니며 논다.
— 옥상텃밭(낮). 하영과 아정이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따와선 엄마들의 입에 넣어준다.
— 놀이터(황혼). 세연이 희재의 말을 받아 적고 있고, 그 주변에서 하영과 아정이 키보드를 하나 놓고 서로 타겠다고 옥신각신한다.
— 카페(밤). 세연이 핸드폰으로 희재의 말을 녹음하고 있다. 둘 다 노노라 완전 뺨어버린 딸을 안은 채다.

#29. 메종 더 프리미어/외경(아침)

#30. 희재의 아파트/거실(아침)

희재는 하영의 옷을 입히고, 가방을 챙겨주느라 분주하게 움직인다.
텔레비전이 보는 사람 없이 혼자 켜져 있다.

#31. 메종 더 프리미어/산책로(아침)(#30 연결)

메종 더 프리미어 로고가 모자이크 된 채로 화면에 나타나고,

산책로에 서서 기자가 리포트를 한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임대 주택을 포함하면서, 임대 주택 경쟁률이 24.3대 1에 달했습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저소득 도시근로자 가족 등 열네 가구가 최장 10년 안정된 주거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32. 메종 더 프리미어/101동 외경(아침)

기자 그런데 아파트 측은 이들 가구를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대로변에 임대 가구만 배치한 저층 임대동을 짓는가 하면,

#33. 메종 더 프리미어/203동 8층과 9층 사이 비상계단(아침)

기자 분양과 임대 가구를 섞어 배치한 이른바 소셜믹스 동은 9층까지는 임대 가구만 배치하고 상층으로의 진입로를 막아두기도 했습니다. 층으로 분리해 임대 거주자의 분양 세대 이동을 차단한 겁니다.

INSERT — 자료 화면

은주 (모자이크 화면, 음성 변조) 돈 낸 만큼만 대접받으란 거죠.

#34. 거리(낮)

학원이 즐비한 건물들이 보이고,
건물 앞 대로변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35. 정차 중인 세연의 차 안(낮)

세연이 차를 세워놓고 핸드폰을 보고 있다.

INSERT

화면 속 기사 ‘특별하다더니 차별만 하는 아파트’

기사 화면 위로 학과장에게서 온 메시지가 보인다. 연신 올려대는 알림음.

학과장(E) 이번 논문 연구지가 문 교수네 아파트 아니었어? 집에서 노다지 캐겠네. 근데 문 교수가 몇 층 산됐지?

세연이 신경질적으로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그때, 아정이 더 신경질을 내면서 뒷좌석에 올라탄다.

세연 (백미러로 아정의 얼굴 확인하며) 김아정 씨, 왜 언짢으시죠?

아정 엄마, 우리 꼭대기 층으로 이사 가.

세연 왜요?

아정 석훈이가 우리 집은 임대층이고 거지래. 개네 엄마 아빠가 메종 더 프리미엄에선 10층 아래 살면 가난한 집이라고 했대.

세연 (침착하게) 김아정 씨, 석훈인 어디 살죠?

아정 그레이스아파트 살걸.

세연 (점점 속사포) 석훈이 부모님께서 질투를 하신 것 같아요. 자기 집 재건축은 답이 없지, 지하 주차장도 없고, 택배 받을 관리실도 없이 사시면서 길 건너 우리 아파트 매일 보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아정이가 이해해드리는 게 어떨까?

아정 (대부분 못 알아들음) 뭘 계산했다고?

세연 (진심으로 당부) 일단 내일 학원 가면 9층까지 다 임대층이 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1층에서 8층까지 모여 있고, 1호 라인에만 산다고 알려주세요. 우리 집은 902호라고도 말해주고요.

화풀이하듯 쏟아내고도 분풀이가 안 된 세연의 표정.

(E) 당동 벨소리.

#36. 희재의 아파트/거실(밤)

희재와 세연이 식탁에 마주 보고 앉았다.

세연 (특유의 미소) 연락도 없이 밤중에 미안해.

희재 무슨 일 있으세요?

세연 (성의 없이) 내가 뉴스 때문에 잠이 안 와서.

희재 (안다는 듯) 그럴 만하죠.

세연 내가 이 아파트 사는 거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희재 (공감하며) 그러게요. 선배가 직접 일 살피는 아파트인데 이런 차별이 일어난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교양이 없는 거죠.

세연 (멈칫) 자기야, 그 말이 아니야.

희재 네?

세연 (심각) 오보잖아. 9층까지가 다 임대 주택이라니. 나나 저층 분양받은 다른 사람들이 전부 임대에 사는 걸로 오해를 받게 됐어.

희재 ...

세연 워낙에 층수 추첨할 때도 낮은 층 뽑아서 스트레스였어. 저층 고층 가격 차가 얼마나 큰지 알지? 이제 하다 하다 별소리 다 듣네.

희재 (소심하게 발끈) 사소하게 틀린 내용이야 있어도 나머진 다 사실이지 않아요? 차별...

세연 전에도 말했잖아, 희재 씨. 자기들 빼고 다들 여기 부수고 지으면서 수억씩 몇 번을 밀어 넣었어. 더 많은 권리가 있는 게 당연하지.

희재 (곱씹으며) 자기들...

세연 내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물어야겠어서 왔어. 이번 뉴스 혹시 자기 남편이랑 관련 있어?

희재 (황당해서) 네?

세연 101동 그 여자랑 하영이 아빠랑 이야기하던 거, 취재 아니었어?

희재 저희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나온 뉴스가 아닌데요.
 세연 여기 사람 아니고서야 드나들 수 없는 그림까지 많이 나왔잖아.
 희재 절대 아녘요.
 세연 내 아파트가 입방아에 오르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 저런 뉴스 때문에 시정권고라도 받으면 또 돈 부담해야 하는 건 자기들이 아니라 우리들이야.
 희재 자기들, 우리들이요?
 세연 자기가 수영장이며 시설 못 쓴다고 불만이라고 하자마자 이 사달이 났잖아.
 희재 (황급에) 차별받는 걸 차별받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세연 (이해를 못 하는) 엉겁결에 여기 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잖아. 무슨 차별을 받는다고 그래?
 희재 감지덕지요?
 세연 (한참 보다가) 갤러리 운영위원회에 지인 없는 죄로 작품 못 거는 작가들이 받은 게 차별 아니야? 수영장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희재 (아차 싶고, 할 말 없는)

#37. 메종 더 프리미어/산책로(밤)

희재가 동 출입구에서 나와 세연을 쫓아가려고 헐레벌떡 뛰어나온다.
 산책로 한가운데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을 발견한다.
 세연을 비롯한 남녀 주민들 여럿이 은주와 대치하고 있다.

주민 남 (삿대질) 살 수 있는 만큼 조용히 지내면 될 것이지 사사건건 분란 만들더니 방송 진출까지 해서 전부 엇 먹이니까 속이 시원하쇼?
 은주 (비아냥) 드시긴 하셨어요? 잘됐네.
 주민 녀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공으로 사는 것도 모자라서 주인 노릇까지 하게 해달란 거야?
 은주 제가 한두 번 말해요? 아파트 잡수입을 분양 세대 싹짓돈으로 쓰지 말아라, 입주자회의에 임대 가구도 포함해라, 커뮤니티 시설 공평하게

이용하게 해라!

주민 남 공평 좋아하면 공평하게 가진 돈만큼으로만 누려야지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공평하게 대해달라고 해!
 은주 내가 집 도둑질해서 왔어요? 막말로, 나 같은 사람 덕분에 용적률 올려서 집 지었으면서!
 주민 녀 맥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어. 당신만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니까 임대층 소리 들으면서 가만있는 사람까지 욕 먹이는 거라고. 알아?
 은주 임대층이 사람한테 할 소립니까? (수세에 몰려 주변 돌아보는데 온통 적뿐인 와중에 희재가 눈에 들어와 바라보면)
 희재 (황급히 눈 피하고)
 세연 (그 모습 보고는, 시험하듯) 하영이 엄만 어떻게 생각해, 임대?
 은주 그놈의 임대, 임대, 임대, 지겹지도 않으세요, 다들?
 희재 저는...

당혹스러운 희재의 표정 위에 떨어지는 목소리들.

정현(E) 뭐? 네가? 메종?
 아이2(E) 너네 집 메종이야?
 세연(E) 갤러리 운영위원회에 지인 없는 죄로 작품 못 거는 작가들이 받은 게 차별 아니야?

희재 (눈 꼭 감고) 적당히 바라야죠. 돈 낸 만큼만.

한 무리의 사람들 희재를 거들듯 박수 친다.
 희재는 세연의 반응 살피고, 세연은 희재를 깔보듯 바라본다.

은주 (희재를 경멸하듯 보는) 저 사람들이야 내 입장 되어본 적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해요. 이해는 안 되지만 추측은 돼.
 희재 (불편하고 불안한)
 은주 근데 그쪽은 아니야. (세연 가리키며) 저 여자한테 빌붙어서 수영장 몇 번 드나든다고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

주민 남 (좌우 살피며) 뭐야? 당신도 임대야?
 주민 녀 와, 소름 끼친다. 이 와중에 아닌 척하고 슬쩍 우리 옆에 서 있어?

은주에게 향해 있던 웅성거림과 시선이 이제 모두 희재에게 쏠린다.
 은주는 핵 돌아서 떠나고, 희재는 움직이지도 못한 채 얼어붙어 있다.
 세연은 재미있는 구경 했다는 듯 피식 웃고 돌아선다.

#38. 희재의 아파트/거실(밤)

희재가 소파에 앉아 있고, 하영은 희재 다리를 베개 삼아 누워 잠들어 있다.
 바닥에 영석이 앉아 희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영석 (비난하듯) 그 여자랑 엮이지 말라고 했지!
 희재 그 여자랑 안 엮였으면 언감생심 다시 전시도 못해.
 영석 다른 데서 하면 되잖아. 전시가 그렇게 중요해?
 희재 (울컥해서) 당신은 꿈 찾아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다음 순서, 다음 기회만 기다려도 되는 사람이야?
 영석 (할 말이 없는) 내가 죄인이다, 그래!
 희재 (다짐하듯) 사람들 눈엣가시 안 되게 조용히 살다 나가면 돼. 나는 이번 전시 잘 마치고 또 다른 기회 꼭 잡을 거고.
 영석 여기에 살러 왔지, 작전 수행하러 왔어?
 희재 당신이나 나나 이 집에서 하루에 몇 시간이나 보내? 하영이도 학년 올라가면 우리랑 마찬가지로.
 영석 그래서.
 희재 이 안에서 수영장 하나 못 들어가는 신세일지 몰라. 그런데 여보. 밖에 나가면 우린 메종 더 프리미어 사는 사람이야.
 영석 무슨 말이야.
 희재 여기엔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 우릴 모르는 사람이 천지지만, 우릴 아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메종 더 프리미어 산다는 걸 안다니까?
 영석 (혀를 차며) 집 밖에서 빠기자고 여기선 개무시 당해도 참고 살자?

희재 10년이야. 평생 여기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 하영이도 좀 살아보자.
 영석 (기가 차서) 당신이 좀 살아보잔 건 아니고?
 희재 나는 좀 살아보면 안 돼? (차가워진 표정)
 정현(E) (미안해하며) 이번엔 안 될 것 같네.

#39. 갤러리 회의실(낮)

정현과 희재가 테이블에 마주 보고 앉았다.

희재 (하늘이 무너진 듯한) 갑자기 왜?
 정현 작품 디스플레이한 자료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데 네 작품만 결이 너무 다르단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
 희재 작품 안 보고 정한 것도 아니고... 많이 당황스럽다.
 정현 오프닝 직전에 빠지는 작품도 있는 거 알잖아. 나도 미안하다.
 희재 (힘 빠져서)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정현 (조심스럽게) 혹시 문 교수님하고 척진 일 있니?
 희재 (역시 그 이유였구나 더 힘이 빠지는) ...
 정현 (위로하는 척) 잘못된 거 있으면 이제라도 사과하고 해결해. 그분 우리 대표뿐만이 아니라 미술계에 발이 워낙 넓어. 다음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너도.

#40. 메종 더 프리미어/산책로(아침)

희재가 하영의 손을 잡고 등교를 시키는 중이다.
 사람들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희재가 나타나니 헛기침하며 딴청이다.

주민 (목소리는 낮췄지만 들으란 식) 저 여자지? 임대 아닌 척 쇼를 했다던 여자. 딸 보기 안 부끄러운가.

희재, 못 들은 체를 해보지만 하영이 들었을까 불편해 걸음을 재촉한다.

#41. 메종 더 프리미어/공동현관(낮)

희재와 하영이 공동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아정이 나와 문이 그냥 열린다.

하영 (반가워서) 아정아!
아정 야! 말 걸지 마! (책 가버리는)

하영, 망연자실한 표정.

#42. 메종 더 프리미어/엘리베이터(낮)

엘리베이터에 희재와 하영, 한 부부가 타고 있다.

남자 (긱속말로) 701호 모녀 맞지?
여자 (남편 옆구리 찌르며) 조용히 해. 애는 무슨 죄야.

희재가 불안해하며 하영의 귀를 막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하영은 손 치우라며 파닥거린다.

#43. 메종 더 프리미어/놀이터(낮)

여러 집 보호자와 아이들이 놀이터 가운데서 놀고 있고,
희재와 하영은 외딴 구석에서 돌이서만 놀고 있다.
은주가 준희 손을 잡고 놀이터에 들어서다가 희재를 보고 돌아선다.

희재 (다급하게) 잠시만요!
은주 (말없이 돌아보면)
희재 (사과하려는 표정으로) 그게...
은주 (냉정한) 나한테 사과하지 마요. 차라리 그 여자한테 가서 해.
희재 네?
은주 (짠하게 보는) 그 여자 더 혹독하게 굴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
자존심을 못 굽혀서 (준희 가리키며) 애 고생시켰어요. (생각에
잠기는)

#44. 회상. 메종 더 프리미어/산책로(낮)

은주가 큼지막한 택배상자를 안고 걷고 있다.
한 손에는 상자, 한 손에는 준희의 손.
세연과 아정이 그 옆을 지나고 있다.
세연, 힐끗 은주의 손에 들린 택배상자를 쳐다본다.
우체국 소포상자에 삐뚤삐뚤한 큰 글씨로 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
매직으로 콕콕 눌러 쓴 101동이 세연의 눈에 들어온다.

세연 (닉살 좋게) 그렇게 무거운 걸 어째서 들고 다녀요?
은주 (머쓱한, 101동 가리키며) 저희는 공동 초소까지만 배송이 된다니요.
세연 (혀 차는) 어머니, 말도 안 된다! (준희에게) 잘생겼다. 우리 아정이는
내년에 학교 가는데 너는?
준희 (반가워) 저도요!
세연 아줌마네 놀러 올래? 아정이가 혼자 놀기 심심해하거든.

아정이 무슨 소리냐는 듯 세연 올려다보면,
세연이 손가락으로 몰래 아정의 등을 콕콕 찌른다.
준희는 대답하는 대신 허락을 기대하는 표정으로 은주를 본다.

#45. 회상. 몽타주. 메종 더 프리미어/도서관+옥상텃밭+놀이터+카페

- 도서관(낮). 세연이 은주를 인터뷰하고 있고 준희와 아정은 책장 사이를 뛰어다니며 논다.
- 옥상텃밭(낮). 준희와 아정이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따와선 엄마들의 입에 넣어준다.
- 놀이터(황혼). 세연이 은주의 말을 받아 적고 있고, 그 주변에서 준희와 아정이 키보드를 하나 놓고 서로 타겠다고 옥신각신한다.
- 카페(밤). 둘 다 노느라 완전 뺏어버린 준희와 아정이 각자 엄마 품에 안겨 자고 있다. 은주의 말을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있는 세연.

#46. 회상. 은주의 아파트/주방(밤)

- 은주, 인터넷에서 세연이 한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본다.
- 제목은 ‘소셜믹스 천태만상 - 임대층이라 불릴지라도 -’
- 은주,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이용당했던 생각.

#47. 회상. ○○초등학교/미술실(낮)(#4 연결)

- 잔뜩 흥분한 은주가 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들 그림 노력보듯 본다.
- 아이들이 그린 그림 중 준희를 벌레로 그려둔 그림 한참 바라본다.
- 은주, 억울하고 분하고 슬퍼서 눈에 눈물이 그렇그렁 고인다.

#48. 회상. ○○초등학교/교장실(낮)

- 교장실 가운데 교장이 좌불안석으로 앉아 있고, 테이블을 하나 두고 세연과 은주가 앉아 있다.
- 잔뜩 흥분한 은주와 달리 세연은 몹시 차분하다.

- 교장 준희 어머니, 어떻게 하면 노여움을 조금이나마 푸시겠습니까.
- 은주 (한숨 쉬고 진정하며) 아정이가 준희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는 거요.
- 교장 (반기며) 아이들끼리야 당연히 사과도 하고,
- 세연 (말 끊으며) 사과요? 학생이 미술시간에 그림도 못 그립니까?
- 은주 그냥 그림이 아니죠. 친구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어요.
- 일주일 동안 그 교실에 따님 그림이 걸려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저희 아이를 놀렸어요.
- 세연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받은 거라고 봅니다.
- 은주 (기가 막혀) 그걸 말이라고?
- 세연 (교장 향해) 선생님, 전 도시문제 다루는 사회학자입니다. 아정이가 총명해서 엄마가 하는 공부에도 관심이 많아요.
- 교장 (안절부절) 네네 그렇지요.
- 세연 저와 아정이가 임대층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풍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반에 세태를 대변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담백하게 그린 걸 수 있고 비틀어 풍자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은주 억지가 심하네요.
- 세연 임대 아파트 사는 애한테 임대 아파트 산다고 말도 못 하면 쓸 수 있는 한국말 몇 개나 됩니까.
- 은주 같은 반 친구를 벌레로 그렸어요!
- 세연 곤충이죠. 메뚜기, 사마귀, 무당벌레 뭐 그런? (당당한 표정)

#49. 회상. ○○초등학교/운동장(낮)

- 아정 나도 엄마가 또 나가는 거 싫다고 설명했지! 벌써 여러 번!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내던지는)
- 아정이 던진 종이를 희재가 보곤 놀라고, 세연이 다가와 이를 찾아간다.
- 세연이 학교 현관에 서서 이 모든 걸 은주가 보고 있는 걸 알지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아이를 차에 태워 학교에서 빠져나간다.
- 유유히 떠나는 차를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눈물만 그렇그렁한 은주.

#50. 메종 더 프리미어/놀이터(황혼)

희재가 뒤돌아보면 현재 놀이터의 희재가 돌아보는 모습으로 오버랩.

은주 (그렇그렇해서) 그쪽은 애 고생시키지 말라고.
희재 (잔뜩 복잡해진) 이미 늦었는데 어떡해요.
은주 (슬프고 담담한) 떠나야겠죠. 떠날 곳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말든가.
성가시지 않게.

#51. 희재의 아파트/거실(밤)

소파에서 핸드폰으로 임대 아파트 따돌림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희재.
하영은 희재의 무릎에 누워 평온하게 자고 있다.

댓글1(E) 아이 있는 집은 임대 주택은 무조건 안 돼요. 친구들 아파트가
전세인지 자가인지, 얼마짜리인지 애들이 더 잘 알아요.
댓글2(E)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부모 역할이지. 남의 눈
무서워서 정부 정책도 피해야 합니까?
댓글3(E) 다른 사람 시선에 자유로운 넘은 평생 임대 아파트 사시든가요.
댓글4(E) 차별은 나중 일이고 제발 당첨되면 좋겠어요. 당첨된 분들 자격 조건
후기 좀 풀어주세요.

희재 (깊은 한숨) 후...
하영 (엄마 숨에 깨서) 몇 시야? 왜 안 자?
희재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보고 있었어. (등 토닥이며) 더 자자.
하영 하영인 수영장 못 들어간다던데 정말이야?
희재 (철렁) 누가 그런 소리를 해?
하영 놀이터에서 아정이 봤어. (아정 흉내 내며) 넌 이제 수영장도 여기도
도서관도 다 못 들어와! 하면서 나가! 하고 소리 지르면서 나 쫓아냈어.
하영이는 무서워서 도망쳤어. 전력질주.

희재 그계...
하영 한 번만 더 오면 애들한테 다 말한대서 무서웠어.
희재 엄마가...
하영 나도 다 알아.
희재 (화들짝) 뭘?
하영 (작은 목소리로) 전에 몰래... 수영장에서 쉬해서 그런 거지...?
희재 (안도)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정이는 어떻게 그걸 알았대.
하영 몇 밤 더 자면 이제 용서받아? 하영이 정말 가고 싶어. 수영장.
희재 워터파크 갈까?
하영 (단호) 거긴 우리 집 수영장이 아니라 싫어.
희재 (하영 다독이며) 엄마가 내일 수영장에 전화해서 물어볼게.

희재가 하영을 끌어당겨 안아준다.
거실 한쪽에 정리 안 된 채로 놓여 있던 상자 하나 눈에 들어온다.
갤러리에 가져갔다 그대로 가져온 작품들이 담겨 있다.
맨 앞의 것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한 장면. (#3과 동일)

#52. 희재의 아파트/현관(아침)

희재와 하영이 등교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영이 신발을 다 신자 희재가 그 앞에 눈높이를 맞춰 앉는다.

희재 엄마가 일어나자마자 수영장에 전화 해봤어.
하영 (초롱초롱) 이제 오래?
희재 들어보니까 하영이는 서른 밤쯤 자면 갈 수 있다더라고.
하영 (실망해서) 서른 밤이나?
희재 (연기하듯이) 근데 아정이는 쉬야만이 아니고 뽕뽕이도 했다가 봐!
(숫!)
하영 (입 틀어막으며) 헤!

희재 (엑스 자를 그리며) 아정이는 수영장 완전 금지, 평생 금지.
 하영 헉!
 희재 아정이가 쉬한 애들 다 잡을 테니까 자기도 들여보내달라고 엄청 우기고 있나 봐. 하영이도 막 쫓아왔었지?
 하영 응.
 희재 그러니까 서른 밤 동안 아정이 안 마주치게 피해서 다녀야 해. 아정이가 친구들이나 어른들한테 부탁할 수도 있으니까 다 조심해.
 하영 어른들한테는 인사를 해야 하잖아.
 희재 서른 밤 잘 동안은 괜찮아. 아정이 안 마주치고, 사람들 없는 데로 잘 다니면 엄마가 백 점짜리 도장 매일 찍어줄게.
 하영 자신 없는데...
 희재 하영아, 이건 아파트 안에서 하는 게임이야. 하루에 백 점씩 삼천 점을 받으면 수영장은 우리 차지야!

하영, 눈을 반짝인다.

#53. 몽타주. 아파트 산책로+부동산+놀이터+빌라+은행+공동현관

— 아파트 산책로(낮). 하영이 조각품 뒤에 몸을 숨긴 채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산한 틈을 타서 다음 조각품으로 마구 달린다.
 — 부동산(낮). 희재가 부동산에 들어간다.
 — 놀이터(낮). 하영이 허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며 놀이터 옆을 살금살금 지나간다.
 — 빌라(낮). 희재가 중개인과 함께 빈 빌라를 둘러보는데 불만족스러운 표정이다.
 — 은행(낮). 은행 창구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 희재의 표정이 어둡다.
 — 공동현관(낮).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도 발을 동동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던 하영,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들어 엘리베이터 앞에 선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연다.

#54. 메종 더 프리미어/엘리베이터(낮)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아정이 몸을 웅크린 채로 타고 있다.

아정 (해냈다는 표정) 잡았다!

#55. 희재의 아파트/거실(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들리고 거실로 들어선 희재.
 온 집 안 불이 꺼져 있어 낯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희재.

희재 (신발 벗으며, 대답하라는 듯) 강하영~ 하영아~

아무도 대답이 없자 불안해진 희재가 열린 작은방으로 뛰어가 문을 연다.

#56. 희재의 아파트/하영 방(밤)

희재가 작은방 불을 켜면 하영이 침대에서 자고 있다.
 희재 숨 고르며 조용히 문을 닫는다.

#57. 희재의 아파트/주방(밤→아침)

희재, 식탁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 불을 켜다.
 식탁 위 무언가를 보고 놀라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 희재.
 식탁 위에 그림이 한 장 있다.
 아파트 숲에 벌레 더듬이를 한 사람이 그려져 있고 '임대총 강하영' 쓰인.
 시간 경과.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현관 열리는 소리 들리고 취한 영석이 귀가한다.
영석, 희재의 심상찮은 분위기 아직 눈치 못 채고 잔뜩 신이 나서 말 건다.

영석 나 뉴스텐으로 가기로 했다! 경사로 마신 거니까 좀 봐주라~
희재 (올려다보며) 뭐?
영석 혹시 엮어질까 미리 말 안 했어. 선배 소개로 몇 번 면접 봤지.
희재 ...자기 혹시 이 아파트에 대해서 그쪽에 알려줬어?
영석 (다 들키는 표정과 말투지만 잡아떼며) 왜 또 물어. 아, 아니라니까.
희재 당신이 정말 아니어도, 이 상황에 뉴스텐으로 가면 아정이 엄마는
우리 집이 그랬다고 더 확신할 거야.
영석 그 여자 눈치를 왜 보고 살아.
희재 (던지듯 그림 내밀며) 이걸 보고 말을 해.
영석 (놀라서 잠시 멈췄다가) 그 여자랑 어울리지 말랬지!
희재 (싸늘한) 걱정 말고 이사 가자고 했던 당신이 그 여자보다 먼저야.
영석 여기 와서 제일 신났던 건 당신 아니야? 동창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잖아. 너희처럼 금수저에 해외 다니면서 그림 그리고는 못 살아도
메종 더 프리미엄어는 산다고.
희재 그럼 변변한 데 이사 갈 수 있게 해봐. 나는 당신 대학 등록금 벌어들
주고, 군대 간 사이에 생활비 대느라, 고시공부 뒷바라지하느라 벌써
허리가 다 휘었으니까 잘난 기자님이 한번 나서봐.
영석 여기서 그 이야기가 또 왜 나와! 나한테나 큰소리지. 그 교수한테 성질
한번 못 피우면서. (현관 열고 나가버리는)
희재 (황 달히는 현관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렇지 않아도 더는 안
참으려고 했어!

#58. 세연의 아파트 앞(아침)

9층에서 멈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희재가 내린다.
손에는 아정이 그린 그림을 돌돌 말아 쥐고 있다.
화를 감당하지 못해 손을 꼭 쥐었더니 말아 쥘 그림이 다 구겨졌다.

희재, 한참 그 자리에 서서 고민하다 드디어 뭔가 결심한 표정 짓는다.

#59. 세연의 아파트/주방(아침)

세연과 아정이 식탁에 마주 보고 앉아 식사 중이다.

세연 (대수롭지 않게) 왜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정 (마찬가지로 대수롭지 않게) 부끄러우라고.
세연 하영이가 왜 부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정 엄마가 그랬잖아. 엄마랑 아빠는 엄청 많이 힘들게 집 산 건데
하영이네나 준희네는 아무것도 열심히 안 했다고 그랬잖아.
세연 (아정의 밥에 반찬 올려주며) 사람들이 현실을 알 필요는 있지요.
그런데 그 말을 꼭 아정이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정 (삐죽) 근데 알려준 보람이 없어. 임대층이 무슨 뜻이냐고 해서
알려주니까 (흉내 내며) 요렇게 끄덕끄덕하더니 잘 가~ 하고
들어갔어. 창피한 것도 모르나 봐.

현관 벨소리가 들린다.

세연 (예상했다는 듯) 생각보다 늦게 뛰어오셨네.

세연이 천천히 일어서서 문을 열 때까지
문밖에서 못 참겠다는 듯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난다.

#60. 세연의 아파트 앞(아침)

세연이 문을 열자 주민 남, 주민 녀가 서 있다.

세연 (예상했던 사람이 아니라) 통장님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주민 남 (화가 나서) 문 교수, 또 그 여자가 사고 쳤어.
 세연 (영문을 몰라) 누구요?
 주민 녀 누구긴 누구야 701호 그 사기꾼! 사람들 좀 모아봐.

#61. 희재의 아파트/현관(아침)

현관을 열고 들어와 문에 기댄 채로 무너지듯 주저앉는 희재.
 여러 목소리들이 희재의 머릿속을 헤집는다.

정현(E) 잘못된 거 있으면 이제라도 사과하고 해결해.
 세연(E) 괜히 나섰다가 눈총받으면 아파트에서 하영이만 유명해져.
 은주(E) 그쪽은 애 고생시키지 말라고.

희재가 스스로를 닦으며 자기 머리를 쥐어박고 있는데
 희재네 벨소리가 울리고 문 두드리는 소리 들린다.

#62. 희재의 아파트 앞(아침)

희재가 문을 열면 주민 남이 잡아채듯 문을 더 벌컥 연다.
 그 옆으로 여자들 세 명 더 서 있다. 그중 세연도 있다.
 세연, 여기까지 따라오는 건 내키지 않았는지 맨 뒤에 숨듯이 서 있다.

희재 누구세요?
 주민 남 (불쑥 안을 들여다보며) 잔치라도 하나 좀 봅시다.
 희재 왜 남의 집을 마음대로 보세요?
 주민 남 남의 아파트 멋대로 들어와서 살고 풍비박산을 내는 건 괜찮고?
 희재 멋대로 들어오다니요.
 주민 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데 들어와 살면 국으로 가만있거나 해야지.
 희재 (하영이 들을까 문 닫으며) 작작들 좀 하세요. 엄연히 자격 갖추고

절차 밟아서 돈 내고 살아요. 당신 집 세 들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주민 남 그래서 아파트 쑥대밭 만들자고 또 제보했수? 저번 기사도 이 집 양반이 낸 거라면서?
 주민 녀 지금 아침부터 뉴스텐 기자가 왔다 갔어! 차별 아파트네 어찌네 기사 날 때마다 평판이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 알아?
 주민 남 집값 떨어지라고 고사 지내? 남 잘되는 건 못 보겠지?
 희재 (정색) 저는 제보한 적 없어요. 저번에도 이번에도.
 세연 듣도 보도 못한 데서 기자 노릇 하던 양반이 이번에 뉴스텐 갔다며! 뭘 수로 갔겠어.
 희재 (손 내저으며 밀어내는 시늉) 제가 왜 해명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가세요. 제발 가세요.
 주민 남 (연기하듯) 어머머 이 여자가 사람 치네!

그때! 화재경보벨이 울린다.
 당황해 제자리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주민 녀 뭐야?
 세연 누가 잘못 건드렸나 보지. 갑자기 불이 왜 나요.
 방송(E) 203동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층 이하 주민들은 1층으로, 4층 이상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은 옥상으로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정전과 가스노출의 위험이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들은 절대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하시고 반드시 계단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희재의 집을 찾았던 사람들 냅다 돌아서 뛰기 시작한다.
 희재는 방으로 뛰어 들어가 자고 있는 하영이를 얼른 챙겨 안는다.

#63. 메종 더 프리미어/계단(아침)

대피 방송이 반복되고 집마다 문을 열고 뛰어나오는 사람들이 보인다.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오르는 사람들의 모습.
희재, 하영을 안은 채로 힘겹게 계단을 뛰어서 올라가는 중이다.

세연 (찢어질 듯한 고성) 이게 뭐야! 막혔잖아!
막힌 문 앞까지 도착한 사람들이 문을 발로 차고 몸으로 밀고 난리다.

주민 남 (탄식) 하! 여기 9층 넘어가는 계단이잖아!
주민 녀 9층이 왜요? 문 교수가 임대가 계단으로 멋대로 넘어 다니면 사고 난다고 여기 막아뒀잖아요.

세연 (노려보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나 하고 있어요?
주민1 아래층 사는 사람들은 불나면 죽어도 된단 거야?
(세연 먹살 잡으려 달려드는)

세연 (뿌리치며) 나한테 기운 쓰지 말고 저 문이나 밀어요!
주민1 (세연에게 밀리고, 계단 헛디딤 떨어지듯 구르는) 저 여자가 미쳤나?
희재 (하영 잠깐 내려놓고 주민1 잡아주면서) 무슨 짓입니까?

세연 (문 발로 차며 신경질적인) 이때다 싶어서 나한테 성질 피우지 말라고 이거나 와서 도우라고!

주민 남 (세연 옆에 가서 문 부술 듯이 차면서) 교수씨이나 돼서는 사람들은 섞이면 안 된다고 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주민2 (옆에서 도우며) 썩을 것들! 다 똑같은 썩을 것들!!!

세연 밀어요, 얼른!

방송(E) 방금 올린 화재경보는 3층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한 것으로 확인하였사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 대부분 못 들어 계속 우왕좌왕한다.

희재 (목청 높여) 불 안 났다고!!!

그제야 사람들 행동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

한숨 돌리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면서도 어색한 정적에 휩싸이는 사람들.
세연과 주민 남이 눈 마주쳤다가 서로 무안해서 고개를 돌려버린다.
적막이 흐르는 가운데 하영의 목소리에 사람들 집중한다.

하영 (천진난만한) 엄마, 저 문은 왜 잠겨 있었어?

희재가 어떤 말을 할지 숨죽이면서도 시선은 피하며 떳떳 부리는 사람들.

희재 (얼른 수습하려고) 누가 실수로 잠가뒀나? 별일 아니니까 얼른 집에 가자. (내려가려는데)

하영 (역시 천진난만한) 임대층은 못 지나가게 하려고?

희재 (서늘해지는데) 뭐?

하영 아정이가 그러던데? 임대층은 못 여는 문, 못 들어가는 문 많으니까 까불지 말라고?

세연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아닌 척하며 계단 내려가려는)

희재 (눈물이 핑 돌고, 말문이 막혀서는)

FLASH BACK #57 아정이 그린 그림 '임대층 강하영'

희재 (단호한 표정, 사람들 들으라는 듯) 사실 실수로 잠긴 게 아니야.

하영 누가 그랬는데? 그럼 어떡해?

희재 (세연 가리키며) 별레 같은 사람들이 그랬어. 근데 괜찮아. (결연) 이제부터 엄마가 열어줄게.

세연 (손가락으로 자기 가리키며)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별레? 임대인 거 숨기려고 별의별 애를 다 쓴 게 좀 더 버리지 같지 않아? 자식한테 당신이 한 짓도 다 말할 수 있어?

희재 (무시하는 눈빛) 난 적어도 쪽팔린 줄은 안다.

세연 (기막힌) 뭐?

희재 (세연 옆 지나가면서) 자식 보기 부끄러운 게 날까, 널까?

희재의 단단한 표정 길게 보인다.

#64. 메종 더 프리미어/산책로(낮)

산책로에 서서 기자가 리포트하고 있다. 리포트마다 기자 의상 바뀐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임대 가구 인근 계단만 상층으로의 진입을 폐쇄해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시간 경과.

기자 서 모 씨가 아파트관리소와 입주자대표회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자에 따르면 관리소와 대표회 측은 자금 유용을 목적으로 임대로 할당된 가구의 내외장재를 누락하거나 대체품으로 사용해 부실 공사를 한 의혹으로... 특히, 이곳 대표자는 소셜믹스 정책 옹호자로 유명한 공인대 문 모 교수인 게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간 경과.

기자 임대거주자의 주택 부대시설 접근을 제한하는 내규에 대한 시정명령이 일제히 내려졌습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마다 거주 형태에 따른 접근 차별이 문제가 된 데에 따라...

#65. 메종 더 프리미어/외경(아침)

#66. 메종 더 프리미어/산책로(낮)

아파트 건물 앞에 이삿짐 트럭이 세워져 있고, 사다리차가 움직이며 이삿짐을 내리고 있다. 회재와 하영이 그 옆을 지나는데, 떨어져 서 있던 정현이 뛰어온다.

정현 회재야! 같은 아파트 사니까 바로 만나네.
회재 (놀라운 가운데 빈말) 반갑다. 근데 같은 아파트라니?
정현 (사다리차 가리키며) 오늘 이사 들어와!
회재 어, 그렇구나.
정현 별로 안 반가운 모양이네. (무안하게 웃는) 우리 자주자주 보자. 로컬들만 아는 맛집도 좀 풀어주고.
회재 외식 잘 안 해서 그런 거에 밝질 않아.
정현 (않는 소리) 나도 집 장만한다고 대출 풀로 당겼더니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 해. 너도 그렇구나?
회재 난 딱히...
정현 (위아래 훑으며) 대출도 없어? 방과후 한다더니 완전 취미로 다니는구나. 남편 뭐 한댓지?
회재 (담담) 주택대출이야 없지. 난 임대로 사는 거라서.
정현 (뜨악) 뭐?

회재, 정현의 반응 오히려 즐기는 표정.

#67. 메종 더 프리미어/수영장 앞(낮)

은주와 준희가 수영장에서 손을 잡고 걸어 나오고 있다. 수영장 쪽으로 걸어오던 회재, 하영이 이들과 마주친다.

회재 (반가운) 오늘도 수영장이예요?
은주 준희가 워낙 좋아하니까.
회재 (놀리듯) 거기 수영장 대단한 것도 없다면서요. 물 무섭다면서요.
은주 (무안한 듯 웃는) 물이 무서운가요, 사람이 무섭지.
회재 (열게 웃으며) 그래도 진작 한판 붙을 걸 그랬죠?
은주 상대를 제대로 해줘야 붙은 거죠. 지금은 겨우 열심히 꿈틀한 정도?

수영장 입구에서 영석이 나와 손 흔든다.

영석 (큰 목소리로) 물안경만 챙겨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와!
희재 간다, 가!

희재와 은주, 눈빛으로 인사를 주고받고 스쳐 지나간다.

#68. 메종 더 프리미어/수영장(낮)

혼자 수영하는 사람, 서로 잡아주며 수영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

희재, 영석, 하영이 물장난을 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

선베드에 모여 앉아 쉬고 있는 셋의 모습 이어진다.

한 남자아이가 그 앞을 지나면서 수영가방을 떨어뜨린다.

하영이 다가가 물건 줍는 걸 도와주는데, 파란색 수영장 입장 카드다.

‘커뮤니티 센터 입주자 카드 1103호’

하영 그 자리에서 카드를 들어 보이고 엄마에게 돌아서서 묻는다.

하영 엄마! 이걸 왜 파랑이야? 우리 건 노랑인데.

희재, 자신이 가진 노란색 카드 내려다본다.

‘커뮤니티 센터 입주자 카드 701호’

희재, 씩씩함과 허탈함 가운데쯤 있는 표정.

#69. 메종 더 프리미어/엘리베이터(낮)

문이 열리면 아정이 몸을 웅크린 채로 타고 있다.

아정 (기빠서) 또 잡았다!

하영이 지겹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엘리베이터를 탄다.

아정 (까블며) 임대층! 우리 엄마가 돈 내서 만든 수영장 쓰니까 좋아?

하영 (개의치 않는) ...

아정 (오히려 답답해서) 너 임대층이라니까? 너희 집 가난하대!

하영 (한숨 쉬며 돌아보며) 너나 나나 양친 계시고 삼시세끼 먹으면서 학교 다니지! 가난이 뭔지 알기나 하니?

아정 양친이 뭔데!

하영 (타이트) 심심하면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하고 같이 놀자고 해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하영이가 뛰어나간다.

#70. 메종 더 프리미어/산책로(낮)

하영이 아파트에서 뛰어나오면 한 무리의 아이들이 반기며 같이 뛰어논다.

아정, 하영을 따라 쫓아 나왔다.

아정 (헉헉 하영을 따라 뛰며) 야! 임대층! 같이 가자고!

아정, 하영이를 죽어라 쫓아다닌다.

산책로를 쫓 따라 어디론가 다 같이 해맑게 뛰어가는 아이들의 모습.

끝.

작가 후기

처음 완성해본 대본을 작품집에 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다니!

대단한 영광이자, 영원한 고통입니다.

하루 중 내 정신이 가장 맑을 때,

나보다 더 정신이 또렷한 사람들 앞에서,

눈물 자국이 난 일기와 새벽에 쓴 편지와 석사논문을 낭독해야 하는 기분입니다.

언제가 되면 부끄럽지 않은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그런 날은 오지 않겠지요.

그래도 부끄러울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거듭해 갖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계속 생각하고 써볼 생각입니다.

누구보다 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오픈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4시간 언제나 드라마 토크가 가능한 나의 존경스러운 글 친구들 항상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 두 명의 동거남들(30대 회사원, 4세 어린이집 원생)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기획의도

1988년, 신경림 시인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랑을 반문했다.
2021년,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지만 시의 정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를 리 없지만
가난하기에 결혼도 출산도 꿈꿀 수 없는 작금의 청춘들.
가난한 청춘의 비극을 디스토피아적 상상을 통해 확장해봤다.
시적 메타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난하기에 사랑이란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없는 근미래(2031년)의 어느 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랫동안 품어온 짝사랑을 고백하려는 한 청춘의 고군분투...
흠수저라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지방 인문대 출신 잉여라고 해서 사랑을 몰라야만 하는가?
88만 원 세대를 거쳐 강제진화를 마친 신인류 77만 원 세대.
이 이야기는 사랑이 죄송한 신인류에게 건네는 작은 위안이자 응원이다.

등장인물

강하늘(30대, 남) 마트 대리, 레벨7

인문대 잉여 출신. 학자금 대출 덕에 사회생활을 빚잔치로 시작했고, 적성, 미래, 워라벨 같은 단어는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꾸역꾸역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흠수저 인생 코스를 따박따박 밟으며 살아온 셈. 가난해서 사랑이 죄송하고, 가난해서 효도가 죄송하고, 가난해서 존재가 죄송한 이 남자 앞에 십 년 전 짝사랑이 나타났다. 남자 십 년 전엔 용기가 없어 하지 못했던 고백을 언어가 없는 세상에서 해내기로 결심한다.

고연희(30대, 여) 하늘의 첫사랑, 레벨1

십 년 전 예고도 없이 유학을 떠나더니 갑작스럽게 다시 나타났다.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그녀. 그녀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찬영

- 2009 · KBS 단막 <전설의 고향—가면귀> 대본 집필
- 2009 · EBS 애니메이션 <따개비 루> 극본 진행
- 2014 · 영화 <한 번도 안 해본 여자> 시나리오 집필
- 2017 · 영화 <반드시 잡는다> 시나리오 집필
- 2018 · 소설 <피터 래빗 죽이기> 집필

강버들(20대, 남) 하늘의 동생, 언어자유연맹의 행동대장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무균실 생활을 오래한 덕에 바벨 신드롬에 감염되지 않았다. 일명 신의 아들. 뜻있는 소수가 움직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믿는 열혈 청년.

김복자(50대, 여) 하늘과 버들의 어머니, 레벨9

미용실을 운영하며 홀로 형제들을 키웠다. 가난의 대물림이 미안한 보통의 어머니.

공선우(40대, 남) 시인, 레벨1

세상사 관심 없이 시만 쓰는 거 같지만, 알고 보면 언어자유연맹(반정부 지하 단체)의 숨은 수뇌.

덩치(20대, 남) 버들의 수하, 레벨8

동네 분식점 아들이자 언어자유연맹의 충성도 높은 신입 조직원. 버들을 친형처럼 따른다.

지울(20대, 여) 부잣집 딸, 레벨1

선천적 병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불운의 금수저 아가씨. 연희의 둘도 없는 벗.

그 외

노교수, 송씨 아줌마, 민희, 장 여사, 집사, 가정부, 세종28 대리점 남녀 직원 등

줄거리

인문대 잉여인 것도 죄송한데 시인이라니요?

2021년 어느 봄.

주당 60시간 알바 릴레이를 하고 파티 한 장으로 버티는 공상에도 영화 티켓과 팝콘 콤보 값이 사치라 연애는 꿈도 못 꾸는 대학생 하늘. 어느 날 문학 강의에서 시의 재능을 인정받는다.

“반지하 사랑 노래? 자네 시를 보니 신경림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가 떠오르는군.”

시인 되면 밥은 먹고 사나며 비웃는 친구들.

‘자본이 진리요, 선이요, 궁극의 가치인 세상에 시인의 자질을 인정받은 건 분명한 모욕이요, 수치다. 그것도 연희가 보고 있는데 하필...’

고연희, 벌써 삼 년째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주변만 맴돌고 있는 눈웃음이 예쁜 아이. 교수가 시를 낭독하자 하늘은 수치심에 강의실을 뛰쳐나간다. 연희에 대한 연정으로 얼룩진 적나라한 마음의 속옷 같은 시를 연희에게 보여주게 되다니... 하늘의 마음을 알 리 없는 연희는 굳이 쓰레기통에 버린 시를 찾아 하늘의 손에 쥐여준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 오늘 유학 가.”

갑작스러운 유학 선언에 구백구십구 일 동안 아흔아홉 번이나 입 밖에 내뱉으려 했지만 차마 용기 내지 못하고 마음속에 묵혀뒀던 말을 꿀꺽 삼킨다.

‘너를 사랑해.’

바벨 신드롬(Babel syndrome)

2031년 어느 봄날.

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지하에 살고, 여전히 솔로인 삼십 대의 하늘이 어머니 복자의 호들갑에 눈을 뜬다. “하늘아, 큰일 났어. 앞집!!”

앞집 여자가 마스크와 방역복으로 무장한 보건당국의 감염관리 요원들에게 끌려간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반갑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끌려가며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여자. 여자의 손목에 낀

웨어러블(wearable) 스마트 기기엔 X표시(등급판정불가)가 경고하듯 점멸한다.
 “고객 상담원을 하다 파산? 쫓쫓.”
 여자는 감금지구로 끌려가고 복자는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른다.
 “이를 어째... ..해서. (이를 어째? 불쌍해서)”
 복자는 불쌍하다는 그 간단한 말을 온전히 입 밖에 내놓지 못하고 더듬더듬
 말끝을 흐린다. 복자의 웨어러블 기기에서 빛나는 숫자는 9. 앞집 여자는
 파산했다는 이유로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고, 복자는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말을 더듬는다. 도대체 십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연희가 유학을 가고 몇 달 후, 전국에 대규모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매년
 연중행사처럼 유행하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경각심을 잃기도 했지만 치맥이란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유혹인 법! 그땐 몰랐다. 그것이 단순한 조류독감의
 아니라 유전자 변형에 의한 치명적 바이러스라는 것을... 바이러스는 인간의
 뇌에 침투해 언어 표현을 담당하는 부분을 마비시켰다. 갑자기 세상이 침묵에
 휩싸였다. 언어가 사라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말만 남겨두고...
 “하나 들어가세요. 싸게 해드릴게.”(장사치)
 “아, 열라 짜증나.”(중2)
 “키 주세요.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대리운전기사)
 습관이란 무서운 것. 바이러스가 침투해 뇌를 하얗게 지워도 평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잔상처럼 혀끝에 남아 좀비처럼 한마디 말만 떠들게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전염병에 ‘바벨 신드롬’이란 이름을 붙였다. 신의 노여움을 사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돼버린 바벨탑 사람들처럼 우리는 치맥을 즐긴 죄로 말을 잃게 된
 것이다. 곧 국가가 대책을 내놓았다. 바이러스를 영원히 사라지게 할 치료제는
 없지만 계속 향체를 공급해줌으로써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발명한 것. 사람들은 일제히 동사무소에 몰려가 향체 제공 기기(향체를 자가
 생성해 신경을 통해 침투시키는 장치)를 배급받는다. 기기의 이름은 ‘세종28’.
 나라 말씨가 중국말과 달라 불편해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널리 한글을
 만들어 배포한 세종대왕님의 뜻을 기려 세종28이라 명명했지만 이 기기는
 안타깝게도 훈민정음처럼 무상제공되진 않는다. 비싼 기기 대여료와 향체
 사용료를 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사용료를 내느냐에 따라 레벨1에서 레벨10까지
 약효가 다른 향체를 지급받았다. 레벨9인 복자는 기초 생활 언어 1000단어밖에
 쓸 수 없다. 단순 노동자들이 일하기에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1000개의

단어 패키지. 그 속에 누굴 연민하거나, 사랑하거나, 증오하는 감정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개미처럼 일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이 있을 뿐. 그야말로
 가난하면 감정조차 가질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레벨7 마트 직원 강하늘, 언어가 사라진 세상에 고백을 결심하다!!

세종28의 사용료를 연체하지 않기 위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던 잔잔한
 일상에 파문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발생한다. 반정부 지하 단체, 언어자유연맹의
 행동대장인 동생 버들이 수배를 피해 집에 숨어 들어온 것도 심란한데
 갑작스러운 연희의 연락까지 받게 된 것. 십 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덤덤한 연희의
 문자.

‘나 잠깐 귀국해. 우리 만나자.’

아무 감정도 찾아볼 수 없는 담백한 두 문장이 하늘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놓는다.
 허나 그녀는 금수저, 나는 흙수저. 이제 와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문자를 무시하려는데 하늘을 도발하는 버들.

“흙수저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마트 대리밖에 못 하는데 금수저 새끼들은
 외국어, 고대어, 신조어에 외계어까지 말할 수 있어. 개천에서 용 난다? 공부하면
 인생 역전할 수 있다? 그거 이제 다 헛소리라고!!”

“향체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든다잖아.”

“그 말을 믿어? 이걸 가진 놈들의 농간이야! 빌어먹을 바벨 신드롬이
 위정자들에게 비민주적 통치수단을 제공한 거라고!”

버들이 몸담고 있는 반정부 단체, 언어자유연맹이 내세우는 음모이론은 정부가
 언어를 일부러 차등지급함으로써 국고를 채우고 국민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그
 옛날 천것들이 글을 알고 무지를 깨우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대부들이 언문을
 금지했던 것처럼...

“감정 언어는 고차원적 영역이라 비싼 향체를 써야 한다면서... 레벨10도 쓸 수
 있는 그 감정 언어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렇다. 레벨10도 말할 수 있는 감정 언어가 있다. 레벨9 이하 감정 언어를 전혀
 구사할 수 없는 계층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감정. 죄. 송. 함.

“죄송합니다. 고객님.”

하루 종일 진상 고객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던 하늘은
 갑자기 무슨 오기가 발동했는지 레벨3의 기기를 대여하고 연희와 약속을 잡는다.

‘가난해서 사랑이 죄송하고, 가난해서 불효가 죄송하고, 가난해서 존재 자체가 죄송하다. 하지만 가난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죄송하지 않기로 했다.’ 십 년 동안 모은 적금을 탈탈 털어 고작 이틀 동안 레벨3이 되는 호사를 누리기로 한 이유는 레벨3부터 쓸 수 있는 155번 단어 ‘사랑해’ 때문이다. 언어를 무상으로 마구 쓸 수 있었던 십 년 전에도 하지 못했던 고백을 돈이 없으면 말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려는 것! 이틀이 지나기 전에 3등급을 해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X등급이 되어 감금지구로 끌려가야 한다. 순조로울 줄 알았던 고백은 이해할 수 없는 연희의 기행으로 꼬여만 가고, 째깍째깍 시간은 흘러가는데... 과연 하늘은 고백에 성공할 수 있을까?

바벨 신드롬 이찬영

#1. 회상. 대학 강의실(낮)

자막 — 2021년 어느 봄날

창밖으로 푸른 캠퍼스 풍경이 보이는 강의실.

반백의 노교수가 분필로 판서하는 소리만 똑각똑각 들려오는 가운데
등성등성 성기게 앉은 학생들 더러는 졸고, 더러는 핸드폰 삼매경.

나른하고 지루한 강의실 풍경 한가운데 앉은 하늘(20대)

비껴 들어온 햇살 사이로 유영하는 먼지 입자를 헤아리고 있다.

하늘이 입은 후줄근한 과티 어찌나 오래 입었는지 ‘사회학과’라는 프린팅이
배까지 늘어졌다. 노교수 칠판에 ‘시(詩)의 마음’이라고 쓴다.

고루해 보이는 궁서체.

- 노교수 오늘은 시의 마음 즉, 시심(詩心)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 학생1 에이, 교수님. 시 같은 거 배워서 뭐해요.
- 학생2 맞아요! 학점만 매우면 되지, 대충 해요.
우리가 뭐 시인 될 것도 아니고...
- 노교수 시란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언어는 만인에게 무상으로, 평등하게 주어지죠.
고연봉 유망직종엔 들지 못하겠지만 영원한 직업이긴 할 겁니다.
언어가 존재하는 한 시도 존재할 테니까요.
- 학생1 엄청난 경쟁 뚫고 등단해서 책 내봐야 인세가 고작 300이래요.
베스트셀러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고난이도고...
밥벌이도 못 하는 게 어떻게 직업입니까?
- 노교수 시 쓰기에 대한 궁극의 대가는 창작의 기쁨이죠.
그런 기쁨만으로도 충분한 바보들이 시인이란 사람들이고...
여러분 중에도 시인의 자질이 엿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야? 그 불운한 새끼가.” 학생들 수군수군.

하늘(NAR) 대학 시절, 학점을 채우기 위해 들었던 교양수업에서 나는 평생 잊지 못할 모욕을 당했다.

노교수 (리포트 뒤적이다) 사회학과 강하늘? 어딴지?

하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손을 든다)

노교수 (미소) ‘반지하 사랑 노래’라.

자네 시를 읽으니 신경림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가 떠오르는군.

“우와!” 교수의 진지함이 무색하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야유와 키득거림.

노교수 (낭독) 반지하 사랑 노래

차라리 지하라면 어둠이 세상인 줄 알았을 텐데...

반지하 좁은 창으로 덜컹, 설레는 빛 하나 품어버렸다.

늦은 밤까지 파마 루프를 마는 엄마 손에 물집으로 자리 잡은 나는,

죄 많은 인문대 잉여. 주 60시간 알바 릴레이와 파티 하나로 버티는

궁상에도 영화 티켓과 팝콘 콤보 값이 버겁다.

하늘(NAR) 자본이 진리요, 선이요, 궁극의 가치인 세상에

시인의 자질을 인정받은 건 분명한 모욕이요, 수치다.

그것도 연희가 보고 있는데 하필...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인 하늘 흘깃 오른쪽을 결눈질한다.

생글생글 눈웃음이 예쁜 연희(20대) 노교수의 낭독을 경청하며 미소 짓는다.

그 미소 하늘에겐 비웃음으로 보일 뿐....

하늘 벌떡 일어나 낭독 중인 리포트를 낚아챈다.

하늘 (따지듯) 이딴 낙서가 어디가 어떻게 좋다는 겁니까?

노교수 (당황) 글썄, 진심이 담겼다고 할까?

하늘 리포트를 쓰레기통에 던져 놓더니 강의실 밖으로 나간다.

연희 쓰레기통에서 리포트를 찾아 뒤를 따른다.

#2. 회상. 대학 캠퍼스(낮)

하늘 벌개진 얼굴로 화난 걸음을 옮기는데 들려오는 연희의 목소리.

연희(E) 하늘아! 야, 강하늘!

돌아보면 연희 하늘의 리포트를 들고 해맑게 웃으며 달려온다.

하늘(NAR) 연희가 들고 있는 것은 낙서 같은 시가 적힌 대학 노트가 아니라 결코

남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은밀한 무엇 같았다.

연희에 대한 연정으로 얼룩진 적나라한 내 마음의 속옷.

INSERT

하늘의 상상. 후줄근한 남성용 팬티를 흔들며 해맑게 달려오는 연희.

연희 (헉헉, 리포트를 건네는) 하늘아, 이거.

하늘 (받으며) 이딴 걸 왜 가져왔어?

(괜히 툴툴) 나중에 동아리 방에서 보자.

연희 나 지금 아니면 너 못 볼 거 같아.

하늘 ?

연희 저기... 나 유학 가. 오늘 저녁 비행기.

하늘 !!

연희 갑작스럽지? 그렇게 됐어. 나 약속 못 지킬 거 같아.

하늘 (놀라 더듬) 약속? 무슨 약속?

연희 주말에 보자고 그랬잖아. 할 말 있다고... 근데 할 말이 뭐야?

하늘(NAR) 말해야 한다. 그녀를 처음 만난 그날부터 오늘까지

구백구십구 일 동안 아흔아홉 번이나 입 밖에 내뱉으려 했지만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마음속에 묵혀뒀던 그 말….

하늘 할 말? 그게... 뭐냐 하면...

연희 치, 뭐야? 오늘도 안 할 거야? 맨날 할 말 있다 그래놓고...
싱겁게...

하늘(NAR) 이 바보야, 어서 말해. 사랑한다고!!!

"연희야, 어서 가자." 저 멀리 차를 주차해놓고 기다는 연희 아버지.

연희 가야겠다. 잘 지내! 강하늘!

하늘 (황급히 연희를 잡는다)

연희 (눈이 뚱그려져 본다)

하늘 (입술이 움찔움찔, 성대가 오르락내리락, 뭔가 말하려 안간힘을 쓴다)

연희 ?

하늘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연희 아버지, 연희를 끌고 간다. 멀어지는 연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리포트를 와락 구긴다. 안타까움에 부들부들 떨리는 손.

하늘(NAR) 사랑이 이다지 고가인데 설렘은 무상제공되고
행복이 이다지 희귀한데 욕망이 자가 증식하는 것은
잔혹한 신의 오류. 펜트하우스에 사는 운 좋은 녀석의 품에 안길
그녀를 생각하며 기울이는 잔이 쓰디쓰다.
가슴엔 실연의 열꽃이 피어나고 반지하방엔 곰팡이 꽃이 어여쁘다.

연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하늘의 눈에 가득 찼던 슬픔 한 줄기 떨어져
리포트를 적신다.

하늘(NAR) 그때는 누구나 자유롭게 언어를 쓸 수 있는 때였는데
나는 그녀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병. 신.

(E) 띠리리리 띠리리리, 알람 소리 들린다.

#3. 하늘의 집/반지하(낮)

자막 — 2031년 봄

반지하 쪽창으로 들어온 조각 햇빛이 벽에 핀 곰팡이를 밝게 비춘다.
알람 소리에 뒤척이던 하늘(30대) 손을 뻗어 알람을 끈다. 속옷 바람에도
손목에 차고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손목시계 모양의 기기엔 숫자 7을
나타내는 디지털 불빛이 점멸한다. 마른세수를 하며 잠을 쫓는데 복자 들어와
호들갑을 떠다. 복자 역시 하늘과 같은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를 장착하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복자의 손목엔 숫자 9가 빛나고 있다는 것.

복자 하늘아, 큰일 났어. 앞집!

하늘 ?

#4. 하늘의 집 앞 골목(낮)

복자와 하늘 지상으로 올라온다.

하늘의 집은 일층에 미용실을 끼고 있는 주상복합형 건물.
미용실은 ‘샤이니 미용실’이란 간판명과 어울리지 않게 낡고 오래됐다.
미용실 앞 좁은 골목을 보건관리국의 검거차량이 차지하고 있고
마스크와 방역복으로 중무장한 보건관리국 요원들 앞집 여자를 포박해
연행한다.

요원1 어서 가요. 버티봤자 소용없어.

요원2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감금지구가 더 편할 거요.
최소 먹을 거는 준다니까.

앞집녀 (끌려가지 않으려 버티며) 반갑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반갑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앞집 여자 끌러가는 이 급박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계속 “반갑습니다, 고객님”을 외친다. 마치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것처럼. 끌러가는 여자의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는 X 표시(등급판정불가)가 경고하듯 번쩍인다.

요원1 전화 상담원 하다 파산? 사채는 왜 써가지고... 에휴...

요원2 어서 가. 오늘 신고 건수만 30콜 넘어.

하루 정일 뺑이 쳐도 정시 퇴근 장담 못 한다구.

요원1 감금지구도 미어터지던데... 세상이 어찌되려고 쫓쫓.

보건관리국 차량 좁은 골목을 구불구불 빠져나간다. 한동안 메아리처럼 계속 들리는 앞집 여자의 외침. “반갑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애절한 목소리 탓에 손님 접대용 문장이 ‘살려주세요!’로 들린다.

하늘(NAR) 십 년 전 내게 모욕을 준 문학 교수의 말은 완전히 틀려먹었다. 언어가 무상으로 평등하게 주어지긴 개뿔!!

#5. 몽타주. 바벨 신드롬 설명

- 송곳 하나 들어설 자리도 없이 딱딱딱 붙어 사육되는 열악한 환경의 닭장. 제 분노에 범벅이 된 닭들 거품을 물고 푹푹 쓰러진다.
- 분주하게 튀겨져 배달되는 치킨들.

하늘(NAR) 때는 바야흐로 2021년, 연희가 유학을 가고 몇 달 후 전국에 대규모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매년 연중행사처럼 유행하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경각심을 잃기도 했지만 치맥이란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유혹인 법. 그땐 몰랐다. 그것이 단순한 조류독감이 아니라 유전자 변형에 의한 치명적 바이러스라는 것을...

야식으로 닭을 먹으며 조잘조잘 떠들던 모녀 갑자기 말을 잃는다.

하늘(NAR) 바이러스는 인간의 뇌에 침투해 언어 표현을 담당하는 부분을 마비시켰다. 갑자기 세상이 침묵에 휩싸였다. 언어가 사라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말만 남겨두고...

모녀 갑자기 맥락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한다.

엄마 하나 들어가세요. 싸게 해드릴게.

딸 아, 열라 짜증나.

엄마 하나 들어가세요. 싸게 해드릴게.

딸 아, 열라 짜증나.

하늘(NAR)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다. 바이러스가 침투해 뇌를 하얗게 지워도 평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잔상처럼 혀끝에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좀비처럼 한마디 말만 떠들기 시작했다.

— 뉴스를 전하던 앵커 갑자기 말을 멈춘다. 잠시 멈췄다 한다는 말이...

“젠장, 빌어먹을!! 이놈의 회사를 때려치우든가 해야지!!”

—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쓸라쓸라 술주정을 하던 청년 갑자기 “키주세요. 맥이 어디시죠?”를 반복한다. 뭔가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듯 답답한 표정이다.

하늘(NAR) 질병관리본부는 이 전염병에 ‘바벨 신드롬’이란 이름을 붙였다. 신의 노여움을 사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돼버린 바벨탑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치맥을 즐긴 죄로 말을 잃게 된 것이다. 사회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다.

— 강도가 백을 훔쳐가자 ‘도둑이야’ 대신 “감사합니다”를 외친다.

— 교단에 선 선생님. “자 주목! 자 주목!” 같은 말머리만 무한 반복한다.

—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소. 연구원들 바이러스 항체를 연구하느라 바쁘다.

현미경을 들여다보던 연구원 하나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 “유레카!!”

하늘(NAR) 국가가 대책을 내놓았다. 바이러스를 영원히 사라지게 할 치료제는 없지만 계속 항체를 공급해줌으로써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발명한 것이다.

— 동사무소 앞. '세종28 기기 배부처'라고 쓰인 간이 천막이 설치된다.
사람들 천막 앞에 운집해 무언가를 기다린다. 공무원들이 나타나 사람들의 팔목에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를 장착해준다. 스마트 기기 팔목에 달자 촉수 같은 장치가 뻗어 나와 피부를 파고든다.

INSERT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되는 항체의 모습(CG)

스마트 기기 활성화와 동시에 각각의 번호가 표시된다. 번호는 대부분 7 이상의 높은 숫자. 사람들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열싸안고 기뻐한다.

하늘(NAR) 나라 말씨가 중국말과 달라 불편해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널리 한글을 만들어 배포한 세종대왕님의 뜻을 기려 이 영특한 기기는 '세종28'이라 불렀다. 하지만 녀석은 훈민정음처럼 무상제공이 아니었다.

— 강남 고급주택가. 공무원들이 일일이 집을 방문하며 세종28을 배포한다. 부자들의 손에 장착되자 1, 2, 3의 낮은 숫자를 드러내는 스마트 기기.

하늘(NAR) 우리는 매일 기기가 제공하는 일정량의 항체를 제공받기 위해 사용료를 지불했고, 얼마의 대가를 치르느냐에 따라 레벨1에서 레벨10까지 약효가 다른 항체가 주어졌다.

#6. 하늘의 집/부엌(낮)

복자(밥상을 차리며) 이를 어째... ..해서.

하늘 불쌍하다구?
복자 (끄덕) 우린 그나마 ...이야. ...해야 돼. 그치?
하늘 우린 그나마 다행이라고? 감사해야 한다고??
복자 (끄덕)

하늘(NAR) 총 10단계 중 레벨9인 어머니는 기초 생활 언어 1000단어밖에 쓸 수가 없다. 단순 노동자들이 일하기에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1000개의 단어 패키지. 그 속에 누굴 연민하거나, 사랑하거나, 증오하는 감정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개미처럼 일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이 있을 뿐. 그야말로 가난하면 감정조차 가질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나도 이 모든 상황이 농담이었으면 좋겠다.

하늘 한숨을 쉬며 TV를 켜다.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X자가 적힌 수많은 바벨 신드롬 환자 무리들이 행인을 협박해 돈을 뺏는 영상 위로...

앵커(F) 감금지구를 탈출한 바벨 신드롬 환자들의 마구잡이 강도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늦은 밤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한 외출 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팡!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복자와 하늘 놀라 서로를 본다.
혹시 우리 집에?
하늘 빗자루를 들고 미용실로 올라간다.

#7. 하늘의 집/일층 미용실(낮)

불을 켜자 금고를 열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 남자가 시야에 들어온다. 언제 자른 지 알 수 없는 더벅머리에 뺨에 전 옷매무새가 영락없이 TV에 나왔던 바이러스 환자와 같은 행색. 손목이 소매에 가려져 정확한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

하늘 당신 뭐야?!! 그거 내려놓지 못해!!

하늘 빗자루로 남자를 내리치려는데, 복자 황급히 다가와 놈을 보호한다.

하늘 뭐하는 거예요? 엄마!

복자 버들이, 우리 버들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던 남자 고개를 든다. 행색과 달리 귀여운 인상의 이십 대(버들). 복자가 남자의 소매를 걸어 하늘 앞에 들이미는데 그 손목엔 기기가 없다.

버들 안녕? 형! 안녕? 엄마!

복자 (우쭈쭈) 우리 버들이... 밥은 먹었어?

버들 (응석) 아니, 나 배고파. 밥 줘.

하늘 (마구 휘두르며) 이 새끼가! 밥? 밥 달란 소리가 나와? 도대체 얼마 만에 집에 들어오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버들이 도망가고, 하늘이 쫓고, 복자가 말리는 한바탕 난장.

하늘 너 거기 서!! 안 서?

버들 에이, 형제끼리 왜 이래?

하늘 형제? 내가 왜 니 형이나?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거든!

버들 말없이 집 나갔다고 호형호제도 못 하는 거야?

하늘이 버들의 멱살을 잡아 올리는데 들려오는 문자 수신음.

하늘 한 손으로 버들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본다.

‘하늘아, 나 잠깐 귀국했어. 우리 만나자. 연희.’ 갑자기 하늘의 손에서 힘이 쭉 빠진다. 하늘에게서 풀려난 버들 복자 뒤에 숨더니, 메롱!

#8. 하늘의 집/부엌(낮)

얼굴에 멍이 든 버들이를 못마땅한 듯 노려보는 하늘. 형제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기류와 달리 기분 좋은 복자는 밥상 위에 이것저것 반찬을 내놓느라 분주하다.

버들 우와, 불고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표 불고기다!!

하늘 뭐 이쁜 놈 왔다고 불고기까지 꺼내요?

복자 (웃으며 하늘의 어깨 토닥토닥)

하늘 어디서 뭐 짓거리를 하고 다녔길래... 꼴이 그 모양이나?

버들 (탄청) 오래간만에 음악 들을까? 우리 김복자 여사, 음악 좋아하잖아.

복자 (웃으며 끄덕)

버들이 장식장에서 턴테이블을 꺼내오더니 먼지를 털고 LP판을 올려놓는다.

하늘 버들아, 살살!!

버들 알아. 아버지 유품인 거.

턴테이블에서 아날로그적인 음색이 흘러나온다.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 복자. 레벨9로선 말할 수 없는 가사가 많은지 들성들성 따라 부르다 아예 허밍으로 전환한다. 형제 박수를 치며 추임새를 넣는다. 말이 없어도 행복한 한때.

#9. 동네 슈퍼 앞(낮)

평상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는 형제.

하늘 이번엔 얼마나 있을 거냐?

버들 모르겠어.

하늘 수배 명단 맨 위에 올랐더라.

버들 이 몸이 인기가 좀 많아야지.

하늘 지금이라도 관둬. 니가 하는 짓.
 버들 짓이라니. 위대한 혁명을!
 하늘 니들 입장에서나 혁명이지. 국가에서 보면 그냥 범죄야!
 버들 (진지) 형은 이렇게 사는 게 좋아??
 하늘 좋아서 사니? 못 죽으니까 살지.
 버들 (슈퍼 앞에 진열된 감자를 들고) 이게 뭐야? 말해봐.
 하늘 감자.
 버들 감자. 그리고 또?
 하늘 감자가 감자지...
 버들 감자, 제주도 말로 지슬, 영어로 포테이토, 일본어로 자가이모, 중국어로 투도우, 프랑스 말로 폼드텔... 해봐!! 형도 외국어 공부 많이 했잖아.
 하늘 이 자식이!
 버들 못하지? 머리로는 다 아는데... 레벨7은 감자만 말할 수 있으니까. 흙수저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감자밖에 말 못 하는데 금수저 새끼들은 외국어, 고대어, 신조어에 외계어까지 말할 수 있어. 개천에서 용 난다? 공부하면 인생역전할 수 있다? 이제 다 헛소리라고!!
 하늘 항체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든다잖아.
 버들 그 말을 믿어? 그건 가진 놈들의 농간이야! 빌어먹을 바벨 신드롬이 위정자들에게 비민주적 통치수단을 제공한 거라고!!
 하늘(NAR) 버들이가 몸담고 있는 반정부 단체, ‘언어자유연맹’이 내세우는 음모이론은 정부가 언어를 차등지급함으로써 국민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그 옛날 천것들이 무지를 깨우치는 것이 두려워 언문을 금지했던 사대부들처럼...
 하늘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니들이 찌라시 뿌리고, 감금지구 앞에서 시위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버들 그럼 가만있나?
 하늘 내가 너라면! 너처럼 신의 아들이라면!!

엄마 저렇게 고생하게 안 됨.

INSERT

병원 무균실에 누워 있는 십 대의 버들.
 간호사 들어와 버들의 팔뚝에 주사를 놓는다.

하늘(NAR) 어려서부터 면역력이 유독 약했던 버들이는 바벨 신드롬이 퍼질 당시 무균실에 격리돼 있었다. 항생제와 소염제가 피 대신 흐르는 버들의 몸엔 바이러스 따위가 발붙일 곳이 없었나 보다. 애초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않은 깨끗한 뇌의 소유자. 사람들은 버들이 같은 행운아를 신의 아들이라 부른다.

버들 신의 아들이니까 외국어 공부하고 스펙 쌓아서 취직이나 하라고?
 그게 저놈들이 원하는 거야! 군말 없이 지들의 개가 되는 거!!

하늘 (먹살을 잡고) 이 자식이 끝까지!

버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하늘 앞에 내민다.

하늘의 눈에 들어오는 문자.

'하늘아, 나 잠깐 귀국했어. 우리 만나자. 연희.'

하늘 내 폰을 니가 왜?

버들 이 여자 형이 좋아했던 수화 동아리 그 여자지? 십 년 전엔 스틱 없는 얼뜨기라 고백도 못 했다 치자. 이젠? 이젠 말할 수 있나?

하늘 (먹살을 툭 놓는다)

버들 하고 싶어도 못하지? 용기가 뺏치고 심장이 아무리 뛰어도!
 못하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사! 랑! 해!! 라고.

버들의 도발에 육한 하늘 입을 한껏 모아 '사' 모양을 만들고 힘을 주지만 목에서 나오는 건 쇠에쇄에, 바람 빠지는 소리뿐.

하늘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선다.

버들 (하늘 뒤통수에) 감정 언어는 고차원적이라 비싼 향체를 써야 한다면서! 레벨10도 쓸 수 있는 그 감정 언어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하늘(NAR) 레벨10도 말할 수 있는 감정 언어가 있다.

송씨(E)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10. 오성마트/매장(낮)

송씨 아줌마(레벨10, 마트 직원, 40대) 섬유 유연제를 들고 있는 진상고객(레벨4)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

송씨 죄송합니다.

고객 아니, 바꿔달라면 바꿔주지. 왜 안 된다는 거야?

송씨 (꾸벅)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 여기 분명히 프레시한 후리지아 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이 영 프레시하지 않잖아!!

하늘(NAR) 레벨9 이하 감정 언어를 전혀 구사할 수 없는 계층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감정. 죄. 송. 함!

송씨 목에 걸고 있던 매뉴얼의 한 페이지를 펼쳐 손님에게 내민다.

고객 (읽는) 구매 후 보름이 지나고, 70프로 이상 사용한 제품은 교환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해야지. 최소 레벨8은 되는 직원은 써야 할 거 아냐. (밀치며) 레벨10이 뭐야? 10이! 답답해서 원.

송씨 바닥에 쓰러지자 민희(8세) 달려와 송씨를 일으킨다.

민희 수화로 송씨에게 묻는다. 자막 — 엄마, 괜찮아?

고객 (호들갑) 어머, 애는 왜 말을 못 해? 감염자 아냐?

송씨 (굽신굽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늘 (불쑥) 민희는 선천적으로 말을 못 합니다.

고객 감염자나 장애인이나.

하늘 (옥) 고객님의, 고객님의 후각에 장애가 있나 봅니다.

고객 ?

하늘 향이 신선하지 않은 걸 제품을 거의 다 쓰시고 나서야 아셨네요.

고객 너 지금 비꼬는 거야? 레벨7 주제에!!

팀장 (달려와 하늘의 뒤통수 탁!) 강 대리, 어디서 말대답이야?

어서 사과하지 못해?!

하늘 (마지못해 꾸벅)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11. 오성마트/직원실(낮)

민희 쭈그리고 앉아 크레파스로 뽕가를 쓰더니 쓴 종이를 자기 가슴에 붙인다. '감염자가 아닙니다. 농아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늘 (화가 나서 빼앗으며) 뭐 하는 거야?

민희 (수화, 자막) 주세요.

하늘 뭐가 죄송한데? 말 못 하는 거?

민희 (수화, 자막)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화를 내니까...

엄마도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저씨도 나 때문에 화났어요?

마침 울리는 문자 수신 알림음. '내일 1시, 늘 만나던 공원에서. 연희'

하늘(NAR) 죄송함 외에 다른 감정 언어를 가질 수 없는 영혼은 점점 더 죄송해진다. 가난해서 사랑이 죄송하고, 가난해서 불효가 죄송하고, 가난해서 존재 자체가 죄송하다.

하늘 주먹을 불끈 쥐더니 벌떡 일어난다.

#12. 세종28 기기 대리점 앞(밤)

하늘 적금 통장을 손에 꼭 쥐고 대리점 앞에 섰다.

하늘(NAR) 죄송함이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어야 한다.
말 못 하는 아이로 태어난 게 민희의 잘못이 아니듯
내 가난도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죄송하지 않기로 했다.

하늘 크게 숨을 쉬더니 대리점으로 들어간다.

#13. 세종28 기기 대리점(밤)

레벨7인 남녀 직원들이 하늘을 맞는다.

여직원 어서 오세요! 고객님. 기기 교환하시려구요? 어떤 등급을 원하시죠?
하늘 (비장하게 손가락 세 개를 들어 보인다)
남직원 3요? 지금 7인데 3? 어디 복권이라도 당첨되셨어요?
하늘 (비장하게 적금 통장을 내놓는다)
남직원 아유, 이러시면 안 돼요. 기기 값이랑 하루 이용료가 얼마데.
여직원 (알겠다는 듯) 해드려.
남직원 ?
여직원 3등급부터 쓸 수 있는 155번째 단어. 몰라??
남직원 ?

여직원 말없이 레벨 별 단어 목록이 적힌 표를 가리킨다.
여직원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 자리한 단어.
'155: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남직원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 돈이면 이를 후부터 신불자 당첨! 인생 좋!!
하늘 하루만 쓰고 해지할 겁니다.
남직원 고객님. 아니 형님, 내가 형 같아서 충고 좀 할게요.
꼭 155번 단어를 말해야 돼요? 그냥 같이 살자. 우리 아기 만들까?
그것도 안 되면 몸의 언어란 게 있잖아! 확 그냥 입술부터...
(여직원 가리키며) 내가 애랑 그렇게 사귀 거거든요.
하늘 (단호) 저는 꼭 155번을 말하고 싶습니다만.
여직원 (레벨3 기기 꺼내온다)
남직원 야, 말려야지. 겨우 그깟 고백 때문에! 저 사람 인생 불쌍하지 않아?
여직원 너한테 그깟 거지만 겨우 그깟 거 말 못 한 게 평생 사무치는 사람들도
있어. 나는 이 무모함 완전 찬성이야!!

여직원 3이란 숫자가 박힌 기기를 하늘의 손목에 채우더니 전원 버튼을
누른다. 기기에서 나온 촉수 같은 장치 피부를 파고든다.

여직원 (기대에 찬) 어때요? 한번 말해보세요. 고급진 단어들.
하늘 음... 감자, 지슬, 포테이토, 자카이모, 투도우, 폼드델.
직원들 !!

#14. 세종28 기기 대리점 앞(밤)

가게를 나오는 하늘의 등 뒤로 직원들의 응원이 쏟아진다.
“난만파 고객님, 파이팅!” “감자 형님, 꼭 성공해야 돼!”
지나가던 여자들 하늘의 손목에 빛나는 숫자를 본다.
무심했던 눈빛 선망의 눈빛으로 바뀐다. “어머, 레벨3이야. 대박!”
하늘 겸연쩍어 손으로 기기를 가린다.

하늘(NAR) 결국 저지르고 말았다. 연희를 만나기 전까지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 다행히 나는 감정을 감추는 일에 능하다.

#15. 하늘의 집(밤)

버들이와 엄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데
하늘 어색하게 입을 꼭 닫고 있다.

복자 맛이 없어??

하늘 (도리도리)

버들 왜 말을 못 해? 월급 깎였어? 등급 강등된 거야?

버들이 하늘의 손목을 보려는데 하늘 버들이를 티 나게 밀쳐낸다.

하늘 아냐!!

버들 (투덜) 아니면 아니지. 치고 그러냐!

CUT TO

복자 설거지를 하고, 버들 장식장 가득 꽂힌 LP들을 쭈욱 살핀다.

칸칸마다 견출지로 가수의 이름을 써 붙여 분류해놓았다.

그중 눈에 띄게 비어 있는 칸. '비틀스'

버들 (혼잣말) 에휴, 그놈의 비틀스.

후두둑, 갑자기 창에 비가 떨어진다.

버들 마침 비님도 오시고... 요게 좋겠다.

버들 이승철 판을 꺼내 턴테이블에 올려놓는다. 흘러나오는 음악은
<비와 당신의 이야기>. 여전히 어색하게 부동자세인 하늘.

노래(E) 아이가 눈이 오길 바라듯이...

하늘(NAR) 위기는 있었지만 자연스러웠다.

긴장이 풀린 하늘 허밍으로 노래를 흥얼거린다. 빗소리와 함께
노래 후렴으로 접어들고 심취한 하늘 자기도 모르게...

하늘 (열창)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복자-버들 !!!

CUT TO

버들 형 미쳤어? 어찌려고 그래? 그 여자 완전 금수저라며! 결혼도 못 할
여자한테 알랑한 고백 한마디 하자고 십 년짜리 적금을 털어?
빨리 가서 물러. 엄마 쓰러지기 전에!

실의에 빠진 듯 주저앉아 있던 복자 조용히 일어나더니 하늘을 안고 온다.

복자 ...한 내 아들. 얼마나 마음이...

하늘 불쌍한 내 아들?

복자 (끄덕)

하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복자 (끄덕)

버들 엄마?!

복자 잘 하고 와. 엄만... 엄만...

하늘 기뻐?

복자 (끄덕이고 웃는다)

엄마가 웃자, 하늘도 웃는다. 어이없어 잠시 멍하던 버들이도 피식 웃음이
난다. 하하하! 모자의 웃음이 담 너머까지 울려 퍼진다.

#16. 몽타주. 데이트 준비

— 하늘보다 들뜬 복자와 버들. 버들이 웃 저 웃 가져와 하늘의 턱 밑에 대보고,

복자 하늘의 머리를 이런 스타일로 만들었다 저런 스타일로 만들었다
심혈을 기울인다.
— 꽃집에 들러 꽃을 구입하는 하늘.
— 쇼윈도에 옷매무새를 비춰보더니 씨익, 어색한 미소 연습하는 하늘.

하늘(NAR) 그녀를 연모해온 구백구십구 일 동안 아흔아홉 번이나 시도했으나
실패한 고백을 그로부터 삼천육백오십 일이 지난 지금 다시 하려
한다. 155번 단어를 위해 내가 지불한 금액은 꼬박 십 년 동안 빠지지
않고 모은 적금. 최대한 빨리 고백을 하고 해지하면 약간의 돈은
회수할 수 있다.

#17. 상상. 공원(낮)

뭐가 급한지 발을 동동 구르던 하늘 약속 장소에 연희가 나타나자 대뜸.

하늘 (속사포) 안녕? 잘 지냈어? 사랑해.
연희 (어이없는 표정)

하늘(NAR) 아무리 급하다고 이럴 순 없지 않은가...

#18. 공원(낮)

상상에 취해 있는 하늘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연희(E) 안녕? 강하늘.

하늘 돌아보면 여전히 눈웃음이 예쁜 연희(30대).

하늘 으응, 안녕.

허세가 담긴 손짓으로 소매를 걷어 숫자 3을 내보인다. 봐라, 나 꽤 성공했지?
연희의 손목에 숫자 1이 반짝인다. 머쓱해져 소매를 내리는 하늘.

연희 어쩐 십 년 전이랑 똑같네. 마침 휴무라서 다행이다.
다른 애들은 야근에 출장에...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일벌레야. 그치?

하늘(NAR) 마침 휴무일 리가. 연희에게 연락을 받고 월차를 냈다.
여름휴가까지 반납하고 조르고 졸라서 받아낸 소중한 이들의 월차.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 위로...

하늘(NAR) 긴 시간을 기다려 큰 대가를 치른 고백의 찬스인 만큼 그 순간만은
완벽해야 한다. 다행히 내겐 심리 서적을 꿰고 있는 동생 버들이가
있다.

#19. 회상. 하늘의 집(낮)

하늘에게 연애 코치를 하는 버들.

버들 잘 들어. 데이트에서 중요한 건 70프로의 익숙함과 30프로의
새로움이야. 70프로의 익숙함에 편안함을 느끼다가 30프로의
새로움에 심장이 쿵쿵쿵!

#20. 고 레벨 전용 레스토랑/입구(낮)

버들(E) 일단 익숙함 먼저. 남들처럼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를 해.

허름한 차림의 남자, 종업원에게 입장을 저지당한다. 종업원 말없이 입구에
적힌 경고문을 가리킨다. '레벨3 이상 입장 가능 업소.' 남자 툭툭거리며

떠난다. 뒤이어 나타나는 하늘과 연희.

종업원 (손목을 가리키며) 손님, 레벨 확인 좀...
 하늘 (잔뜩 경직, 외치는) 레벨3이 맞습니다. 오늘은!!
 종업원 네? 오늘은요??
 하늘 아뇨. 맞다구요. 레벨3.
 연희 (웃으며) 저도 레벨1이 맞아요! 오늘은.
 종업원 하하, 재밌는 분들이시네요.

#21. 고 레벨 전용 레스토랑/홀(낮)

하늘과 연희 스테이크를 썰며 이야기를 나눈다. 서빙하고 설거지하는 직원은 모두 레벨7, 8. 식사를 즐기는 손님은 레벨1, 2, 3. 하늘 위화감에 머쓱하다.

하늘(NAR) 연희는 이런 곳이 익숙한 듯 편안하게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했다. 즐거웠던 유학생생활, 무탈한 가족들의 근황, 새롭게 가지게 된 취미 이야기. 다행이다. 니 인생은 항상 맑음이어서... 작은 구름 한 조각이나 미세한 바람 한 줄기 찾아볼 수 없어서...

연희 나만 떠들었네. 넌 왜 말이 없어?
 하늘 그냥, 다 먹었으면 나갈까?

버들(E) 이제 30프로의 새로움을 선사해야지? 식사 영화 커피 이런 뻘한 루트를 따른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 일단 기차역으로 가.

#22. 기차역/역사 안(낮)

연희 기차는 왜??
 하늘 그냥 갑자기 떠나고 싶어서.

연희 갑자기? 어디?

하늘 눈 감더니 기차역이 적힌 안내판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아무 곳이나 짝는다.

하늘 여기 어때?
 연희 (웃으며) 너 생각보다 재밌는 애였구나. 좋아!

버들(E) 예상할 수 없는 우연에 몸을 맡긴다. 카, 낭만 찢지. 외진 역은 대부분 시골. 공기 좋고, 햇살도 좋고, 한적하고... 분위기는 더더욱 무르익고!!

#23. 어느 기차역 앞(낮)

역사에서 나오는 하늘과 연희. 역 바로 앞에 펼쳐진 사거리의 교통난으로 정차된 차가 빼곡하고, 주변 공사장에서 새까맣게 밀려오는 먼지가 매캐하다. "콜록콜록."

연희 (애써) 좋다. 나름 신선하고... 하하.
 하늘 아무래도 돌아가는 게 좋겠지?
 연희 (끄덕)

#24. 도심의 거리(밤)

하늘과 연희 어색하게 길을 걷는다.

버들(E) 여자를 찾길 안쪽으로 이끄는 척하면서 허리를 꺾어안아. 어쩔 수 없이 얼굴과 얼굴이 가까워지겠지. 그때가 바로 퍼펙트 타이밍!!

하늘 연희의 허리 근처에 손을 두고 안절부절. 마침 오토바이가 급히 지나간다.
놀란 하늘 몸을 피하는데 하필 피한 곳이 연희의 품. 아무튼 가까워진 두 사람.

하늘 저기... 연희야. 내가 실은... 실은 너를...
연희 ?

중요한 순간에 올리는 문자 알림음.

연희 (문자 확인하고 당황) 나 지금 가야 해!!

하늘 지금? 아직 9시도 안 됐는데?

연희 늦으면 엄마가 찾고 난리도 아니거든. 미안.

연희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잡아탄다.

하늘 (외치는) 연희야! 고연희! 나 할 말이 있어. 잠깐만!!

연희 미안해 하늘아, 내일 공항 가기 전에 잠깐 볼래?

하늘 그래 보자. 꼭!!!

연희 떠나고 하늘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 올리는 문자 수신 알림음.

‘레벨3 항체 일일 이용료가 결제되었습니다!’

한숨 폭, 마침 걸려오는 전화. 액정 보면 ‘버들’

버들(F) 어떻게 됐어?

하늘 9시 전에 들어가야 한대.

버들(F) 우와 요즘 세상에 신데렐라 컨셉이라니.

하늘 신데렐라 컨셉?

버들(F) 형 애달게 하려고 수 쓰는 거야.

하늘 연희 그런 애 아냐.

버들(F) 아니긴, 나이가 몇인데 통금시간이 9시? 말이 돼??

하늘 내가 엄마라도 그러겠다.

예쁘고, 착하고, 귀한 딸을 아무 놈이나 막 만나게 놔두겠어?

장 여사(E) 어디 갔니? 예쁘고, 착하고, 귀한 내 딸!!

#25. 부촌 대저택(밤)

딱 봐도 부잣집 안주인임을 알 수 있는 부티 넘치는 인상의

장 여사(50대, 레벨1)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딸을 찾는다.

장 여사의 눈치만 보는 가정부와 집사(레벨5).

가정부 (목소리 낮춰) 문자했어요??

집사 (목소리 낮춰) 했어! 수십 번이나!!

가정부 (목소리 낮춰) 아가씨 부탁 들어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집사 (목소리 낮춰) 사모님이 일찍 귀가하실 줄 알았나.

#26. 부촌 대저택 앞(밤)

급하게 멈춰 서는 택시. 차에서 내린 연희 문자를 보낸다.

‘저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27. 교차. 부촌 대저택 곳곳(밤)

정원을 가로질러 달리는 연희와 너른 집안 곳곳을 딸을 찾아 헤매는

장 여사의 모습 교차. 가정부와 집사,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장 여사 뒤를

쫓래쫓래 따라다닌다.

가정부 (갑자기 생각 난 듯) 맞다. 낮에 김 원장님이 전화하셨어요.

전화 안 해보세요?

장 여사 안부겠지. 급한 용무면 또 연락할 거고...

집사 (다급) 동해 큰 도련님이 횡감 보내셨는데... 신선도 확인해보셔야죠?

장 여사 (빠히) 왜들 이래? 애 또 밖에 내보냈어??
가정부 (손사래) 아,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연희 이층 창까지 가지가 드리운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 막 창문을 열어
들어간 순간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 여사. 연희 재빨리 침대 밑으로 몸을
숨긴다. 침대 위는 누군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있는지 불룩하다.
문밖에서 맘 졸이는 집사와 가정부.

장 여사 딸, 집에 있었네. 왜 대답이 없어? 걱정했잖아.

지울(E) 응...응.

장 여사 애, 좀 일어나봐.

지울(E) 나 졸려.

장 여사 아휴 내 새끼 졸립구나. 알았어. 엄마 갈게.

(나가려다 돌아와 이불 위를 쓰다듬으며) 사랑한다, 우리 딸.

지울(E) 응.

장 여사 매정한 기집애! 아무리 졸려도 그렇지
뽀뽀 쪽까진 아니더라도 나도 사랑해요! 정도는 해야지.

장 여사가 이불을 걷으려는 위기의 순간, 연희 침대 옆에 있는 전동 휠체어를
작동시킨다. 지이잉, 홀로 움직이는 휠체어. 장 여사 놀라서 전동 휠체어를
살피러 가자 연희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간다. 휴, 안도하는 집사와 가정부.
이불 속,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던 지울(20대) 연희를 보자 입 모양으로 '왜
이제 왔어?' 한다. 왜소한 체격과 창백한 얼굴이 아픈 아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서둘러 스마트 기기를 바꾸는 두 사람. 연희 손목에 있던 레벨1의 기기는
지울에게, 지울 손목에 있던 레벨8의 기기는 연희에게. 장 여사 휠체어를 끄고
돌아온다.

지울 (벌떡) 엄마도 참, 귀찮게. (볼에 쪽쪽) 나도 사랑해요. 뻘어?

장 여사 진작 그럴 것이지. 약 먹었지??

지울 응.

장 여사 물리치료사 선생님 말 잘 들었고??

지울 (그만하라는 듯) 응!!

장 여사 간다. 가! 장시간 비행 피곤할 거니까 꼭 쉬어둬.

장 여사 나가자 이불 속에서 연희 나온다. 마주 보고 휴, 한숨을 쉬는 두 사람.
연희 침대 시트 아래 숨겨둔 옷을 찾아 입는다.
앞치마가 달린 무채색의 메이드 복.

지울 언니 첫사랑 만나게 해주려다가 염라대왕 만날 뻔했어.

연희 미안.

지울 어땠어? 여전히 멋있고?

연희 응.

지울 (궁금한 듯 바짝 다가앉으며) 뭐 했어?

연희 밥 먹고, 걷고...

지울 그리고... 또?

연희 또?

지울 왜 이래?? 내가 (기기 가리키며) 이거까지 빌려줬는데...
대리만족 좀 하자.

연희 ?

지울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고? 손? 입술?

연희 (도리)

지울 (어이없는) 진도 안 뻘어? 그럼 하루 종일 뭐 했는데? 바보들!!

버들(E) 바보! 모지리!! 등신, 등신, 상등신!!!

#28. 분식점(밤)

버들과 하늘 떡볶이를 먹는다.

덩치 큰 청년 하나 좁은 테이블 사이를 요리조리 다니며 서빙을 한다.

버들 내가 그렇게 완벽한 시나리오까지 써줬는데, 한마디도 못 했다고!

하늘 (탄소리) 버들아. 연희 더 예뻐졌더라.
 버들 이걸 순애보가 아니라 청승이야. 안 그러냐? 덩치야!
 덩치 (서빙하다 경직된 차렷) 네! 형님.
 하늘 형님? 누구?
 버들 이 집 아들이자 신입 조직원. 그냥 덩치라고 불러.
 덩치 형님 보호가 제 담당입니다. 딴 건 몰라도 주먹은 쓸 만하거든요.
 하늘 (답답) 저기요. 덩치 씨. 부모님 생각도 좀 하세요.
 잡혀가기라도 하면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덩치 에휴. 그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공 선생님 연설을 접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피가 끓어오르고! 세상 확 뒤집고 싶고!!
 하늘 또 그놈의 공 선생. 버들도 그 공 선생인가 뭔가 만나기 전에는
 오락이나 하는 귀여운 녀석이었는데... 그 인간 도대체 누구야?
 덩치 (단호) 안 됩니다. 극비입니다.
 버들 곧 강하늘의 평범한 동생 강버들로 돌아갈 거야.
 형 말대로 취직도 하고... 엄마 빨간 내복도 사 드리고...
 하늘 세상 바뀌기 전엔 탈퇴 안 할 거라며...
 버들 (웃으며) 세상이 바뀔 거거든.
 하늘 ?
 버들 오늘 내가 한 일을 알면 나한테 절이라도 하고 싶을걸.
 하늘 무슨 소리야??
 버들 궁금하겠지만 기다려. 곧 알게 될 거니까.
 그건 그렇고 형 고백 말이야. 그거 도대체 누굴 위한 걸까?
 하늘 ?
 버들 그 여자, 살면서 한 번은 추억하겠지.
 나를 사랑했던 레벨3의 남자가 있었다.
 하늘 난 그걸로 충분해.
 버들 처음엔 형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 감성적이고 지고지순한...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냐. 형답지 않아.
 하늘 ?
 버들 레벨3으로 고백한다? 사기지. 흡수저의 못난 오기밖에 더 돼?
 레벨7! 마트 강 대리로 고백해야 그게 진짜배기지.

하늘 안 돼!!
 연희(E) 안 돼! 절대 안 돼!!

#29. 부촌 대저택/지울의 방(밤)

지울 이해해. 나도 휠체어 타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동창회 안 나가니까.
 근데 그 남자라면 괜찮지 않을까? 혹시 모르잖아. 다 이해한다. 나한테
 시집 와라. 그럴지.
 연희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왔어.
 지울 하긴 아버지 사업 망해서 도망가면서 유학 간다고 한 게 거짓말의
 시작이니.
 연희 ...
 지울 내 치료 때문에 미국 따라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정말 영영 빠이빠이잖아.
 연희 그 남자 머릿속 고연희는 영원히 행복하고 반짝반짝 빛났으면 해.

#30. 분식집(밤)

우르르 들어오는 슈트 차림 남자들, 구석진 곳에 둘러앉는다. 슈트 남들 안
 그런 척하며 버들을 흘깃.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버들 슈트 남들의 소매
 아래서 언뜻 보이는 숫자를 놓치지 않는다. 모두 레벨 '2'
 버들 덩치야! 너 요 앞 편의점에 가서 사이다 하나 사와라.
 덩치 사이다 우리 가게에도 있습니다.
 버들 칠성이잖아.
 덩치 사이다는 칠성이죠.
 버들 이제 제법 개긴다. 사이다는 스프라이트!
 덩치 네! 다녀오겠습니다!

덩치 분식집을 나서자, 버들 펜을 꺼내 냅킨에 뭔가를 쓰면서 대화를 이어간다.

버들 내일 공항에 배웅 나가지?
 하늘 응.
 버들 선물이라도 좀 해.
 하늘 (한숨) 연희 일등급이야. 그 수준에 맞는 선물 사려면 내 장기를 다 꺼내 팔아도 모자랄걸.
 버들 아버지 유품은? 골동품이라 꽤 나갈걸.
 하늘 미쳤나?
 버들 선물이 꼭 비싼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 예전부터 꼭 갖고 싶다고 스치듯 말한 거. 그런 거 잊지 않고 사주면 센스 짱!! 애정 지수 뽐뽐!!

INSERT

대학생 연희(20대) 구두 슝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 쇼윈도를 통해 넋을 놓고 보고 있는 건 핑크색 구두.

연희 하늘아, 너무 예쁘지. 이거 일명 아나운서 구두거든. 이 구두 신고 걸으면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아나운선가 봐... 막 그런다.

하늘(NAR) 연희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했다. 바벨 신드롬 이전에도 선망의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상위 5프로 이상의 부자가 아니면 꿈도 꿀 수 없는 직업.

하늘 아닌 척 몰래 가격표를 들여다보고 놀란다. 헉!

(E) 하늘의 회상을 깨놓는 벨소리.

하늘 (받는) 네? 경찰이 왜? 집을 뒤지고 난리라고요?

슈트 남들 하늘의 통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버들을 둘러싼다.

슈트 남 언어자유연맹 행동대장 강버들! 국가 법 질서 방해 및 불온사상 유포 죄로 체포한다.

버들 (냅킨을 접시 아래 놓으며) 어쩐지 분식집에 레벨 2가 깨떼같이 몰려오더라니.

하늘 버들아!!

버들 (끌려가며) 형! 고백 성공해! 선물도 꼭 하고!!

#31. 하늘의 집/일층 미용실(밤에서 아침)

각종 서랍과 수납장 내장 뒤집듯 열려 있고, 온갖 물건들이 바닥에 뒹군다. 엉망이 된 점포 한가운데 복자와 하늘 멍하니 앉았다. 정지 화면처럼 마냥 앉아 있는 두 사람의 얼굴에 조금씩 해가 비친다. 시간 경과.

하늘(NAR) 엄마와 나는 미용실 창으로 해가 비쳐 어둠을 몰아낼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말은 감정을 불러오고, 복받쳐 오르는 감정은 겨우 버티고 있는 엄마의 여린 어깨를 무너지게 했을거다. 처음으로 침묵이 감사하다.

복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하늘의 머리를 만진다.

하늘 엄마?

복자 연희. 만나러 가.

하늘 지금 그게 중요해요? 집이 이 모양인데!

이때 덩치가 들어온다.

덩치 (꾸벅) 안녕하십니까? 갑시다. 형님.

하늘 어딜?

덩치 고백하러요.

하늘 ?

덩치 (냅킨을 건네며) 버들 형님이 지령을 남기셨습니다.

냅킨 보면 빠르게 날려 쓴 글씨. '하늘 형의 고백을 꼭 성사시킬 것!'

하늘 (답답) 어이, 분식집 아들. 넌 이딴 영웅 놀이가 재밌지? 막 멋지고 대단한 일이나 하는 거 같지? 넌 그냥 현실을 회피하는 찌질이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 땀 흘려야 하는 일 하기 싫지? 그런데 어찌냐? 니네 조직이 겨우 이런 데야!! 고백 성사시키기? 뭐 이딴 지령이 다 있어??

덩치 (하늘을 의자에 앉히고) 아우 시끄러. 3등급이라 그런가. 어머니, 이마를 드러내는 게 어때요? 더 깔끔해 보일 텐데...

복자 그래요?

하늘 (폭발) 다들 미쳤어! 왜 이래? 정신 차려!!

덩치 저 중학교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회피라뇨. 오해합니다.

하늘 !

복자 중요해. 고백! 버들이, 미안해!

덩치 버들 형님 때문에 하늘 형님이 고백하지 못하면 버들 형님이 미안해할 거다. 이 말씀 같은데요.

하늘 (다시 앉으며) 알아, 임마!!

하늘(NAR) 어찌다 찌질한 7등급 남자의 오기가 가족 전체의 염원이 됐을까?

CUT TO

머리가 깔끔해진 하늘 턴테이블을 잠시 노려보더니 결심한 듯 챙긴다.

하늘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하자.

#32. 전당포(낮)

하늘 (턴테이블을 내놓으며) 아버지 유품이에요. 곧 찾으러 올 겁니다.

주인 상태 좀 볼게요.

주인 턴테이블에 LP를 올리고 플레이하는데 잠시 판이 돌다 멈춘다. 끼이익!

주인 이거 안 되는데?

하늘 그럴 리가요? 어제까지도 잘 됐는데...

주인 고장은 아닌 거 같고 뭐가 겠나?

턴테이블 분해하자 내부에 끼여 있는 작은 USB. 메탈 소재의 표면엔 '공선우 시인에게 전달 바람'이라는 작은 글씨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어쩐지...

버들(E) 형! 고백 성공해! 선물도 꼭 하고!!

#33. 공원(낮)

하늘 공 선생이 시인 공선우냐?

덩치 (놀란) 어떻게 아셨어요??

하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언어를 되돌려준다는 의적 홍길동이 1등급 금수저야?

덩치 정말 다행이죠? 경찰들은 공 선생님이 주로 계시는 강남은 수사할 생각도 안 해요. 등잔... 어찌고 하는 속담. 그거지 말입니다. 하하.

멀리 연희가 나타난다.

하늘 형님, 형님. 딱딱하게 그러지 마. 자연스럽게 행동해.

덩치 네! 형님.

하늘 또, 또 형님. 그냥 형이라 그래. 막 편하게 지내는 사이야. 우린.

연희 일찍 왔네.

하늘 잠을 못 자서... 밤샌 김에 일찍 나왔어.

연희 왜? 무슨 일 있어??

하늘 아냐, 아무 일도...

연희 (덩치 보고) 누구??

덩치 (꾸벅)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하늘 형님, 아니 강하늘 형의 아는 동생. 그러니까 막 편하게 지내는 그런 동생입니다!!

연희 (웃는) 하나도 안 편한 거 같은데요.

하늘 (당황) 아냐. 애 지금 편한 거야. 무지!

덩치 (자리 피해주며) 형님. 파이팅!!

하늘 저기... 연희야 너 몇 시 비행기랬지?

연희 1시. 두 시간 남았다. 왜??

하늘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연희 (웃으며) 그래, 제발 좀 듣자. 그놈의 할말.

하늘 그게... 내가 할 말이 뭐냐면... 실은...
(막상 말하려니 입술이 바짝) 아참, 줄 게 있다.

하늘 포장된 상자를 내민다.

연희 어머, 이게 뭐야??

상자를 열자 핑크색 구두가 나온다. #30의 회상 속 구두와 같은 브랜드.

하늘 너 아나운서 되고 싶어 했잖아. TV에 신입 아나운서 나올 때마다 설렘. 혹시 연희가 꿈을 이룬 게 아닌가 하고...

연희 (촉촉해진 눈으로 구두를 쓰다듬는다)

하늘 맘에 안 들어? 하긴 너 이런 거 수백 켤레겠다.

연희 아냐. 기억해주니까 너무 좋아서... 나도 줄 거 있어.

연희 포장된 물건을 건넨다.

하늘 포장지 뜯어보면 레코드판이다. 비틀스 레코드판.

하늘 이걸 어떻게?

연희 아버지가 갖고 싶어 하셨다면서... 돈 많이 벌면 이 판 사서 제사상에

올리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잖아.

하늘 희귀판이라 돈 있어도 못 구하는 건데.

연희 누가 선물로 줬어.

하늘 누구?

연희 있어. 라퐼젤처럼 같혀 지내야 하는 불쌍하고 맘 착한 공주.

#34. 회상. 부촌 대저택/서재(낮)

지울 (비틀스 음반 건네며) 자, 이거.

연희 ?

지울 그 남자 이 앨범 갖고 싶어 한다며...

연희 이건 사장님이...

지울 아끼긴, 뭘. 엄만 듣지도 않아. 나 이런 것도 있어요~ 나 되게 부자예요~ 보여주려고 모으시는 거지. 어차피 나한테 상속될 거니까 내 거기도 하고...

연희 (지울을 꼬옥 안는다)

지울 우리 사이에 이 정도 해줄 수 있지. 간지럽게 왜 이러냐? 잘 만나고 공항에서 봐. 이번에도 순결한 입술로 돌아오면 죽는다!!

#35. 거리(낮)

하늘 꿈은? 접은 거야??

연희 꿈은 꿈일 뿐이야. 이젠 나이도 너무 많고... 넌?

하늘 난 뭐?

연희 시 안 써? 시는 직장 다니면서 쓸 수 있잖아.

하늘 시는 뭐 아무나 쓰니? 감정 언어도 못 쓰는 내가 뭘...

연희 왜? 너 레벨3이잖아.

하늘 (당황) 아, 그게. 내가 감정 언어를 싫어해. 막 오글거리잖아.

연희 난 니 시 좋던데.

하늘 다 헛소리지 뭐.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 버스 광고판, '공선우 시인의 사인회'라는 문구 옆에 공선우(40대)의 얼굴이 웃고 있다. 귀공자 느낌. 전형적 시인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인상.

연희 공선우 사인회 한다. 저 사람 시 참 좋아. 소리 내 읽을 수 없는 단어가 너무 많지만...

하늘 ?

연희 (당황) 내, 내가 낭독을 안 좋아해서.
아무튼 이 사람 시는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어.

하늘 (공선우 노력하며) 맞아. 맘을 움직이지.
가난한 미용실 아들이랑 분식집 아들을 현혹하는 나쁜 새끼!!

연희 ?

하늘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잠시 들여다본다.

버들(E) 곧 강하늘의 평범한 동생 강버들로 돌아갈 거야. 형 말대로 취직도 하고... 엄마 빨간 내복도 사 드리고... 세상이 바뀔 거거든.

하늘 (결심한 듯) 연희야. 우리 잠깐 어디 좀 들르자.

#36. 공선우 시인 사인회장(낮)

공선우 경비원들을 병풍처럼 두르고 앉아 사인을 하고 있다.
사인을 받겠다고 늘어난 사람들의 줄,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늘(NAR) 십 년 전 내게 모욕을 줬던 교수가 기뻐할 일이 하나 있다. 시인이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 직종이 된 것. 이런 기현상은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시인을 동경하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다. 시인은 3등급 이상의 부자가 아니면 꿈도 꿀 수 없는 직업이니까.

시에 재능이 있다는 말이 더 이상 모욕이 아닌 시대가 왔는데 나는 언어를 잃었다. 제길!

하늘 기나긴 줄을 무시하고 성큼성큼 공선우 앞으로 나간다.
“뭐야? 새치기하지 마요!” 사람들 웅성대고, 경호원들 하늘을 저지한다.

하늘 바벨 신드롬 이전의 시인은 가난과 결핍을 동력으로 시를 썼습니다.
레벨1인 당신이 황금 붓으로 쓰는 시가 과연 문학으로 가치가 있을까요?

선우 (경호원 저지하며) 옛 문학을 향수하는 분이시군요. 저도 그 점이 아쉽습니다. 제 등급이 시에 후광을 돌려준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늘 겪어보지도 않은 가난을 시로 쓰는 게! 책임져주지도 않으면서 행동하라고 선동하는 게! 사기고 거짓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억압하고 빼앗는 자도 가진 자고! 행동하라 세 치 혀로 부추기는 자도 가진 자인 건데!!

선우 (담담) 때론 사기나 거짓이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늘 그건 시가 아니야! 진정성! 진심이 있어야지!! (말해놓고 움찔)

FLASH CUT #1 대학 강의실

하늘 이딴 낙서가 어디가 어떻게 좋다는 겁니까?

노교수 글썸, 진심이 담겼다고 할까?

하늘(NAR) 진심, 그 고리타분한 단어를 입에 올리게 될 줄은 몰랐다.

연희 (말리며) 하늘아. 진정해.

하늘(NAR) (돌아서며) 저딴 놈이 세상을 바꿀 리가 없다.

#37. 공항/카페(낮)

하늘 생글생글 웃는 연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하늘(E) 그건 시가 아니야!! 진정성!! 진심이 있어야지!!
비틀(E) 레벨3으로 고백한다? 사기지. 흡수저의 못난 오기밖에 더 돼?
레벨7! 마트 강 대리로 고백해야 그게 진짜배기지.

하늘 (결심한 듯) 연희야, 나 사실...
연희 오, 드디어 그놈의 할 말 하는 거야?
하늘 (눈 꼭 감고 외치는) 나 사실 레벨3이 아냐. 레벨7이야.
연희 !!
하늘 내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연희 하늘아, 나도 할 말이 있어.

(E) 문자 수신 알림음. 액정 보면 '지울'

지울(E) 큰일 났어. 언니. 엄마가 비틀스 앨범에 추적기를 달아놨대.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도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야. 빨리 튀어!

밖을 보면 우르르 카페 쪽으로 몰려오는 경찰들.

연희 나... 가야겠어.
하늘 (당황) 화났구나.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줄래?
내가 진짜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연희 (뛰어나가며) 미안! 하늘아, 정말 미안!!

홀로 남겨져 고개를 푹 숙이는 하늘. 비참함을 더하는 문자 수신 알림음.
'통장 잔고가 부족합니다. 세종28을 계속 이용하시려면 이용료를
입금해주세요.'

하늘(NAR) 그 빌어먹을 교수의 말은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진심? 사람들은
원래 달콤한 거짓을 좋아하게 마련이다. 초라하게 벌거벗은 진심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38. 공항/청사(낮)

하늘 어깨가 축 처져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달려오는 덩치.

덩치 고백은? 성공하셨습니까?

덩치의 큰 가슴에 안겨 사탕 빼앗긴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운다.
영영, 누군가 하늘의 등을 톡톡 친다. 돌아보면 휠체어에 앉은 지울.
팔목엔 10이란 숫자가 빛난다.

하늘 누구세요?
지울 말하자면 이야기가 긴데... 일단 그거 먼저 돌려주시면 안 돼요?
하늘 ?
지울 비틀스요. 그게 원래 내 거... 아니 엄마 건데...
암튼 연희 언니한테 줬거든요. 그런데 오해가 생겨서...
하늘 아, 라퐁젤?
지울 ?
하늘 (비틀스 앨범 돌려준다)
지울 이게 뭐 상황인가, 황당하고 궁금하고 막 그렇죠? (한숨) 구구절절
속사포 랩으로 말해도 몇 시간은 걸릴 텐데. (일기장 건네며)
읽어봐요. 난 급해서 이만...
하늘 이게 뭐니까?
지울 (가며) 연희 언니의 진심.

다시 입금 재촉 문자. '경고!! 삼십 분 후 항체 제공이 중지됩니다.'

덩치 해지하러 가요! 어서요!!

 덩치 막무가내로 끌고 가고,
 하늘 끌려가며 일기를 읽는다.

#39. 공항/입구(낮)

일기를 읽은 하늘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든다. 저 멀리 연희가 경찰에게
연행되어 가는 게 보인다. 하늘이 연희에게 가려는데 덩치가 막아선다.

하늘 형님 이번엔 제발 고백 좀 하자. 응?
덩치 (하늘을 들쳐 메고 달리는) 안 돼요. 나중에 버들 형님 어떻게 보라고.
하늘 덩치 씨, 아니 덩치야!!
덩치 ?
하늘 버들이가 내린 지령이 뭐지?
덩치 !!
하늘 지령을 수행해야지. 신입 조직원 주제에 지금 개기냐?

 덩치 ‘내가 못 살아’ 하는 표정으로 하늘을 내려놓는다.
 마침 지나가는 한 떼의 패키지 여행객. 하늘 달려가 가이드의 마이크를 뺐는다.

하늘(F) (외치는) 연희야. 고연희!

 경찰차에 타려던 연희 돌아본다.

하늘(F) 십 년 전에 못 한 말 지금 할게! 연희야 나는 널!!

 하늘 ‘사’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기기에 X자가 뜬다.
 (E) 뽀뽀뽀, 요란한 경고음!

덩치 (발 동동) 어떡해요?

하늘(NAR) 안 돼! 할 수 있어! 사람은 원래 돈으로 말하는 존재가 아니야.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게 사람이야!!

하늘(F) (힘껏) 사랑해! 고연희! 사랑해!!!!

 연희가 뭐라고 대답하려는데, 경찰들 연희를 차에 태워서 떠난다.
 기기에 X자가 사라지고 대신 3자가 다시 빛나고 있다.
 영문은 모르겠지만 마냥 기쁜 하늘 엄마에게 전화를 한다.

하늘 (들뜬) 엄마, 엄마. 나 드디어 고백했어!
복자(F) 밥은?
하늘 고백했다니까. 뜬금없이 밥은...
복자(F) 밥은 먹었어?
하늘 !!!
복자(F) 밥은 먹었어?
하늘 설마 엄마가 입금했어?
복자(F) 밥은?
하늘 왜 그랬어! 왜!!! (우는) 엄마, 엄마!

#40. 하늘의 집/일층 미용실(낮)

하늘과 덩치 헬레벌떡 달려온다.

이웃 하늘 총각, 어디 있었어? 어머니 감금지구에 끌려갔는데...

 하늘 풀썩 주저앉는다. 미용실 앞에 급하게 서는 차.
 대리점 직원(남) 내린다.

덩치 누구세요?
남직원 원래 출장은 안 다니는데... 감자 형님 부탁이라 들어드리는 겁니다.

직원 하늘의 손목에서 레벨3 기기를 빼고 레벨7을 장착한다.
손목을 맡긴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하늘.

직원 표정 보니까 알겠네. 못 썼죠? 155번??
하늘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
덩치 형님 괜찮아요?
하늘 덩치야, 나 공 선생한테 데려다줘.

#41. 레벨1 전용 사우나/입구(낮)

직원 (막으며) 여긴 당신 같은 사람 못 들어와요!
하늘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당신도 7등급이잖아.
1등급들 개 노릇이 그렇게 좋아?
덩치 (힘으로 제압) 형님, 어서 가요!!

#42. 레벨1 전용 사우나/안(낮)

하늘 사우나실을 하나하나 열며 선우를 찾는다.
수건 한 장 걸치고 있는 선우 앞에 다짜고짜 USB를 내놓는 하늘.

하늘 내 동생 버들이 말이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대. 어디 한번 해봐.
대단한 건 안 바랄게. 반지는 못 사줘도 155번 단어는 말할 수 있게!
엄마 계속 뼈 빠지게 파마 말아야겠지만 좋아하는 노래는 따라 부를 수 있게! 계속 죄송해야겠지만 갑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 정도는 할 수 있게! 못 바꾸면 죽을 줄 알아!! 이 금수저 새끼야!!

경호원들 하늘을 끌고 나가고, 선우 수건 아래 USB를 감춘다.

#43. 감금지구/면회실(낮)

구치소 면회실처럼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복자와 하늘.
방역복을 입은 보건당국의 요원들이 이들을 감시한다.

복자 (미소) 밥은 먹었어?
하늘 미안해, 엄마.
복자 (화난 억양) 밥은 먹었어?
하늘 알았어. 미안하다고 안 그럴게. 조금만 더 있어. 내가 꺼내줄게.
버들이도 풀려나게 하고, 턴테이블도 찾아오고...
복자 (끄덕끄덕) 밥은 먹었어?

#44. 감금지구/입구(낮)

말이 좋아 감염자 격리소지 교도소나 다름없는 풍경. 철조망 너머로 좀비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는 감염자들 보인다. 다들 낮이 나간 채 더러는 햇볕을 쬐고, 더러는 느릿느릿 산책을 한다. 터덜터덜 걸어가는 하늘의 귀에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

연희(E) 하늘아! 강하늘!!

하늘 철조망 너머를 보면 마스크에 방역복을 입고 청소 도구를 든 여자.
여자가 마스크를 내린다. 연희다!

하늘 (다가가) 여기서 일해?
연희 (끄덕)
하늘 나쁜 사람들! 앨범도 돌려줬는데 해고한 거야?

연희 내가 관뿔어. 여기... 좋아. 편해.
 하늘 미국은? 따라가는 거 아니었어?
 연희 안 갔어.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하늘 말 안 해도 알아.
 연희 알아?
 하늘 (울먹) 잘 살지 그랬나? 나쁜 기집애. 유학 간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연희 미안. 그런데 할 말은 그게 아니야.

연희 뭔가 말하려 하는데 목소리를 덮어버리는

(E) 헬기 소리. 두두두두!!

감금지구 위에 뜬 헬기에서 갑자기 후드득, 알약이 떨어진다.

눈처럼 하얗게 떨어지는 알약들. 헬기에서 알약을 뿌리는 남자. 공선우다!

선우(F) 감금지구에 계신 감염자 여러분. 지금 나눠 드리는 건 바벨 신드롬
 치료제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세종28 없이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너도나도 알약을 주워 먹는다. 하늘과 연희도 알약을 먹는다.

하늘 (조심스럽게) 감자, 지슬, 포테이토! 어, 진짜다! 진짜야!!

하늘(NAR) 나중에 알았다. 내가 건넨 USB에 든 것은 버들이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빼낸 치료제 제조법이라는 걸. 처음부터 바벨 신드롬은 완치 가능한
 병이었으며 치료제는 고작 오백 원에 지나지 않았다. 국가는 치료제
 대신 항체를 제공함으로써 국고를 채우려 했던 것이다.

갑자기 말이 넘쳐난다. 사람들 세종28을 벗어던지고 신나 떠들기 시작한다.

하늘(NAR) 생각해보면 말이 없어도 진심은 통했다. 말이 없어도 우린 울고 웃고
 사랑했다. 갑자기 말 따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하늘 철조망 너머 연희에게 수화를 한다.

시끄러운 소란을 배경으로 나누는 하늘과 연희의 침묵의 대화.

연희 (수화, 자막) 그거 알아? 너 십 년 전에 벌써 고백했어.

하늘 ?

연희 (수화, 자막) 반지하 사랑 노래. 나를 위한 시잖아. 아냐?

하늘 (수화, 자막) 알았어?

연희 (수화, 자막) 그걸 꼭 말해야 아냐? 하늘아, 실은 나도 널 155번 했어.

하늘과 연희 활짝 웃는다.

#45. 몽타주. 바벨 신드롬이 사라진 세상

— 복자 파마를 맡며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흥얼흥얼...

하늘(NAR) 엄마는 다시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게 됐고...

덩치와 버들 책상에 앉아 열심히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하늘(NAR) 가난한 사람들도 신분 상승의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됐다.

두 남자 갑자기 들여다보던 것을 내려놓더니 다짜고짜 랩을 한다.
 책상 위에 놓인 것은 <쇼 미 더 머니> 참가 신청서.

하늘(NAR)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도 많다.

사랑싸움하는 대리점 여직원과 남직원.

남직원 화났어?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아냐?

여직원 꼭 말을 해야 알아? 남자들은 다 왜 그러냐?

남직원 (귀찮은) 아아, 내가 다 잘못했어.

여직원 다? 뭘 잘못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뭘??

나는 여전히 바보다. 진심을 믿는 바보.

하늘(NAR) 화성에서 온 남자는 여전히 금성에서 온 여자들의 말을 알지 못한다.

하늘과 연희 손을 잡고 지는 해를 향해 걸어간다.

— 오성마트.

끝.

고객 손님은 하늘이다. 몰라? 어디서 딱딱딱 말대답이야?!!

송씨 죄송합니다. 고객님.

민희 (수화, 자막) 엄마 괜찮아?

꼬마 엄마, 재 좀 봐. 말 못 하나 봐.

고객 저런 애랑 어울리는 거 아냐. 가자.

하늘(NAR) 송씨 아줌마는 여전히 죄송하고, 민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갑은 '권력'이란 언어를 쓰고, 을은 '더럽고 아니꼽지만 복종'이란 언어를 쓴다. 정치인은 넌 왜 빨간 말을 쓰느냐? 그런 넌 왜 파란 말을 쓰느냐? 쌘박질이다. 세상은 여전히 바벨 신드롬 속에 있다.

#46. 공원(낮)

연희와 하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낙조를 본다. 그저 말없이...

하늘(NAR) 연희와 나는 소란한 세상 속에서 말 없는 데이트를 즐긴다.

귀를 기울여보라. 바람 소리, 풀이 눕는 소리, 시간이 흐르는 소리.

연희 (벌떡 일어나 뭔가를 가리키며) 자기야! 자기 시집!!

공원 앞, 정류장에 버스가 선다. 버스에 붙은 출판 광고물.

마트 강 대리의 가난한 사랑 고백. <반지하 사랑 노래>

하늘(NAR) 그렇다. 나는 시인이 되었다. 시인이 더 이상 선망의 직업이 아니며

시가 다시 가난한 자들의 전유물이 된 세상에서...

작가 후기

〈바벨 신드롬〉은 한동안 저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자유롭고 즐겁게 써내려간, 가장 나다운 글이지만 글에 찍히는 낙인은 가혹했습니다.

너무 마이너 감성임! 작가의 개성이 지나침! 제작 불가!

내가 그렇지 뭐...

〈바벨 신드롬〉은 폴더 깊숙이 묻어두고, 타인이 좋아할 글(투자사가 솔깃할 글, 배우들이 탐낼 글, 트렌드를 쫓는 글)을 쓰기 위해 정형화된 거푸집 속에 저를 구겨 넣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던 중, 오픈 당선 소식을 들었습니다.

웬일? 거푸집 밖으로 한 발짝 발을 내디디며 생각했습니다.

나다워도 되는 걸까? 어쩌면 나다운 글도 사랑받을 수 있을지 몰라.

작품집을 내다니 명치를 꼭 누르는 부담감과 간질간질한 설렘이 동시에 일어나네요. 돈이 없으면 말을 할 수 없는 세상의 고단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특 쏘는 블랙코미디를 좀 더 가미하고 싶었지만, 수정고 쓰기는 초고 쓰기보다 험난한 법... 변명과 함께 미진한 글에 마칩표를 찍어봅니다.

퇴색되어버린 열정을 심폐소생 시켜주신 심사위원님들, 오픈 담당자님들, 동료 작가님들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획의도

‘폐지인 줄 알고 주운 박스 안의 감자 다섯 알을 훔친 죄로 절도죄를 선고받은 노인’ ‘37년 가정폭력 남편을 살해한 아내, 정당방위 인정받지 못해’

내가 이 이야기를 떠올린 것은 위의 두 가지 기사를 보았을 때였다.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법이 사람을 공격할 때.
모두에게 엄정해야 하는 법이 약자에게만 엄정할 때.
사회와 사람들의 관심과 온정이 필요한 순간 모두가 그들을 외면할 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감옥보다 더한 지옥으로 변한다.

토마스 홉스는 말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나는 감히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해보고자 한다.
그러한 적자생존의 세상에 내던져진 우리를 구하는 것은 타인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말이다.

등장인물

만복희(72세, 여)

무뚝뚝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속정이 깊고 사람을 좋아한다. 오래전 가족을 잃고 홀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독거노인. 주워온 박스 안의 감자 다섯 알 때문에 절도죄로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고, 그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미자(67세, 여)

얼핏 활달해 보이나 남편의 주기적인 폭력에 고통받고 살아온 아픔이 있다. 하나 있는 자식만 바라보며 참고 산 지 어언 30년, 술에 취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남편의 머리를 도자기로 후려쳐 큰 부상을 입힌 뒤 과잉방위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허수경(45세, 여)

뼈가 굵은 교도관. 얼핏 심약해 보이나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외유내강의 표본이다. 성실하고 속정 깊은 복희를 마음에 들어 한 나머지 도움을 주려다 복희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게 된다.

유민철(64세, 남)

복희와 미자가 수감된 청주여자교도소의 교도소장. 호인 같아 보이나 실은 계산속이 빠르고 음흉하다. 청주여자교도소를 모범 교도소로 만들기 위해 교도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목인한다.

그 외

강한수(미자 아들), 감빵 대장(김영희), 재소자1·2, 교도관1·2·3 등

줄거리

배를 굶을 일도,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할 일도 없는 교도소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던 복희와 미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 바로 자신들이 모범수로 선정되어 빠른 출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 달콤한 감옥을 두고 차갑고 위험이 도사리는 바깥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둘은 머리를 맞댄 채 하나의 계획을 세운다. 그건 바로 교도소 내에서 잘못을 저질러 형을 추가로 받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했다.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는 감빵 안에서 추가로 형을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 반대면 모를까. 하지만 둘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간다. 둘이 함께 저지르는 소소한 악행들이 자꾸만 선행으로 탈바꿈하는 탓이다. 대체 이게 무슨 귀신이 곡할 노릇이냐? 복희와 미자는 머리를 싸매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다. 한평생 착하게 살 때는 복은커녕 맹전 한 푼 안 주더니, 작정하고 나쁜 짓을 하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다. 초조해진 둘은 좀 더 대범하고 악랄해지기로 한다. 바로 간신히 구한 커터칼로 수감자를 찌르기로 한 것! 타깃을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도 않았다. 여긴 널리 깔린 게 범죄자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전의 날, 타깃을 찌르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둘은 의외의 광경을 목격한다. 그건 바로 타깃의 자살 시도! 놀란 둘은

앞뒤 재지도 않고 몸을 던져 그녀를 구하는 참사를 저지르고 만다.

그렇게 모범수도 모자라 혼장까지 받아버리게 된 둘! 거기다 그 난리통에 유일한 희망이었던 커터칼까지 잃어버리고 말았다. 진퇴양난에 빠진 둘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무에게나 시비를 거는 등 온갖 말썽을 벌이지만, 자살 시도를 한 수감자를 구한 영웅들을 내세워 교도소의 위상을 높일 계획인 소장의 지시로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결국 둘은 다시 커터칼을 구해 그 누구도 그들의 행동을 선행으로 포장할 수 없도록 혼장을 받는 날 서로를 찌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다. 미자의 아들이 면회를 오기 전까지는! 면회를 온 아들은 미자에게 애원한다.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는데, 엄마가 교도소에 있다는 걸 알면 절대 하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 엄마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아빠는 자신이 막을 테니 제발 최대한 빨리 나와달라고. 하나뿐인 아들의 애원에 미자는 강경했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는데... 과연 차가운 현실보다 더 달콤한 감옥에 머물고 싶은 그녀들의 형량 늘리기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

달콤한 나의 감옥 최보배

#1. 청주여자교도소 감옥 안(새벽)

재소자들, 일렬로 잠들어 있다.
그때, 스피커에서 국민체조 음악 흘러나오고.
나란히 자고 있던 복희와 미자, 눈을 반짝 뜬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둘은 음악에 맞춰
생기 넘치고 리듬감 있게 침구를 정리한다.
다른 재소자들이 일어나기 싫어서
이불 속에서 꾸물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2. 운동장(아침)

재소자들, 운동장에 모여서 체조하고 있다.
다들 설렁설렁 하는 와중에 복희와 미자, 절도 있는 발군의 움직임을 자랑한다.
국민체조 음악에 맞춰 신나게 체조하는 둘.

#3. 인형 작업장(낮)

복희, 남다른 손놀림으로 인형 눈알을 꿰고 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리듬감 있게 바느질하는 모습이 돋보인다.

#4. 원예 작업장(낮)

(여기까지 계속 국민체조 음악이 흐른다)

미자, 목장갑을 끼고 흙투성이가 된 채 꽃을 심고 있다.
이마에 구슬땀이 맺힐 정도로 굉장히 집중한 모습이다.
작업을 마무리한 뒤, 이마를 닦으며 꽃을 보고 만족스럽게 웃는 미자.
그 모습 멀어지고 교도소 전체 풍경 비치면서 타이틀 뜬다.

〈달콤한 나의 감옥〉

#5. 교도관실(낮)

복희, 걸레로 열심히 책상을 닦고 있다.
삐죽삐죽 튀어나온 책과 파일들이 보인다.
능숙한 손길로 프로페셔널하게 책상 위 모든 파일을 정리하는 복희.
그때 교도관(여), 허 부장 들어오고 미소 지으며 복희에게 다가간다.

허 부장 어휴, 책상까지는 정리 안 해도 된단니까 매번 이러시네.
힘들죠? (파일을 뺏으려 하며) 이제 그만하세요.
복희 (손을 피하며) 참 내, 나랏일 하는 분들 책상 정리하는 건데 뭐가
힘들다고. 더럽혀진 거 보는 게 더 힘들습디. 맡겨만 주이소.
허 부장 어휴, 정말... 항상 고마워요.
복희 하이고, 진짜 별말씀을. 진짜 허 부장님은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허 부장 그럼, 보답으로 커피 한 잔 콜?
복희 그거야 언제든, 끝! 이지예.

허 부장, 커피를 타서 복희에게 건넨다.
복희, 두 손으로 받아든다.

허 부장 교도소 생활 힘들죠?
복희 어휴, 힘들긴예. 하나도 안 힘들습디.
허 부장 에이, 저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돼요.
복희 하이고, 왜 사람 말을 못 믿노. (가슴 펍 치며)

나는 여기 평생 살라 캐도 살겠습니다. 뼈를 묻을 게예. 진짚니더!

허 부장 (웃으며) 내가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어도 교도소에서는 나를 뼈가 굵은데 진짜 할머니 같은 사람은 처음 봐요.

복희 내도 허 부장님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우리 같은 죄수들한테도 이리 꼬박꼬박 높임말 써쌓고... 진짜 나중에 무슨 복을 받을라고.

허 부장 하이고, 별말씀을. 그런데 할머니.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복희 좋은 소식에?

허 부장 네, 진짜 아무한테나 미리 말 안 해주는 좋은 소식.

복희 ?

허 부장, 복희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한다.
 복희, 허 부장에게 귀를 가져다 댄다.
 허 부장이 뭐라뭐라 속삭이자 복희 표정 경악으로 굳어진다.
 복희 손에 들린 종이컵,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커피 쏟아진다.

#6. 감옥 안(밤)

미자 가석방?!!!

복희 가시나야, 쏘!

미자, 황급히 두 손으로 입 틀어막는다.
 미자가 낸 소리에 같은 방 재소자들 마주 앉은 미자와 복희 쳐다본다.
 미자, 눈치 보며 소리 죽여 말한다.

미자 누가 그러는데?

복희 허 부장 있다가. 최근에 우리 교도소 온, 억수 사람 좋은.

미자 그 사람이 그래? 우리 가석방 될 거라고?

복희 그래. 모범순가 뭐시깡인가 되가고 지금 심사 대상이란다. 환장한다,

진짜.

미자 (절망스러운) 아, 어떡해. 어떡해. 진짜!

복희 언니! 그니까 내가 갇혀 생활 적당히 모범적으로 하겠지!

복희 이거 봐라? 내만 대상자가? 니도 대상자다, 이 몽디 가시나야! 니가 그리 천지분간 못 하고 교도관들이랑 친구해살 때부터 내 알아봤다. 이제 우짚끼고. 꼼짝없이 출소하게 생겼는데 우짚끼냐고!

미자 왜 나한테 지랄이야, 언니! 이게 내 잘못이야? 어?!

복희 그럼 내 잘못이가, 어?!

미자 아, 몰라! 아, 어떡해, 진짜! 나 이대로 나가면 애아빠한테 맞아 죽... (아차 싶어 입 막는)

복희 (놀라) 뭐라꼬? 그 자식이 뭐라 카나? 어? 찾아왔나, 흑시?

미자 (어색하게 수습하는) 그건 아닌데 내가 그 사람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나 나오면 죽일 거라고 버리고 있을 거란 뜻이지...

복희 이거 진짜 천하의 개자식 아이가! 지가 평생 두들겨 팬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대가리에 화병 좀 맞았다고, 뭐? 죽어?

미자 술 처먹고 사람 목을 조르는데 그럼 가만히 당하고 있나!

복희 (달래듯) 언니, 진정해.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서로 자식 놓고 산 세월이 있는데... 자기 화날 때만 그래. 시간도 지났고... 나가면 당장이 문제지, 괜찮을 거야.

복희 ...하모. 사람이면 그래야제. 지도 대가리 깨지고 느낀 바가 있을 까다. 그래도 평생 동고동락한 마누라 아니가. 어?

미자 (말 돌리듯) ...근데 나도 나지만 언니는? 언니 나가면 갈 데 있어?

복희 ...내가 어데 갈 데가 있겠노. 집도 집 주인이 벌써 탄 사람 세웠을 끼고... 폐지 주울 때 쓰던 리어카 그것도 탄 사람이 주워가도 벌써 주워갔을 끼고... 이 엄동설한에 여서 나가라는 거는 내보고 길바닥에서 얼어 뒤지라는 기지. 뭘 놈의 팔자가 뒤옹박 같은지.

미자 (얼굴 어두워지고) 그럼 우리 진짜 어떡해?

복희 이대로 출소해서 난 맞아 죽고 언니는 얼어 죽어?

복희 미쳤나? 니 정신 똑떠 차리라.

미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미자 솟아날 구멍이 지금 어디 있는데? 우리가 돈이 있어 뺨이 있어?

나가서 범죄라도 저지른 답에 다시 들어오기라도 해?
복희 (할 말 없고 막막해 그냥 자리에 드러눕는)

복희 뒤에서 한숨 쉬며 가슴 치는 미자와
누운 채로 심란한 표정 짓고 있는 복희.

#7. 운동장(오후)

복희와 미자, 평소와 달리 침울한 얼굴로 벤치에 앉아 있다.
어두운 표정의 복희를 힐끗힐끗 보며 눈치를 보던 미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미자 어휴, 언니! 이렇게 죽상으로 있으면 오던 복도 달아나겠다!

복희 ...

미자 그러지 말고 우리 대책을 생각해!

복희 대책...?

미자 그래, 대책! 나가서 어떡할지. 언니 말마따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인데 여기서 나간다고 진짜 죽기야 하겠어? 그러니까...

그때, 운동장 한가운데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난다.

복희와 미자, 그곳을 쳐다보면 몸싸움을 하고 있는 재소자들 보인다.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온 교도관들이 그들을 서둘러 떼어낸다.

교도관1 (다시 상대에게 덤비려는 재소자 한 명을 떼어내며) 2681! 너 가석방
취소되고 싶어서 환장했어?! 형 받은 대로 5년 채우고 살다 나갈래?!

복희 !!

미자 어휴, 무서워라. (복희 돌아보며) 역시 감옥이 살벌하긴 살벌해.

복희 맞다, 미자야.

미자 그지?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살...

복희 아니, 그거 말고.

미자 어?

복희 (미자 보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카는 거.
그거 말이다.

미자 (어리둥절한 표정)

#8. 교도관실(낮)

복희, 대걸레질 하고 있다.

신나게 대걸레질을 하던 전과 달리 전방을 예의 주시하며 눈치를 살피는 모습.
책상을 힐끔거리다 다른 교도관이 지나가자 다시 대걸레질에 집중하는 척한다.
교도관이 나가고 혼자 남자 황급히 교도관의 책상 위 캘린더를 살피는 복희.
'17일 검방'이라는 글자를 보고 미소 짓는다.

#9. 감옥 안(밤)

복희와 미자, 감옥 안에서 재소자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감빵 대장을 주시한다.

다른 재소자 두 명, 감빵 대장의 어깨와 다리를 각각 주무르고 있다.

그 모습 위로 돌이 예전에 나눈 대화가 흘러나온다.

미자(E) 아니, 언니. 그래서 솟아날 구멍이 뭔데?

복희(E) 사고를 치면 된다, 자들처럼.

그러면 가석방이 취소될 거 아이가!

미자(E) ...재네처럼 치고받고 싸우자고?

복희(E)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만다 그깟끼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미자(E) 더 좋은 방법?

복희(E) 검방 있다이가, 검방. 우리 방 점검할 때 우리가 금지물품 가지고 있는
거 딱 걸리면은 가석방이고 뭐고 나가리 되지 않겠나?

미자(E) 엄마야! 맞네, 맞아! 언니 천재 아니야? ...잠깐, 근데 우리한테

금지물품이 어딴어? 그거 다 따로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우리 영치금
거지잖아, 언니.

복희(E) 그럴 필요가 뭐 있노? 우리 방에 금지 물품 부자 하나 있다이가.

깜빡 대장의 얼굴 CLOSE UP.

그 밑에 자막 뜬다.

‘김영희, 살인미수, 10년형, 특징: 깜빡 대장’

#10. 운동장(오후)

운동장에 재소자들 삼삼오오 모여 있다.

미자와 복희, 운동장 구석에서 같은 방

재소자1, 재소자2(40대, 20대) 주시하고 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둘에게 접근하는 복희와 미자.

미자 자기들, 뭐해?

재소자1 (웃으며) 어머, 언니들!

재소자2 (고개만 까딱하는)

재소자1 우리 그냥 얘기 중이었는데. 왜요?

미자 아니이, 별건 아니고 좋은 제의할 게 하나 있어서. 들어볼래?

재소자1 뭔데요?

미자 우리가 완전 좋은 정보를 하나 입수했거든? 그거 있잖아.

(주변 둘러보고 소리 죽여) 검방 날짜.

재소자1 어머!

재소자2 그걸 어떻게 알아냈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들이? 라는 뜻이 함축된 시선으로 쳐다본다)

미자 다 방법이 있지. 근데 방법보다는 날짜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

재소자1 언젠데요?

복희 (마음이 급해 끼어들며) 내일이다, 내일!

재소자1 네? 진짜요?

미자 그래서 말인데. 우리 방 대장이 자기들한테 자기 금지 물품 맡겨놓은
거 있잖아. 그거 우리한테 일단 맡길래?

재소자1 네?

미자 그냥 우리한테 그거 떠넘기기만 하면 돼.

자기들은 진짜 손해 볼 거 없어!

복희 그래! 너저들은 그냥 그 금지 품목을 우리한테 다 떠넘기기만 하면
된다. 손해 볼 거 없다이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어?

미자 그래, 응? 그동안 자기들이 그놈의 금지 물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
자기들 것도 아닌데 다 덤터기 쓰고!

재소자1 (아까완 달리 싸늘하게) 아니, 할머니. 그러니까 그 덤터기를 왜
당신들이 다 쓰려고 하나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재소자2 아. 언니. 상대하지 마. 딱 보면 몰라? 노망났잖아.

미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러다...

(가슴 치다 복희 돌아보며 눈짓)

복희 (비장하게 고개 끄덕이는)

미자 (마찬가지로 비장한 표정으로 다시 재소자1·2 바라보며) 우리가...
(사뭇 진지하게)

재소자1·2 (순간 집중한다)

미자 ...가석방을 당하게 생겼거든.

복희 맞다. 니들이 금지 물품 우리한테 안 떠넘기면은 우리 이대로 출소
당하게 생겼다. 진짜 함만 도와주라, 어?

재소자1 (잠깐 말에 감화된 듯 쳐다보다, 한 템포 뒤) 진짜...

복희·미자 (침 꿀꺽 삼키는)

재소자1 (싸늘하게) ...니 말대로 노망났네. 가자. (가는)

재소자2 재수 없게... (복희와 미자를 쳐다도 안 보고 함께 가버리는)

미자 자기들, 자기들! 어디 가, 어? 나 멀쩡해! 삼칠은 이십일, 사사 십육!
이거 봐, 어?!!

복희와 미자, 둘을 뒤따라가려 하지만 그때 교도관 호루라기 분다.

어쩔 수 없이 소집에 응하며 한숨을 쉬는 둘.

복희 몽디 가시나들... 다른 사람 등쳐먹다 들어온 가시나들 아니랄까 봐
의심 많은 거 보라.

미자 (발 동동 구르며) 언니, 이제 어떡해?

복희 우짜기는... 2번으로 가야지.

미자 진짜 그거 감행해? 오늘?

복희 (비장하게 고개 끄덕이는)

미자 (긴장과 결의가 뒤섞인 얼굴로 침 삼킨다)

#11. 감옥 안(밤)

복희와 미자 포함, 방 안 사람들 다들 일렬로 누워 잠들어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좀비처럼 번쩍 눈을 뜨는 둘, 자리에서 조심스레 일어난다.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각자 물품을 보관해놓은 곳으로 가는 복희와 미자.
목적지는 재소자1과 2의 소지품이 있는 곳이다.
가는 도중 껌빵 대장이 으응 하며 몸을 뒤척이면 둘, 바짝 긴장한다.
하지만 이내 다시 색색 숨을 몰아쉬는 껌빵 대장.
둘, 안도의 한숨을 쉬 뒤 다시 걸음을 옮긴다.
재소자1·2의 사물함 앞에 선 둘.
숨겨진 금지 물품들을 자신들의 사물함으로 티 안 나게 옮기기 시작한다.
거의 마지막 물품을 옮기려는 순간, 갑자기 둘의 뒤에서 소리 들려온다.

껌빵 대장 (크고 선명하게) 야!

소리도 못 내고 소스라치게 놀란 둘.
잔뜩 긴장한 얼굴로 아주 천천히 뒤돌아보면, 껌빵 대장 여전히 잠들어 있다.

미자 (땅이 꺼져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부여잡고 아주 작게)
무슨 놈의 잠꼬대가 저래...

복희 그런 말 하고 있을 시간 없다. 빨리 움직이라.

마지막 물품까지 옮긴 뒤, 눈치를 보며 살금살금 잠자리로 되돌아가는 둘.
무사히 자리에 눕고서 눈을 감은 채로 작은 하이파이브를 나눈다.

#12. 감옥 안(아침)

껌빵 대장을 제외한 방 안의 모든 사람들 다 아침 청소를 하고 있다.
복희,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힐끗힐끗 다른 재소자들의 눈치를 본다.
미자 역시 화장실 솔로 변기를 청소하며 다른 재소자들을 힐끗거린다.
어제 한 짓을 들킬까 봐 다른 재소자들이 사물함 쪽으로 갈 때마다
움찔거리는 모습.

그때, 티브이를 보던 껌빵 대장 자리에서 뭔가 생각난 듯 자리에서 일어난다.
껌빵 대장이 사물함 쪽으로 향하는 모습에 잔뜩 긴장하는 복희와 미자.
다행스럽게도 재소자1과 2의 사물함이 아닌 본인 사물함으로 가는 껌빵 대장.
둘은 티 나지 않게 안도의 한숨을 내신다.
하지만 안심한 것도 잠시, 뒤이어 재소자2의 사물함으로 가는 껌빵 대장.
재소자2의 사물함에 있던 자신의 파우치를 꺼내고, 복희와 미자 얼어붙는다.
아무렇지 않게 파우치를 뒤지던 껌빵 대장,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껌빵 대장 어? (파우치를 미친 듯이 뒤적거리는) 미친... 뭐야, 이거?

재소자1·2 의아한 얼굴로 껌빵 대장을 쳐다본다.
복희와 미자, 큰일 났다는 얼굴로 껌빵 대장을 바라본다.

껌빵 대장 어떤 년이...!

그때, 감옥 문이 열리고 교도관들 들이닥친다.

교도관1 동작 그만!
5사 7방 검방!

재소자들 놀라 교도관 쳐다보는 와중에
복희와 미자만 입 모양으로 예스! 외친다.

#13. 감옥 앞 복도(아침)

5사 7방 사람들 감옥에서 나와 복도에 일렬로 선다.
교도관들, 감옥 안에 들어가 방을 수색한다.
긴장한 모습의 깡빵 대장과 재소자1·2와는 달리 여유로운 표정의 복희와 미자.

교도관1 금지 물품 발견됐습니다!

감옥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아씨, 하는 표정을 짓는 재소자1·2.
교도관 금지 물품을 한가득 가지고 감옥 밖으로 나온다.
그걸 보며 허, 하고 웃는 허 부장과 다른 교도관들.

허 부장 누구 물품이죠?

교도관1 7425번과 3812번 사물함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말에 재소자1·2, 깡빵 대장 모두 얼빠진 표정 된다.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미소가 피어오르는 복희와 미자의 얼굴.

허 부장 7425번, 3812번 나오세요.

복희와 미자, 뒤돌아서 다가가자 허 부장이 놀란 표정 짓는다.

허 부장 (미심쩍게) 이거 정말 7425번, 3812번 물품입니까?

복희 그람예! 진짜 죄송하게 됐심...

미자 (황급히 말 자르며) 아이고! 한 번만 봐주세요, 교도관님!
다시는 이런 거 안 가지고 있을게요!

복희 (눈치채고 어색한 연기 툠으려) 하, 아이고! 예, 맞아예.

우리가 미치는갑지. 저런 걸 왜 가지고 있었는지, 하이고!

허 부장 ...정말 7425번, 3812번 물품 맞습니까?

교도관1 허 부장님, 이거 둘 사물함에서 나온 게 맞...

허 부장 (말 자르며) 제 말은 누가 이 둘한테 이걸 떠넘겼냐는 겁니다.

교도관1 네?

미자·복희 예?

허 부장 제가 알기로 7425번, 3812번은 영치금도 없는 걸로 아는데...
누가 맡긴 게 아니면 대체 어떻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교도관1 허 부장님.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추측은...

허 부장 교도소 내 다툼, 비리, 억울한 일까지 밝혀내 재소자들의 교화에
힘쓰는 것도 교도관의 일입니다. (다시 복희와 미자 바라보며)
말해보세요. 정말 7425번, 3812번 물건들입니까?

복희 아, 아니. 그라몬 누구...

미자 아니, 그제...

재소자1 저 사람 물건이에요!

다들 목소리 들려온 방향으로 고개 돌리면.

재소자1, 깡빵 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복희와 미자, 이제 그제 황당하고.

깡빵 대장, 갑작스러운 고발에 얼굴 험악해져 뭐라 말하려 하는데
재소자2 끼어들다.

재소자2 마, 맞아요! 죄다 저 사람 물건이에요!

검방 안 걸리려고 할머니들한테 죄다 떠넘기는 거 제가 다 봤어요!

깡빵 대장 (기가 막혀) 미쳤나, 이것들이! 아니, 아닙니다. 교도관님들.

허 부장 정말입니까?

미자 (당황해) 아니, 그게 아니라...

재소자1 네, 진짜예요! 저희가 봤어요! 수시로 막 때리고 협박했단니까요!

복희 (황당하고 어이없는) 아니, 그게 아이고...

깡빵 대장 아, 나 진짜 환장하겠네! 내가 언제 저 할머니들을 봤는데?!

허 부장 협박에 폭행까지? 안 되겠네.

깜빡 대장 아니, 아니라니까는! (복희와 미자 보며)
 아니, 보소. 할머니들! 내가 당신들 뺏습니까? 예?
 미자 (황급히 고개 저으며) 아, 아니요. 안 그랬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복희 아니, 진짜 저 사람은 그리 한 적이 없고 우리가 죄를 지어가고...
 허 부장 지금 교도관 앞에서 사람 협박합니까?
 재소자1 저 보세요! 저 사람은 상습이라니까요!
 항상 할머니들 때리고 물품 사물함에 억지로 넣고!
 재소자2 맞아요, 맞아요!
 깜빡 대장 이것들이 진짜 돌았나! 내가 언제 저 할매들한테 그랬어?
 내가 니들한테 그런 적은 있어도 저 할매들한테는...!
 (찾김에 뺄어놓고 혁해서 입 틀어막는)
 허 부장 (이것 봐라 싶고) 시인했네? 재소자 번호 5827, 징벌방으로 끌고 가!

깜빡 대장, 억울함에 가득 차 발버둥 치며 끌려간다.
 다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복희와 미자만이 귀신에 홀린 표정으로 서 있다.

#14. 감옥 안(아침)

복희와 미자, 떨떠름한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다.
 그 앞에 마주 앉은 재소자1과 2, 각각 복희와 미자의 손을 잡고 있다.

재소자1 언니들, 정말 고마워요.
 재소자2 맞아요. 그날 저희 도와주려고 그렇게 제의하신 것도 모르고 저는
 진짜 노망난 줄 알았... (재소자1이 옆구리 퍽 친다) 아! 왜?
 재소자1 아무튼 진짜 고마워요. 그 대장 땀에 입소한 후부터 계속 힘들었는데
 언니들이 도와주셔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다 언니들은 진짜 죄 지어서
 온 사람 아니라더니, 역시 범죄자들이랑은 마음 씀씀이부터가 다르네!
 복희 (똥하게) 고마울 거 없다. 니들 도올라 칸 거 아이니까는.
 재소자1 네?

미자 (팔꿈치로 복희 퍽 치며, 억지로 웃는)
 아, 아니야~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지, 언니?
 복희 (여전히 똥한)
 재소자1 (뭘지? 싶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일어서는)
 언니들은 앉아 계세요! 오늘 청소는 우리가 할 거니까는.
 재소자2 (함께 일어나며) 맞아요. 오늘은 쉬세요!

재소자1과 2, 분주하게 청소 시작한다.
 둘이 청소에 정신이 팔리자 티브이 볼륨을 키운 복희와 미자.
 다시 머리를 맞댄 채 작당모의를 시작한다.

미자 언니, 이게 진짜 무슨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어?
 복희 내가 아냐. 뭉디 진짜... 안 될 놈들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카드만 딱 그 짝이다. 미치고 환장하겠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노?
 미자 아냐, 언니. 우리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침착하게 다음 계획을 준비하자.
 복희 (의아한) 다음 계획?
 미자 (결연하게 고개 끄덕이며) 응, 다음 계획.

#15. 운동장(낮)

재소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복희와 미자, 붙어 선 채로 타깃을 물색하듯 운동장을 둘러본다.

복희 자는?
 체격 좋은 50대 여성 보인다.

미자 (단호하게 고개 저으며) 안 돼! 덩치가 너무 커.
 복희 (다시 둘러보며) 그럼... 자는?

비실비실한 60대 여성 보인다.

미자 안 돼! 너무 약해 보여!
복희 (다시 둘러보며) 그럼... 자는?

딱 적당한 체구의 40대 여성 보인다.

미자 안 돼! 재는...
복희 (버럭 화를 내며) 아, 너무 체격 좋아도 안 된다, 말라도 안 된다, 적당해도 안 된다, 뭐 우짜란 말이고! 가시나, 드릅게 까다롭네!
미자 (달래듯) 아니, 언니. 내 말 좀 들어봐. 일단 덩치 좋은 애랑 싸웠다면 우리 뼈 다 부러져. 알지? 우리 나이엔 뼈 부러지면 붙지도 않는 거. 우리 그냥 적당히 시비만 붙어서 교도관 눈에 띄는 게 목표잖아. 근데 뼈가 부러지면 돼, 안 돼?

복희 그럼 저 마른 가시나면 딱이대이가!
미자 재는 너무 약하잖아. 2대 1로 싸우다가 재가 진짜 다치면 어떡해?
복희 (누그러진) ...그거는 안 되지. 약한 사람 다구리 치면은 죄받는다. 근데 그럼 딱 적당한 자는 왜 안 되는데? 아담하고 좋구만!

미자 재는 이 감옥 넘버 파이프잖아, 언니.
재 건드렸다면 우리 교도소 생활 진짜 심란해져.
언니는 이런 것도 몰라?

복희 니가 너무 마이 아는 기다.
그리고 내 같은 늙은이가 그런 거 알아서 뭐하노.

미자 알아서 뭐하긴! 갇혀서 생존할 수 있는 필수 지식인데.
우리 앞으로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모르면 어떡해?

복희 가씨나, 유세는...

복희, 다시 한번 둘러보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 적당한 체구의 60대 여성 보인다.

복희 그럼 자는?

미자 (보자마자 놀라 박수 치며) 엄마야! 딱이네, 딱이야!
복희 진짜가? 진짜 자로 가는 기가?
미자 어, 진짜 딱이야! 운동 시간 끝나기 전에 빨리 가자, 언니. 맘의 준비 됐지?

미자, 고개 돌리면 복희 없다.
다시 앞을 보면 이미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복희 뒷모습 보인다.

미자 어휴, 우리 언니 성격 급한 거 봐. 같이...!
복희 (갑자기 멈춰 선다)
미자 왜 그래, 언니? 겁나?
복희 ...야야, 후퇴. 후퇴다. 가자.
미자 왜 그래, 언니? 왜 갑자기...?

멈춰 선 복희의 시선 따라가면, 벤치에 앉아 빵을 먹는 갇혀 대장 보인다.
미자와 복희, 황급히 도망치지만 돌을 발견해버린 갇혀 대장.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걸어오는 갇혀 대장의 모습에 황급히 뒤돌아 도망치는 둘.
이리저리 둘러보며 교도관 쪽을 찾지만 공교롭게도 자리를 비운 채다.
큰일 났다 싶어 걸음을 빨리해보지만 금방 따라잡히고 마는 둘.
갇혀 대장, 한 손으로 미자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챈다.

갇혀 대장 (살벌하게) 할매들요. 나랑 할 얘기 있지요?
미자 하하하... 아니, 그게 오해가...
갇혀 대장 오해애? 그 사기꾼 년들이랑 짜고 내 옛 먹인 게 오해라고?
복희 마음은 알겠지마는 일단 이거 좀 놓고...
갇혀 대장 (손 뿌리치고) 내가 진짜 할매들이라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손도 안 대고 봐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가 징벌방에서 분해서 잠도 못 잤소. 내 인간 김영희, 뒤통수 맞으면 세 배로 돌려준다는 철칙 가지고 살았거든? 어디 한번 당해봐라. (손 치켜드는)
미자 (남편한테 맞고 산 트라우마로 덜덜 떨며 눈 질끈 감고) 악!

복희 아이고, 야 말고 나를 때리라!

복희, 서둘러 미자 앞을 막아선다.

미자와 복희, 두 눈을 질끈 감는데 갑자기 억! 하는 이상한 소리 들린다.

놀란 둘이 눈을 뜨면, 눈을 까뒤집은 채 뒤로 쿵 넘어지는 깜빡 대장 보인다.

복희 뭐, 뭐꼬...

미자 (멍하니 있다 깨달는) ...미끄러졌나 봐! 언니, 지금이 기회야!

복희 기회?

미자 우리 계획 있잖아! 지금 다굴하는 척 하면 딱이야!

(발로 차는 시늉을 하는)

자, 빨리 언니도 해! 축구공이라 생각하고 빨리!

복희 (넘어진 채 목 잡고 괴로워하는 깜빡 대장 쳐다보며)

자빠진 게 아인 거 같은데...

미자 (다급하게) 언니, 빨리! 우리 감옥이 우리 곁에 있어!

복희 (퍼뜩 정신 차리고 다급하게, 어설픈 동작으로)

맞다, 그래! 이, 이렇게...? 엄마야!

복희, 어설픈게 차는 시늉을 하다가 깜빡 대장의 다리에 걸려서 깜빡 대장 위로 넘어진다. 놀라 황급히 일어나며 깜빡 대장의 가슴팍을 세게 누르는 복희.

그때, 깜빡 대장의 입에서 빵 조각이 튀어나온다.

그제야 미친 듯이 기침을 하며 숨을 들이쉬는 깜빡 대장.

그때, 호루라기 불며 교도관 달려온다. 덩달아 모여드는 다른 재소자들.

사방이 난장판이 된 가운데 복희와 미자 멍하니 그 한가운데에 서 있다.

#16. 의료실(낮)

의사 정말 완벽한 응급처치였습니다.

복희·미자 (동시에) ...네?

감옥 의료실.

침대에 누워 있는 깜빡 대장과 그 옆에 서서 의사의 소견을 듣고 있는 복희와 미자.

그 옆에 허 부장 서 있다.

의사 하마터면 빵이 기도를 막아서 큰일 날 뻔했어요. 응급처치가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허 부장 (놀라) 이제 괜찮습니까?

의사 네네. 말했다시피 이분들이 응급처치를 워낙 훌륭하게 해서. 문제없습니다. 잘 쉬다 돌아가면 멀쩡할 거예요. (복희와 미자 보며) 상이라도 드려야겠네. 아무튼 이제 걱정 없으니까 이만들 돌아가요.

허 부장 감사합니다.

복희와 미자, 얼빠진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본다.

#17. 복도(낮)

허 부장, 앞서 걷다 뒤따라오는 복희와 미자를 돌아본다.

허 부장 오늘 정말 큰일들 하셨네요. 운동장으로 가지 말고 감옥으로 바로 복귀해서 쉬어요. 내가 말해놓을 테니까. (웃으며) 정말 표창이라도 드려야 되는 분들인데 이거밖에 못 드려서 미안하네.

미자 (떨떠름하게) 네, 뭐...

복희 (넋 나간 채 반응 없는)

허 부장 교도관님, 이분들 좀 데려다주세요. 저는 일이 있어서.

교도관1 (고개 끄덕이며 복희와 미자 이송한다)

허 부장 (반대로 걸어가다 멈춰 서며) 아참!

복희·미자 (덩달아 멈춰 서고) ?

허 부장 이번 일, 가석방 심사에 같이 보고 올릴게요. (윙크하고 가는)

복희·미자 (황망한)

#18. 감옥 안(낮)

복희와 미자, 둘뿐인 감옥 안에서 황망하게 앉아 있다.
둘 다 넋이 나간 표정이다.

미자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복희 내 말이 그 말이다...

미자 언니 말마따나 팔자가 뒤옹박인 년들이 모이면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건가...?

복희 내가 아나... 내도 인자 모르겠다.

복희, 자포자기한 듯 미자에게 등 돌린 채 팔을 베고 눕는다.

미자, 벽에 등을 기대며 크게 한숨을 쉰다.

미자 어디 사람 하나를 찌를 수도 없고...

복희 쓸데없는 소리할 거면 디비 자라.

미자 언니는 왜 탄 데서 뺨 맞고 나한테 화풀이야?
잘 거면 이불이나 덮고 자!

미자, 복희에게 이불 둘러준 다음 자신도 그 옆에 눕는다.

서로 등 돌린 자세로 누운 미자와 복희, 심란한 표정이다.

#19. 교도관실(낮)

평소와 달리 힘없이 걸레질 하는 복희.

허 부장 옆 책상의 걸레질을 하는 중간중간 자꾸 멍 때리는 모습.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던 허 부장 그 모습 의아한 듯 바라본다.

허 부장 (걱정스러운) 할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복희 (화들짝 놀라) 아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를 너무 설렁설렁

했지예. 후딱 치우고...

허 부장 (황급히 복희 팔 잡으며 웃는) 아니아니, 그게 아니구요.

아프시면 좀 쉬시라구요. 제가 말해놓을 테니까 들어가실래요?

복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찌 그럽니까. 제가 그냥 맘이 쪼매 심란해서...
별일 아닙니다, 진짜.

허 부장 왜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누가 괴롭히기라도 해요?

복희 아이고, 그런 게 아이라...

허 부장 무슨 일 있으면 참지 말고 저한테 꼭 말씀하세요. 알았죠?
힘닿는 대로 도와드릴 테니까.

복희 말씀만으로도 고맙심더, 진짜.

허 부장 빈말 아니니까요.

복희, 허 부장의 진심 어린 얼굴을 보며 잠시 갈등한다.

감옥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해도 될까 망설이다 “저...” 입 떼는데.

그때 타이밍 좋게도 교도관실 문이 벌컥 열린다.

교도관1 허 부장님! 실장님 호출입니다!

허 부장 아, 네! 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손에 쥐고 있던 펜을 연필꽂이에

꽂다 실수로 엎어버리는 허 부장.

펜들 책상 위로 마구 굴러간다.

허 부장, 급하게 수습하려는데 복희가 다가가 펜들 줍는다.

복희 제가 할 테니까 가보이소.

허 부장 그래도...

복희 (손 휘휘 젓는)

허 부장 (웃으며)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가는)

야무지게 펜들을 정리해 꽂은 후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줍기 위해 쭈그러 앉는 복희.

펜과 함께 떨어져 있는 커터칼을 줍는데, 순간 멈춰있다.

미자(E) 어디 사람 하나를 찌를 수도 없고...

복희, 자기도 모르게 커터칼을 가슴팍에 집어넣어 감춘다.

#20. 감옥 안(낮)

복희와 미자, 마주 앉은 채 바닥에 놓인 커터칼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때, 바깥에서 인기척 들리자 화들짝 놀라 칼 위로 몸을 던지는 둘.

슬라이딩하며 칼을 숨기는 코믹한 모습.

바깥에서 들리는 인기척 멀어지자

커터칼을 쥔 채로 일어서 복희를 찌러보는 미자.

미자 언니, 미쳤어? 그냥 한 소리를 곧이곧대로 듣고 이걸 가져오면
어떡해...! (두리번거리며) 다른 애들 확실히 안 오는 거 맞지?

복희 어, 개네 밖으로 봉사 갔다가. 확실히 안 온다.

미자 (안도의 한숨 쉬며 커터칼 내려놓는)

복희 내가 진짜 미쳤는갑다. 아니, 이거 보는 순간 진짜 눈이 해까닥
디비지가꼬...

미자 언니, 심정은 이해하지만 칼은 좀 아니잖아.

주먹다집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건데...

(칼 보며) 그래도 이걸로 사람 찌르면 확실히 여기 남을 수 있기는...

어머, 내가 무슨 말을! (자기 입 때리는)

복희 (놀라 커터칼 뺏으며) 아이고야, 클났다. 이기 사람 배리네.

내일 빨리 갖다놔야지 안 되겠...

아니, 근데 야야. 여 널리고 깔린 게 죄진 사람들인데 진짜 쪼만...

미자 언니!

복희 엄마야! 내가 뭐 소릴 하노, 지금! (자기 머리 치는)

미자 안 되겠어. 이거 그냥 버리자, 언니.

언니,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진짜 나쁜 짓은 안 했다는, 어? 그런 자부심 하나로 살았잖아.

근데 여기 아무리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널리고 깔렸대도!

칼로 사람을 찌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 앞으로?

복희 맞다, 맞다! 니 말이 맞다! 여기가 아무리 캄뽕이라 캐도!

잔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천치뽕까리라 해도!!

그래도 우에 사람을 칼로 찌르노. 안 글나? 버리자, 버려.

미자 그래! 버려, 버려. 나가서 얼어 죽어도 그건 아니지, 언니.

버리자, 빨리.

칼을 쥐고 화장실을 향하는 복희와 미자.

그때 티브이에서 뉴스 흘러나온다.

아나운서 날씨 소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역대급 한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멈춰하는 복희와 미자.

아나운서 이번 겨울,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다들 단단히 각오를...

서로 마주 보는 둘.

미자 언니, 왜 안 가...

복희 그라몬 니는 왜 가만 있노...

미자 ...근데, 이걸 선불리 버리는 건 좀 성급하지 않을까?

복희 ...아무래도 그렇게? 번기에 안 내려갈 수도 있고...

일단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놓자.

미자 그래, 그래! 그러는 게 낫겠다.

다시 자리에 앉은 복희와 미자.

뭔가 눈치를 보는 듯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미자 근데 언니.
 복희 와.
 미자 언니 말처럼 여기는 널리고 널린 게 범죄자들이잖아.
 복희 ...글치.
 미자 근데 그런 잔악무도하고 흉악한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복희 ...니 말도 일리는 있다. 막말로, 어?
 사람 죽인 놈들은 벼락을 맞아도 할 말 없는 거 아이가?
 미자 그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언니!

그때, 티브이에서 새로운 뉴스 흘러나온다.

아나운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비정한 엄마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이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살해한 사건인데요.
 리포터 연결해보겠습니다.
 복희 (티브이를 손가락질하며) 그래, 저런 아!
 딱 저런 아는 솔직히 갈 맞아도 할 말 있겠나, 지가?
 미자 (감정이입해) 어떻게 자기 애를... 진짜 때려죽일 년 아냐, 저거!
 복희 그자? 딱 저런 아면 딱이겠구만... 우리 교도소엔 저런 아 없나?

그때, 밖에서 인기척 들린다.

복희, 놀라서 가슴팍에 커터칼 쑤셔 넣고,

미자, 그 앞 흐들갑스럽게 가로막는다.

감옥 안으로 들어오던 재소자2, 우스꽝스러운 둘 모습 의아하게 바라본다.

미자 와, 왔어?
 재소자2 뭐해요, 언니들?
 복희 하긴 뭘하노! 그냥 뉴스 보고 있었지...
 재소자2 (뉴스 보고 표정 굳는) 아, 언니들도 소식 들었나 보네.

미자 무슨 소식?
 재소자2 물랐어요? (뉴스 화면 손으로 가리키며) 재, 우리 교도소 오잖아요.
 복희 뭐, 뭐라꼬?
 재소자2 그것도 우리 방으로 온대요. 진짜 미쳤죠? 좇됐어요, 우리.
 복희·미자 !!!!

서로 마주 보는 미자와 복희.

복희 미자야...
 미자 언니...

환희에 찬 둘, 서로 와락 끌어안고 빙빙 돌기 시작한다.

(이 장면에서 환희의 송가 흘러나온다)

복희 역시 인간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미자 그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소자2, 방방 뛰는 둘의 모습 황당한 얼굴로 바라본다.

재소자2 ...드디어 돌아왔나?

#21. 감옥 안(아침)

미자와 복희,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인다.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는 듯 상기된 모습.

죽상인 다른 재소자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그때, 감옥 문 열리고 교도관1 들어선다.

모두 행동을 멈추고 시선 집중한다.

교도관1 다들 주목. 신입이다.

재소자1:2 긴장된 표정.
 미자와 복희, 웃음기 가득한 기쁜 표정.
 교도관 뒤로 물러나고, 뒤에 서 있던 재소자 등장한다.
 20대 중반, 아주 왜소한 체격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칙올한 얼굴.
 예상과 다른 비주얼에 미묘해지는 복희와 미자의 표정.

교도관1 인사해.
 은혜 ...이은혜입니다.

복잡한 표정으로 서로 마주 보는 복희와 미자.

#22. 운동장(낮)

운동장 구석에서 붙어 서 있는 복희와 미자.
 의심스러운 얼굴로 벤치에 넋 나간 듯 힘없이 앉아 있는 은혜를 지켜보고 있다.

복희 자가 진짜 사람 죽인 아 맞나...?
 뭐 저리 매가리가 없노. 피죽도 몬 얻어먹은 아 같다.
 미자 언니! 진짜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해.
 범죄자가 나 범죄자요. 이렇게 얼굴에 써 붙이고 다니는 줄 알아?
 우리 남편만 봐도 얼굴만 보면 절간 들어가게 생겼어!
 복희 ...니 말이 맞다. 뭐, 여만 봐도 사람 좋게 생긴 것들이 한 둘이거.
 얼굴들만 보면 여가 감빵 아이고 성당으로 착각하게 생겼다!
 미자 그러니까! 게다가 재는 한 살도 안 된 애를 죽였다잖아.
 진짜 벼락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다니까. 어떻게 자기 애를...
 어휴, 끔찍해!
 복희 맞다, 맞다! 니 말이 맞다!
 금수도 지 새기는 안 해치는 법인데... 우예 저리 흥한 게 다 있노.
 미자 그니까 언니, 우리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비장하게) 우리 계획대로 오늘 해치우는 거야.

복희 (고개 끄덕이며 비장하게) 오야. 오늘 밤에, 속전속결로 해치우빠자.

#23. 감옥 복도(밤)

텅 빈 복도에 소등! 하는 소리 울려 퍼지고 다 같이 불 꺼진다.

#24. 감옥 안(밤)

다 같이 일렬로 누워 눈을 감고 있는 재소자들.
 복희와 미자 역시 나란히 누워 눈을 감고 있다.
 재소자1과 2의 코 고는 소리 들려오자마자, 반짝 눈을 뜨는 복희와 미자.
 복희, 조심스럽게 가슴팍에서 커터칼 꺼내 꼭 쥐 다음 미자 쳐다본다.
 미자, 그 눈빛 받으며 고개 끄덕인다.
 둘이 입 모양으로 하나, 둘, 셋...! 까지 세고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옆자리에서 누군가 스르륵 일어난다.
 자기도 모르게 다시 눈을 꼭 감고 자는 척하는 복희와 미자.
 잠시 후 실눈을 뜨자 타깃인 이은혜의 잠자리가 비어 있다.
 화장실에 갔나 싶어 다시 자는 척을 하는 둘.
 그런데 자꾸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의아함에 슬쩍 고개를 돌리면.
 감옥 창살에 천을 묶어 목을 매다는 은혜가 보인다.
 복희와 미자,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미자 (달려가는) 어머, 어머!!!!
 복희 (뒤따라 달려가며) 미쳤나, 저게!!!!

빛의 속도로 은혜에게로 달려간 둘.
 복희는 은혜의 목을 빼내려 용쓰고 미자는 창살에 묶인 천을 풀려고 애쓴다.
 하지만 은혜의 격렬한 저항으로 잘 되지 않는다.
 한참을 실랑이하던 셋.

미자, 은혜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 뭔가 깨달은 듯 은혜의 다리를 잡고 들어올린다.

미자 언니! 다리 잡아, 다리!!!

복희 !!

복희도 황급히 은혜의 다리를 잡아 미자와 함께 들어올린다.

재소자1 (부스스 일어나며)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

복희 야야!! 교도관 불러라, 빨리!!!

재소자1 (놀라 문으로 달려가며) 교도관!!!!

#25. 교도관실(밤)

복희와 미자,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다.

허 부장, 커피 든 채로 다가와 그 앞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허 부장 많이 놀라셨죠.

복희, 커피를 들어 원샷한다.

미자 (놀라) 언니, 입천장 다 까져!

복희 지금 그기 문제가! 내가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해가고...

말 좀 해보이소. 가가 대체 와 그랬다요?

미자 진짜 왜 그런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짓을...?

허 부장 (씹쓸하게) ...글썸요.

사실 이건 추측이지만, 죄책감 때문인 거 같아요.

미자 네?

허 부장 사실 이은혜 씨가 고의로 아이를 죽인 게 아니라는 정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하도 그렇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냥 구속한 거구요.

복희 아니, 지가 죽인 게 아닌데 와 죽였다 캡니까?

미자 그러니까요! 뭐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 누명을 스스로...

허 부장 ...어찌됐건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할지도요.

넘어지면서 실수로 그랬건 아니건 아이한테 뜨거운 물을 부은 건 자신이니깐요.

복희 그런 이유로 지 죽였다 카고 깜빡에 들어와가 죽을라 켜다고요?

허 부장 (웃으며) 글썸요. 다 추측이니까.

그때, 교도관실 문 활짝 열리며 유 소장(교도소장)과 실장 함께 들어온다.

허 부장, 복희, 미자 셋 다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한다.

허 부장 소장님! 여기까진 무슨 일로...?

유 소장, 사람 좋게 웃으며 다가와 허 부장의 어깨를 짚는다.

유 소장 허 부장, 그래. 재소자 자살을 막았다지? 수고했네.

허 부장 아, 아닙니다. 저는 한 게 없고 이분들이 했어요.

(어색하게 선 복희와 미자 바라보며) 저번에도 재소자 질식사 할 뻔한 거 보고 드렸었죠? 그걸 막은 것도 이분들이고 이번에 자살을 막은 것도 이분들입니다.

유 소장 이 재소자들이?

유 소장, 복희와 미자를 훑듯이 살핀다.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매단 채지만 품평하는 듯한 태도가 새어나오는 모습.

유 소장 그것도 두 번이나?

허 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체 모범적으로 생활해서 이미 가석방 대상자인 분들이라...

유 소장 오호...

유 소장, 복희와 미자에게 다가가 복희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유 소장 큰일들 하셨네요.
 복희 아, 아입니다. 저희가 뭘 했다고...
 유 소장 겸손하시네. 고생하셨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서 푹 쉬어요.
 허 부장 허 부장, 이송해요.
 허 부장 아, 네!

복희와 미자, 인사 꾸벅하고 허 부장 뒤를 따라나선다.
 유 소장, 교도관실을 나가는 둘의 모습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본다.

#26. 감옥 안(밤)

불 꺼진 감옥 안.
 재소자1, 재소자2 잠든 와중에 복희와 미자
 바닥을 네발로 기며 뭔가를 찾고 있다.

복희 (속삭이며) 여는 없다. 거도 없나?
 미자 (속삭이며) 어, 없어. 아무리 난리통이었다지만 진짜 이상하네.
 같이 하늘로 솟았나...
 복희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만 찾자.
 미자 아니, 왜?
 복희 ...우리 맘을 나쁘게 묵어서 죄받는 걸 수도 있다.
 우리가 만약에 개 찢렸어봐라. 그럼 죄 없는 사람 찢른 거 아니냐.
 미자 아니, 우리가 그걸 알았나. 뭐... (그러면서도 자리에 털썩 앉는)
 하긴, 근데 개 사연 진짜 끔찍하긴 하더라...
 복희 끔찍?
 미자 나도 자식이 있잖아. 부모 입장에서 내 손으로 자식을 죽인 셈인데
 그게 살아도 사는 거겠어? 나였어도 개처럼 할 것 같긴 해.
 복희 글나. 난 그런 부모 입장은 잘 모르겠다.
 미자 ...가만 보면 진짜 나보다 언니 팔자가 더 사나워.
 자식 하나 없이 남편 앞세우고. 나쁜 짓 하나 안 하고 살다 폐지 안에

복희 감자 다섯 알 있는 거 모르고 가져왔다고 절도죄를 선고받질 않나.
 복희 문디, 뭐라노. 들다 보면 세상에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이 세상천지에
 있겠나. 아까 가만 봐도 글코.
 미자 하긴...
 복희 낸 이제 잘란다. 니도 누우라.
 미자 그래, 칼은 내일 해 뜨면 다시 찾아보던 하자.

복희와 미자, 누워 잠든다.

#27. 감옥(낮)

근로를 나가려 준비 중인 복희와 미자.
 그때, 감옥 문 열리고 교도관1 들어선다.

교도관1 7425번, 3812번 나오세요.

어리둥절한 얼굴로 일어서는 복희와 미자.

#28. 감옥 복도(낮)

불안한 얼굴로 교도관의 뒤를 따르는 복희와 미자.
 가석방 심사를 하러 가는 것일까 봐 초조해하는 모습.
 잠시 망설이던 미자, 교도관1 옆으로 슬금 다가간다.

미자 저, 교도관님. 혹시 어디 가는...
 교도관1 (말 자르며) 가보면 압니다.
 미자 아, 네...

미자, 힘없이 복희 곁으로 되돌아온다.

축 처진 채 교도관 뒤를 따라가는 둘.

#29. 교도소장실(낮)

교도관1, 노크를 한 뒤 교도소장실로 들어선다.
복희와 미자, 어리둥절한 얼굴로 함께 들어서면
소파에 앉은 유 소장과 허 부장,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기자) 보인다.

유 소장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이구, 왔네요. 우리 교도소 영웅들.

복희와 미자, 여전히 어리둥절한 상태로 꾸벅 인사한다.
허 부장, 웃으며 둘에게 기사를 소개한다.

허 부장 이분은 매일일보 기자님이세요.

기자 박민철 기잡니다. 반갑습니다.

복희 아, 예... 안녕하십니까.

미자 안녕하세요... (눈치 보며) 근데 왜 우리를...

허 부장 두 분, 큰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소장님이 두 분이 한 일에 상도 내리고 또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웃으며) 두 분, 곧 진짜로 표창장 받게 생겼어요.

복희-미자 (동시에) 예?

유 소장 (기자 의식해 웃으며) 이런 미담은 널리 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 부장 그럼요. 기자님, 사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 물론 모자이크는 들어갈 거예요.

기자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사진부터 따고 들어갈게요.

자, 소장님 가운데 서시고 두 분 양옆에 서세요.

복희와 미자, 얼떨결에 소장의 양쪽에 각각 선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정쩡한 표정과 자세.

기자 자자, 아무리 모자이크를 한다지만 그래도 좀 웃으시고!
3, 2, 1 김치!

입꼬리만 올린 채 억지웃음 지은
복희와 미자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유 소장.
화면에 잡히면서 팡! 플래시 터진다.

#30. 신문 지면

#29 마지막 화면이 신문 지면으로 전환된다.

모습 그대로지만 흑백이고 복희와 미자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박혀 있다.
그 위에 '몸을 던져 재소자의 목숨을 살린 교도소의 영웅들'
기사 타이틀 박혀 있다.

#31. 감옥 안(낮)

미자, 신문을 바닥에 패대기친다.

복희, 옆에 망연자실해 앉아 있다.

미자 이게 뭐야, 진짜!

복희 다 조졌다, 이제. 시원하게 말아무따.

미자 ...언니, 우리 진짜 가석방 확정이야? 심사도 없이 그냥?

복희 니 그새 까뭇나. 소장인가 뭐시깁인가가 그카드라이가. 일주일 뒤에
우리 표창장 받고 나면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석방 시키 뿐다고.
표창장까지 받았으니까 그럴 자격 있다고 기자한테 안 그 카드나.

미자 아, 어떡해. 진짜! 다 조졌어. 다 망했다고!

복희 ...됐다.

미자 뭐가? 되긴 뭐가 됐는데? 언니 뭐 방법 있어?

복희 이 정도로 일이 안 풀리는 거는 하늘이 안 돕는 거다.

미자 뭐 소리야? ...설마 포기하자고? 이대로?
 복희 바라. 우리 엄한 사람 칼로 찌를라 안 겠나.
 불쌍한 사람 칼로 찌를라 카고 이라니까 죄받는 거지.
 어차피 아무리 용 써봤자 또 이런 식으로 굴러갈 께다.
 미자 언니, 진짜 그게 무슨 헛소리야? 하늘 같은 소리 하네!
 (벌떡 일어나며) 그럼 내가 한평생 처맛고 산 것도 언니가 흠치지도
 않은 감자 다섯 알로 여기 들어온 것도 다 하늘의 뜻이야?!

복희 ...

미자 우리 이대로 나가서 언니는 얼어 죽고 나는 맞아 죽어도
 하늘의 뜻이겠네, 어?!

복희 ...그렇게라도 생각 안 하면 우짤 낀데?

미자 뭐?

복희 아무리 용을 써도 일이 꼬이기만 하는데 우짤 끼냐고!
 나는 따로 방법이 있나? 진짜 사람이라도 죽일 끼가? 어?

미자 (할 말 없고, 막막한)

미자와 복희, 잠시 대치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울상이 된 채로 자리에 주저앉는 미자.
 복희, 말없이 뺨 몸 돌리려는데 미자 표정이 심상치 않다.
 보면 잔뜩 눈물 고인 미자의 눈.

복희 뭐꼬, 니 우냐?!

미자 ...

복희 ...니 뭐꼬. 니, 숨기는 거 있제. 딱 말해라.

미자 ...

복희 딱 말하라니까는?!

미자가 끝까지 입 다물자 자리에서 일어나 미자의 물품 보관함으로 가는 복희.
 미자가 한 박자 늦게 따라가 말려보지만 이미 늦었다.
 미자의 물품 보관함에서 남편의 험박 편지를 발견한 복희.
 굳어진 얼굴로 미자 노려본다.

복희 니 이거 뭐꼬? 니 남편 잠잠하다 안 겠나. (편지 흔들며)
 근데 니 나오면 당장 찢러 죽이겠다는 편지가 왜 오노? 어?
 미자 ...언니 걱정할까 봐 그랬어. 당장 언니 사는 것도 막막한데...
 복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걸 숨기면 우짜노!
 미자 (눈 질끈 감는)
 복희 (그 모습 보고 옥박지를 때가 아니다 싶어 회유하는)
 니 남편이니까 니가 더 잘 알제. 한다면 하는 놈이냐? 맞냐?
 미자 (끄덕이는)
 복희 (등짝 때리며) 이 몽디 가시나야!
 그럼 상의를 하고 어떻게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요 살아야겠다고
 지랄을 해야지! 미련통이처럼 그러고 있나!
 미자 ...그래서 사람까지 찢르겠다고 난리 쳤잖아!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떡해! 언니 말마따나 이제 사람 죽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뒤옹박 팔자인 년들이라 뭘 해도 안 된다고!
 복희 ...그래도 아직 시간이 남았다이가.
 미자 시간?
 복희 그래, 시간. 아직 우리에게 일주일이나 남았다.
 미자 그건 그렇지만... 아까는 방법이 없다면...
 복희 그거는 사태를 몰랐을 때 말이고.
 알고도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법이다. 무슨 지랄이라도 해야지.

미자, 비장한 표정의 복희 어리둥절해 바라본다.

#32. 몽타주(낮)

— 원에 작업장. 미자 자신 앞의 식물을 심는 척하다가
 다른 재소자의 식물을 다 뽑아버린다.
 다른 재소자가 따져 묻는 앞에서 그 식물을 발로 푹푹 밟는 미자.
 재소자 표정 험악해지고, 미자 됐다! 하고 미소 짓는다.
 하지만 별다른 행동 않고 “별 미친년 다 보겠네” 하고 가버리는 재소자.

실망하는 미자.

— 식당. 밥은 먹는 등 마는 등 하며 눈치를 살피던 복희.
옆자리에 앉은 다른 재소자의 반찬을 멋대로 찍어 입에 마구 집어넣는다.
황당한 얼굴의 재소자가 따져 물으려는 순간,
목이 막혀 가슴팍 짹 짹 치는 복희.
재소자, 놀라 반사적으로 물 가져다준다.
그걸 받으려다 실수처럼 식판을 손으로 쳐 재소자에게 엎어버리는 복희.
화난 재소자 씩씩대며 당장이라도 먹살 잡을 듯 일어나면, 복희 표정 밝아지고.
하지만 이내 바닥의 국물 밟고 뒤로 넘어가버리는 재소자.
다들 몰려드는 와중에 울상이 되는 복희.

— 주변을 살피며 운동장을 어슬렁거리던 복희와 미자.
사나워 보이는 재소자들에게 슬쩍 다가가 발을 건다.
넘어진 재소자들, 일어나 복희와 미자의 먹살 잡는데 그들에게 박치기를
해버리는 둘. 분위기 순식간에 험악해지고,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되는데.
바로 그때 교도관들 호루라기를 불며 뛰어온다.
복희와 미자. 달려오는 교도관 보고 함박 미소를 짓는다.

#33. 교도소장실 문 앞(낮)

교도소장실 문 앞에서 어리둥절한 표정 짓는 둘.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교도관1 황급히 붙잡는다.

미자 교도관님, 여기가 아닌 거 같은데요?
복희 맞습니다. 우리 징벌방에 가는 거 아닙니까?

교도관1, 둘의 말 무시하고 교도소장실로 들어간다.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가는 둘.

#34. 교도소장실(낮)

들어가면 교도소장 웃는 낯으로 소파에 앉아
복희와 미자에게 앉으라고 손짓한다.
어정쩡하게 걸어가 소파에 나란히 앉는 둘.

유 소장 두 분이 며칠 동안 일으킨 소동에 대한 보고 들었습니다.
내가 왜 두 분을 여기 불렀다고 생각해요?
미자 (잠깐 눈치 보다) ...혹시 표창장 수여를 취소하려고...
유 소장 그럴 리가. 우리 교도소 영웅들이신데.
미자 그럼 왜...
유 소장 며칠 전에 기사가 났잖아요? 그게 아주 반응들이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야. 서사, 설령 범죄자라고 해도 서사가 있으면 아주
미치거든. 특히 미담에 돌아버려요. 제 말, 이해하겠어요?
복희 그기 무슨...
유 소장 말이 너무 어려웠나? 흠... 그럼 이렇게 말해볼까요?
아무리 못 배운 할머니들이라고 해도 이런 속담 하나쯤은 알겠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복희 ...
유 소장 할머니들은 가석방되고, 우리 교도소는 위상 높이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여식 날까지 암전히...
복희 가석방, 그거 안 시켜줘도 됩니다.
유 소장 (웃음기 사라지며) 뭐?
복희 가석방 안 시켜줘도 된다고요. 표창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유 소장 (굳은 표정으로) 입 다물어.

복희와 미자, 흠칫 놀란다.

유 소장 하여간 좋게 좋게 말하면 다들 주제도 모르고 기어올라서, 원...
복희 ...
미자 ...

유 소장 가만히만 있으면, 영웅으로 만들어서 가석방 시켜주겠다는데
왜 가만히를 못 있지?
미자 저, 저희는...
유 소장 (다시 웃으며) 이게 권유 같아요?

유 소장, 자리에서 일어나 복희와 미자에게 다가온다.
유 소장이 손을 뻗으면 미자 눈 질끈 감고 복희는 그런 미자 어깨 감싸 안는다.
하지만 그저 그들의 어깨를 툭툭 털어내는 유 소장.

유 소장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깨 털어주며)
본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도.

유 소장, 둘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면 교도관1 다가와서 둘 데리고 나간다.
귀신에 홀린 표정으로 나가는 둘.

#35. 운동장(낮)

운동장에 다시 복귀한 둘.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다.

미자 귀신에 홀린 거 같아...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던 양반이...
복희 ...니가 저번에 안 그랬나. 사람 걸가죽만 보고는 모르는 거라고.
어쩐지 너구리같이 생겼다 했더니 진짜 백 살 먹은 너구리 아이가...
미자 그러니까... (머리를 헤집으며) 아, 진짜. 이제 어찌지?
복희 아무리 사고를 쳐봤자 그 양반이 다 막아뿔 끼고...
미자 그 인간이 아무리 무마를 시켜도 안 될 만큼 확실한 게 필요한데...
복희 그걸 모르니까 문제 아이가...

복희와 미자, 머리를 쥔 채 괴로워하는데 갑자기 둘 앞에 누군가 다가와 선다.
둘, 고개 들면 갠 대장이 위협적인 얼굴로 서 있다.
화들짝 놀라 긴장하는 복희와 미자.

갠 대장이 다시 한 걸음 움직이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왁 비명을 지른다.

미자·복희 (동시에) 엄마야...!
갠 대장 (90도 각도로 인사하며) 감사했습니다!!!
미자 ...네?
복희 ...뭐라꼬요?
갠 대장 일전에 할매들이 제 목숨 살려줬지 않소.
할매들이 내 은인이요. 절 받으소.

갠 대장, 갑자기 넙죽 절하면 복희와 미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난다.

복희 아이고! 바닥도 찰는데 와 이라노, 이 사람이!
(팔 잡으며) 빨리 일어나라!
미자 (같이 팔 잡으며) 그니까 그게 뭐라고 이래...!
갠 대장 내 인간 김영희, 원수는 세 배로 갚지만 은혜도 다섯 배로 갚자는
철칙이 있는 사람이요. 할매들은 이제 내 은인이니까 부탁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하소.

복희 아이고야, 알았으니까 쯤 일어나니까는!
미자 (같이 일으키려 공공대다 멈칫하는) ...뭐든지?
복희 (야가 왜 이러나 싶어 쳐다보는)
미자 ...그럼 물건도 구해줄 수 있어?
복희 야야, 지금 무슨 말을...
갠 대장 당연한 소릴 한다. 내 힘 닿는 데까지 다 구해다 줄 테니까 말만 하소!
뭘 구해다 주면 되는데?
복희 (미자 보면)
미자 (주변 둘러보다, 나지막이) 커터칼, 구해줄 수 있어?
복희 ?!

#36. 감옥 안(밤)

복희, 재소자1과 2 잠든 것 확인하고 미자를 깨운다.

미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난다.

복희 야야, 니 말해봐라. 대체 무슨 짓을 할라꼬?
 사람 찌르게? 소용없다. 사람 찢러도 무마시킬…

미자 무마를 못 시키면?

복희 그게 뭘 말이고? 야, 금마 그거 교도소장이다, 소장!
 그거 하나 무마를 못 시키겠나?

미자 방법이 하나 있어. 우리 표창장 받는 날, 기자가 오잖아.

복희 그기 왜?

미자 분명히 카메라가 우리 찍고 있을 건데 우리가 거기서 사고를 친다면?

복희 !! ...그러면 아무리 금마라도 무마를 못 시키겠네?

미자 그렇지!

복희 이 가스나, 천재 아이가?! ...잠깐, 잠깐만. 그럼 누구 찌를 낀데?
 또 사람 찌를 끼가. 그거는…

미자 아니야, 언니. 딱 두 명 있어. 죄 안 짓고 찌를 수 있는 상대.

복희 그기 눈데?!

미자 언니.

복희 (끄덕)

미자 그리고 나.

복희 어?

미자 우리, 서로를 찌르자.

복희 ?!

#37. 감옥 안(아침)

복희와 미자, 심각한 얼굴로 벽 앞에서 있다.

미자(E) 언니, 잘 생각해봐.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건 서로뿐이야. 그러니까 서로를 찌르는 거야.

달력, 클로즈업된다.

복희(E) 그러다가 마이 다치면은? 안 위험하겠나, 진짜로?

미자(E)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서로 심각하지 않을 만큼만 찌르는 거지. 싸우는 척을 하면서. 언니, 이게 우리 마지막 기회야.
 그날밖엔 기회가 없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는 거야.

재소자1과 2, 이불을 개다가 달력 앞에 나란히 선 복희와 미자를 슬쩍 들여다본다. 그러면 그 둘이 심각한 얼굴로 날짜에 동그라미 친 다음 훈장 수여식 'D-day'라고 적는 모습 보인다.

재소자1 (픽 웃으며) 야, 할머니들 표창장 관심 없는 척하더니 저것 좀 보라.

재소자2 냅뒹, 언니. 출소하게 됐는데 얼마나 설레겠어.

복희와 미자, 서로 결연한 얼굴로 마주 본다.
그리고 비장하게 고개 끄덕인다.

#38. 운동장(낮)

운동장 구석, 복희와 미자 기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똑딱이는 거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서로를 찌르는 예행 훈련이다. 훅훅, 압압! 입으로만 무림 고수 뺨치는 소리를 내는 두 사람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재소자들, 수군거리며 그들을 피하고 교도관1·2 멀리서 그 모습 황망하게 쳐다본다.

교도관2 저거 말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도관1 …일단 내버려둬. 소장님 명령이다.

교도관들 뒤돌아서 가면.

여전히 이얍! 허! 괴상한 소리 내며 훈련에 매진 중인 두 사람 모습 멀리 보인다.

#39. 원예 작업장(낮)

식물을 심다 말고 아쵸! 아쵸! 소리 내며 몸을 이리저리로 움직이는 미자.

#40. 인형 작업장(낮)

인형에 눈을 붙이다 말고 바늘로 훅! 훅훅! 소리 내며 찌르는 연습을 하는 복희.

#41. 감옥 안(밤)

불 꺼진 감옥 안.

미자와 복희, 어둠 속에서 소리 내지 않으며 훈련 중이다.

여전히 똑딱대는 기묘한 모습.

입으로는 소리를 내지 않으나 몸을 움직일 때마다 사부작거리는 소리

크게 울린다. 결국 벌떡 일어나 둘에게 베개를 던지는 재소자1.

재소자1 잠 좀 잡시다, 잠 좀!

#42. 운동장(낮)

여전히 운동장 구석에서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둘.

몇 번의 시도 끝에 어설프게나마 서로를 차례로 찌르는 동작을 성공시킨다.

미자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해낸 다음, 놀라 눈을 크게 뜨는 복희.

미자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뜬다.

미자 언니...!

복희 미자야...!

감격에 차 서로를 얼싸안고 빙빙 도는 두 사람.

#43. 감옥 안(낮)

달력 앞에 서서 'D-5' 적는 복희와 미자.

복희 근데 깜빵 대장 가가 그 물건은 언제 구해준다 카드노?

미자 안 그래도 어제 원예 작업실에서 마주쳤는데 적어도 모레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 혹시 늦어지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그럴 일 없다고 자기만 믿으래.

복희 하이고, 다행이네! 이제 딱 그 물건만 오면 완벽하다. 안 글나?

미자 당연하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실수만 안 하면 돼.

연습한 대로 내가 먼저 언니를 찌르고 나면...

복희 내가 니 손에 있는 칼 딱 뺏아가꼬 니를 푹 찔러베는 거지.

둘, 웃으며 가볍게 하이파이브 한다.

복희 아이고... 아직 날짜도 멀었는데 왜 벌써부터 가슴이 떨리노.

안 되굿다, 야. 연습 함만 더 하자.

미자 언니, 진짜 연습벌레네. 연습벌레야.

그래도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한 번만 더 하고 쉬자.

복희 오야, 알았다.

둘, 연습하러 자리 잡는데 감옥 문 열리고 교도관1 등장한다.

교도관1 3812번. 접견 신청이다.

복희와 미자, 표정 굳어진다.

복희 뭔데, 저거. 니 남편 아니가? 니 남편 말고 접견 올 사람 있나?
미자 (굳은 얼굴로 고개 젓는)
복희 됐다, 마. 거절해라. 그 새끼를 만다 볼 끼고!
미자 ...아냐, 언니. 보고 올게.
복희 미자야, 그라지 말고...
미자 실패할 수도 있잖아, 언니.
복희 (말 알아듣고 멈칫하는)
미자 그러면 나 진짜 죽어. 이번에 만나서... 그냥 어르고 달래볼게.
 (애써 웃는) 어차피 거기선 나 때리지도 못하잖아. 걱정하지 마.

미자, 복희에게 눈짓하고 교도관1 따라나선다.
걱정스러운 표정의 복희, 혼자 남겨진다.

#44. 접견실(낮)

미자, 긴장된 얼굴로 들어선다.
잔뜩 겁먹은 표정이던 미자의 표정, 놀란 표정으로 바뀐다.

미자 한수야!

 주춤거리던 방금 전과 달리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는 미자.
 미자가 헐레벌떡 의자에 앉을 때,
 접견실의 유리 너머에 앉아 있는 남자 보인다.
 이십 대 후반의 남성, 미자의 아들 한수다.
 화색이 도는 미자와 달리 한수의 표정은 다소 딱딱하다.

미자 여긴 어떻게 왔어, 응? 엄마 보러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데...
 근데 한수야, 너 좀 마른 거 아니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회사는 잘 다니고 있고?

한수 ...잘 다니겠어?
미자 (당황한) 어?
한수 회사에 소문날 대로 다 났어.
 엄마가 아빠 죽기 직전으로 만들고 깜빡 온 거.
미자 (놀라) 아니,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한수 사람들이 바보야? 그걸 모르게.
미자 (고개 푹 숙이며) ...엄마가 미안해.
한수 ...이제 됐어. 지금은 이직해서 잘 다니고 있으니까.
미자 ...정말? 정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몰라?
한수 당연하지. 내가 소문 안 퍼지게 하려고 얼마나... 아, 이런 이야긴 됐고.
 엄마, 나 물어볼 거 있어.
미자 어어, 그래. 뭔데, 아들?
한수 엄마 언제 출소해?
미자 (당황한 표정)

#45. 감옥 안(낮)

복희, 초조한 듯 감옥을 뱅뱅 돌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도관에게 이송되어 감옥 안으로 들어오는 미자.
복희, 후다닥 달려간다.

복희 니 괜찮나? 그 새끼가 머라 카대? 또 죽인다고 펄펄 뛰드나, 어?
미자 ...아냐, 언니.
복희 구라까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라, 어?
 하여간 그 몽디 새끼, 내가 씹어먹어도...
미자 그 사람... 아니었어.
복희 뭐라꼬? 그럼 눈데.
미자 ...우리 아들.
복희 (표정 싹 바뀌며) 뭐꼬, 진짜가? 어? 니 아들 보고 싶다고 맨날 노래를

불렀다 아이가! 자숙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번을 안 보러 와 가꼬
패심하다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엄마 보러도 오고 효자네, 효자!

미자 (어색하게 웃기만 하는)

복희 이제 화는 다 풀렸어나? 하긴, 여기 찾아올 정도면 풀린 거겠지.
가시나, 오랜만에 아들 보니까 좋았긔네! 얘기 좀 해봐라, 어?

미자 ...언니, 나 좀 자도 돼?

복희 영? 지금이 몇 신데 잔다 카노. 니 어디 아프나?

미자 아니, 그건 아닌데... (억지로 웃으며)

그 사람 오는 줄 알고 긴장했더니 온몸이 쭈시고 피곤하네.

복희 아이고, 우짜노. 맞다, 긴장하고 나면 원래 삭신이 쭈시는 법이다.

내가 이불 깔아줄 테니까 얼른 누워라!

복희가 재빠르게 이불을 깔아주면 미자, 그 위에 눕는다.

복희에게서 뒤돌아 눕자마자 급속도로 어두워지는 미자의 얼굴 CLOSE UP.

#46. 운동장(낮)

재소자들, 삼삼오오 모여 각자 할 일 하고 있다.

운동장 구석에서 활기차게 이리저리 몸을 푸는 복희.

그에 반해 미자는 건성건성이다.

복희 오늘도 슬슬 시작하자.

예전에 티브이에서 보니까는 반복학습을 해야 진짜 내 거가 된다
카대. 우리가 합은 다 맞췄으니까는 이제 이거를 또 계속...

미자 언니, 나 못 하겠어.

복희 뭐라고?

미자 (아차 싶어) ...나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못 하겠다구.

우리 내일 하자.

복희 하이고야, 맞다! 니 어제도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제.

내는 또 다 회복된 줄 알고... 알따, 알따. 니는 쉬라.

원래 몸이 긴장하고 나면 담 걸리고 하니까는.

찌기 벤치 앉아서 쉬고 있어라.

복희, 벤치 쪽으로 미자를 민다.

미자가 걸어가며 복희를 한번 돌아보면, 어서 가라는 듯 손짓하는 복희.

벤치에 앉은 미자, 홀로 연습을 시작하는 복희의 모습 바라보며 심란한 표정.

#47. 감옥 안(아침)

기상한 재소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복희, 들떠 있으면서도 어딘가 긴장한 얼굴로 달력에 'D-3'을 적은 뒤 미자를
뒤돌아본다.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미자.

복희 하이구, 인자 삼 일 남았다. 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우짜노, 어?

미자 ...언니, 심장은 그렇게 쉽게 터지지 않아.

복희 맞나? 니는 별 걸 다 아네. 역시 고졸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근데 니 인자 몸은 좀 쾌안나? 좀 쭈셔도 오늘부터는 다시 연습
들어가야 된다. 쪼 힘들어도 삼 일만 두 눈 꼭 감고 참으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다 아이가! 알았제?

복희, 미자의 옆구리 팔꿈치로 툭 찌르며 어설픈 윙크를 한 뒤 지나간다.

콧노래까지 불러가며 청소를 시작한 복희의 모습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미자.

#48. 운동장(낮)

씩씩하게 몸을 푸는 복희.

미자는 그 앞에서 복희 눈 피한 채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몸 풀기를 마친 복희, 미자 앞에 선다.

복희 야야, 뭐하노. 시작하자!
 미자 ...언니, 있잖아. 나 아직 몸이...
 복희 내도 안다, 니 몸 안 좋은 거! 근데 삼 일 남았는데 우짜겠노?
 글고 긴장해가고 몸 멍친 거는 좀 움직이야 풀리는 법이다.
 자, 빨리 시작하자!

미자, 결국 억지로 복희와 대치해 연습을 시작하려는데
 그때 깜빡 대장 등장한다.

깜빡 대장 (90도로 인사하며) 형님들! 그간 무탈하십니까!!
 복희 (놀라 황급히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하이고, 진짜 와이라노!
 안 이래도 된다카이!
 미자 (깜빡 대장을 보고 사색이 된)
 깜빡 대장 은인한테 인사 올리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소.
 그건 그렇고 형님들...

깜빡 대장 둘에게 은밀하게 몸을 붙이며 주위를 둘러본다.
 밝아지는 복희의 표정과 달리 점점 더 사색이 되는 미자의 표정.

복희 니... 설마 구했나?
 깜빡 대장 (가슴팍에 손을 넣으며) 기간 맞춘다고 고생 좀 했소.
 자, 여기...
 미자 (배를 감싸 안은 채로 바닥에 납다 드러누우며) 아이고, 배야!!!
 복희 뭐, 뭐꼬?! 미자야! 미자야!!
 깜빡 대장 아이고, 형님! 왜 이러소! 교도관님! 여기 좀 보소!!!

복희와 깜빡 대장, 배를 잡고 구르는 미자를 보며
 어쩔 줄 모르고 교도관들 달려온다.

#49. 교도관실(낮)

걸레를 쥔 채 안절부절못하는 복희.
 청소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교도관실 입구만 쳐다보고 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허 부장 들어온다.
 기다렸다는 듯 허 부장에게 달려가는 복희.

복희 교도관님! 우찌 됐습니까? 가 혹시 심각한 병입니까? 예?
 아니, 아가 갑자기 배를 잡고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는데 내가 진짜
 심장이 발까지 떨어지가꼬... 교도관님, 예? 진짜 혹시 죽을 병...
 허 부장 (웃으며) 아이고, 할머니. 진정하세요, 진정.
 이러실까 봐 빨리 왔는데 더 빨리 올 걸 그랬네.
 괜찮다고 하시네요. 이상 없대요.
 복희 진짚니까? 지 안심시킬라꼬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예?
 허 부장 (웃으며) 진짜!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구른 게 신기하다던데요?
 복희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이고야... 한시를 났네.
 (안심하다 문득) 근데 그럼 가는 그때 왜 구른 거고?
 허 부장 근데 혹시 미자 할머니 요즘 큰 걱정거리 있어요?
 복희 걱정거리예?
 허 부장 네. 의사 선생님이 큰 병은 아닌데 신경성 위경련 기미가
 보인다고 해서요.
 복희 ...예?

#50. 감옥 안(저녁)

미자, 교도관에게 이송되어 감옥 안으로 들어오면 앉아 있는 복희 보인다.
 굳은 표정으로 아빠다리를 한 채 미자를 바라보는 복희.

복희 (자기 앞 바닥을 치며) 니 딱 이리 와봐라.

미자 (어색하게 웃으며) 어, 언니. 갑자기 왜 그래?
 복희 이리 와보라꼬.
 미자 (눈치 살피며 주춤주춤 다가가 앉는) 언니, 나 환자인 거 안 잊었...
 복희 (굳은 표정) 니 뭐꼬?
 미자 어?
 복희 니 뭐냐꼬.
 미자 아니, 언니. 내가 아까는 진짜 배가 너무...
 복희 니 딱 바른대로 붙어라. 접견실에서 무슨 일 있었노?
 미자 (놀라) !!
 복희 (이거다 싶고) 진짜 미련통이 아이가! 이게 숨긴다고 될 줄 알았나?
 미자 (고개 푹 숙이는)
 복희 그래, 가가 머라 카드노?
 미자 아니, 그제 언니...
 복희 나오면 니 직이벤다 카드나?
 미자 (고개 들며) ...어?
 복희 니 내 걱정 안 시킬라고 아들 왔다고 구라친 거 아이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미자 아니...
 복희 그래, 그 새끼가 머라 카대? 나오면 죽인다꼬?
 나는 그걸 내한테 말도 몬 하고 끽 끽 앓고...
 내 진짜 못 산다, 못 살아. 그걸 왜 말 안 하노? 어?
 이럴 때일수록 힘을 딱 합쳐가고 어케든 계획을 완성시키야지!
 미자 ...
 복희 니 딱 겁먹지 마라. 겁먹으면 끝이다.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이상, 니 남편 니 절대 못 건든다. 알겠제? 설령 그게 하늘의 뜻이라 캐도 내가 그리는 안 만든다. 알았나? 니가 피는 안 섞인다 캐도 내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아 아이가.
 미자 (감동과 당혹감이 뒤섞여 복잡한 얼굴로 망설이다 고개 끄덕이는)

#51. 접견실(낮)

접견실 밖에서 잠시 망설이는 미자의 모습.
 자막으로 'D-2' 글자 뜬다.
 미자, 망설이다 접견실 안으로 들어가면 한수 앉아 있다.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의자에 앉는 미자.

미자 우리 아들, 밥은 먹었어?
 한수 (피곤과 은근한 짜증이 섞인) 엄마, 통화로 못 할 말이라는 게 뭐야?
 나 결혼 준비로 바쁜 거 알면서 여기까지 오라고...
 미자 (다급하게 달래듯) 알지, 알지. 우리 아들 바쁜 거 너무 알지...
 여기까지 와줘서 진짜 고마워.
 한수 그래서 결혼식 관련해서 꼭 얼굴 보고 해야 한다는 말이 뭔데?
 미자 어, 어... 그 결혼식 있잖아...
 (잠시 뜸 들이고 눈치 보며) 엄마가 꼭 필요할까?
 한수 (황당한) 뭐?
 미자 ...그제, 여기 감옥에 있으면서 나를 되게 많이 도와준 언니가 있어.
 그 언니가 내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데...
 한수 엄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미자 ...자세히는 말 못 하는데 가석방으로 못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한수 (짜증스럽게 얼굴 쓸어내리며)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교도관한테 빌어서든 뭘 어떻게 해서든 나을 생각을 해야지!
 (버럭 하다 문득 정신 차리고 애원조로) 엄마, 내가 설명했잖아.
 나 진짜 이 결혼 깨지면 안 된다니까? 안 그래도 조건이 안 좋아서
 그쪽 집에서 나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멀쩡히 살아 있는 엄마가
 결혼식에 안 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 미국 가 있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
 미자 나도 아는데... 나도 알아, 한수야. 그런데 정말 가족 같은 언니라...
 한수 그래도 진짜 가족은 아니잖아. 엄마는 진짜 가족보다 이런 낯에서
 만난 사람이 더 중요해? 그게 말이 돼? 아니잖아!
 미자 (고개 숙이는)

한수 (애원하듯) 엄마... 우리 가족이 좋은 가족이 아니었다는 거 알아. 나도 어렸고, 아빠를 막을 방법을 몰랐어. 근데 이제 아니야. 아빠가 무서우면 내가 막아줄게. 아니, 아빠랑 같이 안 살아도 돼. 나랑 엄마 며느리랑... 그리고 엄마 손자랑 같이 살자.

미자 (놀라 고개 드는) 너 설마...

한수 응, 엄마 며느리 될 사람 임신했어.

미자 (입 틀어막는, 기쁨과 혼란이 섞인 표정)

한수 근데 그 사람 부모님이 정말 엄격하고 지독한 분들이라... 그 결혼에서 하나라도 빼앗다면 그 애 지우고 파혼해야 될지도 몰라. 그건 엄마도 싫잖아, 어?

미자 (흔들리는)

한수 어차피 애 봐줄 사람도 필요하니까. 우리 같이 살자,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

미자 (혼란스럽고, 마음이 흔들리는)

한수 알겠지, 응?

미자 (잠깐 망설이다) ...그럼 한수야.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해도 돼?

#52. 운동장(낮)

복희, 운동장 구석에서 초조한 듯 벤치에 앉아 있다.
 그때, 밝은 표정의 미자가 복희에게 달려온다.
 복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미자 언니!!!

복희 아이고, 야가 와 이라노? 뛰지 마라!

미자 (헉헉대며) 좋은, 좋은 소식이 있어.

복희 뭔데? 가지 말라 캐도 그렇게 굳이굳이 남편 보러 접견실 간 아가 무신... 니 남편 뛰지기라도 했다나?

미자 아니이, 그게 아니라... (활짝 웃으며 들뜬 어조로)
 우리 가석방 받아도 돼! 계획 같은 거 실행 안 해도 된다고!

복희 ?!

CUT TO
 벤치에 앉은 복희와 미자.
 들뜬 표정으로 복희를 쳐다보고 있는 미자와 달리 복희의 표정은 굳어 있다.

복희 그러니까, 지금 니 말은... 저번에 왔던 것도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아빠는 지가 막아줄 테니까 나와 달리 칸다고?

미자 어, 어! 그리고 내가 언니 사정 얘기하니까 자기가 전세금 정도는 구해보겠대! 언니 빌려준다고! 내 며느리 될 애가 잘사나 봐! 언니, 진짜 잘됐지?

복희 ...

미자 어휴, 내가 처음에 우리 아들이 언니 전세금 빌려줄 줄은 모르고 혼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마음 졸였던 것만 생각하면 진짜... 괜히 썩 고생한 거 있지! (혼자 막 웃다 심각한 복희 표정을 보고 멈추는)
 ...언니, 왜 그래?

복희 ...미자야.

미자 어어, 말해봐. 아, 혹시 돈 빌리는 게 좀 그래서 그래?
 에이, 언니. 우리가 어떤 사인데!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해서라도 대신 갚아주든가...

복희 그게 아이라... (주저하는)

미자 그럼 대체 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 왔는데 왜 죽상이야, 어?

복희 ...니는 그 말을 믿나?

미자 어?

복희 니는 그 말을 믿냐꼬.

미자 무슨... 뜻이야?

복희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할라 했는데... (한숨 쉬며)
 미자야, 니 아들이 지금까지 니 편 들어준 적 있었나?

미자 뭐?

복희 아였을 때야 지도 힘이 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다음에 니 편 한 번 들어준 적 있었냐꼬.

미자 (뭔가 답하려 하지만 답할 수 없는)

복희 없제? 없을 까다. 그랬으면 니가 애초에 여기 왜 들어왔겠노.
지금까지는 지 엄마가 죽기 직전까지 처맞아도 입 싹 닫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같이 살자꼬?

미자 ...

복희 그래, 그래도 니 남편이 아들이라면 나름 껌뻑 죽는다 카니까 니를 때려 죽이는 일이야 없을 수도 있겠지. 근데 진짜로 니 아들이 아빠만 쏙 빼놓고 니랑 같이 산다는 보장 있나? 결혼식만 해놓고 같이 못 산다 하면 넌 니 남편이랑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짤 낀데? 예전처럼 맞고 살 끼가?

미자 ...

복희 (한숨 쉬며) 미자야, 내도 이런 말 하기 싫다. 근데 이진 아이다이가.

미자 ...그럼 어쩔 건데?

복희 어?

미자 그럼 어쩔 거냐고.

복희 (당황한) 우짜기는... 우리 계획한 대로...

미자 그럼 그다음은?

복희 다음?

미자 우리가 계획 실행해서 성공한다 쳐. 그럼 그다음은? 그렇게 형량을 늘려도 언젠가는 또 여기를 나가야 될 텐데, 그럼 그때는?

복희 (말문 막힌)

미자 그때도 또 서로 찌를 거야?

복희 ...니 내가 지금 니 아들 욕했다고 이카는 거가?

미자 뭐?

복희 그렇다이가. 니 아들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은 일언반구도 없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것빼끼 더 있나?

미자 (답답한) ...언니, 우리 아들 못 믿는 심정도 알아.
근데 일단 우리 아들 언니 생각보다... 아니, 이런 말은 뻘고.
언니, 우리 계획은 다른 대안이 없어서 필사적으로 찾은 최후의 수단이잖아.

복희 니 잊었는갑는데, 서로 찌르자 칸 건 니였다.

미자 나도 알아. 근데 그땐 방법이 없었잖아. 궁지에 몰려서 짜낸 최후의 수단이었던 거지. 바깥에 나가면 둘 다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복희 아니, 지금도 똑같다.

미자 뭐?

복희 내가 보기에는 지금도 똑같다꼬. 미자야, 진짜 정신 차리라. 세상에 자식새끼 이기는 부모 없는 건 내도 안다. 근데 암만 그래도... (잠깐 망설이다, 결국 벨는) ...법정에서까지 니 편 한 번 안 들어준 아 말을 니는 진짜로 믿고 여를 나가자는 기가?

미자 (얼굴 새파래지는)

복희 미자야, 지금 당장은 내 말이 기분 나쁠 수 있...

미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나중에 얘기해.

복희 (황급히 팔 잡으며) 미자야.

미자 (뿌리치고 가는)

복희, 가는 미자의 뒷모습 심란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53. 감옥 안(밤)

불 꺼진 감옥 안.

쿨쿨 잠들어 있는 다른 재소자들과 달리 복희 눈 뜨고 있다.

평상시와 달리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누워 있는 복희와 미자.

복희, 눈을 뜬 채 잠시 생각하다, 미자 쪽으로 몸을 돌린다.

복희 미자야, 당장은 내 말이 기분이 나쁘다 캐도 잘 생각해봐라.

우리한테 여 남는 게 최선이라는 거 니도 알게 될 까다.

미자 ...

복희 ...니는 내가 감옥에 뒤늦게 들어온 니를 도왔다 캐지만, 사실 반대다.

박복한 팔자에 주제도 모르고 오지랖은 드럽게 넓어가고 이리저리

도와준 사람은 천치빠까리지만은, 니만큼 내한테 고마워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니를 도운 게 아니라 니가 내를 도운 거다.
 미자 ...
 복희 니가 필요해서 하는 입발린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는
 진짜로 이 감옥에서 니랑... 같이 살고 싶다.
 미자 ...
 복희 안 자고 있는 거 다 아니까 내일 일어나서 내 뺨까지 말고.
 마음 가라앉히고 천천히 생각해봐라. 그럼 잘 자라, 가시나야.
 복희, 눈을 감는다.
 킷 바뀌고, 눈 뜨고 있는 미자의 알 수 없는 표정 CLOSE UP.

#54. 감옥 안(아침)

기상 음악 소리 흐르고, 일어난 재소자들 다들 분주히 움직인다.
 달력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고 'D-1'을 적어 넣는 복희.
 미자를 돌아보지만, 미자는 이불만 개고 있다.
 작게 한숨 쉬는 복희.

#55. 원예 작업장(낮)

원예 작업장에 들어서는 미자. 멍한 표정이다.
 복잡한 표정으로 한숨 쉬는 미자.
 교도관1 오늘 원예장 작업팀은 강당으로 이동한다!
 웅성이며 줄을 서는 재소자들 사이로 힘없이 서는 미자.

#56. 강당(낮)

미자, 강당에 들어서자마자 '교도소를 빛낸 영웅 표창 수여식' 플래카드
 보인다. 걸음을 멈춘 채 심란한 표정이 되는 미자.
 그때, 재소자들 갑자기 꾸벅 인사하기 시작한다.
 미자, 한 박자 늦게 쳐다보면 유 소장 서 있다.
 미자 (놀라 흠칫하는)
 유 소장 (사람 좋게 웃으며) 어이쿠, 우리 주인공이 여길 오셨네.
 유 소장, 미자 어깨에 손을 두르고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옮겨 간다.
 미자 (왜 이러나 싶어 바짝 굳은)
 유 소장 준비는 잘하고 있나요?
 미자 (눈치 보며) 아, 그냥 훈장 받는 건데, 무슨 준비를... 따로...
 유 소장 아니죠, 내일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미자 어깨를 친 손에 힘을
 주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시행돼야 됩니다. 아셨죠?
 미자 아, 예, 예...
 유 소장 (귓가에 속삭이는)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너희 둘 다 감옥에 영원히
 처넣을 테니까.
 미자 !!
 유 소장 (미자에게서 떨어져 산뜻하게 웃으며)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머니. 내일 뵈게요.
 미자, 떠나는 유 소장 뒷 나간 듯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어깨에 손을 얹는다.
 미자 엄마야!!!
 감빵 대장 아이고, 왜 이러요!!
 서로 놀란 얼굴로 가슴을 부여잡은 채 바라보는 둘.

깜빡 대장 형님, 누가 잡아먹소? 뭐 죄진 사람처럼...
 미자 아, 아니. 갑자기 잡으니까 놀라서...
 깜빡 대장 보기보다 겁이 많은 갑소, 형님. 아! 그리고 보니까 몸은 좀 괜찮소?
 미자 어? 아... 어, 어. 그때는 도와줘서 고마웠어.
 깜빡 대장 그 정도 갖고 뭘. 형님이 제 목숨 살려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여하간, 마침 잘 됐소.

깜빡 대장, 주변을 살핀 뒤 가슴팍에서
 커터칼을 꺼내 재빨리 미자 손에 쥐어준다.

깜빡 대장 (은밀하게) 저번에 형님 쓰러져서 못 준 거.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빨리 숨기소.
 미자 (상황 파악 후, 황급히 커터칼을 가슴팍에 숨긴다)
 깜빡 대장 못 맞출까 봐 졸았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시간에 맞춰서 다행이오.

깜빡 대장, 미자에게 목례를 한 뒤 후다닥 사라진다.
 가슴팍에 손을 얹고 불안하게 눈을 이리저리 굴리는 미자.
 복잡하고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이다.
 그때, 미자의 시선에 강당 밖 하수구가 걸리고 그곳을 뺨히 바라보는 미자.

복희(E) 니가 필요해서 하는 입발린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는 진짜로 이 감옥에서 니랑... 같이 살고 싶다.
 한수(E) 우리 같이 살자,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

두 눈 질끈 감은 미자의 손 덜덜 떨리고, 이내 강당 밖으로 한 걸음 내딛는다.

#57. 운동장(낮)

복희, 벤치에 앉아 있는 미자 발견하고 슬그머니 다가간다.
 눈치 보는 듯한 모습으로 큼 헛기침을 하며 은근슬쩍 미자 옆에 앉는 복희.

복희 ...니 생각 좀 해봤나.
 미자 ...
 복희 아직 꿈한 건 아니제? 그라믄 안 된다. 우리 하루 남았다이가.
 미자 ...
 복희 아들 생각하면 마음 아파도, 니도 니 인생 생각해야지. 그니까 마음
 단디 먹고,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연습한 다음에 그 깜빡 대장한테
 그거 받아갖고 내일 함 잘 해보자. 알았제?
 미자 ...
 복희 (어르듯 미자 팔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단 연습부터...
 미자 (뿌리치며) 못해.
 복희 야야, 니 아직도 꿈해 있나? 어제 그거는...
 미자 ...내가 버렸어, 언니.
 복희 어?
 미자 내가 버렸다고, 커터칼.
 복희 ...뭐라꼬? (얼굴색 싹 변하는)
 미자 (내내 창백하고 무표정하던 얼굴에 애절함 띠며, 복희 팔 잡는)
 언니, 우리 여기서...
 복희 (뿌리치며) 잠시만, 봐봐라. 니 지금 뭐라 캤노? 다시 함 말해봐라.
 미자 ...버렸어, 커터칼. 내일 계획에 필요한 커터칼 내가 하수구에 버렸어.
 복희 니...! (미자 먹살 잡는)
 미자 (뿌리치지 않은 채) 언니, 잘 생각해봐. 밖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감옥에서 살아, 어? 그건 아예 방법이 없을 때나 하는 일이잖아.
 밖에 나갈 수 있어. 나가서 살 수 있어, 언니! 아무리 좋아도 감옥이
 진짜 집이 될 순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복희 나갈라면 니나 나가라!
 미자 !
 복희 (배신감에 치를 떨며) 니가... 니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찌 니가...
 미자 언니. 나니까, 나니까 한 거야. 혼자 나갈 수도 있는 거, 나니까 언니
 데리고 나가고 싶어서...
 복희 (비웃으며) 지랄하고 자빠졌다. 구라도 정도껏 치라.
 뭐?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 건 서로뿐이야?

미자 ...

복희 니가 니 주둥이로 한 말이다. 기억나나?
그렇게,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놓고선... 살면서 니 편 한 번 안 들어준
아들 말 한 마디에 니가 어떻게...

미자 ...

복희 니 알제? 내, 흠치지도 않은 감자 다섯 알 때매 여기 들어온 거.
돈 없고 뺨도 없는 혈혈단신 독거노인이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가 그냥 나라에서 하는 대로 들어왔다. 근데 진짜 처음으로...
살면서 처음으로!!

미자 ...

복희 ...너무 좋았다. 밥 굶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맨날 밤마다 덜덜 떨면서
잠 안 들어도 되고. 처음으로 내일이 오는 게 안 무서웠다. 한평생을
박복하게 살다가 말년에야 깜빡 들어와서 팔자를 펴는구나, 생각했다.
근데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나?

미자 ...

복희 니였다.

미자 ...!

복희 베풀면서 살았다. 없는 살림에도, 박복한 팔자에도, 그래도 사람은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기니까는. 그 맘 하나로 사람 도우면서
살았는데 사방팔방 오만 사람 다 내 뒤통수만 썰리고 도망갔다. 근데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유일하게 니였다.

미자 (미안하고, 참담한)

복희 근데, 니가, 다른 사람도 아닌 니가 어떻게... 니가 그걸!!

소리 지르던 복희 손에 힘이 들어가 미자 몸이 뒤로 밀린다.
동시에 다리가 벤치에 걸리면서 크게 넘어져버리는 미자.
모두의 시선 집중되고, 근처에 있던 허 부장 달려온다.

허 부장 무슨 일입니까?

복희 (넘어진 미자 무시하며) ...제가 위협했습니다.

미자 (당황해) 아니, 아니예요!

미자,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난다.

미자 저 멀쩡...

복희 제가 넘어뜨렸다 안 잡니까! 빨리 데려가이소, 독방이든 어디든.
허 부장 (난감한 얼굴로 바라보다) 우선, 할머니. 저랑 가세요.

미자, 잡으려 하면 허 부장 눈짓한다.
그렇게 걸어가는 둘을 바라보는 미자의 뒷모습.

#58. 교도관실(낮)

넋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는 복희
앞에 커피 내려놓는 허 부장.

허 부장 좋아하시잖아요. 한잔 드시고, 저한테 털어놔보세요.

복희 ...

허 부장 (조르듯) 네? 말씀 안 하시면, 저 속상해요.

복희 ...교도관님.

허 부장 네, 말씀하세요.

복희 지는예,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이 칠십 먹고도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말을 믿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심미더.

허 부장 네?

복희 (허 부장 눈 맞추며 작게 웃으며) 허 부장님, 내 살면서 허 부장님같이
좋은 사람은 참 봅니더. 근데예.

허 부장 (뭔가 이상하고, 걱정스러운)

복희 사람, 너무 믿지 마이소. 내 걱정돼서 하는 충고입니다.

텅 빈 얼굴로 웃는 복희와
그런 복희를 걱정스레 바라보는 허 부장.

#59. 감옥 안(밤)

불 꺼진 감옥 안.

쿨쿨 잠들어 있는 다른 재소자들과 달리 미자 눈 뜨고 있다.

맨 끝에 누운 채 미자에게 등을 돌리고 누운 복희.

미자, 그런 복희 쪽으로 누워 복희 바라보고 있다.

미자 언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을 거 알아. 근데 난, 언니랑 진짜
나가고 싶었어. 내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해도... 내가 전세금은 꼭
구해다 줄게. ...그럼 잘 자.

미자, 눈 감는다.

컷 넘어가고, 눈 뜨고 있는 복희의 삭막한 얼굴 CLOSE UP.

복희, 눈 뜬 채 감옥 창 너머 뜬 보름달을 뻘뻘 바라보고 있다.

그때, 갑자기 바닥에 뭔가가 반짝인다.

이상함을 감지하고 스리슬쩍 일어나는 복희.

소리 죽여 그곳으로 가면 장판 사이로 자살 사건 때 잃어버린 커터칼 끼여

있다. 그것을 황급히 주워들어 화장실로 가는 복희.

변기에 앉은 채 묘한 얼굴로 그것을 바라보는 복희의 얼굴 CLOSE UP.

#60. 감옥 복도(낮)

강당으로 이동하고 있는 재소자들.

복희, 미자 떨어져서 걷고 있는데 미자 옆으로 허 부장 다가온다.

허 부장 별일이네요, 두 분이 다 싸우시고.

미자 (고개 떨구는)

허 부장 무슨 일 있어요?

미자 ...교도관님.

허 부장 네.

미자 교도관님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허 부장 네?

미자 (간절함 섞인 눈으로 보는)

허 부장 음...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꾸준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만이 변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 확실한 건, 사람은 나쁜 쪽으로는 잘 변하지만 좋은 쪽으로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자 ...

허 부장 (웃으며) 너무 엄세적이었나? 그렇지만 저는 이게 사실에 더 가깝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구요.

미자 (복잡해지는)

교도관1 허 부장님!

허 부장 이크, 부른다. 그럼 나중에 뵈게요. (가는)

뭔가를 생각하다 고개를 돌려 복희를 바라보는 미자.

#61. 강당(낮)

재소자들로 북적거린다.

무대 위 플래카드 붙어 있고 무대 옆에서 유 소장과 기자들 대기하고 있다.

복희, 삭막한 얼굴로 자기 자리를 향해 걸어간다.

미자, 그런 복희 계속해서 바라보다 발을 헛디뎠다.

미자 아!

힐끗 돌아보는 복희. 하지만 넘어진 미자를 두고 그냥 걸어간다.

FLASH BACK 3년 전 감옥 안.

감옥에 막 들어와 오들오들 떨고 있던 과거의 미자.

운동장에 멍하니 서 있다 다른 재소자들에게 치여 넘어진다.
그때, 그런 미자에게 손을 내미는 복희.

복희 니 꽤안나?

CUT TO
다시 현재.

허 부장 괜찮아요?

허 부장의 목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린 미자.
허 부장, 넘어진 미자를 일으켜준다.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인 뒤 맨 앞자리에 앉은 복희 옆에 착석하는 미자.

사회자 소장님, 올라오시겠습니다.

무대 위 사회자가 소장 가리키면 재소자들 박수 친다.
박수갈채 속에 무대 위로 올라오는 유 소장. 인자한 모습이다.

유 소장 안녕하십니까, 재소자 여러분.

유 소장이 연설을 하는 동안 옆에 앉은 복희를 힐끗거리는 미자.
하지만 복희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앞만 바라보고 있다.
그 모습 위로 갑자기 아들의 모습 떠오른다.

FLASH BACK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살던 미자네 집.
남편한테 맞으며 비명을 지르는 미자.
몸을 웅송그리며 최대한 발길질을 피해보려고 하는데,
방문을 연 아들과 눈이 마주친다.
잠시 당황하다 문을 닫는 아들의 모습과 절망이 스쳐가는 미자의 얼굴.

CUT TO
다시 현재.

유 소장 우리 교도소의 두 영웅들을 모시겠습니다!
이미자, 만복희 재소자! 올라오세요!

미자, 갑자기 들려오는 자신의 이름에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든다.
앉아 있는 미자를 내버려두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복희.
서둘러 따라 일어나려던 미자, 같은 눈높이에 있는 복희의 주머니를 보게 된다.
주머니 속 복희 손에 쥐어진 커터칼이 스치듯 보이고, 놀란 표정 짓는 미자.

미자 어...!

미자가 잡을 새도 없이 단상으로 향하는 복희의 표정, 비장하고 서늘하다.
주머니 속 커터칼을 꼭 쥔 채 유 소장을 주시하며 다가가는 복희.
(살기가 느껴지는, 복희가 처음 짓는 섬뜩한 표정과 긴장감 어린 BGM이 중요하다) 미자,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모두 당황해 소란스러워진다. 전부 다 울스톱 된 상황.
복희와 미자도 순간 당황해 행동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본다.
교도관들, 분주하게 상황을 파악하러 뛰어가고 재소자들을 통제한다.
그때, 강당에 하얀 연기의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재소자 불이야!!!

이 외침을 시작으로 강당은 혼란에 빠진다.
앞다퉈 강당을 벗어나려 하는 재소자들의 모습.
허 부장, 재소자들을 제대로 인솔하려 하지만 잘 되지 않고.
무대 위에 있던 유 소장 역시 연기를 보고 당황한다.

교도관1 소장님, 어떻게...
유 소장 어떡하긴 뭘 어떡해?! 날 엄호해!!

교도관들의 엄호를 받은 채 황급히 무대를 내려오는 유 소장.
모두가 강당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와중에 유 소장만 바라보는 복희의 모습.
그 순간, 복희가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유 소장이라는 것을 깨달은 미자.
유 소장에게로 뛰어가려는 복희의 팔을 황급히 붙잡는다.
뛰어나가기 직전, 잔뜩 긴장한 상태라 소스라치게 놀라는 복희.
하지만 상대가 미자라는 것을 알고 다시 표정 싸늘해진다.

미자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복희 (뿌리치며) 니가 뭐 상관이고? 이거 봐라.
미자 (다시 팔 잡으며) 언니, 잠시만! 그 칼...
복희 (미자 비웃으며) 칼이 뭐? 니가 내다 버린 거 내가 갖고 있으니까
신기하나?
미자 (말문 막히는)
복희 니가 그 칼 버린 순간부터 이제 니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신경 꺼라.

미자의 팔을 차갑게 뿌리치고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는 복희.
드르륵, 칼날을 꺼낸 뒤 유 소장에게로 달려간다.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복희를 뒤에서 끌어안듯 붙잡는 미자.

미자 언니, 미쳤어?!
복희 (몸부림치며) 이기 돌았나! 내가 와 미치노? 미친 건 니겠지! 확 이거
안 놓나?!
미자 못 놔! 안 놔!

미자를 뿌리치려는 복희와 복희를 놓지 않으려는 미자의 대치가 이어진다.
그러다 의자에 발이 걸려 결국 뒤엎긴 채로 바닥에 엎어지는 둘.
그때, 설상가상으로 강당의 스프링클러까지 작동하기 시작하고.
화재경보기의 소리, 연기, 스프링클러의 물,
먼저 나가려 몸싸움을 하는 재소자들.
이러한 것들로 아수라장이 된 강당의 구석에서
치열하게 몸싸움을 하는 둘의 모습.

결국 미자에게 칼을 뺏기고 소리를 지르는 복희.

복희 니 뭔데? 니가 뭐냐꼬! 커터칼 하나 뺏어간 걸로도 모자라나!
미자 언니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찌르려고 해?! 제정신이야?
복희 사람 뒤통수를 제대로 썰리고 간 년이 뭐가 잘났다고 훈계질이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니는 나가서 니 인생 살아라!
난 여 남아야겠으니까!
미자 (답답한) 언니가 이렇게 구는데 내가 어떻게 속 편하게 나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찌르려고 들면... 진짜 언니답지 않게 왜 이래?!
복희 (기가 막힌) 뭐? 내다운 거? (비웃으며) 내다운 기 뭔데?
호구떼기같이 사람들한테 퍼주기만 하다가 뒤통수 맞는 거?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기지, 하고 생각하고
살다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갇혀 들어오는 거?!
미자 (멍해, 순간 멈칫하는)
복희 나는 이제 그리는 몬 산다. 그리 살지 말라꼬... (미자 보며)
니가 알려줬다가.
미자 !! (손에 힘이 풀리는)
복희 (기회를 놓치지 않고 커터칼을 낚아채 일어서는) 나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여기 남을 끼니까 니는 나가서 잘먹고 잘살아라. 알았나?

유 소장이 가버렸을까 봐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복희의 모습.
그리고 뒤따라 일어나 복희를 다시 한번 붙잡는 미자.

복희 (울컥해서 돌아보며) 가시나야, 니가 양심이 있으면 그만 좀...!
미자 차라리 날 찢러, 언니.
복희 ...뭐라꼬?
미자 계획대로 나 찌르라고. 우리 원래 그러기로 한 거잖아.
복희 (보는)
미자 그래, 아들도 소중한. 언니 뒤통수 때릴 만큼. 당연하잖아. 내 배로
낳은 자식인데. 근데 나... 언니도 그만큼 소중한. 그러니까 언니가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건 못 봐. 그니까 그냥 나 찢러, 어?

복희 ...내가 니를 어떻게 믿노?

미자 ...!

복희 그렇다이가. 한 번 뒤통수 친 게 두 번이라고 못 치겠나? 이래놓고 니가 또 내 커터칼 어디다 내다 버릴 줄 누가 아노?

미자 ...

복희 니가 생각해도 그렇게?

미자 ...

복희 ...미자야,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있는 거다. 착하게 살아봤자 복이 돌아온다 카는 게 썩구라라는 것도.

미자 ...

복희 내는 너무 늦게 알았지만은 안 이상 이제 그렇게는 문...

그때 미자, 갑작스레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배를 찌르려 한다. 놀란 복희, 반사적으로 달려들어 미자의 팔을 붙잡는다.

복희 이기 미쳤나!!!

무의식적으로 미자를 막은 복희. 순간, 정신이 든 듯 자신의 손에 쥐어진 커터칼과 미자 손에 쥐어진 커터칼을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복희 어? 어??

미자 (웃으며)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복희 (상황 파악이 된) 니, 니...

미자 그래, 나 커터칼 안 버렸어.

복희 !!

미자 (자조적으로) 뒤통수 한 번 거하게 갈겨놓고 이게 하나 안 버린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도저히 버릴 수가 없더라. 언니 배신하고 돌아서기로 해놓고, 그렇게 속여 넘겨놓고도 이걸 도저히 버릴 수가 없더라. 근데...

복희 (보면)

미자 내 가족도 그랬어. 버려야 하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버릴 수가 없더라. 아들 말만 들으면... 진짜 손에 들어올 것 같았어. 내 진짜 가족이. 허구한 날 나 패고, 방관하는 가족 말고 내 기쁨에 같이 웃고 내 아픔에 같이 아파해주는 진짜 가족. 내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진짜 가족 말이야. 그래서... 단 한 번도 날 배신하거나 아프게 한 적 없는 언니를 외면하고 이기적으로 희생시켰어. 대가리가 헤까닥 돌아서 진짜 버려야 하는 걸 못 버리고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하는 걸 버린 거야. 바보처럼.

복희 ...그래서 이제 와서 우짜라꼬. 니 말따나 나 내 뒤통수 거하게 갈겼고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니도 알고 그런 거 아니냐?

미자 ...맞아. 돌이킬 수 없지. 안 믿겠지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 아냐.

복희 그럼 뭔데? 만다꼬 여서 고해성사를 하고 지랄인데?!

미자 난 그냥 언니가... 여전했으면 좋겠어.

복희 ...?!

미자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내밀어주는 언니가. 자기 뒤통수 때린 년까지 도와주려고 무의식적으로 몸을 내던지는 언니가... 평생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고도 그래도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믿는 언니가... 나 같은 문디 가스나 때문에 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복희 ...

미자 내 바람은 그거 하나야. 그러니까 언니. 다른 사람 찌르지 마. 그냥 날 찢러. 그거는 그냥 썩썩인 거잖아. 복수도 하고, 감옥에 남을 수도 있고. (애써 웃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어?

그저 아무런 말 없이 미자를 바라보는 복희.
미자, 처벌을 기다리는 재소자의 마음으로 복희의 대답을 기다린다.
복희, 뾰록 입을 달싹인 순간 갑자기 멈추는 스프링클러의 물.
그리고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온다.

여자 목소리 방금 있었던 연기와 화재경보기는 누전으로 인한 사고였으며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니 재소자들은 교도관들의 지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물에 젖은 채로 멍하게 스피커를 바라보는 복희와 미자의 모습.

#62. 감옥 복도(낮)

교도관들, 옷을 갈아입고 걸어오며 투덜댄다.

교도관2 아니, 이 난리가 났는데 무슨 행사를 재개해?

교도관3 그래도 어쨌어. 기자들이랑 다 불러냈는데 또 언제 일정을 잡아?

교도관2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지금 재소자들 다 생취 꼴인데 그 꼴이 찍이나 보기 좋겠다.

교도관3 뭐 그 사람들은 갈아입히겠지, 우리처럼.

허를 차며 걸어가는 뒷모습.

#63. 교도관실(낮)

복희와 미자, 허 부장의 지도 아래 옷을 갈아입고 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복희의 표정.

미자, 그런 복희의 눈치를 살피며 단추를 잠근다.

FLASH BACK #61

젖은 채 멍하니 있던 복희와 미자.

교도관이 다가오자 정신을 차린다.

손에 쥔 커터칼을 황급히 가슴팍에 집어넣는 복희의 모습을 보는 미자.

CUT TO

다시 현재.

안절부절못하는 미자의 얼굴.

그때, 허 부장이 다가오고.

허 부장 어디 불편하세요?

미자 그, 저...

복희의 얼굴을 힐끔거리는 미자.

말하고 싶지만, 또 복희를 배신하는 게 될까 싶어 망설인다.

미자가 입을 달싹이는 순간, 벌컥 열리는 교도관실 문.

교도관1 행사 재개 준비 끝났으니까 빨리 이동합시다!

허 부장 아, 네! (다시 미자 보며) 뭐라고 하셨죠?

미자 (복희 눈치 보며) 아,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교도관실을 떠나는 셋의 모습.

#64. 강당(낮)

젖은 재소자들 사이에 멀끔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복희와 미자.

사회자 수여식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유 소장, 다시 단상으로 나와 연설 시작한다.

아까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사죄드린다는 말과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에 더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 복지를 늘리겠다는 입에 발린 말을 한다.

그러는 동안 복희를 초조하게 힐끔거리는 미자.

하지만 복희의 표정은 여전히 알 수 없다.

유 소장 그럼 우리 교도소의 두 영웅들을 모시겠습니다!

이미자, 만복희 재소자! 올라오세요!

허 부장 (웃으며) 가시죠.

복희와 미자, 허 부장과 함께 걸어간다.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복희를 살피며 안절부절못하는 미자.
셋, 함께 단상에 올라 나란히 선다.

유 소장 우선, 만복희 씨 나와주시죠.

복희가 유 소장에게 다가가면.
미자, 어쩔 줄 모르고 손을 뻗다가 허 부장에게 제지된다.

허 부장 할머니, 왜 그러세요?
미자 (안절부절못하며) 허 부장님... 언니한테 커터칼이 있어요...!
허 부장 ?!

허 부장, 어쩔 줄 모르는 미자의 태도에 심각함을 느끼고 복희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복희가 유 소장에게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감도는 둘의 얼굴.
결국 허 부장이 한발을 떼는 순간.
가슴팍에서 커터칼을 꺼내는 대신 유 소장의 마이크를 뺏어버리는 복희.

허 부장·미자 ?!

놀란 둘, 복희를 쳐다보고.
유 소장 역시 뭐하는 짓이냐는 눈빛으로 복희를 바라본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크를 든 채 입을 여는 복희.

복희 흠흠... 내 평생 이런 자리에 서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못 믿겠습니더. 우에 믿겠습니까? 뒤웅박 팔자인 년인데 또 무슨 일이 뒤통수를 칠지도 모르는 기고.

미자, 복희를 가만히 바라본다.

복희 근데예. 내가 생각해도 미련 곰탱이 같지만은...

복희, 미자를 슬쩍 바라본다.

복희 그래도 이미 칠십 년을 이렇게 산 거를 우짜겠습니꺼?
그냥 속는 셈 치고 눈 딱! 한 번만 감고 믿어볼랍니다.

그리고 활짝 웃는 복희.
불안함과 어리둥절함이 섞인 표정으로 복희를 바라보던 미자.
활짝 웃는 복희의 표정에 뭔가를 깨닫고 서서히 웃음 짓는다.
그렇게 주변에 개의치 않고 서로만을 바라보며 밝게 웃는 두 사람.

#65. 신문 지면

모자이크 처리된 복희와 미자의 표창 수여식 사진이 신문 1면에 실려 있다.
그 위에 헤드라인 박혀 있다.
'감자 다섯 알로 수감된 교도소 영웅의 사연 알게 된 국민들 탄원과 모금 행렬 이어져'

#66. 에필로그. 좁은 오르막길(낮)

자막. '1년 후'
상자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끌고 오르막길을 킁킁대며 걷는 복희.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리어카를 밀어준다.
뒤돌아보면 교복 입은 학생들이 보인다.
오르막길을 오른 후 복희가 고맙다고 인사하면
고등학생들, 손사래 치며 가버린다.
복희, 땀 닦으며 다시 리어카 끌기 시작하는데
또 누군가 뒤에서 리어카를 밀어준다.

돌아보면, 그곳에 서 있는 미자.

복희 환하게 웃은 뒤 다시 앞을 보며 리어카를 끈다.

마찬가지로 밝게 웃으며 복희의 리어카를 밀어주는 미자.

그렇게 힘을 합쳐 함께 오르막길을 오르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끝.

작가 후기

작가를 꿈꾸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제 글을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는 날이 꽤 길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런 제가 처음으로 세상에 내보인 글입니다. 처음 이 작품의 기획안을 내놓았을 때, 정말 많이 떨렸고 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무색하게 한 칭찬과 격려 덕분에 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저에게 진정한 의미의 처음이었고 그래서 제게 특별할 수밖에 없는 글입니다. 이 글로 인해 당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일어날 거라고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느끼는 특별함과 별개로 부족함이 많은 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수정하는 시간은 제 부족함을 뼈저리게 통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거의 수정하지 못했고, 그래도 되나 싶기도 했지만, 언젠가 이 시절을 돌이켜볼 때 저의 처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되새기게 하리라는 것에 의의를 두기로 했습니다. 부끄러울지라도 제 서툰 시작이자 동시에 제가 꿈꾸던 이상을 가져다준 이 작품은 이 모습 그대로도 제게 있어 아주 오래도록 특별하고 애뜻할 것 같으니까요.

이 글에서 처음으로 가능성을 엿보아주신 교수님, 이 글을 발굴해주신 오픈 관계자분들, 당선을 축하해준 친구들과 동기들. 다들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지만 오랜 암흑의 시간 동안 다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찾아올지 말지 평가받을 수 없는 영광의 순간이 언젠가 내게도 기적처럼 찾아와준다면. 만약 그런 날이 정말로 온다면 그 처음은 오롯이 전부 단 한 톨도 빠짐없이, 저조차도 포기하고 싶었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지해준 엄마에게 바치겠다고. 그러므로 이 작품으로 얻은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오직 단 한 사람, 저의 엄마 강호연에게 돌립니다. 호연아, 고맙고 사랑해.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 — 최시은

기획의도

버스정류장 앞 복권 판매점, 주인이 직접 써서 내놓은 작은 입간판.

“로또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꿈에서라도 바라는 로또 당첨, 그것도 1등.

10억 원이 넘는 당첨금을 찾지 않는 이는 누구일까? 무슨 사연일까?

한참의 시간이 흘러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을 하는 이들, 자신의 이동 경로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이들.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단 한 번뿐인 기회를 포기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일생의 위기를 자처하는 사람들.

어쩌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속 그들에게 꼭 지켜내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 이야기는 이런 물음에서 시작됐다.

등장인물

정재훈(36세, 남) 유도체육관 셔틀버스 기사

끈기 없고, 대책 없고, 우유부단하다. 유도 선수 출신인 아내의 구박과 폭력(?)에 주눅든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 말대꾸 한마디는 꼭 하고야 마는 성격. 인생 한방을 꿈꾸며 로또를 꾸준히 사지만 결과는 늘 팡! 주식투자에도 손을 대지만 결국 빚만 남았다.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고 지급기한 하루를 남긴 1등 당첨 로또 용지를 발견한다.

강미란(36세, 여) 유도체육관장

대학에서 유도를 전공했지만, 국가대표 선발에 번번이 떨어지며 운동을 접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 1년 만에 번번이 회사를 관두는 재훈 때문에 유도체육관을 열었다. 재훈과는 달리 생활력이 강한 편. 요즘 말로 ‘결크러시, 센 언니’지만, 속은 천생 여자. 남편을 거칠게 대하지만, 미란에게 재훈은 애뜻한 첫사랑이다.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따랐고,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 중이다.

김현우(31세, 남) 구청 신입 공무원

5년의 긴 수험생활 끝에 공무원 합격의 기쁨도 잠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벌써 한 달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임용 후 첫 업무인 자격리자 관리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하던 중, 재훈의 탈출로 추적에 나선다.

곽춘배(33세, 남) 사채업자

협박한 외모와 위압적인 목소리와는 달리 말과 행동이 가볍고, 소심하다. 눈치와 셈이 빠르고, 즉흥적인 면이 있다.

그 외

택배기사, 약사, 청원경찰, 은행원, 진상 승객, 건물 경비 등

즐거리

코로나19 밀접접촉자 통보를 받고, 얼떨결에 아내 미란과 함께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재훈. 그런데, 자가격리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채업자 춘배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아내 미란에게 발각되고, 춘배로부터 이를 안에 돈을 갚으라는 협박까지 받는다. 미란으로부터 '작은방' 격리 통보를 받은 재훈은 우연히 1등 당첨 로또 용지를 발견하고, 지급기한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찾아온 행운을 거머쥐기 위해 무단이탈을 결심하는 재훈. 경찰의 추적과 춘배의 협박, 미란의 감시를 뚫고 그는 과연 1등 당첨금 12억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

최시은

#1. 유도체육관(저녁)

널찍한 도장, 도복을 입은 미란이 비장한 표정으로 맞은편 문을 응시하고 있다. 문 양옆, 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트레이닝복 차림의 재훈 도장으로 들어오는데, 장례식장 빈소의 영정사진이 연상된다.

재훈 (골목대다 향 끄는) 갑자기 웬 향? 난 향냄새 맡으면 장례식장 생각나서 싫더라.

미란 그래? 근데, 어찌냐? 당신, 앞으로 향냄새 계속 맡아야 할 텐데.

재훈 ?

미란 오늘이 당신 제삿날이라고.

미란, 도복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던지면, 펄럭이며 날아가던 종이가 재훈의 발 앞에 내려앉는다. 종이를 집어 든 재훈, 표정이 굳는다.

미란 그래, 이제 너도 니 죄를 알겠지? 나 몰래 대출을 끌어다 써? 그것도 2천씩이나! (재훈에게 다가가는)

재훈 (뒷걸음질 치며 버럭) 당신이 용돈만 올려줬어도 안 그랬거든. 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한 달에 15만 원이 뭐냐, 15만 원이.

미란 (비웃는) 그게 부족해? 당신이 집, 도장밖에 더 다녀? 초딩들 서틀버스 운전하면서 사회적 지위랑 체면이 왜 필요해? (멈춰서 정색하며) 너 혹시... 탄 살림 차렸니?

재훈 (기막혀서 웃는) 여보세요, 바람도 돈이 있어야 피우거든요?

미란 그럼 그 돈 언더 썼는데? 진짜 용돈으로 2천을 뺐다고?

재훈 ...

미란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줄게.

재훈 진짜?
 미란 (고개 끄덕이는) ...
 재훈 (살포시 웃으며) ...주식...

재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란, 재훈의 팔을 낚아채 바닥에 메다꽂는다.
 바닥에 대자로 뺨은 재훈, 벌떡 일어난다.

재훈 (징징대는)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준다며, 이러는 법이 어딴어!

미란, 순식간에 재훈의 옷깃을 낚아채 업어치기를 하고, 재훈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져서 끄공댄다.

미란 지난번에 주식으로 천만 원 말아먹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지?
 한 번만 더 주식하면 내 손에 죽는다고 했어, 안 했어?
 재훈 ...
 미란 (바닥에 누운 재훈 일으켜서) 약속도 순서가 있으니까,
 오늘은 그 약속부터 지키자, 알겠지?

미란, 반복해서 재훈을 억지로 일으켜 도장 바닥에 메다꽂는다.
 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축 늘어져 있는 재훈.

미란 돌아가신 어머니께 고맙다고 해. 당신 어머님 유언 아니었으면,
 오늘 진짜 죽었어. (돌아서서 나가는)
 재훈 (눈 떠서 미란의 뒷모습 보며) 무식하게 힘만 세서...

미란 갑자기 획 돌아서 재훈을 쳐다보고, 재훈, 미란의 눈 피해
 눈 꼭 감고 죽는 척한다.

#2. 재훈 집/주방+거실(저녁)

개수대에서 설거지하는 재훈,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 가계부 들여다보며
 신경질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미란을 흘깃댄다.

미란 답이 없어, 답이. 가뜩이나 코로나다 뭐다 해서 체육관 원생도
 예전만 못한데... (재훈 향해) 어떻게 갚을 거야, 응?

재훈, 수전을 잠그고 앞치마 차림으로 미란 옆으로 쫓르르 다가간다.

재훈 (미란의 팔꿈치 옷깃을 꼬집듯 잡고) 그게, 우리 적금 있잖아...

미란 (재훈 손 뿌리치며) 그게 왜 우리 적금이야, 내 적금이지.

내가 벌어서 딱딱딱 부은 내 적금. 당신 지분 1도 없거든!

재훈 (억울한) 집안 살림에 도장 청소, 셔틀버스 운전까지 내가 다~
 하는데 끌랑 15만 원이 다라고? 다 당신 거라고?

미란 억울하면 다른 남편들처럼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들이지.
 결혼하고 한 직장을 석 달 넘게 다니는 꼴을 못 봤어요, 내가.

재훈 ...

미란 나라도 되니까 당신 데리고 사는 줄 알아.

당신 아니었으면 나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안 살거든!

재훈 그래,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근데 나라고 당신이 마냥 좋아서
 이렇게 같이 사는 거 같아?

재훈, 작은방 문을 쿵! 닫고 들어가서 재빨리 문을 잠그고,
 뜻밖의 버력에 멍한 미란, 정신 차리고 문을 부술 듯 두드린다.

미란 정재훈, 니 빛은 니가 갚아! 그리고 앞으로 나 몰래 또 사고 치면
 그날은 어머님 유언도 소용없어. 너 죽는 날이야!

#3. 재훈 집/작은방(저녁)

컴컴한 방, 불 켜진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재훈의 뒷모습.
 '수익률 93%, 주식평가금액 21만 원' 이라는 글자가 떠 있고,
 낮이 나간 채 화면을 바라보던 재훈, 휴대전화 진동을 울려서 보는데
 발신인 '형님'에게서 온 문자 '정재훈 고객님, 내일은 이자 입금일입니다.'
 문자창 올려 보면, 카운트다운 하듯, 한 달 전부터 이자 입금을 독촉하는
 문자가 남겨져 있다. 재훈, 머리를 감싸고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워한다.

#4. 아파트 복도(아침)

낮은 복도식 아파트, 출근하는 주민들, 등교하는 학생들 서둘러 뛰어간다.
 현관문 소리 나지 않게 열고 나오는 재훈,
 잔뜩 찡그린 얼굴로 어기적대며 걷는다.

재훈 이렇게 맞고 살 바엔 죽는 게 낫지.

미란(E) (재훈 바로 뒤에서) 아침부터 뭐라고 궁시렁대는 거야?

재훈 (움찔했다 뒤돌아서) 왜, 왜, 왜? (체념해서) 그래, 죽여라, 죽여.
 언제 죽어도 당신 손에 죽을 거. (하늘 보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미란 (피식 웃는) ...

재훈 웃지 마, 웃는 게 더 무서워. 왜?

미란, 마스크 내밀면, 재훈 받아든다. 재훈, 마스크 쓰는 동안,
 미란, 재훈의 어깨 털어주려 손을 올리자, 재훈, 움찔한다.

미란 (깔깔대며) 쫓기는...

재훈 (신경질적으로 마스크 빼서 미란의 앞치마에 넣는) 내가 애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획 돌아서는)

미란 (앞을 막아서며 남편 트레이닝복 주머니에 마스크 넣어주고 달래는)

오구오구 빼졌어요? 이 철없는 아저씨야, 이거 한 장 구하려면

요즘 얼마나 기다려야.

재훈, 듣기 싫다는 듯 미란을 지나쳐가고,
 미란, 재훈의 뒷모습을 쳐다보다 피식 웃는다.

#5. 도로+차 안(아침)

'천하제일 유도관' 문구가 크게 박힌 노란 셔틀버스가 도로를 달린다.
 운전석의 재훈, 전방의 무언가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다.

재훈(E) 5천 원어치 자동이요.

#6. 로또 가판대(아침)

로또 용지, 인쇄기에서 뿜혀 나오고, 기대에 찬 얼굴로 지켜보는 재훈.

재훈 (로또 용지 받아들고) 진짜 당첨만 돼봐, 내 인생에서 셔들도 아웃,
 강미란 너도 아웃이야!
 (하늘 보며 기도하듯) 엄마, 딱 한 번만 도와줘. 나도 기 좀 펴고 살자.

재훈, 가판대 옆에 세워놓은 작은 입간판에 손글씨로 빼뿔게 적어놓은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라는 글자를 보고 가웃하고, 운전석에 올라탄다.
 멀어지는 셔틀버스의 뒤로 입간판 또렷해지며,
 타이틀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 뜬다.

#7. 유도체육관 앞+차 안(아침)

유도체육관 건물 앞에 멈춰 선 셔틀버스 차량.

안전벨트 풀고 운전석에서 내리려는 재훈, 그때 휴대전화가 울리고,
낮선 번호에 고민하다 전화 받는 재훈의 눈이 점점 커진다.
사이드미러로 체육관 앞에 모여드는 하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

재훈(E) (고통스러운 비명 지르는) 아아아아악~

#8. 보건소/선별진료소 안(낮)

방호복, 마스크로 무장한 보건소 의사가 긴 면봉을 들고 있다.

의사 (면봉 검사 용기에 담으며) 검사 끝났고요. 나가시면 자가격리
주의사항 안내해드릴 겁니다.
재훈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의사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틀 후에는 결과 통보 갈 겁니다. 다음 분!

#9. 보건소/선별진료소 앞 부스(낮)

간이 천막 안, 노트북이 놓인 책상 앞에 방호복, 장갑, 마스크 한 현우.
재훈, 현우 맞은편 의자에 앉는다.

현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재훈 정재훈이요.
현우 선생님, 앞으로 2주 동안 절대 외부와 접촉하시면 안 되고요.
재훈 음성 나오면 바로 격리 해제되는 거 아니에요?
현우 몸 안에 바이러스가 미량일 경우엔 음성판정이 나올 수 있어서,
2주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해서요. 먼저, 제가 선생님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어플부터 설치하고, 설명 더 드릴게요.

재훈, 휴대전화 건네면, 현우, 재훈의 휴대전화 화면을 빠르게 터치한다.

재훈 (멍하게) 제가 로또, 경품 이런 건 절대 당첨 안 되는 똥손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도 피해 가나 싶었는데, 나쁜 건 또 귀신같이 걸리...
현우 (재훈 휴대전화 보여주며) 보시면 이렇게 어플은 깔았고요.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 증상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잘 계시는지 집으로
방문할 수도 있어요.
재훈 (일어나서 가려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봐도 되죠?
현우 (막아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은 절대
금집니다. 무단이탈하시면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재훈 (건성으로) 네, 네.

터덜터덜 걸어가는 재훈의 뒤로, 붉은 노을이 진다.

#10. 재훈 집/주방(저녁)

된장찌개에 소고기 굽는 불판까지 올라온 식탁. 거하게 차려진 한 상이다.
미란, 불판 위 노릇하게 익은 고기를 재훈의 밥그릇 위에 차곡차곡
올려놓는다. 재훈, 정신없이 고기를 집어 먹는다.

미란 천천히 먹어, 고기 많으니까.
재훈 (고기에 정신 팔려서) 오늘 무슨 날이야? 당신이 웬일로 소고기를
다 샀어?
미란 무슨 날은... 이럴 때일수록 든든히 먹어야 힘이 나지.
꼭꼭 씹어 먹어, 체하지 않게.
재훈 (젓가락 내려놓고 미란을 뵈히 보는) 나한테 미안해서 이러지?
미란 뭐가?
재훈 당신 때문에 코로나 걸린 거.
미란 (발끈하는) 아직 결과 안 나왔거든. 그리고, 그게 왜 내 탓이야?
체육관 원생이 걸려서 이렇게 된 거지.
재훈 (고기 먹고 우물대며) 관장이 원생들 관리를 잘 했어봐. 이런 일이

미란 생기나.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고기 집는 재훈 젓가락 집게로 쳐내는) 먹지 마, 먹지 마!
안 그래도 당신 대출에 체육관 문까지 닫고 심란해 죽겠는데...

재훈, 미안한 마음에 머쓱해지는데, 휴대전화 알람이 울린다.

#11. 재훈 집/거실(저녁)

탁자 위에 놓인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 두 대, 그 옆에 쌓여 있는 우편물.
미란과 재훈, 각자의 휴대전화 들고 확인한다.

재훈 자가격리 어플 알람이네. 근데, 이거 당신 폰인데?
미란 그러게, 바뀌었네.

미란과 재훈 서로 휴대전화 바꾸려는데, 재훈에게 전화 걸려오고,
‘형님’이라는 글자에 재훈의 표정 굳자, 미란 이상한 듯 쳐다본다.

미란 형님? 무슨 형님? 당신한테 누나 말고 나 모르는 형이 있어?
재훈 아, 이게, 아는 형님, 되게 돈 많은 형님인데 최근에 친해졌어.

미란, 미심쩍은 눈으로 재훈을 쳐다보는데, 휴대전화가 울린다.

미란 (전화 받고) 어, 언니! 웬일이야, (듣고) 들었구나? 괜찮아, 멀쩡해.
(안방으로 가는) 내가 그걸 거기에 두고 왔어? 어찌지, 보름 뒤에나
찾으러 갈 거 같은데...

#12. 재훈 집/작은방(저녁)

컴컴한 방, 컴퓨터 모니터 켜져 있고, 그 앞에서 통화하는 재훈의 뒷모습.

재훈 (버럭하는) 이렇게 아무 때나 전화하면 어떡해요!
촌배(F) 그럼 이자를 제때 입금했어야...
재훈 (말 끊고 짜증 내는) 지금 할게요, 한다가요!
촌배(F) 저한테 짜증 내는 겁니까?
재훈 (깨갱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촌배(F) (기분 상한) 됐고! 내일 원금이랑 이자 한꺼번에 입금하세요.
재훈 그런 법이 어딴어요? 갑자기 삼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촌배(F) 그거야 그쪽 사정이고! 그리고 삼천이라니?
그새 붙은 이자가 얼마데? 다 합해서 삼천이백!
재훈 뭐라고요?
촌배(F) 삼천이백. 날짜 넘기면 그땐 전화로 안 끝납니다. (전화 끊고)
재훈 여보세요? 여보세요?

재훈,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 접속하는데 ‘잔고 21,900원’

재훈 차라리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갔혔으면 좋겠다.

모니터 앞에 앉아 절망한 재훈의 얼굴 위로 미란의 얼굴이 공포영화처럼
올라오고, 미란 손을 높이 들어 재훈의 등짝을 후려친다.

#13. 재훈 집/거실(저녁)

멍든 얼굴에 뒤통킨 머리의 재훈,
멍한 표정으로 바닥에 무릎 꿇고 공손히 앉아 있다.

미란 (소파에 팔짱 끼고 앉아) 돈 많은 형님이 진짜 그 형님이었어?
대출에 사채까지 당신 제정신이야? (우편물 들고) 정재훈, 니 눈엔
이거 안 보이니? (우편물 하나씩 던지며) 전세대출, 전기세, 수도세,
아파트 관리비, 휴대폰비, 카드값까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줄줄줄인데, 어떻게 사채까지 쓰냐구, 사채를!

재훈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산 주식이 막 오르는 거야.
근데 알지? 그때 팔면 무릎이거든. 어깨까지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한몫 제대로 챙긴다구. 그래서 대출이랑 사채를 써서 투자금을
늘렸는데, 그때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

미란 닥쳐! 그래서 얼마야?

재훈 삼천이백.

미란 아니, 은행 대출까지 다 합쳐서.

재훈 ...오천이백...

미란 (주먹 꼭 쥐고 부들부들 떨며) 나 오늘 당신 진짜 죽일 것 같거든.
살고 싶으면 조용히 작은방으로 꺼져.

재훈, 미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일어나 작은방으로 미적대며 간다.

미란 (나지막하게) 부를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
방 밖으로 보이는 부위부터 부러뜨릴 테니까.

미란 재훈을 노려보면, 재훈, 후다닥 작은방으로 들어간다.

#14. 재훈 집/작은방(새벽)

힘없이 누워서 눈만 깜빡이던 재훈, 고개 옆으로 돌리면 보이는 작은 책장.
<시크릿>이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띄고, 책을 뽑아서 읽는 재훈.
표지에 '단 1%만이 아는 부와 성공의 비밀'이라는 홍보 문안.

재훈 (피식 웃으며) 예나 지금이나 뜯구름 잡는 건 여전하구나, 정재훈.

재훈, 책장을 파라락~ 넘기는데,
로또 용지 한 장이 천천히 날아 바닥으로 떨어진다.

#15. 회상. 서점(일몰시간)

작은 서점, 막 인쇄된 로또 용지를 받아든 양복 차림의 재훈.
입구로 걸어 들어오는 미란을 발견하고, 황급히 카운터 바로 앞 가판대에
진열된 책 <시크릿>을 집어 들고, 그 안에 로또 용지를 숨긴다.

재훈 (카운터에 내밀며) 이것도 계산해주세요.

미란 (뒤에서 다가와) 웬일이야? 책을 다 사고?

재훈을 바라보던 미란, 재훈이 들고 있던 책을 낚아채 휘리릭 훑어보다
로또 용지를 발견한다.

미란 내 이럴 줄 알았어. 맨날 짱에다 가뭄에 콩 나듯 오천 원 당첨인데
이걸 또 샀어? 지금까지 로또 산 돈으로 집을 샀겠다. 이쯤 했으면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

재훈 (미란 손에서 로또 용지와 책 뺏고, 책에 로또 용지 꽂아 넣으며) 땅을
파봐 오천 원이 나오나, 꾸준한 놈 앞에 장사 없는 거야. 봐봐, 언젠가
대박 터진다니까?

미란, 한심하게 쳐다보면, 재훈, 기대하는 얼굴로 책을 품에 꼭 안는다.

#16. 재훈 집/작은방(새벽)

어두컴컴한 방, 바닥에 떨어진 로또 용지를 주워 든 재훈.

재훈 됐으면 진작 바꿨겠지. (용지 구기려다 멈칫하는) 하긴, 또 모르지?

휴대전화로 로또 QR 코드 찍는 재훈.

페이지가 좀처럼 넘어가지 않다가 화면 뜨는데, '당첨번호 6, 16, 28,
34, 38, 43', '축하합니다. 총 1,284,915,425원 당첨'이 보인다.

재훈 에이 그럴 리가 (로또와 화면을 번갈아 보며 번호 맞춰보는)
6...16...28...34...38...43... 진짜 1등 당첨이라구?

새어 나오는 비명을 손으로 틀어막고, 좁은 방을 펄쩍펄쩍 뛰는 재훈.

#17. 보건소/사무실(새벽)

맨발에 슬리퍼, 운동복 차림의 현우, 복합기에 걸린 종이를 빼낸다.
“징—” 하고 복합기 움직이는 소리 들리고, 프린트된 종이를 받아든 현우.
그 뒤로, 막 씻고 나온 듯한 #8의 의사가 들어온다.

의사 아직 안 갔어?
현우 네, 검사 결과 나온다고 해서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 오늘은 집에 들어가세요. 벌써 일주일째인데...
의사 막 들어온 현우 씨도 이려고 있는데, 의리가 있지—
숙직실에서 잘 테니까 무슨 일 있음 부르고.
어제 검사 맡긴 것도 결과 나오는 건가?
현우 예정은 그런데, 검사자 수가 늘어서 약간 늦어질 수도 있대요.
우선 들어가서 주무세요, 선생님.
의사 응, 현우 씨도 조금이라도 눈 붙이고. 수고~

사라지는 의사의 뒷모습 보다가 크게 하품하는 현우,
벽걸이 시계를 보는데 새벽 2시 30분을 넘어서고 있다.

#18. 재훈 집/작은방(새벽)

재훈,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화면에서 유독 크게 보이는
글자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명영업)'

재훈 그러니까 이게 2019년 5월 7일 발표였고, 지급개시일은
다음날, 그럼 2020년 5월 8일까지만 돈을 준다는 거잖아.
5월 8일이면, (휴대전화 확인하면 '5월 8일 1시 5분') 오늘?
오늘이라구? 오늘 지나면 내 돈 12억이 날아간다구?

창문이 서서히 밝아오고, 모니터 앞에서 눈을 뜨고 자는 것처럼
충혈된 눈으로 앉아 있던 재훈, 벌떡 일어나 작은방 문에 귀를 기울인다.

#19. 재훈 집/거실(아침)

빼꼼 문을 여는 재훈, 거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오는데,
소파에 잠든 미란을 보고 흠칫 놀란다. 살금살금 현관 쪽으로 걸어간다.
눈을 번쩍 뜨는 미란, 재훈의 뒷모습을 보고 뒷덜미를 닦아채 넘어뜨린 후,
조르기를 한다.

재훈 (대자로 뺨어 거친 숨만 몰아쉬며) ...사람...살려...
미란 부르기 전엔 절대 나오지 말라고 했지? 어디부터 부러뜨려줄까?

#20. 재훈 집/작은방(아침)

방문 쿵! 닫히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재훈.
한숨을 푹 쉬다 창문을 보곤, 후다닥 다가가서 문을 열어젖힌다.
바닥을 내려다보는 재훈, 까마득한 높이에 절망하고, 고개를 젓는다.

시간 경과.
좁은 방 안을 왔다갔다 불안한 얼굴에 손톱을 뜯는 재훈.

재훈 강미란을 제껴야 돈을 가지러 갈 수가 있는데...

FLASH BACK#1 유도체육관

미란에게 연속 업어치기 당했던 장면을 떠올리며 고개를 젓는 재훈.

재훈 사실대로 털어놓고 나누자고 해?

FLASH BACK #2 재훈 집/주방+거실

미란 (재훈 손 뿌리치며) 그게 왜 우리 적금이야, 내 적금이지.
내가 벌어서 따박따박 부은 내 적금. 당신 지분 1도 없거든!

현재.

재훈 (고개 젓는) 아냐, 얘기하면 다 지 꺼라고 우길 텐데...

재훈, 생각에 잠겨 스르륵 눈이 감기고, 놀라서 퍼뜩 눈을 뜬다.
벽걸이 시계를 쳐다본 재훈, 10시를 확인하고 방문을 두드린다.

재훈 여보 나 화장실, 급해!

미란(E) 짜서 말려.

재훈 큰 거라고, 큰 거! 그래도 여기에 싸?

미란(E) 당신이 치울 거니까 괜찮아.

재훈 (행거에 걸려 있는 코트 발견하고 음흉하게 웃는) 그럼 작년에
당신이 큰맘 먹고 산 그 코트 위에 싸도 되지?

미란 (문 열고 노려보며) 진짜 죽고 싶지? 빨리 갔다 와.

#21. 재훈의 집/거실(아침)

미란, 재훈을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재훈, 미란의 눈치를 살피며
화장실 쪽으로 가다가 재빠르게 현관문을 향해 튀어간다.
그 순간, 미란, 재훈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다.

미란, 재훈의 발목을 잡고 질질 끌고 작은방으로 들어가는데,
정신을 차린 재훈, 버둥거리다 눈을 질끈 감았다 뜬다.

재훈 여보, 나 할 말 있어 할 말.

미란 난 들을 말 없어. 할 말은 작은방에 들어가서 혼자 해.

재훈 나, 로또 당첨됐어, 1등.

미란 (겉겉 웃으며) 가지가지 한다. 이젠 별 사기를 다 치는구나?

재훈 진짜라고! 보여줄게.

재훈, 주머니에 있던 로또 용지와 휴대전화로 검색한 당첨번호 보여준다.
미란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재훈 그 모습을 찡찡하게 쳐다본다.

#22. 보건소/선별진료소 앞(아침)

선별진료소에 검사받기 위해 늘어서 있는 사람들.

#23. 보건소/사무실(아침)

모니터 앞에 앉아서, 총혈된 눈 비비는 현우.

하품하며 현우에게 다가오는 의사.

의사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야?

현우 검사 결과 누락된 게 있어서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받은메일함에 새 메일 뜨고, 첨부파일 확인한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파일 열면, '이름 정재훈' 보이고 '결과 양성'

#24. 재훈 집/거실(아침)

재훈의 주머니 속, 보건소에서 보낸 결과 통보 문자 진동이 울린다.

미란 당신 문자 왔어.

재훈 증상체크 알람이겠지. 지금 그게 중요해?

당첨된 로또 용지 가운데 두고, 머리를 맞댄 미란과 재훈.

미란 그러니까, 오늘까지 안 가면 12억을 못 받는다?

재훈 그렇지.

미란 근데, 우리 지금 자가격리 중이잖아. 무단이탈하면,

재훈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형. 근데, 설마 징역까지 살겠어?

벌금이야 당첨금이 12억인데 무슨 상관이야.

미란 흠...

시간 경과.

벽시계 12시를 가리키고, 초조한 듯 다리를 떠는 재훈.

재훈 이제 슬슬 나가야 하지 않을까?

미란 내가 갔다 올게.

재훈 어? (NAR) 먹튀를 하시겠다? 그건 안 되지. (슬쩍 로또 용지 집는)

미란 내가 다녀온다고, 줘봐. (로또 용지 달라 손 내미는)

재훈 (로또 용지 뒤에 숨기고) 아냐, 지금까지 당신 고생만 했는데, 이런 것까지 당신한테 맡길 순 없지. 내가 갈게.

미란 (재훈 팔을 붙잡고) 설마 지금 나 못 믿어서 이러는 거야?

재훈 (팔 빼면서) 당신도 나 못 믿어서 이러는 거 아냐?

미란 그게 아니라 내가 당첨금 받아서 보관만 할게, 보관만.

당신 또 주식하다 날리면... (재훈의 팔 붙잡고)

재훈 (팔 버둥대며) 싫어! 안 해! 이게 어떤 돈인데!

내가 로또 살 때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당첨되니까 돈을 넘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로또 용지를 쥔 재훈과 그걸 뺏으려는 미란.

안방, 작은방, 거실을 돌아다니며 실랑이를 벌이다 현관 앞까지 이른다.

초인종 소리 울리고, 이내 거칠게 문 두드리는 소리 들린다.

재훈과 미란 동작을 멈춘다.

춘배(E) (손으로 문 두드리는) 야 정재훈이! 내가 분명히 말했지.

오늘까지 돈 못 갚으면 말로 안 끝난다고! 문 열어! 문 열라구!

재훈, 재빠르게 도어록 열림 버튼 누르고 튀어 나간다.

#25. 아파트 복도(낮)

문 앞에서 버티고 있던 춘배 무리, 우르르 뒤로 나동그라진다.

젖싸게 뛰쳐나가는 재훈, 때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재훈이 재빨리 올라타 닫힘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른다.

춘배(E) 야, 저 새끼 잡아!

춘배 부하들 주섬주섬 일어나는데, 그때 현관문이 다시 벌컥 열리며,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낀 미란이 튀어나온다.

그 바람에 또다시 뒤로 주루룩 넘어지는 춘배 일당.

#26. 아파트 주차장+택배 트럭 안(낮)

뛰면서 주변을 두리번대는 재훈의 눈에 택배 차량이 들어온다.

운전석에 기사가 올라타고, 서서히 빠져나가는데—

재훈 저기요! 잠깐만요, 기사님!

택배기사, 사이드미러로 재훈이 다급히 달려오는 걸 확인하고 멈춘다.
재훈, 조수석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자, 창문이 내려간다.
뒤를 살피는 재훈, 미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뛰어오는 걸 본다.

재훈 기사님 요 앞까지만 태워주세요.
기사 ?
재훈 제가 마누라 몰래 사채 썼다 걸렸거든요. 잡히면 죽을지도 몰라요.
저기 달려오는 여자 보이죠? 저 여자 유도 선수였단 말이에요!

뒤를 살피는 재훈, 스무 발자국쯤 떨어진 미란이 마치 나는 듯 뛰어온다.
발을 동동대며 조수석 손잡이를 흔들며대는 재훈, 택배기사에게
애원의 눈빛을 보낸다. (E) 딸깍, 문이 열리고 조수석에 올라타는 재훈.
간발의 차로 놓치는 미란, 택배 차량을 따라 계속 달려온다.

재훈 잡히겠네, 잡히겠어. 밝아요, 밝아! 기사님!!

택배기사, 가속페달을 밟고, 미란과 차량 사이 거리 멀어진다.
미란, 땅바닥에 주저앉고, 그 모습을 사이드미러로 확인하는 재훈.

#27. 도로/택배 트럭 안(낮)

도로 위를 달리는 택배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나란히 앉은 택배기사와 재훈, 서로 눈치 본다.

기사 그냥 싹싹 빌어요.
재훈 ?
기사 나도 빚내서 주식 하다 말아먹고 이혼당했는데, 남자 혼자 사는 거?
그거만큼 초라한 게 없습디다. 지지고 볶고 싸워도 따순 밥에

홍삼 챙겨주던 마누라...
(울먹이며) 여보, 보고 싶어. (오열하는)

재훈, 대시보드 위에 놓여 있는 티슈 뽑아서,
택배기사에게 건네는데,
택배기사, 소매로 눈물 속속 닦는다.

#28. 몽타주. 비상 상황(낮)

— 코로나19 상황실, 전면 스크린 지도 위에 빨간 점 번쩍이더니,
지도 전체가 붉은색으로 깜빡인다.
— 방호복 입은 경찰관들, 순찰차에 나눠 타고, 사이렌 울린다.
— 보건소 사무실. 전화 받은 현우, 눈이 커지면서 벌떡 일어난다.

#29. 택배 트럭 안(낮)

주머니 속, 계속 휴대전화 진동이 울려도 받지 않는 재훈.
택배기사가 재훈에게 눈치를 주자, 재훈, 휴대전화 꺼내서 확인한다.
'보건소'라는 글자에 급하게 휴대전화 전원을 끈 재훈, 택배기사를 향해
어색하게 웃는다.

#30. 상황실(낮)

전면 스크린 지도,
빨간 점 사라지고, 요란한 경고음이 울린다.

재훈(E) 조기 앞에 세워주세요.

#31. 택배 트럭 안+농협 앞(낮)

택배 차량 농협 앞에 멈춰 서고, 주머니를 뒤적이는 재훈.
로또 용지만 나온다.

재훈 (난감한) 제가 어떻게든 보답을 하고 싶은데...
기사 아유, 나중에 인연 닿으면 물이나 한잔 주세요.
재훈 그게 아니라 죄송한데...
기사 그냥 사모님이랑 화해나 잘 하세요.
재훈 저 오천 원만 빌려주시면...
기사 (뜨악하게 쳐다보는) ...
재훈 차비가 없어서.

택배기사, 조끼 주머니에서 꼬깃하게 접힌 오천 원 꺼내 건네는데,
내키지 않는 표정. 오천 원 잡고 있는 손가락에 힘 팍 준다.

재훈 (돈 뺏어내듯) 감사합니다. 진짜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차에서 내린 재훈 뒤로, 택배 차량이 뺨— 하고 지나간다.

#32. 농협(낮)

슬리퍼에 반바지, 낡은 티셔츠 차림의 재훈, 농협 안으로 들어서자,
마스크 쓴 창구 직원들과 대기석에 앉아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쏠린다.
재훈,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이자, 청원경찰 재훈에게 다가간다.

청원경찰 (마스크 올려 쓰며)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재훈 (들릴 듯 말 듯) 로또 당첨금 받으러 왔는데요.
청원경찰 뭐라고요?
재훈 (조금 더 크게) 로또 당첨금이요.

청원경찰 (큰 목소리로) 아~ 로또 당첨금이요—

창구 직원들과 대기석 사람들의 시선, 또다시 재훈에게 쫓힌다.
재훈, 고개를 숙이고, 청원경찰 옷자락 끝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간다.

청원경찰 (재훈에게 잡힌 옷 털어내며) 신분증은 가져오셨어요?
재훈 !

#33. 거리(낮)

터덜터덜 슬리퍼 끌고 걸어가는 재훈, 가판대 앞에 멈춰 선다.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 적힌 손글씨 입간판 멍하니 쳐다본다.

재훈 이 미친놈아, 어떻게 로또 당첨금 받으러 간다는 놈이 신분증도
안 챙기냐? (걸어가며)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날려 먹는
이 등신 같은 놈. 하긴, 내 팔자에 무슨 로또 1등이나—
약사(E) 저기요.

재훈, 뒤돌아보면, 마스크 쓴 약사가 빼꼼 약국 문을 열고 쳐다본다.

#34. 약국(낮)

약사, 카운터 아래 서랍에서 재훈의 주민등록증 꺼내 건넨다.

재훈 이게 어떻게 여기 있어요?
약사 미란 씨가 남편분 대신 마스크 사고, 깜빡하고 놓고 갔어요.
전화했을 땐 2주 뒤에나 온다더니, 결과가 음성 나왔나 보네.

재훈, 주민등록증 받아들고, 기억을 떠올린다.

FLACH BACK #11 재훈 집/거실

미란 (전화 받고) 어, 언니! 웬일이야, (듣고) 들었구나? 괜찮아, 멀쩡해.
(안방으로 가는) 내가 그걸 거기에 두고 왔어? 어찌지, 보름 뒤에나
찾으러 갈 거 같은데...

현재.

약사(E)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셔도 되나? 마스크는 하셔야 할 텐데...

재훈 (눈치 보며 손으로 코와 입 가리는) ...

약사 남편이 마스크 잘 안 챙긴다고, 그때도 미란 씨가 걱정했었는데...
(마스크 세 장 꺼내놓는)

재훈 얼마예요?

약사 사천오백 원이요.

재훈 (주머니에서 오천 원 꺼내며) 한 장만 주세요.

마스크 쓰고, 나가려던 재훈, 멈춰 서더니 뒤돌아 약사 바라본다.

재훈 근데, 저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약사 미란 씨 카톡 사진 때문에 낮이 익어서... (카톡 프로필 보여주는)

미란의 카톡 프로필, 재훈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

#35. 재훈 집/거실(낮)

미란과 재훈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미란,
재훈에게 전화하지만 꺼져 있다는 음성이 나온다.

통화 종료 버튼 누르고, 고개를 들면, 방호복 입은 경찰들, 현우와 함께
나온 구청 직원들이 빙 둘러싸고 있다.

현우 (화내는) 아니, 어찌려고 나가신 거예요? (애원하는) 제가 분명히
무단이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미란 죄송해요. 제가 잠깐 잠든 사이에 나간 거라...

현우 (경찰 보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분, 양성이라구요!

미란 ! 저는...요?

현우 문자 보내드렸는데... 음성 나오셨어요.

미란 같이 사는데, 다를 수도 있어요?

현우 그러니까 선생님도 더 지켜봐야 돼요. 남편분 가실 만한 데 없어요?

미란 ...모르겠어요...

현우, 답답함에 경찰을 뺨히 쳐다본다.

경찰 이게 휴대전화가 꺼져 있으면,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서...

미란의 휴대전화, 카톡 알림음 울리고, 모두의 시선이 쏠린다.

카톡 확인하면, '약사 언니'가 보낸 메시지, '자기 괜찮아?'

'지금 자기 남편 여기 왔다 갔어', '버스정류장 쪽으로 가던데'

경찰들, 현우와 구청 직원들 후다닥 뛰어나간다.

#36. 농협 앞(낮)

농협 앞에 선 재훈, 마스크 올려 쓰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긴다.

#37. 농협(낮)

재훈, 두리번대다 청원경찰을 발견하고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간다.

재훈 (주민등록증 대뜸 내밀며) 저 주민등록증 가져왔는데요.

청원경찰 (기억을 떠올리다) 아, 아까 오신 로또...

재훈 (마스크에 검지 갖다 대며 고개를 마구 끄덕이는) ...
정원경찰 (번호표 뽑아서 건네며) 순서 오면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시간 경과.

(E) 명동 소리 들리고, 재훈 벌떡 일어나 창구로 향한다.

은행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재훈 저, 로또 당첨금 받으러 왔는데요.

은행원 (트레이 내밀며) 신분증이랑 당첨 용지 주시고요.

재훈, 신분증과 로또 용지 트레이에 살포시 놓고,
은행직원 로또 용지를 당첨 확인 기계에 스캔한다.

은행원 일등 당첨되셨네요?

재훈 (작게) 네

은행원 우선 축하드리고요. 근데, 일등 당첨금은 농협 서울 본점에 가서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재훈 !

#38. 버스정류장(낮)

휴대전화 켜니, 바탕화면 시계 2시 30분을 가리키고, 부재중전화 알림이 계속해서 뜨지만 무시하는 재훈, '서울 농협 본점' 가는 길을 검색하고 정류장 전광판 보는데, 119구급차가 정류장 바로 앞에 멈춰 선다. 차에서 내린 방호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재훈을 향해서 다가온다.

재훈(NAR) (눈을 꼭 감고) 망했다.

재훈을 지나쳐, 뒤에 있는 건물로 몰려가는 구급대원들.

재훈, 찡끔 눈을 뜨는데, 발버둥치는 남자가 구급대원들에게 끌려 나온다.

남자 싫어! 안 간다구! 나 코로나 아니라고! 봐봐— 멀쩡하잖아.

구급대원 증상만 없는 거지, 양성 판정 나왔어요. 무단이탈하셨으니까, 이제 시설 격리합니다!

끌려가는 남자를 쳐다보던 사람들 수군댄다.

버스 도착하고, 사람들 몰리자, 재훈은 맨 뒤, 두 걸음쯤 떨어져 서서,
마스크를 슬쩍 올려 쓰고, 휴대전화 전원 버튼을 끈다.

#39. 버스 안(낮)

맨 뒷자리 창가 구석에 몸을 구긴 채 앉아 있는 재훈.

버스 정면에 설치된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아나운서 일산동구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30대 남성이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현재, 경찰과 관할 지자체 공무원들이 남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양성 판정을 받은 남성은...

재훈 (놀란 큰 목소리로) 양성이라고?

버스 안 승객들 몇몇이 재훈을 쳐다본다.

재훈, 좌석에 깊이 몸을 묻고, 휴대전화 전원을 켜다.

보건소, 경찰, 미란으로부터 온 부재중전화 알림 진동이 계속해서 울린다.

보건소에서 온 메시지 확인하는 재훈, '5월 7일 시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임을 알려드립니다. 오후 1시 〇〇병원으로 이송 예정입니다'

휴대전화를 켜 재훈의 손, 스르륵 내려간다.

#40. 도로(낮)

시원하게 달리는 버스 위로 '여기서부터 서울입니다' 적힌 표지판 보인다.

#41. 몽타주. 동선 추적(낮)

- 코로나19 상황실 전면 스크린에, 재훈의 위치 표시되면서 빨간 점이 빠르게 움직인다. 직원 한 명이 급히 전화한다.
- 약국 앞에서 통화 중인 현우, 전화를 끊고, 동료들과 얘기한다.
- 경찰차,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질주한다.
-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미란, 굳은 표정.

#42. 도로+버스 안(낮)

꽤 막힌 도로, 느릿느릿 전진하는 버스.
그 안에서 초조하게 다리를 떠는 재훈, 시간을 확인하려고 휴대전화를 터치하는데, 때마다 '형님'에게서 온 전화에 실수로 통화버튼을 누른다.

춘배(F) 정재훈 씨? 정재훈 씨?
재훈 (끊을까 말까 고민하는) ...
춘배(F) 듣고 있지? 당신만 튀면 끝날 거 같아?
당신 마누라, 우리가 가만히 둘 줄 알아?
미란(F) (부르짖는) 여보!
재훈 !
춘배(F) 3시 40분까지 서울역 앞 대박빌딩 402호로 와. 만약 안 나타나면, 마누라, 두 번 다시 못 보게 될 거야. (전화 끊는)
재훈 여보세요, 여보세요!

재훈, 미란에게 전화하지만 꺼져 있다는 음성이 흘러나온다.
통화 종료된 휴대전화 화면에 '5월 8일 오후 3시 5분'이 뜬다.
주머니에서 로또를 꺼내 보는 재훈, 머릿속으로 미란이 춘배 일당을 때려눕히는 상상을 한다.

재훈 그래, 혼자서 남자 열은 때려잡을 텐데, 뭐 걱정이야.

#43. 버스정류장+버스 안(낮)

버스정류장에 멈춰 선 버스.
재훈, 휴대전화로 3시 12분을 확인하고, 머리 위의 버스 노선도를 본다.

승객(E) (크게)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저래라야?

재훈, 목소리 방향을 따라 버스 앞문 쪽을 쳐다본다.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70대 승객이 버스기사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다.

버스기사 (차분하게) 손님. 다른 승객분들도 계시고, 정부 지침이 그러니까 마스크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승객 요금 받았으면 운전이나 할 것이지, 어디 손님한테 마스크를 쓰라 마라야? 못 써, 아니 안 써. 그거 영~ 답답해서 안 쓸 거니까, 빨리 출발이나 해. (막무가내로 들어가려는)

버스기사 (단호하게) 내리세요.

승객 뭐라구?

버스기사 이분 내리실 때까지 출발 안 합니다.

술렁이는 승객들, 진상 승객 흘려보거나, 몇몇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한다. 재훈, 상황을 보다,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는데 '3시 17분'

승객 (기사에게 다가가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때릴 듯 주먹을 드는)

재훈 (승객의 손목 낚아채는) ...

승객 (재훈을 노려보며) 넌 또 뭐야?

재훈 그만 하세요. 할아버지 아플까 봐 그래요. (승객들 쳐다보며) 이 중에 코로나 환자가 있어서 기침이라도 해봐요. 여기 젊은 친구들은 면역력이라도 있지, 할아버지가 제일 위험해! 마스크 없어요?

승객 (누그러진) ...여기... (바지 주머니에서 마스크 주섬주섬 꺼내는)

재훈 마스크도 있으시네. 하고, 들어가서 앉으시면 되겠네.

술 취한 70대 승객, 마스크 쓰고, 눈치 보면서 버스 안으로 들어간다.

재훈, 버스 앞쪽 도로 살피는데, 차량이 꽤 밀려 있다.

재훈 기사님 죄송한데, 저 앞문으로 좀 내릴게요. 죄송합니다.

버스에서 내린 재훈,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다.

#44. 편의점 앞(낮)

멈춰서 허리를 숙이고 숨을 몰아쉬는 재훈, 얼굴엔 땀범벅이다.

들숨 날숨에 따라 들썩이는 마스크, 재훈 대답해서 벗으려다 올려 쓴다.

편의점에 들어가려던 재훈, 멈춰 서서 #7의 방호복 입은 사람들 떠올린다.

재훈(NAR) 내가 들어가면 여기도 문 닫겠지? 목말라서 죽을 거 같은데...

재훈, 망설이며 갈팡질팡하는데, 편의점에서 곰돌이 의상을 입고 생수병을 든 남자가 나온다. 파라솔 테이블 위에 곰 탈을 올려두고, 의자에 앉아 생수병 뚜껑을 따는 남자에게 재훈의 시선이 꽂힌다. 따가운 시선을 느낀 남자, 재훈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생수를 건넨다. 재훈, 생수를 받아들고 끝까지 원샷을 한다.

재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저... 얼마...

남자 됐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재훈 감사합니다. 혹시... (곰돌이 옷 가리키며) 이 옷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남자 (어이없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장사 안 돼서 알바도 못 쓰고

개고생하고 있는데, 별 그지 같은... (탈 챙겨서 일어나는)

재훈 (불쌍한 표정으로) 오늘이 결혼기념일인데, 제가 와이프 고생만 시키고, 돈은 없고, 깜짝 파티라도 해주고 싶어서...

#45. 인도+곰돌이 탈 안(낮)

곰돌이 복장으로 전력 질주하는 재훈.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고, 뒤돌아본다.

휴대전화 화면에 재훈의 사진을 띄우고 순찰하던 경찰도 지나쳐간다.

곰돌이 탈 안의 재훈, 땀을 비 오듯 쏟아내며 탈진 직전이다.

재훈 (거친 숨 몰아쉬며) 헉, 헉, 이러면, 헉, 헉, 전염은, 안 되겠지.

#46. 빌딩 전경(낮)

멈춰서 곰돌이 탈을 벗는 재훈, 땀이 뚝뚝 흘러내린다.

고개 들면, 낡은 4층짜리 건물. '대박빌딩'이라는 글자가 공서체로 쓰여 있다. 그 뒤로 태양이 집어삼킬 듯 이글댄다.

재훈, 눈이 부신 듯 얼굴을 찡그린다.

#47. 회상. 버스 안(낮)

버스 뒷좌석,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자고 있는 재훈.

휴대전화 진동에 실눈을 뜨고 화면을 확인하는데, '처형'이라는 글자에 눈이 번쩍 뜨인다.

재훈 (긴장하며) 네, 처형. 잘 지내시죠?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미란 언니(F) 아니야, 바쁜 거 다 아는데, 별일 없지?

재훈 네, 네, 별일... 없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미란 언니(F)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얼마 전에 미란이가 전화를 했더라고. 길게 통화는 못 했는데, 또 지금은 전화기가 꺼져 있네?

재훈의 귓가에 퍼득, #42 촌배의 "니 마누라 가만히 둘 줄 알아?"라는

목소리가 울린다. 다리를 떨기 시작하는 재훈.

재훈 빠떼리가 다 됐을 거예요. 제가 다시 연락해서 얘기할게요.

미란 언니(F) 아냐, 보면 연락하겠지. 정 서방, 황소 같은 마누라 데리고 사느라 고생이 많지? 미란이 그 기지배가 운동만 해서 애교도 없고, 성격은 좀 지랄맞아? 그래도 지 남편 챙긴다고 얼마 전에 소고기 좋은 걸로 보내달라서 택배로 부쳤는데, 먹어봤어?

FLASH BACK #10 재훈 집/주방(저녁)

불판 위 노릇하게 익은 고기를 재훈의 밥그릇에 차곡차곡 올려놓는 미란.

재훈 네, 네, 맛있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미란 언니(F) 인사는 됐고, 미란이 예쁘게 좀 봐줘. 알지? 미란이 첫사랑이 정 서방이잖아. 그리고 결혼기념일 축하해—

재훈, 다리를 떨다 멈추고, 뭔가 결심한 듯 비장한 얼굴.

#48. 빌딩/입구(낮)

어두컴컴한 빌딩 내부, 천장의 형광등은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고, 재훈, 뛰어들어오는데, 백발에 허리가 구부정한 경비가 앞을 막아선다.

경비 어디 찾아오셨어?

재훈 402호요. 지금 급해서... (가려는데)

경비 (막아서며) 급해도 할 건 해야지. 따라와.

경비, 느릿느릿 경비실로 향하고, 재훈은 조급한 기색이 역력하다. 출입자 명부 대장을 펼치는 경비.

경비 자, 여기 날짜, 시간은 3시 38분. 사는 동네랑 연락처 적고.

재훈 (재빨리 계단으로 도망가며) 아저씨 이따 할게요, 이따!

#49. 빌딩/계단+복도(낮)

슬리퍼 신은 재훈, 계단을 두 칸씩 뛰어 올라간다.

거친 숨을 내쉬며 천천히 복도를 걸어가는 재훈.

복도 끝 왼쪽 401호, 오른쪽 402호를 확인한 재훈,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돌린다.

#50. 춘배 사무실(낮)

문을 확 열어젖힌 재훈, 철제 의자에 앉아 울먹이는 미란이 보인다.

미란을 둘러싸고 춘배와 그 부하 대여섯이 늘어서 있다.

미란의 머리 위, 벽에 걸린 오래된 전자시계가 '3:40'으로 표시된다.

재훈 봐— 나 안 늦었어. 딱 3시 40분. 미란아, 괜찮아?

미란 (눈물 그렇게서 고개 끄덕이는) ...

미란에게 다가가려는 재훈, 미란 뒤에 서 있던 춘배가 앞으로 나서자 한발 물러선다.

춘배 말이 또 짧네. 정재훈 씨?

재훈 아닌데...요. 시간 맞춰 왔으니까, 와이프는 먼저 풀어줍시다.

춘배 줍시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자꾸 거슬러!

(춘배의 눈짓에 부하들 한발 다가가는)

재훈 (뒤로 물러서는) 와이프가 무슨 짬니까? 나 같은 놈 만난 죄밖에 더 있어요?

춘배 (기가 막힌) 허...참!

재훈 그러니까, 와이프는 풀어주라고. 안 풀어주면 그 돈 못 갚아.

어차피 돈 받으려고 이러는 거잖아?
춘배 그 돈 값을 수는 있고?
재훈 (눈동자 흔들리는) ...

재훈,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 흘깃 올려 보는데 3시 42분 가리킨다.

#51. 몽타주. 동선 추적(낮)

— 방호복 입고, 차량 조수석에 앉은 현우, 휴대전화 뚫어지게 보고 있다.
화면에는 재훈의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돼 있다.
— 경찰차 서너 대가 요란한 사이렌 울리면서 질주하다 춘배의 사무실 앞에 멈춰 선다. 방호복 입은 경찰들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

#52. 춘배 사무실(낮)

한 걸음씩 다가오는 춘배와 부하들, 재훈 뒷걸음질 치며 물러난다.

춘배 내 피 같은 삼천이백, 값을 돈은 있냐구!
재훈 지금 나랑 와이프 풀어주면, 바로 입금할 수 있어.
춘배 이 양반이 나랑 장난하나? (재훈에게 다가가는)

코앞까지 다가온 춘배와 부하들에게 손을 버둥대며 악을 쓰는 재훈.
재훈의 행동에 사채업자 무리와 미란, 황당한 얼굴.

#53. 빌딩/복도(낮)

재훈의 비명을 듣고, 복도를 걸어가던 방호복 입은 경찰들과 그 뒤를
따르던 현우와 구청 직원들 멈춰 선다. 눈빛 교환한 경찰들, 뛰기 시작한다.

#54. 춘배 사무실(낮)

춘배에게 다가가는 재훈, 얼떨결에 물러서는 춘배와 부하들.

재훈 물러서! 안 다치려면 물러서는 게 좋을 거야. (휴대전화 꺼내는)
춘배 (비웃는) 뭐?
재훈 (휴대전화 화면 내미는) 한 놈만 와서 봐!

춘배 고갯짓하면, 옆에 있던 부하 중 한 명, 재훈에게 다가간다.
재훈의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고 허둥지둥 춘배에게 귓속말을 하는 부하,
춘배의 얼굴 굳는다.

재훈 봤지? 나 코로나 확진자야! 내가 여기서 침 몇 방울만 튀기고,
기침 한번 크게 하면, 니네 그대로 자가격리야. 알지?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재훈, 천천히 미란 옆으로 다가가고,
춘배 무리는 겁에 질려 벽에 딱 붙어 있다.

재훈 움직이기만 해! 침 뱉을 줄 알아! (미란 손목에 묶인 끈 풀며)
여보,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미란 (묶였던 손목 푸는) 어, 괜찮아.

재훈, 벽에 걸린 시계 흘깃 보는데, 3시 48분 가리킨다.
벌컥 문이 열리고 방호복 입은 경찰과 보건소 직원들 들이닥친다.
춘배 무리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현우 정재훈 씨!
재훈 비켜서요. 안 그러면 나, 무슨 짓 할지 몰라.

재훈, 카악~ 가래를 모으는 시늉 하자, 뒤에 있던 미란의 얼굴 구겨지고,

춘배 무리, 경찰, 보건소 직원 모두 인상을 찡그리며 한걸음 물러선다.

재훈 (침 꿀꺽 넘기고) 여기서 다 같이 죽고 싶지 않으면, 비켜서요.

미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재훈.

방호복 입은 경찰들과 보건소 직원들, 서서히 재훈에게 길을 터준다.

현우 이러시면 안 돼요.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으셔야 돼요.

재훈 알아요. 병원 갈 건데, 지금은 아니야. (미란 쳐다보고) 여보, 뛰어!

손을 잡고 달리는 재훈과 미란.

그 뒤를 경찰들, 보건소 직원들, 춘배 무리가 뒤엉켜 쫓는다.

#55. 도로(낮)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손잡고 나란히 달리는 재훈과 미란.

동작이 느려지면서, 애뜻한 눈빛을 주고받는다.

#56. 거리/횡단보도(낮)

미란의 손을 잡고 뛰던 재훈, 맞은편에 농협 간판 적힌 건물을 발견한다.

건물 앞 횡단보도 신호등은 빨간불이 켜져 있다.

재훈, 뒤를 돌아보는데 방호복을 입은 경찰들이 떼지어 뛰어오고 있다.

발을 동동대던 재훈, 파란불로 신호등이 바뀌어서 뛰는데, 어느새 미란이

앞장서서 재훈의 손을 끌고 뛰어간다.

#57. 거리/농협 본점 정문 앞(낮)

미란의 손 잡고 끌려가던 재훈, 발목을 접질려 넘어진다.

미란, 재훈에게 다가가는데, 농협 정문의 자동 셔터가 내려가는 모습을 본

재훈, 주머니에 있던 로또 용지를 미란에게 쥐여준다.

재훈 (가라는 손짓하며) 여보! 괜찮으니까, 먼저 가! 뛰어!

미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이고, 뒤돌아서 농협 정문을 향해 뛴다.

#58. 몽타주. 뉴스(낮)

— 농협 본점 앞, 구급차, 경찰차가 쭉 늘어서 있다. 방호복 입은

구급대원들에게 끌려가는 재훈, 뒤편의 농협 건물을 계속해서 돌아본다.

아나운서(E) 오늘 오후,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4시간의 추격전 끝에 경찰에 검거된 남성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곧장 병원 격리조치 됐습니다.

— 방호복 입은 경찰들에게 연행되는 춘배 무리, 경찰차에 탄다.

아나운서(E) 연 삼천 퍼센트 이상의 이자를 챙겨온 불법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43 재훈이 진상 승객 상대하는 장면.

아나운서(E)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 맞선 시민의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터덜터덜 걸어가는 미란, 닫혀 있는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다.

#59. 회상. 재훈 집/거실(낮)

#41에 이어서, 소파 위, 휴대전화 받고 굳은 표정의 미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춘배와 부하들. 머리는 엉클어져 있고,
옷이 찢겨 있기도 하고, 얼굴에 멍이 들어 있기도 하다.

미란 (머쓱한)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춘배 (눈물 그렁) 빌려준 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두들겨 맞고.
(울음이 쏟아질 듯하지만 꼭 참는)
미란 그러니까 좀 잘 피하지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솔직해집시다.
안 그러면, 더 다쳐요! 원금이 얼마예요?
춘배 삼... 천... 이... (갈등하다) ...요.
미란 확실하죠?
춘배 (억울한 표정으로 고개 끄덕이는)

미란, 휴대전화 몇 번 터치하고 춘배에게 휴대전화 보여준다.
인터넷 뱅킹 화면, 잔고 오천만 원 남짓 있다.

미란 봤죠? 빚은 내가 대신 갚을게요. 아니, 백 더 드릴게요.
춘배 ?
미란 대신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마누라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3시 40분까지 사무실로 오라고 해요.
춘배 왜 그런...?
미란 (인상 쓰며) 그건 알 거 없고.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의아해하는 춘배 옆에,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앉아 있는 미란.

미란(NAR) 은행 마감 시간 4시. 까딱 잘못하면 당첨금이고 뭐고 다 날아갈 텐데...
정재훈, 너 어디로 갈래?

#60. 회상. 춘배 사무실(낮)

#50 이전에, 철제 의자에 앉아 있는 미란의 손을 뒤로 묶는 춘배 부하.

미란 (불편한 듯) 좀 살살하죠?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춘배 (지켜보는) 판을 잘 깔아야, 광값을 제대로 받을 거 아닙니까?

춘배에게 눈 흘기는 미란, 문 열고 재훈이 나타나자,
눈물 찼끔 흘리는 미란, 입꼬리는 살짝 올라간다.

#61. 아파트 전경(낮)

핑크빛 노을로 물든 하늘.
놀이터엔 마스크 쓴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다.

아나운서(E)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이들은 모두
25명입니다.

#62. 재훈 집/주방(저녁)

불판 위 노릇하게 익은 소고기, 재훈의 밥그릇 위에 차곡차곡 쌓인다.
정신없이 고기를 집어 먹는 재훈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미란.

미란 천천히 먹어, 누가 안 뺏어 먹으니까. 거기서 밥 안 줬어?

재훈 아니, 다 챙겨 먹었는데, 이상하게 허기지네.
 미란 꼭꼭 씹어 먹어, 체하지 않게.
 재훈 (우물대며) 그래서 진짜 당첨금을 못 받았대구? 딱 1분 늦었는데?
 미란 응, 절대 안 된대. 방침이 그렇다는데 어떡해?
 재훈 야박하다, 야박해! 12억에 세금 떼도 8억인데...
 미란 그래도 빚 던 게 어디야? 무단이탈도 벌금만 내고 끝났고,
 당신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재훈 (아련하게 보는) 나 때문에 고생만 하고, 미안하다, 미란아.
 미란 어이구, 철들었네. 됐고! 밥이나 마저 먹어.

시간 경과.
 싹싹 비운 밥그릇, 불판 위도 깨끗하다.

재훈 (젓가락 내려놓는) 설거지 내가 할게, 먼저 씻어.
 미란 어?
 재훈 ...못 알아들었으면 됐구.
 미란 아냐, 아냐, 아냐. 나 먼저 씻을게.

#63. 재훈 집/안방(저녁)

서랍에서 속이 비치는 야한 잠옷을 꺼내들고 살며시 웃는 미란,
 서랍에 다시 손을 깊숙하게 밀어 넣었다 빼면 농협 통장이 들려 있다.
 표지 넘기면 예금주 '강미란' 그 아래 '공동명의예금'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다음 장 넘기면 잔액 860,893,334원이 찍혀 있다.

재훈(E) 여보, 나 수건 좀.
 미란 (서랍에 통장 넣고) 알았어!

#64. 아파트 전경(저녁)

어둑해진 하늘, 아파트 대부분에 불이 환히 밝혀져 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 하나.

끝.

작가 후기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찾아온 인생 최고의 행운.

인생 최고의 순간 뒤에 찾아온 일생일대의 위기.

전자는 재훈의 이야기이고, 후자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바랐던 오픈에 당선된 이후의 시간은 내내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고민하는,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힘을 북돋워주신 임고는 과장님과 오픈 5기 작가님들,

쓴소리도 쿨하게 던져주셨던 김지일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작품집 이전에 <1등 당첨금 찾아주세요>를 읽고,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분들.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작품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한 작품, 한 작품을 쓸 때마다 최초의 독자로서 솔직한 감상을 얘기해준 동생,

늦은 나이 큰딸의 새로운 도전을 묵묵히 지켜봐준 부모님.

늘 내 편이 되어준 친구들과 글을 쓰면서 만난 모든 동료 작가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획의도

목소리에도 ‘지문’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사람의 지문이 모두 다른 것처럼 목소리도 저마다 달라서
그 사람을 구분 짓는 하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는 건,
그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지문처럼 마음에 새기게 되는 과정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에서나 사랑에서나 매번 ‘을’인 두 남녀, 더빙감독과 중고신인 성우가 있습니다.
사랑이 세상 제일 어려운 한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게 세상 제일 쉬운 한
여자에게 연애 상담을 해주다가 되려 사랑에 빠져버리는 관계전복 ‘을(乙)의
연애기’입니다.
그 많은 목소리 중에 서로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된 두 남녀의 이야기가
갑갑한 일상을 보내는 이들에게 작은 숨구멍을 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아프지만 걸핏하면 또다시 사랑에 빠지는 이유도
결국은 ‘로맨스’가 고단한 일상에 숨통이 되어주기 때문 아닐까요.

등장인물

장도완(30대 초반, 남) 더빙감독

일은 ‘고수’지만 연애는 ‘하수’인 7년 차 애니메이션 더빙감독. 이름과 얼굴을 잘
기억 못 해 동료 성우들도 본명이 아닌 배역 이름이나 목소리로 기억한다.
제 앞가림도 못 하는 만년 솔로 주제에 같이 작업하는 성우 다혜의 연애
카운슬링을 해준다. 지원과는 친구 이상의 애매한 관계인 걸 알면서도 그녀의
어장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다혜의 레이더망에 걸리며 난생처음 사랑이란 걸
‘받아’보고 생경해한다.

은다혜(20대 후반, 여) 성우

이상은 엘사, 현실은 ‘개소리’인 중고신인 성우. 자타공인 ‘금사빠’다. 지역 광고,

한연주

hanyoen@naver.com

2013 · 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 창작반(45기) 수료

2017 · JTBC 극본공모전 가작 당선

2017 · JTBC 드라마하우스 인턴작가

라디오 광고 등 성우 일이면 뭐든 하며 씩씩하게 버티지만 배역을 빼앗기는 등의 일을 겪고 지쳐가던 차, 연애 카운슬링을 해주던 도완에게 빠진다. 솔직한 탓에 금세 마음을 들켜버리고 도완에게 무시당하지만, 자신의 짝사랑만큼 도완의 외사랑이 안타깝다.

정지원(20대 후반, 여) 성우

스타 성우. 자신의 어장 속 물고기인 도완의 시선이 다해를 향하자 참을 수 없다.

하성준(20대 후반, 남) 성우

성우. 도완과 다해의 연애 카운슬링 대상이다.

언제부턴가 다해에게 호기심이 생겼다.

그 외

도완 부, 다해 모, 혜영, 김 피디, 김 선생, 오 여사, 지구대 순경 등

즐거리

그녀의 개소리가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자신이 연출 맡은 애니메이션 더빙의 주인공 성우가 교체되는 갑질에 화가 난 도완은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다해의 배역을 '개소리'로 교체하는 내리 갑질을 한다. 알고 보니 이웃이었던 둘은 극장판 애니메이션에서 연출가와 성우로 다시 만나게 되는데.

빼앗기는 게 비단 밥그릇뿐이라... 연애에서도 매번 '을'이 되는 그대들.

동네 이웃이자 부모님의 일로 얽히게 된 도완과 다해. 도완은 다해가 친한 동생인 성우 성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그녀의 연애를 코치해주고, 다해는 그 도움으로 점점 성준에게 다가가게 된다. 하지만 다해의 배역이 교체되는 일이 발생하고, 감독인 도완은 미안함에 괴롭다. 술기운을 빌려 자기도 모르게 뱉어버린 속마음 때문이었을까, 다해는 자신의 목소리를 인정해주는 도완을 좋아하게 되고 도완은 처지와 취미가 같은 다해와 일상을 공유하며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진다.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알아요? 목소리는 지문과도 같다는 거?”

여주인공인 성우 지원과 애매한 관계인 도완. 지원은 애인이 있음에도 저를 짝사랑하는 도완을 감상하고, 다해는 자신의 짝사랑만큼이나 도완의 외사랑이 안타깝다. 그렇게 서로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작품은 어느덧 끝을 향해 간다. 도완에게 실망한 사건으로 다해가 돌아서자 그제야 다해에게 받았던 난데없는 사랑이 그리워지는 도완은 지독하게 외로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일에서도, 연애에서도 매번 '을'인 도완과 다해는 과연 서로의 목소리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목소리를 구분하는 방법 한연주

#1. 스튜디오/다큐 더빙실(낮)

감독이 사인 보내면, 녹음 부스 안 중년의 여자 성우가 더빙을 시작한다.
더빙실 TV 화면은 동물 다큐멘터리 영상이다. <동물의 언어>라 자막 뜨고

성우 동물들의 언어를 아시나요?
동물들도 인간처럼 자신들만의 의사소통을 합니다, 몸으로 말이죠.
특히 서열 경쟁 언어는 매우 치열한데요,

TV 화면.
한 나뭇가지 양 끝에 붉은 새와 파란 새 두 마리, 노려보며 마주 섰다.
다큐 더빙실 앞 복도를 막 지나치는 도완(30대 초, 남), 씩씩댄다.

도완 감독 상의도 없이 주인공을 바꿔? 이제 안 참아 나도!
관계자 (50대 초, 남)(복도 끝에서 나타나는) 어, 장 감독~
도완 (우뚱 선, 노려보며) 부장님,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시죠.

INSERT
더빙실 TV 화면.
두 마리 새, 서로 보며 기싸움하다 붉은 새, 날개 확 펼치고 선제공격!

관계자 이번에 들어가는 극장판 <신소녀>, 내가 장 감독 추천했어~ 잘해봐.
도완 (멈칫)
관계자 아, 지금 작업하는 애니 주인공 개그맨 최지훈이로 바뀐 거 들어어?
도완 ...네, 아주 웃기는 친구더라고요.
관계자 요새 개가 감이 좋아, 더빙도 감이지 뭐~ 유행어 한 번씩 넣어주고.
알아서 카바 쳐. 장 감독 그거 잘하잖아. 근데, 할 얘기란 게 뭐야?

INSERT
더빙실 TV 화면.
공격하는 붉은 새의 기세에 뒤로 밀리는 파란 새,
결국 날아가 도망하는

도완 할 말은요 뭐... (어색하게 웃는)

#2. 스튜디오/애니 더빙실(낮)

김 피디(30대 초, 남)와 스태프1(20대 후, 남)은
믹서(음향조절기) 조정하며 더빙 준비하고,
녹음 부스 안의 성우들은 대본 보거나 담소 중이다.
다해(20대 후, 여), 중견 성우들 대화에 끼지 못하고 어색하게 서 있다.

성준 (30세, 남)(다가오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누구...?
다해 (인사) 안녕하세요, 시은이 역의 은다해입니다.
성준 앗, 제 동생 역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전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다해 어? 혹시 명탐정 코난... 아니세요? (놀라서 보는)

더빙실 문 확— 열고 들어오는 도완,
썩한 얼굴로 믹서 앞에 앉는.

스태프1 어떻게 됐어요?
김 피디 (스태프1의 허벅지 꼬집는다. 입 달으라 손가락 입에 대는)
도완 스태프1이 됐어? (녹음 부스 보는데)
다해 (재잘재잘) 코난 실사를 눈앞에서 보다니.
저 시험 준비할 때 코난 엄청 연습했거든요.
더빙 샘플도 코난으로 내고
도완 (다해 보는데 짜증 치민다. 토크백에 대고) 스태프1이...
다해 (못 들었다) 근데 실기시험에 명탐정 코난 나와서 진짜 놀랐다니까요!

도완 (부글부글)
 성우(E) 서열 다름에 밀릴 경우 애먼 화풀이 상대를 찾기도 하는데요.

INSERT
 더빙실 TV 화면.
 쫓겨난 파란 새 다른 가지 찾아 앉는데, 저쪽 끝에 노란 새 있다.
 노란 새가 멀뚱 파란 새를 쳐다보면, 복수하듯 날개 확 펼치는 파란 새.

JUMP
 더빙 중이다.
 (더빙 작품은 <파파독[†]> 정도)

다해 (제 차례다, 대사) 오빠 어디 가는 건데? 기다려 나도 같이 갈래~!
 도완 (미간 꺾) 다시!
 다해 (대사) 오빠 어디 가는데? 기다려 나도 같이 갈래~!
 도완 다시!
 다해 (긴장하는, 대사) 오빠 어디 가는데 기다려 나도 같이...
 도완 (O.L.) 그만, 그만~! (일어서며) 야, 저 성우 누가 섭외했어?
 다해 (당황)
 도완 당신 빠지고 (성우1 보며) 별이가 시은이도 같이합니다. 바로 되죠?
 다해 (!) 그럼 저는 뭘...
 도완 (대본 훑는다) 개소리1 해요.
 다해 네...?
 도완 싫어요? 그럼 빠지시든가.
 다해 (입 다무는)
 도완 (토크백에 대고) 머리부터 다시 갑니다, 큐!
 성준 (대사) 그런 자리에 이 몸이 빠질 순 없지~ 내가 간다, 출발!
 성우1 (대사) 오빠 어디 가는데? 기다려. 나도 같이 갈래~!

†) 조선시대 세책을 빌려본 이들이 귀퉁이 여백에 감상 글귀를 적어두는 문화가 존재했다.

도완 (뭐 하나는 눈으로 다해 보면)
 다해 (대사) 멍멍멍.
 성준 해피 너도 같이 가자고? 그럼 우리 가족 모두 총출동이다!
 다해 (짓는) 망망망망망!!
 도완 컷! 야~ 개소리 잘하시네. 개소리1·2·3 몽땅 다 되죠? (빙글)

도완 노력보는 다해에서 옆방으로 시선 옮겨지면, 다큐 더빙실(#1)이다.
 다큐 TV 화면, 파란 새와 노란 새가 부리를 쪼며 서로 엉겨 붙어 싸우고 있다.

성우 치열한 동물들의 몸의 언어,
 하지만 어느 생명체보다 스펙터클한 건 바로 인간의 언어가 아닐까요?
 (빙긋 웃는 성우 얼굴 위로)

타이틀 <목소리를 구분하는 방법> 뜬다.

#3. 편의점 안(낮)

다해와 혜영(20대 후, 여) 음료수 고른다.
 카운터 앞 훈남 뒤로 줄 서는

다해 (우울한 표정)
 혜영 뭐 그딴 놈이 다 있냐~ 그래서, 그냥 하려고?
 다해 싫으면 빠지라는데 어떡해.
 혜영 괜찮냐? 오랜만에 하는 애니 더빙이라고 신나 하더니...
 직원 (훈남의 음료수 바코드 찍으며) 원플러스원 상품입니다.
 훈남 (하나 더 꺼내더니 뒤의 다해에게 주는) 드실래요? 전 하나면 돼서.
 다해 ! (영겁결에 받는다)
 훈남 (웃어 보이며 편의점 나간다)
 다해 (멍) 이거 시그널 맞지?
 혜영 뭐가?

다해 이 시간에 가끔 오는 분이셔.
(불히며) 모르는 척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직진으로 나오시니...
피할 수가 없네.

혜영 (혈) 친구, 그댄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오후 3시만 되면 컵라면 사러
오는 일명 컵라면 남을 운명이라지 않았나? 드라마 주인공들 같다고.

다해 장르가 나랑 안 맞아.

혜영 그럼 그럼~ 자고로 금사빠는 로코지. (쫄쫄, 혀 차는)

#4. 볼링장 안(낮)

볼링장 점령한 단체 티 입은 중년들.
단체 티 등판에 '송림2동 클럽'이라 쓰여 있다.
도완 부(60대, 남) 앞을 지나쳐 김 선생(60대, 남)
옆에 앉는 다해 모(60대, 여).

다해 모 저 김 선생님과 한 팀 해도 되죠?
김 선생 (빙긋) 아유~ 제가 영광이죠.
도완 부 ... (서운하게 다해 모 보는)

#5. 교차. 녹음실+포장마차+거리(밤)

— 녹음실 안
게임 캐릭터 더빙 중이다.

다해 안녕~ 난 엘리스. 이 마법의 검을 휘두르며 전투를 하지!
하지만 잊지 마, 내 힘을 더욱 강력하게 하는 건 바로...

— 포장마차 안

도완 부 (혼자 소주 마시다 외치는) 사장님, 여기 꿈장어 하나!

— 녹음실 안
라디오 광고 BGM 녹음 중이다.

다해 감성이 말랑해지는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

— 거리

도완 부 (지르듯 부르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6. 도완 집 앞(밤)

한 빌라촌 앞. 좀 취한 도완 부가 빌라로 들어가려는데
빨간 경차 한 대가 지상 주차장에 막 들어선다. 주차하고 내리는 다해 모.
멀뚱 서 있는 도완 부를 보던 다해 모,
어색하게 눈인사하고 옆 동으로 들어가려는데

도완 부 (보며) 저한테 마음도 없으시면서, 그때 볼링화는 왜 골라주셨습니까?
다해 모 네? (황당해) 아니 장 선생님이 뭐가 나온지 먼저 여쭙보셨잖아요?
도완 부 그건 그렇지만... (울컥) 진짜 너무하십니다. 저는 아주 아깝니까?
다해 모 네, 장 선생님이 오해하신 거 같네요. 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가는)
도완 부 권 여사님, 권 여사님! (돌아서는데, 스텝 꼬이는)!

주차된 다해 모 경차 쪽으로 넘어지는 도완 부,
차 사이드미러 부서진다.
(E) 뻘뻘—! 조용한 동네에 경보음 울리기 시작한다.

#7. 지구대 안(밤)

추리닝 차림의 다해, 하품하며 조서 작성 중인 순경 앞에 앉았다.
헐레벌떡 지구대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도완.

도완 장용수 씨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순경 (눈짓으로 소파 가리키는)
도완 부 (대자로 누워 코 골며 숙면 중)
도완 ... (창피하다. 순경 앞에 앉는)
순경 옆에 차주분 따님이신데 바로 합의해주신대요.
좋은 이웃 만남 줄 아세요~
이것도 재물 손괴라 합의 안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도완 (다해 보며) 죄송합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아버지를...
다해 (도완 알아본) 어?!
도완 ...저 아세요?
다해 와 너무하시네, 만난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짜려보며) 아~주 깊은 인상도 남기셨구.
도완 (다해 보며) 기억될 만한 인상은 아니신데...
다해 ! (기분 상한, 일어나며) 저 오늘 합의 안 할래요.
도완순경 (동시에) 네?
다해 제가 기억나시면 그때 보죠~ 그럼 이만. (쌍하니 나간다)
순경 좋은 이웃 아니신가 보다...
도완 그러게요. (이상한 여자야) 어디서 또 만날 줄 알고 그때 보재?

#8. 스튜디오/더빙실(낮)

도완, 난감한 표정으로 녹음 부스 안을 보면
동네 개싸움 신이다. 도완을 보며 왈왈 짚어대는 더빙 중 다해.

다해 킁킁~ 왈왈~!!
(도완을 물어뜯을 기세로 짚어대는)
도완 ... (다해 시선 피한다)

#9. 스튜디오 앞(낮)

일 끝나고 함께 나오는 도완과 스태프들, 성우들.
우리들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하는데 세단 한 대,
미끄러지듯 우리들 앞에 선다.

성우2 (웃으며 차에 타는) 남친이랑 점심 약속 있어서요~

가는 차를 부러운 듯 보는 우리들.
“뭐 먹을까?” 하며 가려는데 경차(#6) 한 대, 우리들 앞에 선다.
운전석 창문 내리면, 다해다.

다해 장 감독님, 타세요!
도완 (둘러보다) 저요?
다해 어젯밤엔 제가 좀 감정적이었지요?
그래도 우리 일 매듭은 지어야지요.
(눈짓으로 테이프로 친친 감은 사이드미러 가리킨다)
우리들 (도완 보며)
도완 (난감) 어... 전 따로 갈게요.
다해 같은 방향인데 뭐 하러요~ 아버님이 같이 일보고 오라셨어요.
우리들 ? (도완 보며)
도완 아니 그게 아니고,
다해 많이 피곤하실 텐데 타세요. 어제 밤잠도 설치셨잖아요. (빙긋)
우리들 ! (도완 보며)
도완 (공, 짹짜게 다해 차에 오른다) 먼저 갑니다!
우리들 (떠나는 다해 차 빙췌서 보는)

#10. 도로/다해 차(낮)

시간 경과.

도로 달리는 다해 차, 조수석 쪽 새 사이드미러가 반짝인다.

조수석의 도완, 속 쓰린 표정으로 카드 영수증 슬쩍 본다.

도완 어젠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어머님께도 송구하다고 대신 전해주세요.
(보며) 근데요, 어머님은 저희 아버지 아주 마음에 없으신 겁니까?
다해 네. 감독님 아버님이 엄마 취향이 아니시래요.
도완 아 네.
다해 그거 말곤 미안한 거 없으세요?
도완 또 뭐 (하다) 아, 개소리~ 그건 진짜 개소리 잘하게 생기셔서,
다해 네? (어이없어 보며)
도완 그럼 부모님들 일도 마무리되고, 개소리 씨랑 더빙도 오늘로 끝났고.
동네 이웃인 거 알았으니 오다가다 마주치면 서로 아는 척이나 하죠.
다해 개소리 씨...요? (버럭) 저 은다해라는 멀쩡한 이름 있거든요?!
도완 아, 죄송요. 제가 성우를 배역 이름으로 기억하는 습관이 있어서~

기분 상한 다해, 과속방지턱 나타나자 조수석 쪽으로 빠르게 지나간다.

조수석 덜컹! 하며 차 천장에 정수리 박는 도완, 악—! 지르는.

#11. 스튜디오/더빙실(낮)

자리 정리하고 일어나는 도완, 가방 챙긴다.

도완 어서 나가자 늦겠다. 핸드캠 챙기고,
스태프1 네 (핸드캠 챙기며) 이번에 들어가는 거, 여주인공은 지원 씨겠죠?
김 피디 (도완 슬쩍 보며) 우리보다 먼저 연락받지 않았을까 싶다~
도완 (말없이 짐 정리만)
스태프1 원작하고 씽크로 완벽하고 딱 주인공 목소리잖아요, 태생부터 센터.

다해(E) 이 구역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12. 지역방송 녹음실(낮)

녹음 부스 안에서 저세상 텐션으로 광고 녹음 중인 다해.

다해 안주빨 올릴 메뉴 나야 나~!
일품 안주 일품닭갈비, 핸드폰에 저장!
광고피디 컷! 좋습니다.
다해 (허겁지겁 가방 들고 부스 나온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광고피디 어디 가 다해 씨? 닭갈비 사장님이 점심 먹으러 오라셨는데
다해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후다닥 가는)

#13. 소극장(낮)

무대 앞. '애니메이션 <신소녀> 한국어 극장판 오디션'이라 플래카드 붙어 있다.

심사위원석, 도완과 관계자들 앉아 지망생들이 연기 중인 무대를 본다.

연기하던 지망생 내려가고, 뒤이어 무대에 오르는 다해.

다해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주리 역 지원자 21번 은다해입니다.
도완 (다해 알아본. 시답지 않게 보는데)

— 대본 들고 차분히 연기하는 다해.

— 원작 애니 OST 부르는 다해.

도완 (저런 목소리였나. 새삼스레 본다)
김 피디 (옆에서) 음색이 주리랑 딱인데~ 연기도 좋고. 어때?
도완 뭐, 나쁘진 않네. (하지만 다해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14. 몽타주. 스튜디오(낮)

— 회의실

제작진들과 더빙 성우들, 서로 인사하고 있다. 다해도 인사 나누는.

자신의 자리 앞에 ‘주리 역—은다해 성우님’이라고 쓰인

대본집을 벽차게 보는 다해.

— 더빙실

여주 지원과 남주 성준의 합 더빙. 자체 발광하는 돌을 보는 다해.

— 더빙실

성준과 다해의 합 더빙. ‘홀드’ 외치는 도완.

#15. 스튜디오/복도(낮)

복도 지나는 도완,

앞에서 다해가 코너에 몸 숨기고 서서 반대편 복도를 보고 있다.

그런 다해를 보며 뭐하나 싶은 도완인데

성준이 반대편 복도에서 걸어오자 막 지나가듯 나오는 다해, 성준과 마주친다.

성준 아, 오늘 수고 많았어요.

다해 선배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 그나저나 우리 또 만났네요~ 작품 연이어서 만나는 거 쉽지 않은데,

다해 네, 저도 놀랐어요.

성준 우리가 인연이 있나 봐요.

다해 ...인연, 이요?

성준 이름이 뭐였더라 (하다) 은다해! 은다해 씨 맞죠?

다해 네...! (어맛 내 이름을)

성준 앞에서 얼굴 붉히는 다해를 호기심 있게 보는 도완.

#16. 편의점 안(저녁)

하나 남은 과자상자(은하철도 999) 라이선스를

동시에 잡는 도완과 다해. 놀란

도완 (보며) 내가 먼저 집었어요, 내 손이 더 안쪽에 있는 거 보이죠?

다해 (보며) 손가락 하나 달랑 걸치고 소유권 주장이시네요.

도완 성준이랑 잘되고 싶으면 나랑 친하게 지내야 될 텐데~

다해 (흠칫, 본다)

#17. 편의점 앞(저녁)

벤치 파라솔에 마주 앉은 도완과 다해.

과자상자는 도완 손에 있다.

도완 (빙글) 성준이 멋있죠~ 잘생기고 쨌틀하고,

다해 소문내지 마세요...

도완 내 입단속보다 본인 마음 단속부터 해야 할 거 같은데요.
티 나오.

다해 그게 아니라... 성준 선배님이 시그널을 먼저 주셨어요.
(다가가 소근) 우리가 인연이라고 했더니까요?

도완 (멀뚱 보는)

다해 아니, 내 이름도 기억하시는데요?

도완 과한 의미 부여예요. 흔히 착각이라고 하죠? (한숨, 붙어 앉으며)
진짜 인연으로 만들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접근해봐요,
오늘처럼 티 나게 말구요.

우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마주치거나,

취미를 알아내서 동선을 맞추거나.

그렇게 열 번 짝어 넘기는 거예요.

다해 저 짝는 건 잘해요!

도완 우리 성준이 눈 높은 거 같던데. 뭐, 필요하면 내가 다리 좀 놔주고~
 다해 진짜요? (하다, 눈 가늘게 뜨며) 근데 왜요?
 도완 이웃사촌이잖아요. (과자상자 흔들며) 뇌물도 받았고.
 (과자 뜯는데, 원치 않는 피규어 나온다. 실망하는)

#18. 극장/상영관(낮)

도완, 성준, 김 피디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있다.

(〈포켓몬〉 극장판)

우는 아이, 돌아다니는 아이 등 어수선한 중에도 진지하게 관람 중인 세 남자.

JUMP 동 건물. 게임센터

인형 뽑기 기계 앞에서 인형 뽑기 중인 도완, 성준, 김 피디.

셋 뒤에 서서 차례 기다리는 교복 학생들, 짜증난 표정이다.

김 피디 이번 시리즈 때깔 아주 좋아졌어~

도완 그러게. 근데 피카츄가 좀 걸걸하던데, 그 형 담배 피우나?

성준 피카츄 형 담배 안 피워요, 이브이 누나가 골초지.

도완 하긴, 피카츄 형이나 이브이 누나나 이제 나이들은 못 속여 그치?

학생들 (셋을 어이없이 보다 짜증 내며 간다)

김 피디 (뽑기하면서, 한숨) 이런 주말에 애인 없는 남자 셋이 나란히 앉아서
 영화 보고 나란히 서서 인형 뽑는 그림 참 아름답다~

도완 이 그림이 뭐 어때서 (하다) 아, 성준아 너 소개팅 안 할래?

성준 괜찮은 여자 있어요?

도완 뭐, 계속 보면 괜찮아.

김 피디 (헛웃음) 야, 남 소개팅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좀 어떻게 해봐.

도완 여자라면 무조건 들이대고 보는 너보단 나아. (시계 보며)

난 먼저 들어가야겠다, 녹음 하나 남은 거 있어서. (옷 챙기고 가는)

성준 도완이 형은 왜 연애 안 해요?저번에 헤어지고 꽤 되지 않았나.

김 피디 글썸~ 첫사랑을 못 잊어서?

#19. 주차장(낮)

도완 차에 오른다. 뒷좌석 한편, 너저분하게 쌓인 〈999〉 피규어들 보인다.

메텔만 없는 피규어들 바라보다 차 시동 켜는 도완 얼굴 위로

INSERT

도완의 과거 회상. 도완 집

40대 도완 부, 회사에서 온 전화 받으며 급히 옷을 챙겨 입는다.

혼자 라면을 먹던 초등학교 도완, 나갈 준비하는 도완 부를 본다.

도완 부 아빠 금방 올게, 만화 보고 있어. (TV 켜준다. 〈은하철도 999〉 한다)
 어! 엄마 닮은 여자 나오는 만화 하네~ 도완이 너 이 만화 좋아하지?

(도완 머리 한번 쓰다듬고는, 서류가방 챙겨 들고 급히 나간다)

도완 (TV 속 메텔을 물끄러미 보는)

#20. 스튜디오/더빙실(낮)

만화 속 메텔과 오버랩 되는 지원.

긴 머리에 깊은 눈매의 지원이다.

도완과 지원뿐인 더빙실.

부스 안에서 더빙 중인 지원을 바라보는 도완에서.

#21. 편의점 앞(저녁)

나오는 도완과 들어가려던 다해,

마주친다. 눈인사 슬쩍하고 가려는데

도완 성준이한테 슬쩍 흘려봤는데 소개팅...

다해 !(뒤돌아보는)

JUMP

파라솔 아래 마주 앉은 도완과 다해. 도완 손에 <999> 과자상자 들려 있다.

도완 아 이런 거 안 사줘도 된단니까~ 뽕뜯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네.

다해 그래서, 뭐래요?

도완 뭐, 반응은 괜찮아요.

다해 (다가가 앉으며)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요.

도완 이런 조바심 성준이 앞에선 보이지 마요. 티 난단니까.

다해 (빠죽) 티 좀 나면 안 되나.

도완 (한숨) 직장처럼 연인관계에도 서열이 있어요. 한쪽이 더 좋아하게 되면 사귀는 사이에서도 갑을관계가 생기는 거라구요. 을 되고 싶어요?

다해 아 머리 아파, 연애하는데 갑을관계는 또 뭐예요~

도완 뭘 너무 모른단니까. (과자 뜯는데, 또 원치 않는 피규어 나왔다)

다해 메텔은 잘 안 나와요. 주인공이잖아요.

도완 ... (음료수 마시는)

#22. 몽타주(낮)

— 스튜디오/더빙실

다해 (들뜬) 나 지금까지 이렇게 멋진 여행계획표는 처음 만들어봐!

약속 어기지 않기가야~ 너도 꼭 같이 가는 거고, 알았지?

도완 (만족스럽다, 토크백에 대고) 컷!

— 편의점

도완과 다해, 각각 들어온다.

사는 품목들(과자, 맥주, 라면)이 대부분 겹치지만

마주치지 않는다. 각자 살 거 사고 나가는.

— 동네 만화방

같은 만화책을 동시에 잡은 도완과 다해,

서로 뺏으려 놓지 않고 으르렁댄다.

— 스튜디오/복도

도완, 다해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뭐라 말한다.

— 스튜디오/휴게실

휴게실 들어서는 다해, 먼저 있는 성준과 마주친다.

다해 여기서 또 보네요.

성준 커피 마시려구요.

다해 저도 지금 딱 커피가 마시고 싶거든요.

다해 결눈으로 휴게실 문 쪽을 바라보면,

문밖에서 도완이 씩 웃고 간다.

#23. 식당 안(저녁)

<신소녀> 관계자들 회식 중이다. 도완과 지원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떨어진 테이블 일각에 다해 있다. 다해 앞에 앉은 성우 둘, 수다 종인데

성우3 (눈짓으로 도완과 지원 가리키며) 둘이 헤어진 거 아니었어?

성우4 정지원이 찻다지 아마. 이젠 그냥 친구지 뭐.

다해 (멈칫)

성우3 저게 어딜 봐서 친구 눈빛이냐? 장 감독 아직 정리 못 했어~

지원이 재 알면서도 저러는 거잖아, 즐기는 건지.

다해 ... (도완과 지원 본다)

#24. 식당 밖(저녁)

식당 나오는 지원.
도완, 뒤따라 나온다.

도완 여기서 기다려, 차 가져올게.
지원 (웃는) 나 데려다주려고 술 안 마셨구나~?
도완 뭐래. 재미없어서 일어나려던 참이었어.
지원 나 캐스팅 연락받고 기분 좋더라, 이 작품 탐났거든.
오빠랑 다시 작업해보고 싶기도 하고,
오빠 마음 다시 알고 싶어지기도 하고.
도완 ...저, 지원아 우리... (하는데)

그때, 승용차 한 대가 도완 앞에 선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지원에게 다가가 손을 잡는다.

도완 (당황한)
지원 남친 춤다고 좀 이따 나오라니까 (도완 보며) 누구?
지원 이번 작품 같이하는... (보며) 장도완 감독님.
지원 남친 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원이 잘 챙겨주신다고.
(약수 내미는) 우리 지원이 잘 부탁드립니다.
도완 (당혹감 누르고 약수하는)

#25. 편의점 밖(밤)

파라솔 아래 앉아 과자상자 들고 있는 도완,
마신 맥주캔들 널브러져 있다. 이미 뜯긴 몇 개의 과자들.
또 원치 않는 캐릭터 피규어 나오자 실망하는 도완.

다해 (편의점에서 나온다)

도완 어, 개소리 씨다!
다해 (빈 캔맥주들 본다) ...
도완 (피규어 보고) 이 과자 개소리 씨가 다 사재기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오지,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와.
다해 주인공은 잘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도완 알아요, 그 정돈 나도 안다고! (한숨) 아, 성준이랑은 잘돼가요?
전략 필요하면 말해요, 내가.
다해 (O.L.) 제 연애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감독님이나... (하다, 만다)

힘겹게 일어나 가는 도완. 도완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다해에서.

#26. 약수터(아침)

약수 뜨거나 운동하는 사람들 보이는 약수터 풍경. 다해와 다해 모,
(등 맞대고 양팔 끼고서 서로 번갈아 들어 올리는) 운동 중이다.

다해 모 (다해 들어 올리며) 딸~ 요새 얼굴 보기 힘들어.
다해 (다해 모 들어 올리며) 엄마야말로~ 애인이라도 생겼어?
다해 모 애는~ (하다)
차 고치러 갔을 때 장 선생님 아들이 무슨 얘기 안 해?
다해 안 해.
(다해 모 올리며, 중얼) 남 연애 상담은... 지나 잘하지. 바보!
다해 모 (다해 들어 올리는) 바보? 누가?
도완(E) 뭐라고요...?

#27. 스튜디오/사무실(낮)

상기된 얼굴로 전화를 받는 도완, 화났다.

도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디션으로 캐스팅된 성우예요,
벌써 녹음도 시작했다고요! (하지만 이내 굳는)

#28. 스튜디오/회의실(낮)

탁자를 마주하고 앉은 도완과 다해. 당황한 얼굴로 도완 보는 다해.

다해 그게 무슨...

도완 어... 원작이랑 분위기를 좀 다르게 가보려구요. 그러다 보니
주리보다는 미아가 더 잘 맞아서요. 미아가 단역이어도 임팩트가
있잖아요.

다해 그럼 주리 역은 누가 하나요?

도완 ...더 잘 맞는 누군가 하겠지요.

다해 더 잘 맞는 누구요? (누르며) 저는 주리 배역으로 오디션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그럼 처음부터 저를 그 배역으로 뽑지 마셨어야죠!
도완 (말 돌리는) 극장판 하나 더 들어가는데 거기 잘 어울리는 배역 하나
있어요. 우리 이 정도 선에서 맞추면 서로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다해 (할 말 잃고 보는)

도완 (미안해 눈길 돌린다)

#29. 스튜디오/복도(낮)

참담한 얼굴의 다해, 참을 수 없는 분기에 돌아서서 사무실 향하는데
복도 코너, 선배와 언쟁 중인 도완의 목소리 들린다. 코너에 서서 보는 다해.

선배 미안해~ 진짜 나도 오늘 알았다니까?

도완 형이 직접 들어봐, 그 역에 다른 누가 어울리는지!

다해 (도완 본다)

선배 야, 나도 골치 아파!

막말로 홍보도 그렇고 위에서 바꾸라면 별수 있어?
조연 배역 하나 잘하고 못하는 거, 누가 알아준다고.

도완 (더 말하고 싶지 않다, 가려는데)

선배 아, 그 친구 걸로 주리 가이드 더빙 좀 뜨자!

도완 (못 참겠다, 지르는) 아 씨발...!!

도완, 화나서 돌아서고 선배는 “너 지금 나한테 욕한 거냐?” 하며 따라간다.
슬프게 보다 뒤돌아 가는 다해.

#30. 버스정류장(낮)

정류장 벤치에 무기력하게 앉은 다해.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한다.

사람들 비를 피해 뛰거나 우산을 펴는데, 빗줄기 보며 눈시를 붉어지는 다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우는데 버스 정차 소리에,

빗소리에 다해의 울음소리 묻힌다.

#31. 도완 방(저녁)

침대에 앉아 TV 코미디 방송 보는 도완, 표정 없이 멍한데

막 들어온 핸드폰 문자 보고는 벌러덩 침대에 드러눕는다.

핸드폰 화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은다해’

#32. 마트(낮)

다해 모, 장 보고 있다. 사과, 동태전, 생울, 약과 등이 장바구니에 담겼다.

저쪽에서 다해 모를 보던 도완 부, 다가가다 멈춰 선다. 보면

다해 모에게 다가서는 김 선생, 뭔가 건넨다. 보면 정종(청주)이다.

김 선생 이게 좋습니다. 향도 좋고요.
 다해 모 ...어떻게 아셨어요?
 김 선생 장바구니 보면 알지요, 저도 매년 하는 일이니깐요.
 전 제사상에 커피도 올립니다.
 제 집사람이 생전에 커피를 참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일찍 보낼 줄 알았더라면 카페도 같이 가주고 할걸, 하구요.
 다해 모 (김 선생 본다)
 김 선생 고사리는 사셨어요? 오늘 좋아 보이던데.
 다해 모 (미소) 김 선생님이 골라주세요.
 김 선생 (다해 모 바구니 제가 든다) 가지지요.
 도완 부 (다정히 가는 둘을 아프게 보는)

#33. 동네 만화방(저녁)

둘러보던 도완. 어느 구간에선가 멈추면, 다해와 동시에 잡았던 만화책 앞이다.

#34. 도완 집/거실(저녁)

볼링용품들을 꺼내 재활용 박스에 버리고 있는 도완 부.
 파란색 볼링화를 보더니 상심하는 도완 부, 정리 멈추고 앉는다.

도완 (들어오는) 뭐 하세요?
 도완 부 (도완 손에 만화책 꾸러미 보며) 넌 그냥 만화랑 결혼해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녀석은 지 아빠가 어떻게 사는 줄도 모르고.
 도완 왜 또 그러세요?
 만화책 내려놓고 도완 부 옆에 앉는 도완. 둘, 동시에 낮은 한숨.
 도완 부 (볼링화 보며)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그렇게 처지는 것도 아닌데...

도완 (만화책 보며) 이 정도면 서로 나쁘지 않을 거 같다니... 후진 놈.
 도완 부 이미 딴 데 간 마음을 무슨 수로 잡아, 내 꼴만 우습지.
 도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너 진짜 최악이다.

다시 한숨 뱉는 도완과 도완 부에서.

#35. 다해 집/거실(저녁)

끝난 제사상 함께 치우는 다해와 다해 모.

다해 모 (상 접으며) 기분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다해 무슨 일은... (하다) 아, 나 더빙한 거 오늘 방송했잖아!
 다해 모 정말?

다해, 핸드폰으로 검색한다. 핸드폰 화면, 애니메이션(#2) 시작한다.

다해 모 넌 언제 나와?
 다해 숫, 지금이야!

핸드폰 화면. 주인공 보며 신나서 짓어대는 개.

다해 어때?
 다해 모 뭐가?
 다해 잘 들어보라니까~ 어, 또 나온다.
 다해 모 ... (개 가리키며) 애야?
 다해 응! 주인 보고 신난 거야, 느껴지지?
 다해 모 그러게... 진짜 개 같네
 다해 그러엄~ 난 프로라고!

핸드폰 화면. (F) 개싸움 신: 킁킁킁—! 멍멍멍—! 왕왕왕—! 짖는 개떼들.

다해 (동네 개들 가리키며) 재네들 다 나아~!
다해 모

#36. 다해 집/다해 모 방(밤)

다해 모, 영정사진 앞에 핸드폰 놓고 애니메이션 트는.

다해 모 이 목소리가 다해래. 당신은 알겠어?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다해 부 (영정사진 속 웃고 있는 다해 부)
다해 모 (미소) 당신은 알 줄 알았어, 당신이 다해 목소리 참 좋아했잖아.
우리 딸 다해 방송 타는 애야~ 내가 혼자서도 잘 키웠지?
(영정사진 손으로 쓴다. 그림계 보며) 여보, 그동안 나 엄마 노릇
잘했으니까 이제 연애 좀 할게. 너무 질투 마요...

시선 이동해 다해 모 방 앞. 다과 접시 들고 우두커니 서 있는 다해.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다.

#37. 다해 집 앞(아침)

현관문 나서서 다해.
발아래 뭔가 걸려 보면 (#33) 만화책들이 놓여 있고
메모 붙어 있다. '미아 자리 비워두었으니 마음 바뀌면 돌아와요'

#38. 스튜디오/더빙실(오전)

녹음 부스에 성우들 단체녹음 중이다. 성우들 중 다해 있다.
그리고, 다해 옆으로 새로운 주리인 걸그룹 가수 유나(20세, 여)가 있다.
아무렇지 않게 더빙하는 다해를 보며 신경 쓰이는 도완인데

유나 (대사하다) 감독님~ 다음 대사 잉크가 번져서 안 보이는데요.
도완 (보려는데)
다해 ...한번 마음에 둔 장소는 잊을 수가 없거든, 이에요
유나 (대본 보며) 아, 그런 거 같아요. (다해 보며) 감사해요~

다해 웃어 보이지만 도완의 마음은 무거워진다.
성준이 위로하듯 말없이 다해 어깨를 토닥이자 기분 묘한 도완.

#39. 스튜디오/더빙실(낮)

시간 경과. 가수 유나의 단독 더빙 중이다. (#22 다해 대사)

유나 (대사) 나 지금까지 이렇게 멋진 여행계획표는 처음 만들어봐.
바꾸지 않기로~ 너도 꼭 같이 가는 거고, 알았지?
도완 홀드! (멈추고) 아니, 그게 아니고 기분 들뜬 것처럼 한 번에 가야지.
중간에 자꾸 호흡 끊으면 어떡해요. 원본 애니 안 보고 왔어요?
유나 죄송합니다...
도완 이거 들어봐요. (다해 더빙본 틀려다, 마는) 다시 해보죠.
매니저 (들어오며) 감독님... 지금 뮤비 단체 컷 찍는다고 유나 오라는데요.
도완 (누르며) 안 된다고 해요, 지금 더빙 중인 거 안 보여요?
매니저 (눈치 보며) 부장님이 그러라고 하시면 감독님이 아실 거라고...
도완 (할 말 잃은)
유나 (슬그머니 녹음 부스 나오는) 내일 일찍 나오겠습니다아...

가수들 나가고, 대본 확 집어 던지는 도완.
마른세수한다. 한숨 뱉더니 어딘가 전화하는

도완 선배, 오늘 뭐 해요?

#40. 지역방송 녹음실(저녁)

녹음실 들어서는 도완.

광고피디 (도완 어깨 치는) 니가 웬일이냐~ 술 마시자고 먼저 연락을 다 하고.
도완 언제 끝나요?
광고피디 다 끝났어. 오늘 광고 찍은 가게로 저녁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자~
다해 (녹음 부스에서 나오다, 도완 본) ...?!
도완 (다해 본) ...?!
광고피디 (스태프들 보며) 자, 다들 정리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다해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려는데)
광고피디 (잡으며) 무슨 소리야, 다해 씨가 녹음 잘해줬다고 사장님이 꼭 데리고 오라셨어. 전에도 오디션 본다고 그냥 갔잖아.
다해 그게...
광고피디 배역 맘대로 바꿨다는 데가 거기지? 싸가지없는 놈! 오늘 내가 코 빼돌어지게 마시고 다해 씨 상처 준 놈 같이 욕해줄게, 알았지?
도완 다해 (서로 민망해 고개 돌리는)

#41. 식당 안(저녁)

회식 자리. 광고피디는 저쪽에서 식당 사장과 술 마시느라 도완은 안중에도 없다. 멧쩍은 도완, 일어나려는데 저쪽 테이블에서 혼술하는 다해 본다.

도완 (다해 앞에 앉는)
다해 (불편하다, 시선 피하고 술병 드는데)
도완 (술병 잡는) 천천히 마세요.
다해 제 일터예요. 여기서까지 갑질 마세요.
도완 (술 따라주며) 따지든 욕하든 뭐든 해요. 나한테 화났잖아요.
다해 네 화났어요. 근데 화내면요, 따지면요. 뭐가 달라지나요?
(보다) 감독님, 제 배역 찾아주실 수 있으세요?

도완 (할 말 없는)
다해 저요, 지금 말은 역 그거마저도 못하게 될까 봐 말 잘 들으려구요, 감독님도 그러시잖아요.

치익—! 도완의 마음처럼 화로 위의 고기가 까맣게 타들어 간다.

#42. 거리(밤)

도완과 다해, 좀 떨어져 각각 택시 잡고 있다.
하지만 잡히지 않고 좀 비틀거리는 다해 본 도완,
걱정되어 다해 옆으로 온다.

도완 같은 방향인데 같이 갑시다.
다해 (떨어지는)
도완 오늘만 같이 가요. 혼자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다해 왜요, 우리 친한가요? (보며) 그럼 제 이름 말해봐요.
도완 (생각 안 난다) ...그게
다해 (비죽) 그럴 줄 알았어. 감독님에게 전 개소리 아니면 쥬리, 아니 이젠 미아겠죠. 근데 제 이름은 다해예요, 은다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하고 아빠가 지어주신 이름.
근데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엘사를 꿈꾸지만 현실은 개소리잖아요?
도완 (보는)
다해 빼앗긴 제 밥그릇이요,
감독님에겐 하찮은 일이지만 저에겐 그게 세상이예요. (가는데)
도완 누가 하찮대요, 저한테도 그게 세상이거든요?!
엘사를 꿈꾸는데 현실은 개소리라구?
그런 게 못 참겠으면 그만뒤요!
다해 (멈추는)
도완 하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마음이.

그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고. 알아요... 나도 그러니까.
 다해 (돌아서 도완 본다)
 도완 미안해요.
 다해 그날 다 들었어요. 감독님이 왜 미안해요...
 도완 그럼 누구한테 사과받아요. 나라도 해야지.
 다해 ...
 도완 스케치북에 열심히 그림을 그리죠.
 이 사람은 엄마, 이 사람은 아빠.
 근데 남이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로 하래요, 내 그림인데 말이죠.
 저도 누가 내 밥그릇 좀 안 건드리면 좋겠어요...
 그거 기분 더럽거든요.

다해, 길가에 털썩— 앉아 몸을 웅크린다.
 도로에 차가 뺑뺑 지나간다.
 그새 잠들어버린 것 같은 다해.
 제 재킷 벗어 다해 어깨에 덮어주고는 옆에 나란히 웅크려 앉는 도완.

도완 근데 제 선택은 그쪽이었어요. 제 스케치북에 제가 직접 그려 넣은 제 그림요. 배역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잠든 줄 알았던 다해,
 반짝 눈을 떠 옆에 앉은 도완의 옆모습을 본다.
 도로 일각에서 ‘빠앙—!’ 자동차 경적 울린다.
 FADE OUT

#43. 편의점 앞(저녁)

편의점 나서는 다해, 손에 과자상자 들려 있다. 바라보며 시선 위로.

FLASH BACK

도완 (다해 어깨에 제 재킷 덮어주고는 옆에 나란히 앉는)
 근데 제 선택은 그쪽이었어요.
 배역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가슴 콩닥이는, ‘에이~’ 애써 웃으며 과자상자 뜯는데
 ‘메텔’ 피규어가 나왔다. 멍하니 보고 섰는 다해인데,
 편의점으로 막 들어서는 도완과 마주치는.

JUMP
 벤치 파라솔에 앉은 도완과 다해. 도완, ‘메텔’ 피규어 들고 있다.

도완 이봐 이봐~ 사재기했던 거 맞죠?
 다해 (홀기며) 저도 처음 나온 거거든요? 싫음 주세요.
 도완 찼다 뺏는 게 어딴어요~ (챙긴다) 암튼 고마워요.
 다해 저 감독님... 어제요.
 도완 어제 뭐 (하다) 아, 어제 이름 말해준 거 같은데 또 잊어버렸네요.
 미안해요, 이름을 잘 기억 못 해서...
 다해 (피식) 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거 익숙해요. 동네에선 엄마 딸,
 일터에선 여학생2, 친구3, 기타1... 딱히 특별한 데가 없잖아요 제가.
 도완 목소리가 특별하잖아요. 어제 말 안 했나? 제 선택은 그쪽이었다고.
 다해 ...! (기억하고 있구나. 얼굴 달아오른다)
 도완 (문자 온다. 보는) 어, 성준이다! 만나자는데요. (보며) 같이 갈래요?
 다해 아니요.
 도완 (놀리듯) 에이~ 뭐가 아니에요, 성준이 이름에 벌써 얼굴 빨개졌구만.
 다해 아니라니까요~! (나대지 마 심장아)

#44. 약수터(아침)

운동복 차림의 다해와 다해 모, 함께 운동 중이다.

다해 모 (다해 들어 올리며) 딸~ 요즘도 많이 바빠? 얼굴 보기 힘들어.
 다해 (다해 모 들어 올리며) 엄마가 더 바쁘면서. 엄마 진짜 연애 중이야?
 다해 모 (다해 들어 올리며) 애는... 아니라니까.
 다해 (다해 모 들어 올리며) 그럼 엄마, 장씨 아저씨 부자랑 우리 모녀랑 넷이 커플 데이트 안 될까? 딱 한 번만!
 다해 모 뭐어? (다해 패대기치는) 너, 장 선생님 아들 좋아하지?
 다해 (!) 아냐~~
 다해 모 아니긴 뭘 아냐! (다해 등짝 스매싱) 이렇게 티가 팍팍 나는데!
 다해 아악~!! (피하며) 그래! 좋아한다, 왜! 뭐 안 돼? 엄마랑 상관없잖아!!
 다해 모 어휴, 이 맹추야! 여자가 좋다고 먼저 들이대고 하면 없어 보인다고 엄마가 몇 번을 말하니, 응?! (이어지는 스매싱)
 다해 악! (도망가며 지르는) 그럼 좋은데 어떡하라고~!!

#45. 몽타주

— 스튜디오/더빙실

미아 연기하는 다해를 미안해서 보는 도완, 도완 보며 설레는 다해.

— 스튜디오/사무실

출근한 도완 제 자리에 앉는데, 작은 꽃 화분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다.

“누가 냈지?” 두리번거리는 도완. 저쪽에서 도완을 보며 빙긋 웃는 다해.

— 집에 가는 길(저녁)

다해 집으로 가는데 저 앞으로 도완 보인다.

도완의 걸음에 맞추는 다해의 발걸음.

피곤한지 투덕투덕 걷는 도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만치 뒤따라 걷는 다해.

#46. 카페(낮)

혜영과 함께 있는 다해. 혜영이 커피 마시다 놀라 뽀는다.

혜영 (뜨악) 뭐? 개소리 시켰다는 그 개새끼... 감독?!

다해 (눈치 보며 끄덕)

혜영 야, 아무리 금사빠라도 너 이번은 좀 심하단 생각 안 드냐?

다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걸 어떡해...

혜영 자선사업가야? 뭘 그렇게 막 쥐, 다른 것도 아니고 마음을!

암튼 그 사람은 안 돼! 재수탱이에 좋아하는 여자도 있고

니 이름도 기억 못 한다며 (한숨)

은다해, 제발 너를 아끼는 남자를 만나라고 쫓~

다해 그래서... 그래서 더 마음이 간다고. 꼭 나 같아서.

혜영 (말문 막힌다. 안쓰럽게 다해 보는 데서)

#47. 스튜디오/복도(낮)

복도를 지나던 다해, 맞은편 복도에서 오고 있는 도완을 본다.

부끄러운 다해, 반대 방향으로 간다. <신소녀> 대본 떨어뜨리지만 모르는.

가웃하며 다해를 보던 도완, 다해의 대본을 주워드는데

펼쳐진 대본 제작진 페이지에 도완 이름에 ‘하트’ 그려져 있다.

뛰어가는 다해를 말없이 보는 도완.

#48. 도완 집/옥상(해 질 녘)

다해 빨래를 널고 있는데, 도완이 빨래통 들고 온다.

도완 (다해 옆에 서서 빨래 널며) 혹시 나 좋아합니까?

다해 ! (놀라서 보는) 어떻게 알았어요?

도완 티 나요.

다해 아... (창피하다)

도완 성준이 좋아한 거 아니었어요? 변덕이 되게 심하네요.

다해 알아주실 거 아니면 그냥 모른 채하세요.

도완 알아버렸는데 그게 되나요. 근데 나에 대해 뭘 안다고 좋아해요?

다해 잘 알아야 좋아하나요, 좋아하면서 알아가는 거지.

도완 (빨래 널며) 뭐 본인 감정은 좋을 대로 하시고, 선은 넘지 마세요.

다해 (짜려보며) 감독님도 지원 선배 좋아하는 거 티 팍팍 나거든요?

도완 (!) 그게 무슨... (다가가) 누가 그래요?

다해 감독님 빼고 다요

도완 (민망) 하, 아니거든요? 할 일들 되게 없나 보네.
근데 내가 누구 좋아하든 그쪽이 참견할 일은 아니잖아요?

다해 네네 그럼요~ 전 감독님 연애관 존중해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제 참견
마시고 각자 본인 연애나 신경 쓰자구요.

도완 (황당) 아니, 그쪽 짝사랑 당사자가 난데 이 참견도 못 합니까?

다해 네, 이건 제 연애니까요

도완 하! 미안한데 이번엔 그쪽 연애에 도움 못 드리겠네요~

다해 (알밋다, 빨랫줄의 도완 빨래 밀어내는) 선 넘지 말라고 하셨죠?
딱 여기까지가 감독님이랑 저랑 반이예요, 감독님도 선 넘지 마세요.

도완 (어이없이 다해 보다, 빨래 탁탁 털어 너는)

#49. 몽타주

— 스튜디오/더빙실

다해 더빙 중. 만족해 웃다가 다해와 눈 마주치자 아닌 척 표정 씩 거두는 도완.

— 스튜디오/사무실

도완 책상 꽃 화분에 물레 물 따라주는 다해.

저쪽에서 다해 본 도완, 미간 구기는.

— 도완 집 현관

무릎 나온 추리닝에 슬리퍼 차림 도완. 나가려다, 방으로 다시 들어가는

— 편의점

편의점 들어서는 말끔한 도완, 슬쩍 보는데 다해 없다.

아쉬운 듯 캔맥주 꺼내는.

#50. 카페 안(낮)

도완과 김 피디 이야기 중이다. 도완 커피 마시는데

FLASH BACK

다해 감독님도 지원 선배 좋아하는 거 티 팍팍 나거든요?!

현재.

도완 저기... 나 티나?

김 피디 뭐가?

도완 (보다) 아니다. (헛웃음)

김 피디 (눈 가늘게 뜨며) 이 새끼~ 요새 뭐 좋은 일 있어?

도완 좋은 일은...

싱겁게 웃는 도완에서 카페 밖으로 시선 이동하면,

카페 외벽 영상광고판 앞에서 가던 걸음 멈춘 다해.

광고판 보면,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 극장판 재개봉 광고다.

#51. 재활용 수거장(낮)

도완, 분리수거 중인데 어디선가 나타나는 다해,

도완 옆에서 쓰레기 버린다.

다해 (통화 중, 크게 말하는) 뭐? 영화 보러 못 온다고? 왜?
 여자들끼리 주말에 영화 보는 거 아니라고? 예매한 표는 어떡해~

친구(F) 미친 거야?

도완 (서둘러 돌아서는데)

다해 (더 크게) <은하철도 999> 아이맥스 극장판! 재개봉 첫날 첫 시간대!
 이젠 구하지도 못하는 이 황금 좌석 예매하느라 얼마나 공들였는데!

도완 (가다, 멈칫)

다해 (도완 들으란 듯) 혼자서 절대 안 가, 같이 못 가면 뭐 버려야지!

도완 (안 돼. 다시 가려다, 또 멈칫) 저기...

다해 (재빨리 전화 끊고, 도완 돌아보는)

#52. 몽타주. 극장 데이트(낮)

— 영화관 일각
 999 캐릭터 모형 앞에서 멋쩍게 포즈 지으며 서로 사진 찍어주는 둘.

— 상영관 앞
 팝콘에 오징어, 음료수 양손에 들고 목베개 두르고 입장하는 둘.

— 상영 중
 엔딩 크레딧에 제작진들 이름이 올라갈 때까지 남아서 보는 둘.

#53. 집으로 가는 길(저녁)

집으로 가는 언덕길 함께 오르는 도완과 다해.

도완 표가 남는다고 해서 간 거예요.

다해 네네~ (보며) 감독님은 왜 그렇게 메텔을 좋아하세요?

도완 예뻐서? (싱겁게 웃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일 나가실 때마다 TV 만화를 봤어요. 종일을 혼자요. 그때 추억이죠, 추억의 목소리고...
 (다해 보며) 그거 알아요? 목소리는 지문 같다는 거.

다해 ?

도완 지문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세상에 같은 목소리는 없대요, 재밌죠?
 그래서 성우가 배역 따라 어떻게 변주를 줘도 전 구분할 수 있어요,
 지문처럼 목소리를 마음에 새기는 거죠.

다해 (보는) 제 목소리는 어때요?

도완 좋은 목소리예요. 맑고 투명하고. 그래서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다해 지금 저 놀리시는 거죠?

도완 (쿵쿵 웃으며) 이거 봐, 금방 드러나잖아요~

티격태격하다 어느새 집 앞에 다 온.

도완 들어가요.

다해 (가려다, 돌아선다) 저기, 옥상에서 맥주 한 캔 하실래요?

도완 (그리고 싶다) 뭐... 그래도 되고.

다해 진짜지요? (기쁜데)

도완 (전화 온다, 받는다) 어 지원아 (통화하다, 곧 끊는다) 저기...

다해 (O.L.) (도완 소매 끝 잡는) 가지 마요.

도완 (보는)

다해 저랑 먼저 약속했잖아요. 오늘은 가지 말고 나랑 놀아요.

도완 ...미안합니다.

잡힌 소매 거두고 언덕길 내달리는 도완. 그런 도완을 슬프게 보는 다해.

#54. 어느 스튜디오/녹음실(저녁)

지원이 감독1과 언쟁 중이고 스태프들 주위에 보고 서 있다.

감독1 나도 맛출 만큼 맞춰줬어요. 그렇게 싫으면 하지 마요!
 지원 네, 빠질게요! 근데요, 감독님 연출 후지다는 건 아세요?
 감독1 (발끈) 뭐예요?!
 도완 (들어선다)
 감독1 장 감독이 여긴 웬일이야?
 도완 (어수선한 분위기에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 그제...
 지원 오빠 가자! (나가는)
 감독1 (빈정대듯) 아~ 성우님 데리러 오셨구만. 보디가드야 뭐야.
 도완 ...!
 감독1 뭐해? 가봐 어서~ 스타 성우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조롱하듯 보는 감독1과 수군거리며 도완 보는 스태프들.
 민망함에 도망치듯 나가는 도완.

#55. 지원 집 앞(저녁)

지원의 오피스텔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는 도완과 지원.

도완 나 거기로 왜 부른 거야.
 지원 그 감독이랑 전부터 진짜 안 맞았어, 오늘만 해도 그렇잖아~
 오빠 없었으면 나 거기서 바보 될 뻔했다니까.
 도완 (맥이 빠진다) 너한테 그게 중요하구나...
 지원 그런 말이 아니라, (하다) 미안해. 생각나는 사람이 오빠뿐이어서.
 도완 (일어난다) 늦었다, 들어가.
 지원 저녁 아직 못 먹었지? (도완 손잡으며)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갈래?

도완, 지원을 혼란스럽게 본다.
 지친 듯 한숨 쉬는.

도완 지원아, 우리 다시 만날래?

지원 (손 놓는)
 도완 아니잖아 너도. 근데 너 뭘데, 지금 이러는 거 뭘데?!
 돌아봐주겠지, 내치진 않으니까. 니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근데
 더 비참한 게 뭘 줄 알아? 이런 나에게 점점 익숙해진다는 거야!
 지원 ...
 도완 너한테 나, 대체 뭐냐?
 지원 (불편하다, 일어나는) 알잖아, 난 오빠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아.
 이런 게 싫으면 오빠가 안 오면 되는 거야. (가는)
 도완 (가는 지원을 슬프게 바라본다)

#56. 집으로 가는 길(밤)

도완, 집으로 가고 있다. 그때 편의점에서 나오는 다해,
 뒤의 도완을 보지 못하고 언덕 올라간다.
 차마 다해를 부르지 못하고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는 도완.
 빌라 앞에 다다른 다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멈춰 서서 물끄러미 위를 바라본다.
 다해의 시선 따라가면, 불 꺼진 도완의 집 창문.

도완 ... (전화하는)
 다해 (망설이다 받는다) 여보세요.
 도완 아까 옥상 맥주요, 아직 유효한 겁니까?
 다해 (뒤돌아보면, 도완이 있다)

#57. 도완 집/옥상(밤)

도심 주택가 야경, 빨랫줄에는 걸지 않은 빨래들이 살랑 흔들린다.
 캔맥주 앞에 놓고 평상 위에 마주 앉은 도완과 다해.
 다해, 태블릿을 세워 영상을 튼다. 고전 무성영화가 한 편 시작되는.

다해 전 일 때문에 숨어버리고 싶을 때 무성영화를 봐요. 보고 있으면 어느샌가 목구멍 끝이 간질간질해지거든요. 아, 저 사람들 목소리 내고 싶다, 하고요. 그럼 왜 힘들어했는지 잊고 다시 기운 내 일을 해요. (도완 보며) 오늘은 저보다 감독님에게 필요한 거 같아서요.

무성영화 보는 도완.

자막뿐인 영화지만 배우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도완 목소리를 입히는 게 내 일인데, 오늘은 이렇게 조용한 것도 좋네요. (쓰게 웃는) 사실 마음이 좀 시끄러웠거든요.

다해 (뺨) 내가 말했잖아요, 가지 말고 나랑 놀자고~

도완 그러게요. 정말 그럴 걸 그랬어요...

다해 (보며) 감독님, 짝사랑하는 거 안 힘드세요?

힘들면 저한테 오세요. 저도 짝사랑 때문에 힘들거든요.

다해의 이상한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되는 도완, 다해 본다.

자신을 바라보는 다해의 눈이 맑게 빛난다.

도완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는) 달이...원래 저렇게 큰가요?

아님 여기가 하늘에 가까워서 그런가.

다해 저랑 같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도완 설마... (하지만, 정말 그런 거 같다)

다해 웃는다. 다해의 미소에 도완의 마음이 달뜨다.

시간 경과. 평상 정리하는 둘.

다해 (일어나며) 그럼 전 내일...

도완 (O.L.) (다해 손잡는, 들떠 있다) 저기, 우리 달구경도 할 겸 동네 밤 산책 안 할래요? 이 근처에 심야 시간까지 하는 국수 맛집이 있거든요!

다해 (보는)

도완 아니면, 사거리에 새로 생긴 24시간 마트 한 바퀴 돌고 올래요?

한밤중에 카트 끌고 장 보는 거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다해 (보는)

도완 어... 좀 늦었지요?

다해 (끄덕) 내일 오전에 더빙 있잖아요, 감독님도.

도완 아 그렇구나, 그렇네요... 그럼 잘 들어가요.

다해 ...저기... (제 손 내려다보는)

도완, 저도 모르게 다해 손을 잡고 있었다. 당황한 도완.

다해가 먼저 도완의 손을 놓으려는데, 다해 손을 놓지 않는 도완.

서로를 보던 둘 사이에 묘한 공기 흐르고, 끌리듯 입맞춤하는 둘.

기이하리만치 크고 밝은 보름달 아래서.

FADE OUT.

#58. 스튜디오/카페(아침)

도완, 1층 오픈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려는데, 지원 다가오는

지원 (미소) 어젠 내가 좀 감정적이었지? 미안.

도완 아냐

지원 아직도 빼졌구나~ 이럴 땐 꼭 애 갈다니가, 그게 오빠 매력이지.

(웃는) 사과의 의미로 커피는 내가 살게.

오빠들은 아메리카노고, 다해 씨는 뭐 마시지? (전화하려는 데)

도완 (직원에게) 하나는 버블티로 주세요, 펄 추가해서.

지원 ...다정해졌네 오빠. (웃는데, 묘하다)

#59. 스튜디오/화장실(아침)

세면대에서 손 닦던 다해, 문득 거울 보다 자신의 입술에 손댄 채 서 있는데

화장실 들어오는 지원. 다해 옆에 서서 화장을 고친다.

지원 더빙 합 맞추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아쉽다.
 다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원 (특) 도완 오빠, 어때요? 요새 둘이 친하던데.
 다해 (보면)
 지원 내가 도완 오빠 일에 관심이 좀 많아서요. (웃는)
 괜찮으면 내가 다리 놔줄까 하는데. 오빠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다해 동네가 같아서 오며 가며 마주치는 정도예요. (인사하고 가려는데)
 지원 도완 오빠랑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지요?
 다해 (멈칫)
 지원 가끔 봐요, 오빠의 무심함에 끌리는 사람들. 근데 이름조차도 기억
 못하는 그 무심함에 상처받고 떠나죠. 다해 씨도 그럴까 봐 걱정돼요.
 다해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원 혹시 장난삼아 혼드는 거면 그만뒤요, 그건 내가 못 보니까. (가는)
 다해 (나가는 지원 보는)

#60. 스튜디오/더빙실(낮)

녹음 부스에서 합 더빙 중인 지원과 다해.

지원 (대사) 그 앨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야.
 내 온 마음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다해 (지원 보는)
 지원 (대사) 그래서 친구란 이름으로라도 조금 더 옆에 있고 싶어.
 다해 (대사) ...옆에 있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옆에 두고 싶은 거겠지.
 지원 (...?)
 도완 ? (대본 보면, 대사 다르다)
 다해 그건 우정도 사랑도 아니고, 그냥 사람 마음 갖고 장난하는 거야.
 (지원 보며) 진짜 장난삼아 혼드는 게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어.
 지원 ...!!

도완 !
 김 피디 (도완 보며) 다해 씨 오역 대본 나갔나 본데?
 도완 (허둥, 토크백에 대고) 호, 홀드! 잠깐 쉽니다.
 지원 (굳은 얼굴로 나가버린다)
 도완 (당황해 다해 보는 데서)

#61. 스튜디오/옥상(낮)

다해와 도완, 마주 보고 있다.

다해 죄송합니다.
 도완 (화가 난)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다해 ...그냥 화가 났어요.
 도완 내 연애 존중한다며, 그럼 그냥 보고만 있어요!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건데요, 왜 자꾸 내 일에 끼어드는 건데?
 다해 좋아해서요.
 도완 (보면)
 다해 좋아해서, 그래서 마음이 아파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그랬어요.
 도완 내가 말했지요, 선 넘지 말라고. (보는) 그쪽 저랑 뭐 있어요?
 다해 ! (도완 똑바로 보면)
 도완 어, 어제 일로 그러나 본데 어젠 달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잠깐 감상에 빠진 거예요.
 다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도완 네.
 다해 (아프다) 와...최악이다, 장도완 씨. 난 사랑에 쉽게 빠져도 그때만큼은
 내 감정에 진심이에요, 당신처럼 스스로를 속이진 않는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정지원과 당신이 다를 게 뭔데?
 도완 (말문 막힌)
 다해 궁금하고, 보고 싶고, 끌리고, 오래 같이 있고 싶은 거,
 니가 어제 나에게 보여준 그거, 그게 좋아하는 거잖아!

도완 (얼버무리듯) 내가 몇 살이나 윈데 그렇게 반말이...세요?
 다해 (화가 나, 도완의 정강이 세계 걸어찬다)
 도완 (악-! 지르며 다리 잡고 주저앉는)
 다해 좋으면 좋다고, 그 나이 먹도록 그 말 하나를 똑바로 못하니?!

다해, 상기된 얼굴로 옥상 내려간다. 머쓱해진 도완,
 괜히 아픈 다리 주무르며 가는 다해를 본다.

#62. 도완 집 앞(낮)

도완 부, 집을 나서는데 오 여사(60대, 여)와 마주친다.

도완 부 오 여사님이 여긴 어쩐 일로...
 오 여사 (반가운) 맞게 찾아왔네요~ 불링장 로커 교체하는데 장 선생님 것만
 남아서요. (쇼핑백 준다) 요새 통 안 보이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도완 부 (쇼핑백 안을 보면, 다해 모가 골라준 불링화 들어 있다)
 죄송하지만 이거 그냥 버려주세요, 이제 전 필요 없습니다.
 오 여사 ...신발에 찼던 마음 거두는 건 선생님이 직접 하셔야지요. 그리고
 훌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클럽 나오세요. (보며) 뵙고 싶습니다.
 도완 부 (그제야 오 여사 제대로 보면)
 오 여사 (도완 부 보고 미소)

#63. 교차. 스튜디오 편집실+다해 방

— 편집실
 <신소녀> 편집 마무리한다. “끝났다~” 소리 지르며 일어나는 스태프들.

— 다해 방
 다해, 박스에 짐을 정리하고 있다. <신소녀> 대본을 잡는 다해.

— 편집실
 마지막으로 나오며 VCR 끄는 도완의 텅 빈 눈빛.

— 다해 방
 잠시 대본 바라보다 상자에 넣는 다해. 박스 상자 닫히며 FADE OUT.

#64. 펍 안(저녁)

도완, 성준, 김 피디, 스태프1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다.

김 피디 이제 좀 쉬려나~ 근데 시원섭섭하네, 애인이랑 헤어진 것같이.
 스태프1 애인 없잖아요.
 김 피디 (짜려보며)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야, 나만 없냐? 여기 다 없지.
 성준 (웃으며 맥주 마시는)
 김 피디 어, 뭐야 너? (하다) 참, 도완이가 해준단던 소개팅은 어떻게 돼가냐?
 도완 그게 아직 그쪽에 말을 못 전해서. (하는데)
 성준 형, 저 소개팅 안 해요. (보며) 관심 가는 여자 생겼거든요.
 도완 어... 잘됐네.
 김 피디 너나 누구 좀 만날 생각해~ 아직도 메텔 타령이지, 미련한 놈.
 도완 ... (맥주 마시는)

#65. 몽타주

— 편의점 앞
 앞 지나던 도완, 잠시 멈추고 편의점 안을 슬쩍 보다가 시무룩. 다시 간다.

— 옥상
 혼자 빨래 널던 도완, 문득 옆의 빈 빨랫줄 멍하니 바라본다.

— 도완 집(저녁)

도완, 집 들어오면 캄캄한 거실이다. 도완 부 방 문 여는데 아무도 없는.
냉장고에서 캔맥주 꺼내 식탁에 앉아 혼자 마시는 도완.

#66. 스튜디오/사무실(낮)

맥없이 책상에 엎드린 도완, 책상 위 화분을 골똘히 보고 있다.

봉오리가 피려 한다. 환상. 꽃봉오리에서 꽃 피는데 꽃 안에 ‘엄지공주’처럼

다해가 있다! 링크하는. 도완, 놀라 눈 비비고 다시 보는데, 다해 없다.

흠린 듯 봉오리 핀 꽃을 보는. 핸드폰으로 꽃을 사진 찍는 도완,

잠시 망설이다 다해 카톡 채팅창에 꽃 사진과 함께 카톡 보낸다.

(핸드폰 보면) ‘꽃이 폼이요’ 또 뭐라고 쓰고는 보낼까 말까 망설이다,

눈 질끈 감고 ‘보내기’ 누르는 도완.

핸드폰 보면. ‘신소녀’ 극장판 같이 보러 갈래요?’

#67. 도완 집 앞/주차장(저녁)

주차하고 핸드폰 보는 도완, 다해 안 읽었는지 채팅창에 ‘1’ 떠 있다. 실망하는.

그때 저쪽에서 핸드폰 보며 오고 있는 다해. 도완 다해에게 다가가려는데

성준 (다해 앞에 나타나는) 왜 이렇게 늦게 다녀요, 위험하게~

다해 (성준 본) ?!

도완 (성준 보고 놀란, 주차된 차들 사이에 몸 숨기는)

성준 도완이 형에게 같은 동네 산다는 말 들었거든요. 예전에 형 집에
놀러 왔던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웃는) 여기 맞네요.

다해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성준 얼굴 보고 할 말이 있어서요.

(보는) 다해 씨, 저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요?

제가 요새 다해 씨한테 관심이 아주 많거든요.

다해 (놀란)

놀란 도완, 주차장 차들 사이에 찌그러지듯 쪼그러 앉는다.

아차 싶어 급히 다해에게 보낸 카톡 지우려는데 이미 읽은 표시...

쭉팔리고 괴로워 고개 꼭 숙이는.

#68. 스튜디오/더빙실(낮)

다큐멘터리 녹음 중이다. 도완, 눈 가늘게 뜨고 녹음 부스 안의 성준을 본다.

깔끔한 차림, 부드러운 목소리로 더빙 중인 성준. 부스 유리에 비친

초췌한 자신을 보던 도완, 믹서 주변을 괜히 서성이다 나가는.

성준 (마지막 멘트 한다)

김 피디 컷! 수고했어 (믹서로 가는데, 지르는) 아씨~ 누가 녹음 코드 빼놨어?!

#69. 도완 방(저녁)

시무룩하게 핸드폰 보는 도완의 시선 따라가면, 답 없는 다해와의 채팅창이다.

다해의 카톡 프로필 사진 보면 무의미한 풍경 사진인데.

그때, 다른 채팅창 뜬다.

지원 (채팅창) 오빠 ‘신소녀’ 언론시사회 끝나고 저녁 같이 먹자.

도완 (보는)

지원 (채팅창) 우리 처음 시사회장 같이 갔을 때 생각나네...

도완 (보는)

진지하게 핸드폰에 뭔가 입력하는 도완의 눈 따라가면

인터넷 검색창— ‘프로필사진이 풍경 사진인 건 무슨 의미인가요?’

도완 부 (문 열며) 집에 있었나?
 도완 (시선 핸드폰에 둔 채) 네.
 도완 부 심심하면 같이 한 게임 치러 갈 테냐?
 도완 (멈칫, 도완 부 보는 데서)

#70. 볼링장(밤)

심야의 볼링장, 도완과 도완 부뿐이다.

도완 (공 잡으며) 어쩐 일이세요, 다시는 볼링 안 할 거처럼 구시더니.
 도완 부 그런 거지 뭐. (공 고르며, 툭) 아버지 연애한다.
 도완 (불길한) 혹시...
 도완 부 오 여사라고 동호회 오며 가며 알던 사인데, 그렇게 됐다~
 도완 네? (헛웃음) 권 여사님 때문에 힘들어하시던 게 얼마나 됐다고.
 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다 쉬워요?
 도완 부 어려울 건 뭐냐? 사람이 사람 좋다는데. 모임에 다른 남자도 많은데
 그중에 내가 좋단다, 오 여사님이. 내가 뭐라고...
 (도완에게 핸드폰 내밀며) 어떠냐, 이쁘지?
 (도완 부와 오 여사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 푸근한 인상의 오 여사)
 도완 미인이시네.
 도완 부 그치? 옛날에 니가 맨날 보던 그 만화 여주인공하고 똑같지?
 도완 에이 아버지, 그건 아니지요. (공 잡고 던지려는)
 도완 부 뭐가 아냐~ 똑같은데. 잘 봐봐, 니 엄마랑도 똑 닮았잖아.
 도완 ...?! (당황한, 엉겁결에 공을 놓친다)
 도완 부 사랑하고 볼링하고 공통점이 뭐 줄 아냐? (보며) 빠지면 답도 없다~

놓친 도완의 공, 레인 옆 도랑으로 빠진다.

속절없이 도랑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을 멍하니 보는 도완에서.

#71. 재활용 수거장(아침)

다해 재활용 버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도완, 옆에서 재활용 버리는.

도완 (다해 보며) 툭 읽어놓고 왜 답이 없습니까?
 다해 (재활용 버리며) 제 맘인데요.
 도완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요? (다가가 핸드폰 사진 보이며)
 봐요, 꽃이 폼났어요! 나 좋다고 이 화분 선물 줄 때는 언제고.
 다해 (도완 보며, 담담) 저 이제 감독님 그만 좋아하려고요.
 도완 ! (따지듯) 아니, 왜요?
 다해 네?
 도완 (민망하다, 고개 돌리는)
 다해 (재활용 버리며) 제가 좋아한 거 많이 싫으셨죠? 감독님 말이 맞아요.
 제 감정에만 충실했지 상대방 기분은 생각 못 했어요.
 시간을 갖고 제 연애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려고요.
 도완 뭐 이런 말을 쓰레기 버리면서 합니까?
 다해 그동안 맘대로 좋아해서 죄송했어요. (인사하고, 가는)
 도완 (가는 다해를 상실감에 보는 데서)

#72. 거리(저녁)

먹거리 골목 일각. 인형 뽑기 기계 앞에 붙어서 열중하는 도완과 김 피디.
 입구 턱에 걸린 인형이 나올 듯 안 나오며 돈을 잡아먹고 있다.
 열 올리는 돌.

도완 ...성준이는?
 김 피디 개 바빠~ 관심 가는 여자 있잖아, 내일 그 여자랑 컷 데이트래.
 도완 (놀라서 보며)
 김 피디 (웃으며) 그 자식 애기인 줄 알았더니 다 키웠어, 너보다 나아~
 도완 뭐가?

김 피디 ? (보면)

도완 (발끈) 개가 나보다 뭐가 낫냐고?!

뽕기 기계를 발로 차는 도완, 걸려 있던 인형이 툭 떨어져 뽕혀 나온다.

뽕힌 인형 들고는 씩씩거리며 가는 도완, 김 피디 도완을 빙찌게 보는 데서.

#73. 도로(낮)

도완 급히 운전 중이다. 계기판 시계 보며 초조한 도완, 다리도 심하게 떠는.

안 되겠다 싶은지 급히 차 유턴해 다해의 집 향하는 도완.

JUMP

도완 차 신호 걸려 정차하는데, 맞은편 도로 버스정류장에 다해 서 있다.

다해 발견한 도완, 원피스 입은 다해를 멍멍하게 바라본다.

몰랐다... 저렇게 예쁜지. 신호 바뀌어 급히 출발하려는데,

(E) 쿵!— 뒤차가 도완의 차를 박는다. 급한 도완은 그냥 가려는데,

차에서 내리더니 도완의 차창 두들기는 뒤차 주인.

뒤차 아 죄송합니다~

도완 괜찮아요 (출발하려는데)

뒤차 에이~ 그건 아니죠 (핸드폰으로 차 접촉면 사진 찍어대는)

괜찮다고 해놓고 나중에 뒤집어씌우시면 어찌려고.

도완 (미치겠다, 내리는) 그냥 가셔도 된다니까요.

도완, 초조해서 맞은편 정류장 쪽 보는데

다해 앞으로 서는 승용차 한 대, 성준이다.

도완 (! 차에 오르려는데)

뒤차 (도완 잡고, 전화) 아빠, 뒤차가 박으면 백 프로야, 반반이야?

다해, 성준의 차 조수석에 탄다. 차 출발하는.

도완 ...! (절망으로 보는)

뒤차 합의되는지 물어보라는데.

도완 (울먹) 놓쳤잖아요! 이번엔 진짜 안 놓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잡으려고 했는데...! (차에 팔 대고 얼굴을 묻는다)

뒤차 (어리둥절 도완 본다)

#74. 도완 집 앞(저녁)

집으로 향하는 언덕길 터덜터덜 오르던 도완, 빌라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불 꺼진 다해 방 창문을 올려다보는 도완의 얼굴 위로

INSERT

다해가 도완을 좋아했던 장면이 다해 시선으로 보여진다.

— 더빙실

자신의 더빙을 듣고 만족하는 도완 보며 기쁜 다해.

— 옥상

자신의 마음을 들키고, 널린 빨래 뒤에서 창피해하는 다해.

— 편의점 앞

지원의 전화 받고 달려가는 도완의 뒷모습 슬프게 바라보는 다해.

— 더빙실

지원을 바라보는 도완, 그런 도완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다해.

— 집 앞

도완의 불 꺼진 방을 물끄러미 올려다보는 다해.

먹먹해지는 도완. 다해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는지 알 것 같다.
도완 머리 위엔 쓸쓸하게 초승달이 떠 있다.

#75. 거리(저녁)

퇴근하는 도완,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멈춘다.
앞에 붙은 이벤트 포스터 보면
'햄버거 세트 구입 시 <신소녀> 캐릭터 피규어 랜덤박스 드립니다'

#76. 도완 집/옥상(해 질 녘)

빨랫줄에 빨래 걸다 문득 옆에 빈 빨랫줄을 멍하니 바라보는 다해.
다해가 있는 곳 반대편 옥상으로 시선 이동하면
평상에 앉아 햄버거 사은품 랜덤박스 뜯는 도완, 이미 빈 박스들 쌓여 있다.
막 뜯은 박스에서 다해의 캐릭터 '미아'가 나온다. 환히 웃는 도완.
같은 장소, 다른 구획에 있는 다해와 도완의 모습이 한 하늘 아래 보인다.

#77. 도완 집 앞(낮)

나들이 복장의 도완 부와 다해 모, 빌라 나서다 마주친다. 어색한.

다해 모 어디 가시나 봐요.
도완 부 예. 날이 좋아서 꽃구경 갑니다.
다해 모 저도요 (전화 온다, 인사하며)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도완 부 (가는 다해 모 담담하게 보는데 전화 온다, 받는다)
예, 오 여사님~ 지금 나왔습니다. (웃는) 그럼~ 나도 그거 신었지!

할짝 웃으며 다해 모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도완 부의 발걸음으로 시선 옮기면,

새로 산 하얀 운동화가 눈부시다.

#78. 스튜디오/회의실(낮)

도완, 회의 끝내고 일어나는데 관계자(#1) 들어온다.

관계자 장 감독 아직 시사회장 안 갔네! 잘 됐다, 안 그래도 할 얘기가 있어.
다음에 들어가는 극장판 있지? 거기에 요새 잘 나가는...
도완 (O.L.) 안 됩니다, 이미 성우 구성 다 했어요.
관계자 하나만 바꿔줘~ 단역이야.
도완 주연이고 단역이고 그대로 갈 겁니다. (인사하고 나가려는데)
관계자 야!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감독이 너 하나야?
애니메이션 더빙이 무슨 예술작품도 아니고.
도완 (보며) 더빙이 예술작품인 거 모르셨어요?
어디 그럼 다른 감독 알아보세요, 저만한 사람이 있나 모르겠지만.

회의실 나가는 도완, 험해서 보는 관계자와 놀란 스태프 등에서.

#79. 도로/도완 차 안(낮)

운전 중인 도완. 대시보드 위에 '미아' 피규어가 놓여 있다.
라디오 주파수 돌리던 도완, 어느 채널에서 가웃하더니 음량 키운다.
라디오 광고 속 맑은 다해의 목소리 알아들은 도완, 환히 미소 짓는다.
'미아' 피규어의 고개가 기분 좋게 까딱까딱— 흔들린다.

#80. 영화관(오후)

<신소녀> 언론시사회다. 도완과 지원, 성준, 가수 유나가 무대 위에 있다.

기자들의 셔터 유나를 중심으로 터지고, 웃으며 손 흔드는 유나.
도완과 출연 성우들에게 질문과 답변 오고 간다. 도완에게 질문하는 한 기자.

기자 감독님은 이 작품이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완 (생각하다) 이 작품은 놓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소중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에게 그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이, 였구요.
...사랑받는다든 건 참 행복한 거예요, 주기만 하는 사랑은 미련하죠.
지원 (미소 거두고 도완 보면)
도완 지금 그냥 사랑하세요. 너무 애쓰지 말고.

#81. 편의점 앞(저녁)

편의점 지나치는 도완의 차. 차창 열고 편의점 보면, 다해가 없다.
핸드폰 들고 다해 번호 누르려던 도완, 망설이는 도완의 얼굴 위로

INSERT
웃으며 성준 차에 오르는 다해.

핸드폰 내려놓는 도완, 기운 없이 핸들을 돌린다.

#82. 도완 집 앞(저녁)

다해와 성준, 빌라 앞 주차장에 마주 서 있다.

다해 (성준에게 영화표 건네준다) 죄송해요.
성준 ... (받으며) 뭐 예상은 했어요. 다해 씨, 좋아하는 사람 있지요?
다해 (망설이다, 끄덕이다)
성준 부럽네요 그 남자. 다해 씨랑 있으면 왠지 매일 즐거울 거 같거든요.
다해 (왈각 눈물)

성준 (놀란) 왜 그래요?
다해 난 정말 똥멍청이인가 봐요.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날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 이름도 기억 못 하는데 ...왜... (우는)
성준 다해 씨... (다해 어깨를 잡는데)

그때, 빌라로 들어서는 도완의 차. 성준 앞에서 울고 있는 다해 봤다!

도완 ! (창밖으로 머리 내밀고) 저, 저, 저... (하다, 지르는) 은다해~~~~!!!
다해 (놀라 돌아보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도완의 차, 옆 차(다해 차)에 바짝 댄 채 문 활—어는데
도완 차 문 쪽에 주차된 다해 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강타당한다.
또 부서진 다해 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E) 뻘뻘!—! 경보음이 시끄럽게 울린다.
도완과 다해, 황당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데서.

#83. 지구대 안(밤)

조서 작성 중인 순경1 앞에 나란히 앉은 도완과 다해.

순경1 이웃이라고 하셨지요? 서로 좋게 합의 보시면 되겠네~
다해 제 차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무슨 불만 있으세요?
도완 (O.L.) 왜 울었어요, 성준이 때문이에요?
다해 (황당해) 무슨 상관이에요, 남이 울건 말건.
도완 (보면)
다해 말했잖아요, 감독님 그만 좋아하고 제 연애관을 다시 돌아볼 거라고.
도완 다해 씨 연애관이 뭐 어때서요, 그게 다해 씨인데.
다해 (혼란스럽다, 보며) 감독님, 저 좋아하세요?
도완 ...티 납니까?
다해 (끄덕)

순경 (짜증) 아니 합의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도완 해주지 마세요, 자주 봐야 하니까.
다해 누구 맘대로요. (벌떡 일어나) 저 합의 바로 합니다, 해요!
도완 (저도 일어나) 제 맘대로요! 다해 씨도 제 허락 없이 막 들이댔잖아요,
이제 저도 티 나게 막 들이댈 거예요!
다해 (황당하게 보다, 픽 웃는)
도완 (부끄러워하다, 툭) 하고 싶은 거 다해 씨,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다해, 망설이다 핸드폰 켜다. 도완의 채팅 글에 답하는. 채팅창 보면.

도완 나랑 같이 <신소녀> 극장판 보러 갈래요?

다해 네.

도완과 다해, 서로를 보며 미소 짓는다.

지구대 밖. 하늘엔 옥상에서의 그날처럼 유난히 큰 보름달이 떠 있다.

끝.

작가 후기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드라마를 쓰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대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이야기를 괴롭게 써나가는 날들이 이어지고 주인공들의 행보가 점점 낯설게 느껴지면서 결국 이 감정들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긴 오만함을 반성하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물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그리고 작품집 수정을 위해 오랜만에 대본을 접한 지금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이야기에 공감할까?’

도완이와 다해의 감정을 따라가며 여러 번 수정해보았지만 아무래도

이 둘의 서툰 세상을 처음 들여다보았을 때 느낌을 버리고 싶지 않아 초고를 올립니다.

밀도 있는 조연 주신 센터장님, 항상 응원해주신 임고는 과장님,

다각도의 시선을 일깨워주신 이향희 작가님, 그리고 오픈 동기들, 스터디 친구들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를 지지하며 기도해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가깝지도 않은 오픈 센터를 거의 매일 나갔던 건, 사실 ‘작가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게

좋아서였습니다. 오픈에 와서만 들을 수 있는 이 기분 좋은 호칭을 세상 밖에서도

계속 들으려면 저는 정말 열심히 써야 할 거 같습니다. 작품 속 세상은 작가의 세상과 닮아

있다고 하는데, 부디 저의 세상이 완벽하기엔 부족할지라도 지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1 오픈 작품집 단막 하

초판 발행.

2021년 12월 10일

글. 유민정, 유수미, 이경완, 이이영
이찬영, 최보배, 최시은, 한연주

제작. 오픈

디자인. 권수진

교정 및 교열. 박은경

인쇄. 책공감

발행처. (주)씨제이이엔엠

발행인. 강호성

등록번호. 제 2015-000016호

등록일자. 2015년 1월 13일

주소. 서울시 서초구 과천대로 870-13, 1층

전화. 02-371-9211

ISBN 979-11-972691-3-4 (03680)

© CJ ENM, 2021

이 책의 모든 내용은 CJ ENM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ISBN 979-11-972691-4-1 (03680)